

원리원본
(原理原本)

원리원본 (原理原本)

하나에서부터 전 존재로

태초는 즉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가 즉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의 존재야말로 무한소에서 무한대의 존재의 근본이다. 이 하나의 근본이 전체의 근본이요 또 전체의 중심이요 또 전 작용의 외력에 대한 평형의 기본지점이다.

우리가 현 과학 시대에 처하는 생활 과정에서 수학을 떠나서는 그 기본 발전의 궤도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현실사회의 구성의 기초도 수의 단위이던 하나를 중심으로 그 중심을 주로 삼고 전개시켜 대수의 실체를 자아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무슨 존재의 근본을 세우기 위하여는 하나의 존재의 확정적 존립이 중대한 것이다. 이 존재가 결정되면 다시금 하나로부터 증수의 증대 요소를 가감조합하여 나아가는데 발전이 있는 것이며 발달이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의 근본을 유측하려 할 적에 하나 되는 단위적 근본이 절대 중요 요구 요소다. 이 요소의 결정은 우리와 증대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외부 동작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바이다.

이 근본이, 즉 외부의 동작을 자유 궤도로 옮겨주는 중심점이다. 이 중심점이 공식의 근본 단위이며 타사 물체에 미치는 제일 존재이다. 이 존재로부터 제 2 존재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결정적 기본점으로 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 2 존재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제 1존재에 결정적인 단위로 부터 끌을 수 없는 관련된 증수 단위라 할 수 있는 바이다. 이와같이 되니 기본적 단위수로부터 무한수까지의 도달에 진급 과정의 표시가 공식이라 한다. 그렇다면 현 사회의 모든 존재의 자체는 단위를 떠나, 또 공식 원리를 떠나서는 존재의 결정적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현 실체 사회의 모든 사물은 단위를 중심한 공식 발달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20세기 문명도 단위를 중심한 공식 발달이다. 그러나 결정적 논리를 내린다면 현 과학세계는 단위를 토대로 한 공식 발전 세

계이다.

그런고로 사물의 존재를 인정할진대 근본 하나의 단위로부터 증수적 단위까지 일평선 노정을 이탈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일평선 노정이야말로 타 아닌 각 단위의 공통 노정이 됨은 사실인 것이다.

그런고로 이 노정의 어느 부분에 서서 좌우를 혹은 상하를 잡아서 자기 존재를 결정짓고자 할 때는 그 자기는 독립적 존재와 같은 것이다. 실상은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상이 있고 하가 있음을 누구나 부인 못한다.

그렇다면 자아의 좌의 존재와 우의 존재와 또는 상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지금 자아의 결정적 해결을 짓고자 할 적에 좌도 우도 상하 또는 결정적 해결의 간접으로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아와 즉 하나를 중심삼고 고찰하려 할 적에 나 아닌 타의 존재의 확정을 요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고 보니 큰 문제는 자기 하나를 공식에 근본되는 단위의 실격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 요구 조건인데 이 조건을 우리 인생은 즉 나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대 과업이며 의무이다.

이 과업과 의무를 다하는 근본 단위라는 실체를 알게 될 때 타에 대한 근본 실체 단위도 역시 관련적으로 해결됨이 사실이다. 이러니 만유에 있는 존재물은 한 공통 노정을 넘어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공통 노정은 즉 평형선 노정인 동시에 결정적 어떤 존재에도 기본이 되는 안정점이다. 이 점에 도달하여서만이 단수 하나 즉 나로부터 대수 즉 타에 영향이 되는 근본 원리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해결을 완전히 받았다 할진대 그 자체는 무한한 타 자체까지 직결되어 있는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치 못 하였다고 하면 자기는 타 자체에 존재할 수 있는 필요적 요소를 파괴하는 존재이니 어찌 그 범죄적 추궁을 받지 않으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자아에 대하여서 천주(실체세계 우주+ 하늘 무형세계)와 여하한 관계적 입장에 있는가가 해결의 문제인 동시에 일대 고심되는

사실 과업이다.

이상 예를 보면 과학은 유형체를 공식으로 찾은 반면 그 단위가 실체적인 유형의 문제로 그리 어렵지 않으나 우리 인생은 그 외의 무형의 활동 작용을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타력의 힘의 작용과 충동을 부인할 수 없는 순수한 양심적 작용의 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아를 중심하고 어떤 단위를 근본으로 하고 공식적 원리로 나에게 추궁시켜주는 근본 단위체가 되는 제 1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식을 보아 자아의 존재를 표징하게 될 때 자아라는 존재는 벌써 제 2의 존재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양심이 있나니 이 양심이 자아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 못한다. 그렇다면 양심이 말하는 바는 자체 개성 존재와 타성적 존재간에 절대적 단위의 평형선 궤도를 통하여 공동의 이상체를 향하여 어떤 사명적 책임감을 추궁시켜주는 큰 힘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 본체를 인간의 근본 단위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세밀하고 고상한 존재의 근본이라고 논할 수 있다. 이 존재를 말하기를 양본근본이라고 하거나, 또는 절대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결정적 사실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어떤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대적 공동단위와 같은 공식원리를 향하여 움직여지는 사실이 즉 절대 중심의 힘이요, 모든 이상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절대적 힘을 제1 존재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이 절대적인 힘은 이상 본체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1존재로부터 제2존재, 제3존재 등을 통하여 공통되는 절대 단위체까지, 즉 개성적 절대 단위가 완성할 때까지 힘은 작용하는 바이다. 이 양심에 작용하는 힘을 중심하고 나아가는 무형실체로부터 유형실체으로 평형상충이 없는 노정을 요구하며 나아감을 우리는 감촉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이렇게 실행하면 자아를 완성하는 길인 동시에 좌에 제1존재, 우에 제3존재를 완전 존생시키는 사명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 전례로 잘 알 줄

안다. 이 관련적 노정은 과학세계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원리원칙으로 질서정연한 천주(우주)체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형체의 제1존재(원리)로부터 자아와 제 3 존재 등을 살펴보면 근본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수로부터 복수에로까지 공통적 노정은 무형 세계로부터 유형 세계로까지 유형으로부터 무형으로 한 회로의 통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체세계(유형세계)는 사람과 만물의 전개를 말한다. 이 유형세계는 무형세계의 표시적인 영체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즉 창조적 의의다. 간단히 표시하면 신(하나님)=사람+만물이라고 표시한다.

그렇다면 창조한 의의는 하나님 자체 하나이나 성에서는 양성이었다. 이 하나의 자체인 자아(하나님)를 복수 체계로 벌려놓은 것이 창조적 근본 의의다. 실체세계+사람과 무형세계+하나님과 상대로 되어 전부를 공통하게 하나님의 본의 궤도로서 무에서 유에로 완전히 주고받는 노정이 완전 대상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성 즉 남성 여성 즉 양성 음성의 자체를 무한소에서 무한대까지 벌려놓은 것이 이 천주의 진상이다. 그러므로 무슨 사물체에서라도 이 성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리이니 그것은 근본의 뜻에서부터 시작됨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에서 시작하여 복수로 되었고 이 복수 존재는 다시금 완전한 본성인 완전 단수로 귀인하게 하여 단일 단수로부터 단위 복수로 번식 증대하게 함이 근본 하나님의 이상으로 되었다. 그 이상의 중심점의 사람을 중심하고 천주창조를 하였음을 알게 될 때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중대 문제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 문제는 근본 해결 문제 등으로 결단짓는 바이다.

하나님은 뿌리이고 사람은 줄기와 가지이고 만물은 열매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마음으로 살고 만물들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사람에게 취하게 되어 근본체 하나님의 근본을 돕기 위하여 사람한테 취하게 될 때 하나의 연관 작용은 반복되어 근본 완성을 돕는 것이 창조적 중심 의의다.

이런 창조원리로 되어진 개성진리체인 인간이 찾아 나아가는 진리라는 것

과 그 진리와 하나님과의 이상에 대한 근본 섭리노정을 찾아서 다수가 총결된 단수로 귀결하는 전부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천주도 합하면 동성체로 하나되고 헤치면 무수하게 된다. 이러한 가감함의 묘미가 천주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주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극소로부터 극대까지가 부단히 질서정연한 상대성 창조적 원칙과 대상 원리가 완성으로써 배열됨이, 즉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부터 만물 존재의 근본과 일관통화하여 가감하여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찾아 볼 적에 그 심대 심광 심고한 묘리를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잘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천주 전체는 신묘한 묘리로 전개되나 그 묘리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단위로 되어 동형체로 설 수 있으며 대할 수 있을 적에 무한한 새 진리가 출현됨을 체험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고금을 통하여 새 진리가 다시금 요구되는 바이다.

그 진리본체에 대한 진상에 대하여 체증의 중대성을 요하는 현세계이니 즉 과학적이 요구됨으로, 다시 말하면 공식적 요구가 추구되니 그 진리본체야말로 현실적 입장과 미래에 대한 현실과의 여일한 활미를 부단히 소득케 함이 충분하여야 하되 발전할 수 있는 진미와 충동이나 현실적 자아생활을 통하여 생애를 생존의 이상을 연지함이 없다 할진대 생존의 요소임을 자극 못하나니 그러므로 이 진리 본체야말로 직접인 동시에 이상인 동시에 영원할 수 있는 이상의 실아를 파악하는 공식됨이 중요한 요구의 본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과학적인 원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창조주의 섭리와 인간의 중심으로 되어 만천주의 창조적 의의 등등에 대한 근본문제이며 또 그에 대한 중요 해결이 되나니 그 중요함이 철학의 근본이면서 종교 이념의 극극의 접이면서 만인간이 찾고자 하는 천주의 근본이 되나니 이 근본이 대증 인간이 바라는 바의 이상인 터이며 또 생존의 근본이 됨이니 누가 피할 수 없는 공리이니 그 공리가 바로 우리 전부의 해결을 초래하여 주는 근본 문제다.

그러므로 나는 뭇 인생에게 대하여서 인간이 찾아야 할 증대요소를 세상에 전할려는 바이니 전함을 받은 자는 영을 통하여서 알려지는 사실을 육을 통하여 능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니 그야말로 누가 반박할 수 없는 천리원칙이라, 선과 양심을 사랑하는 사람일진대 본 중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노력이 조금만 있으면 기필코 자명함의 유함으로 누구든지(특히 신앙이상을 바라는 자는 빠름) 해결되므로 결정적인 실체 증거로서 천주이상의 본로를 찾게 될 터이니 어찌 이 근본을 찾지 않으랴.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 진리를 알고 찾는 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기로 하자.

생의 발원은 선유에서부터

그렇다면 진리로 되는 근본체라는 존재에 있어 우리와 제일 문제로 되는 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의 요점으로 전개됨을 피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생하여지는 원인과 생하고 있는 원인과 생할 수 있는 원인 등에 대한 만상체의 근본 원인에 귀인하여 살펴보지 아니 할 수 없다.

이 삼대 원인을 알고자 할 적에 현실적인 유심론적 견지와 유물론적 견지를 살펴서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나니 이 양방향의 전 인류의 이상으로 바라는 종점이 하나로 되어야 할 것이 분기되어지고 있나니 즉 유심론으로는 신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유물론으로는 물질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상극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니 창조의 조화로 된 우주(천주)이나 진화로 조성된 천주(우주)이나가 문제로 되었는데 바이다.

그러하면 생하여지는 문제가 중대 문제다. 천주의 생물이 생하여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구비 조건으로 태양(광) 공기 물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물질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진화적 입장에서 보면 한 생이 존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한 진리구성체로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소생으로부터 장성까지 장성부터 완성까지의 한 일관한 과정을 통하여지는 시기적 이변성으로 보여지는 진화적 법칙 체도를 보여준다. 즉 진화법칙이 있는 바인데 어떤 목적물이 구성될 수 있는 외부적조건, 즉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타 생을 보존시킬 수 있는 제 조건과 요소는 즉 힘과 광(빛) 공기 물 흙 등등의 존재할 수 있는 보장 조건은 무엇 때문인가?

제 조건 등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볼 적에 진화적 법칙은 이변체형을 취하는 자체 외 외부적 제요소 존재까지 창조시켜 가면서 진화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게는 되지 못함을 우리는 속히 관측될 때 진화할 수 있는 외부

적 기존 환경은 여하이 되었는가? 이것이 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니 누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생물은 물론 그외 제사물이 존재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필요조건을 공통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선유존재물이 절대로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생하여지는 원인을 조구하기 위하여서는 이상형으로 생하여질 수 있는 외부력의 보장과 생하고 있는 필요요소의 보장과 생할 수 있는 장래에 불변의 조건의 확보 등등이 요구되니 이 절대적인 힘의 존재와 절대적인 불변요소로 구비됨이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을 불적에 생의 공통적인 요소이면서 필연적 요소로써 인정할 수 있는 동시에 목적완성을 위한 생의 요소적 존재를 확정시킬 수 있는 근본존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불 적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재로서 생존하여 나아가는 데는 이형상태를 볼 수 있나니 부분은 진화적 부분으로 보여지는 바이나 한 부분적으로 소생에서 장성으로 진성되는 것임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한 생물 또는 물체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인 공동단위의 힘과 요소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즉 창조적 조화인 동시에 목적물 근본체라 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 고로 천주 전부 즉 소에서 대까지를 망라하여서 창조적 묘미를 무수히 발전하게 된다. 이 창조적 묘미야말로 원리원칙을 중심하고 절대이상형을 향하여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창조이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천주는 존재하여 나아가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은 즉 절대이상과 창조이상을 완성케하여 주관하는 그 존재가 신이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뜻은 실체만물만상을 주관하여 무형이상인 본경세계에 대한 영상으로 짓고 합류 합화 합체를 이루어 주관을 이상목적하고 이 천주를 창조케 된 이유의 원인이었다. 즉 창조이상목적은 하나님과 천주와 동일체형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이면서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근본의 원리원상으로 표현화하려고 하신 것이 만물창조이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면서 유형의 존재인 생의 근본까지 되어있으며 모든 생물은 하나님 성상대로 지음받고 그 중 전 생물과 만물의 중심은 사람을 표심으로 하여 창조하심이었다. 그러므로 무형 하나님이 좌우하면 사람이 좌우하고 만물 전체가 좌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형 하늘세계를 주관하는 동시 유형실체세계까지 총괄 주관할 하여야 되는데는 실체세계 중심은 사람이니 사람만 주관하면은 만물은 사람으로부터 주관하게 할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할제 하나님이 자기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실체세계 주관완결자로 창조하심이 즉 대신 주관자 확립이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근본 하나님의 동상동성체로 대변격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격과 형상으로나 동체형으로 되어 있기에 주관격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로 되어진다.

그리하여 만물의 주인격 되는 사람은 만물이 구비하고 있는 완성격 요소로도 충분한 구체적 형체로 지었었다. 그러나 그 체인 물체적 존재에 있어서는 만물이 체의 존재적 요소와는 다름 없으나 생심의 존재가 만물보다는 다른 존재였다. 사람도 육신은 만물요소와 별반 차이 없었으나 그 양심적 구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재할 수 있는 존재 즉 생심이 특유점이었다. 이 생심이 성장하여 영체를 이루고 영체는 또 다시금 생명체와 생령체로서 완성되어 직접 신의 지시에 좌우되게 되어 있음이 특유 요점이다.

다른 생물은 육신은 다 갖고 있으나 생심이 없다. 육신에는 육심과 육체가 합하여 동일목적 행동을 하게 되나니 이 작용 부분은 동물성의 본능성이다. 이 본능성은 육신적 활동으로 되어 생존의 지각과 보호의 지각과 번식의 지각 등으로 구분되어서 생존체를 계속하는 바이다. 사람은 이외의 영적작용을 근본하는 영원 존재인 하나님의 부분성 존재를 가졌기에 영원선으로 향하고자 함이 자연작용으로 되어있다.

그는 즉 동성동질자체는 합하려는 음양원인하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물의 생의 주입된 근본은 하나님으로서지만 그 사실적 경로를 찾아보자. 하나님은 생물의 중심 생명의 본체이며 사람은 만물의 중심의 표현체이니 그 요소에 있어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 영원 생명요소도 갖고 능지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그 반면 물질적 부분에는 만물의 요소를 점유하여 있는 중간매개작용을 감당하게 지어졌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과 물을 조합하여 체를 조성하시고 공기와 태양빛을 주어 실체 생의 체 육신에 무형적 영체인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을 주입시켜 심장을 기동하는 작용을 일으켜 생의 기본을 세우셨다. 이 생이 기

존하기 위하여는 유형체의 본질인 흙과 물을 대하여 무형인 무기체인 빛과 공기로서 대하여 음양적 수수적 반복작용인 호흡을 시작하게 하여 원만한 수수작용을 계속하여 생의 유지를 보나니 이 생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된 바이니라.

그리하여 호흡은 생력의 요소를 돕고 즉 혈액을 맑히고 만물 섭취 식물의 영양소는 체를 배양하여 육체에 불균형을 도와 병조병동하여 육신 안전노선을 취하게 하는 호흡으로 산소와 영양소와 원만히 수수작용의 회복을 계속할 때에 여전히 생의 보장을 이루는 바이다.

그 생의 자체인 육신 위에 무형체이며 근본체이신 하나님의 생심의 중심이 되어서 외부체 지구인 육신이 동작과 차이없는 일평선상에서 생심의 요구대로 생존함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이 원만하게 생존하는 것이 근본이며 인생의 창조하신 바의 목적이다.

즉 생심이라고 하는 영소의 부분은 하나님의 몸의 일부분이 번식을 육신을 통하여 배양받게 돼 있는 것이므로 이 생심이 육신 내의 어느 기간까지 장성하여 완성한 영인으로 제2 세계와도 같은 존재인 영인의 무형세계에 한 신격과 같은 자격으로 옮겨지게 하고자 하심이 생심을 육신에 주입하신 근본 목적이다.

그러므로 생심이 육신에 있는 동안은 생심이 중심이 되어 육신을 지배하는 바가 근본인데 육신의 요구대로 나아간다면 생심은 구속받음과 동시에 자유장성을 못하게 되나니 이 자유장성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타락 이후에 시작되었다.

육신생활을 중심한 생애는 영이 성장하는 한 기간의 터인데 영의 요구대로 그 육신의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면 영은 미형체와 자유형체를 조성하게 됨이 원칙인데 육신의 영(생심)을 반하여서 지내면 영체는 흠이 많은 동시에 자유없는 영체로서 되나니 그런 고로 사람은 육신 생전에 충분히 영체의 요소를 취하게 하는 생애의 목적이 생전의 중요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락된 세계에는 도를 통하여 영체의 자유성장을 배양하려는 것이 기본 공작이다.

예를 들면 육신은 채소밭에 있는 청충의 시대와 같은 것이다. 이 청충의

시기에 충분히 영양요소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 충분히 취하였다면 원만이 성장하여 충실한 나비로서 무한대공을 자유천지로서 향화감미를 즐겨 활동 하련만 청충시대에 영양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였다면 나비는 자체에 불구의 상태를 주어 본 목적을 성취 못함과 같이 우리 육신 때는 영심의 요구를 중심하고 나아가는 육신은 청충시기에 영양을 잘 취한 나비와 한가지로 우리의 영체가 미형체면서 자유형체를 구비하여 무한이상경무대를 활동하게 되는 것이 충실하다.

이와 동일한 모양으로 육신의 시에 노력이 영체의 요구대로 나아가는 바가 절대적 의무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이 육신을 지배함의 근본된 원리로 되어 있음을 아니 우리 영체의 요구에 육신이 동일행동하여 차이없는 생활을 육신생전에 하여야 할 의무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영체의 터로써 지어 자기의 이상번식을 시작하게 하고자 함이 근본인 간창조의 원인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생전에 영체의 원하는 중심점에서 식생활을 하여 창조 본체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의를 완성하여서 천주의 대이상을 충분히 완성시키는데 사람은 중심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람은 온천주에 있어서 중심으로 되었었다. 즉 만물의 생물은 사람을 기준 삼고 지음받은 동시에 만물을 보아서 사람은 행복과 이상생활에 자극 받고 살게끔 만물은 위로물로 되어있어 사람의 생의 생활이 상호협조하는 작용을 갖추어서 원만히 생존하게끔 되었었다.

그러므로 모든 식물은 우리의 육신의 생을 돕기 위해 산소를 배양하고 사람과 동물은 식물의 성장요소인 탄소를 공급하여서 생의 요소를 수수하는 협조 작용을 도우는 그 이치는 근본창조하심의 일체를 완성하려는 상대될 수 있는 대상존재를 확정짓는 사실이다. 그 외 동물과 생물(곤충)은 우리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상형의 한 표형을 보여주어 위로와 충동과 자극을 받게끔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없었으면 만물만상을 보아 자아생존생활에 큰 흥미와 행복 됨을 절감하게끔 전우주만상은 표징의 위로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타락되고 보니 만물만상으로 하여금 전하여 주는 위로의 대상이 취하는 그의 요구의 목적을 직접 대할 수 없는 무감각의 존재로 되어 있음을 자각치 못하니 그 어찌 본 창조이상의 위로적 대상존재인

만물만상에 대하여 연관성을 알지 못하게 되니 인간이 역시 무의미로 보여 주며 동시에 만물자체에 대한 보호성과 가치성을 몰라주니 만물의 존재의 근본창조 의의도 파괴하는 작용이 시작되니 만물의 존재의 근본 목적은 아무런 사명적 역할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몰각하는 생활은 즉 타락생활을 하고 나니 전 우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동하여서 협조이상을 완성하여 사람도 만물로서 인간 이상을 표징시켜서 하늘의 이상을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 제일 이상 작용을 파괴하게 되니 제일 이상 실념인 하늘의 이상도 나와 화동의 작용을 합성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니 이 어찌 무서운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 하나 타락되고 보니 만물의 목적이 무가치 존재로 타락체를 받게 되고 그러고 보니 하늘과의 대상형 이상 근본도 그 목적을 완전히 계승 못하게 되니 하늘에 대한 타락을 초래한 중심체형으로 되었으니 인간 타락은 즉 만물 타락 또 하늘 타락으로 간접적 행동으로부터 직접적 행동의 부분까지 범행한 사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것이 인간 중심의 책임과업이다. 그러기에 온천주는 탄식의 기인을 가져온 바다. 성경에도(로마 8장 19절~27절까지) 만물 탄식, 성도 탄식, 하늘 탄식의 시작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시작된 바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야말로 천주는 전부가 이상 실행 생활로 안정된 영원한 행복생활을 육신생전부터 시작케 될 것이었겠는데 타락됨이 우리 전체 생활을 구속생활로 인도함이 지금 인간 생활의 전현적 표현이다.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동화적 근본 의의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무형의 자체가 유형의 성체로 전개시켜 놓은 것이며 그의 각 개성체가 사람의 성품자체를 표본삼고 지었으며 그 사람은 다시금 생심을 증심하고 무형의 본형체으로 환존하게 하려는 제일존재세계를 부여 하심이 근본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증심하고 하나님 자신이 무형체에서 유형체로 표성 하고자 함이며 그 사람이 다시금 무형체로 환존할 수 있는 원리로서 창조하심이 근본 증심목적이다.

하나님 = 사람 + 만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 영인 + 육신이다.

영인은 무형체이면서 영원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이니 그도 영원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영인을 완성하는 데는 육신을 터로 주어서 소생으로부터 장성케 함이 목적이다. 육체는 만물의 생에 체의 요소를 취하게 함이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나니 육체인 유기체는 육심으로 인하여 그 기체에 완전존재체형을 보장키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리하여 생심은 육심의 이상형체계로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 그 이상체계를 탈선 못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생심은 육신 배양상 즉 생심이 본 노선으로 이끌고자 함이고 육신은 타락성을 받고 있으며 본노상을 반하여 행동하고자 함이다.

사탄의 작용하는 것은 즉 육신을 통하여 본능적 기관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활동무대로 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생물은 근본생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생력은 완전히 계속 작용을 하여야 만이 생존이란 조건이 성립되는 바이다. 즉 육신이 생하려면 유기체로 식물을 무기체로 공기와 태양을 받아 호흡기동으로부터 심장기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힘을 주입받아 생의 기동을 받음이다.

생이 계속하려면 사람에게 육신에서는 호흡을 통하여 피를 맑히는 작용과 피를 공급하는 작용의 공통적 병조병행하여 수수작용을 계속하여야 하는 동시에 생심에 있어도 또한 실체적과 동일한 제이작용을 요하는 바로 되었다. 즉 생심은 육신이 거하는 작용을 보장한 그 위에 제2작용을 계속하는 바인데 그것은 육신의 생심의 영양과 같은 것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영양은 생심의 생존할 수 있는 필요소를 수급하여야 하는데는 생심의 성장할 수 있는 필요적 요소야만 된다. 이 필요적 요소로 되기 위해서는 생심이 반하는 요소를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입장에서 육신 생의 보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보장되는 육신 생력요소는 생심요소의 피의 작용과 같은 작용으로 되어 생심의 생의 근본되는 무형세계의 생소를 호흡하여서 육신으로 받

은 생력요소와 합하여서 완전 수수작용의 보장이 근본적으로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간은 무형세계의 생의 이상요소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근본이고 이를 협조병조하여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와의 공생기준점으로 시작됨을 알아야만 된다. 사람은 유형생에서 무형생의 세계까지 호흡하여 생의 근본요소를 받고 있음으로 이 두 작용을 우리는 아(나) 한 개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바이다. 즉 무형의 요소의 성장이 요구되는 충당은 원만 양심노상에서만 시작되는 바의 원리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작용은 나를 이기는 힘으로 현실체 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의 실감력의 양심의 활동인식이다. 사람의 가치는 이 근본체와 합할 수 있는 영원생 요소를 가짐이고 단 만물은 만물생력이 작용할 수 있는 필요요소를 자연계를 통하여 수수하는 작용 생의 계속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생하다가 죽으면 자연계로 환원함이고 사람은 만물보다는 제2환원 생이 존재이므로 죽으면 후생이라는 것의 시정되는 바이다.

그래 우리 말에 죽은 것을 돌아갔다는 격언은 이것을 양심직고하는 제2환원생을 증거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영원성이상을 통함으로 그 양심고백의 말은 현세계의 사실적 실체를 예증함을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락된 세상에서도 된다 된다 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근본 생심작용의 영원본체와 연결하여 그의 계획적 노정을 예감하는 표시로서 되는 예고적 사실을 우리 생애노정에서 많이 보는 사실이다. 이는 사람이 영원히 존재 할 수 있는 제일존재의 실체의 확정적 존재를 명백히 알려주는 간접적 증거의 표시다.

영인세계와 실체인세계와의 상대적 창조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로부터 분립성으로 표현하심의 창조에는 남성 여성 즉 양성과 음성, 이는 수수작용 성품이 완전히 존립됨에서만 생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한 존재의 즉 상대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한 존재를 다시금 분석하여 보면 그 한 존재 각자에도 이성형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한 존재 가운데는 그 본체인 형상인 영체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각 부분이면 부분에서 상대적 회로적 유기점을 중심으로 작용의 시작 또는 작용 전달 시작 등이 기초로 되어 있음을 우리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그 자체 중에 하나님 본성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천주의 창조원리를 구분 분별으로써 전체 구성이 표시 발견할 수 있는 조화의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로부터 이와 같이 창조하시는 것인가. 본래 사람은 천우주의 중심이다. 표현화된 연결성이 표시되었다. 즉 사람은 실체 생존을 유지하려면 내 한 자체에서 세 부분에 생의 기동작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즉 위의 작용, 심장작용, 호흡작용 등이다. 그 외의 한 대상된 존재로서 신경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를 중심으로 보면 외부로부터 식물을 받아 영양소를 공급하여 피를 돕고 즉 받았으니 주는 작용이며 또 심장은 피를 받아 들여 쓰니 내보내는 작용 등이다.

전부는 수수작용을 원만하게 하여야 만이 생의 한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체를 가질 수 있다. 이 사람 실체 존재와 영인 존재와는 한 작용법칙과 같은 원리로서 표징되어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육신이 살려면 위부분의 동적 작용과 심장의 동적 작용과 폐의 동적 작용이 동일하게 병동병조하는 노선에만의 기관동력본부인 심장을 기동함의 시작을 보게 되나니라. 이 시작은 외부로부터 완전보유하여 주는 무대는 ①위를 취하는 실체만물존재 ②그 외는 무형세계에 한 표시적 존재인 공중세계로부터 취하는 호흡의 작용 또는 광선의 작용 등이 구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구비체는 창조시부터 우리 영인세계에서도 이 상대될 수 있는 환경적 구비존재를 상징시킨 바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이 생하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만물의 은혜와 공중의 은혜를 받아 심장의 동함과 동시에 신경계의 작용을 요하게 되어 한 존재를 유지하느니라. 단 심장기관은 동력기관이며 신경계통은 감각기관이다. 이것이 상호 협조하여 한 목적으로 작용성사 완성시에만 한 우리 생의 감미를 취하게 되나니 이 자체인 구조야말로 우리 영인세계 구조를 표징시켜주나니라.

그러므로 영인이 존재하여 생하려고 할 때에 우리 육신은 우리 육체의 위의 작용과 같은 피를 돕는 것과 같이 영인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요소를 수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영양요소는 육신생활의 원만으로부터 시작됨이다.

즉 생심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심은 한 심장과 같은 작용으로 무형 공중세계로부터 무형 생심요소인 호흡을 시작하여 영인체를 구성코자 함이다. 이것이 구성되매 영인체의 감각성 본체인 하나님의 실체와 관계를 이루어 영인신경선과 같은 무한생의 동력을 감각하여 그의 완전존재인 한 분체로서 장성하고자 함의 증대요구이다.

그리하여 내 한 존재가 완전한 분체존재로서 성장되면 무한대의 생의 이상 요소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 한 자체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함을 받아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한 완전한 상대성 존재인 이성체를 요구하고자 함이 하나님이 사람을 분성하게 지었고 이 분성을 다시금 분성화하게 하고자 함이 창조목적이다. 이 합성화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노정이 한 이상노정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창조받은 만물은 물론이고 그중 사람도 역시 남성이면 이 존재가 완전 성장하면 여성을 요구하게 되니 이 요구하면서 찾아 나아가는 것이 한 행복의 노정으로 되어있다. 이 행복된 노정에 취함이 인간의 최대이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사랑에 취하여 번식하게 하여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 사랑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자 함이 목적이상이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이 있고 상대성 세계를 창조함이니 그 얼마나 고마운 창조들이라. 그럼에도 사람은 그들 중에서 최고 이상 영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하고 만물을 대하여 완전 사랑을 줄 수 있는 중심 존재로 되어 있으니 어찌 사랑치 않으랴.

이 원만한 사랑을 성사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근본 인간에 대한 사랑의 원리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 하나님의 신경존재와 같은 중심작용인 대상격 존재다. 그외 만물은 인간의 신경작용 부분을 자극하여 주는 상대존재로 되어 서로 사랑을 통연시켜 한 중심을 원만이상 사랑에 처하게 하고자 함이 전 우주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이다.

만물은 사람이 이상 사랑을 하게끔 자극충동을 보여주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 사랑으로 발동시키는 존재로 되어야 한다.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고자 하나 그 사랑을 받은 한 존재가 없고 보니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리.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 받지 못하니 만물 역시 그 사랑의

목적도 달성 못함이다. 이런 모순은 타락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가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성은 사랑, 여성은 미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되는 미의 존재가 요구된다. 그 존재를 소유하여 사랑하는 성교는 즉 창조적 본성애인 한 순간이라도 공동하게 절감하여 사랑을 주고 받은 곳에서는 생에 대한 기본 토대를 작성하느니라.

그 때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사랑에 대한 취감이 있어야 만이 또한 조건은 남성의 동맥적 동과 여성의 동맥적 동이 동일하게 수수하게 되어야만 생의 출발이 시작된다. 즉 임신된다. 동맥고동의 움직임은 제2생에 존재의 생의 기동력이 되어 원만하게 수수만족으로부터가 제2생의 시작은 창조원리로 보아 알려야 한다.

우리 육신생명도 생겨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랑의 수수작용을 통하여 만이 성립되듯이 우리 영인의 생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하나가 되는 일체이상노정을 취하게 될 때에 생의 시작은 물론이고 생의 성장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 사람자체는 하늘에 대하여서는 완전 미의 존재로 나타나야만 된다

완전 미만 소유하면 완전한 사랑, 즉 하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유동작용의 시작과 같이 흘러들게 되나니 이 작용이 우리 사람에 미치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게 되며 만물까지도 사람을 존경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사람에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개성체 대상체로 이성을 주어 하늘 사랑의 한 고귀한 표시를 보고자 함이 목적이고 이 사랑이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동체의 사랑을 주고 받을 적에 하늘에는 그의 사랑의 전성이 하나님의 창조이상형을 드러내게 되므로 비로서 하늘의 무한 사랑을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게 되는 바가 목적이다.

그런데 창조세계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우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적으로 주고 받은 한 존재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존재를 세워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것을 찾아야 만물과 우주가 다시금 소생하는 근본이 생기게 되나니 그런 고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즉 섭리는 여기에 중요요점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시하며는 하나님 하나에서 사람이성(남성, 여성)으로 분립시켜서 장성하게 하여 사랑이상을 주어 행복케 하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가를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번식을 주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되게 함이 번식체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사랑하면은 이와 같이 귀하게 보여지는 자체가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가 딴 존재들과 다르게 소유함이 특이한 점이다. 이 점이 있음으로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이상세계는 영에 부모를 모시고, 각자가 사랑 이상 경지에서 매일 삶에 취한 생활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상이며, 창조주의 이상이며 영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부모가 있는 동시에 영의 부모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 모셔야만 우리 근본점을 찾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또한 종교와 철학자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에 이 근본원리를 밝히지 못한 것이었는데, 천명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선언하는 것은 영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 원리와 본론에 대한 사실에 근거를 알기 위하여 하늘에 기도로써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그 결정적 자체를 알려 주리라. 하나님이 제쳐서 세계를 주관하면 그 주관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중심 기구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적으로 추측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종교적 이상 형체를 가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상은 즉 하나님의 이상이 세계적으로 실현될 때에야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으며 길이길이 또 행복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종교는 세계 중심한 이러한 움직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를 볼 때 세계적 중심을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는 무슨 종교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종교는 특히 기독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와 하나님의 이상과는 동일하며 그 이상과 세계와는 동일한 노정을 떠나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로 모시는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들이 연합한 국제기구와 반대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체제인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조물주의 뜻의 완성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여 나가는 이 존재들은 악신의 뜻을 따르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신적인 싸움, 이른바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과의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반대 현상이 즉 현대 조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이니, 하나님은 기필코 천주로 하여금 그 뜻을 성사하는 것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까지는 전쟁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악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분기가 우선 문제로 우리가 아무리 고심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어찌하여 지금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근본문제 등을 찾아 보아서 누구나 전인류는 하나님의 근본적 뜻과 그 이상을 전력 다하여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적 의무의 근본 등을 밝히기로 하여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워 인류를 대한 섭리노정과 기독교의 지금까지 감추어진 진리의 근본문제 등이 명백히 나타나야만 된다. 그 사실이 나타나면 말세인 동시에 우주적 심판시기는 비로소 초래하는 사실의 근거 등을 알아야 한다. 끝날이 되면 성경 말씀도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성경의 근본문제가 명백하게 되지 않는다면 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이라는 이름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 재림되기 전에 성경을 중심한 근본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 신자의 중대한 숙제이면서 세계신학계의 중대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온 세계에 신자를 대하여서 근본문제를 밝혀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는 신앙생활의 노정에 반대된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만 말아야 한다. 먼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자들은 밝힘을 받아 의를 지지하여 뜻 완성에 협조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전체에 먼저 알려줘야 한다. 누가 먼저 본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모시는 자는 저 나라에서 큰 영광의 존재일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그

를 존경하여 모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근본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중대한 책임감이
다. 이리하여 우리는 뜻을 실현하는데 협조할 근본의의도 잘 알며, 급속한
시일내로 실현하는 것을 피하면 하나님 앞에 범행이다. 차라리 모르면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알면 책임사명에 대하여 각자는 전부 봉헌하여 기쁨으로 나
아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5.22
출감 기념일 기록)(51. 10. 1 정서 소자) 그런 고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은 그 목적은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데서 완성된다.

창조원리와 타락원리는 사랑에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도 자기 자신의 지극한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중화성으로 계시는 본형체를 나누어 분성화
하신 것이 사람 창조이며 만물창조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분성을 보게 될 때 지극한 사랑을 실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만물 전부는 하나님의 이상을 더욱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체에서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되니 그 본성인 사
랑의 이상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어,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실체화
하여 체계적으로 전해 주는, 자극을 가하여 내부자극을 조장시켜서 내부적으
로 더 높은 사랑 즉 어떤 만물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도
록 인간을 지으신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사람의 사랑은 어느 만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의 속성
을 가지고 있게 지은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랑의 속성을 원만하게
가져야 할 목적 이었는데 그 목적의 원만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타락성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나타나고 사람의 사랑은 만물에게 표시되어 미적
세계를 이루어 온 천주는 화동하여 일체적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서 사모하는 동시에 이
상의 궁극적 중심이며 어느 만물도 하늘 천사 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들의 기쁜 희락과 행복과 만족의 중심이며 또 생명의 근본이다. 이 사랑
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직접적 요구였었다. 그러면 인간세계에는 선악

이 없어야 할 것인데, 선악의 시작도 사랑을 중심삼고 되었었다. 즉 선은 하나님의 사랑 권내, 악은 하나님의 사랑 권외다.

그러므로 본래는 선에 세계뿐만이 목적이었는데 악의 세계에 출현이 즉 타락이 거래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천당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당은 선의 세계 즉 하나님의 사랑 권내의 세계요, 지옥은 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사랑 권외의 세계니 즉 사망세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생명의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세계이므로 그렇게 부른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의 근본과 악의 기원점은 성경을 비취 엮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등을 밝히기로 하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을 중심하고 지으셨다. 선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존재요, 선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영원성이 있는 동시에 사랑 이상을 완성한 근본존재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살펴 볼 때 모세가 기록할 때 알려주신 창조설을 그 본 뜻대로 발표하게 것이 아니고, 즉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밀을 두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근본을 밝혀서 발표할 수 없었던 사실은 그 당시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창조설 가운데서 보여주는 타락의 근본자체인 선악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타락이 시작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와 해와의 유혹이 중심이다.

그러면 이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 근본의의에 있어서 큰 문제로 되어 인간세상의 있어서 증대한 난관의 화제 꺼리였다」 사람은 물기를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알지 못함이 없으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는 데 왜 타락되게 하며 또 타락적 요소를 그냥 놔 두셨는가? 등을 살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니 뭐니 한들 근본적으로 악의 시작을 지어 놓고는 뭐 선하라 선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 중심의 초점으로 되었다.」

악의 주인공은 사탄인 동시에 역적된 천사라고 그 존재에 있어는 누시엘 천사가 일명의 시작이 있음을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탄이 근본적으로 역적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그 천사를 왜 주관하시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 증대한 문제다.

창세기 3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인에게 일러 말하되 하나님의 동산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물은 것이 뱀이 타락시키는 시작인데, 가만 보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운운한데는 없으니 그러니 뱀이자 즉 사탄임을 알 수 있다. 사탄의 존재가 즉 뱀으로 표시됨을 알아야 한다.

즉 뱀은 사탄이며 사탄은 즉 누시엘이다. 그것은 뱀이라는 명사를 빌려서 유혹의 대상이 표시격에 흡사함으로 이런 표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뱀이 아니다.

현대 신앙자들은 그 자체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된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벌써 인간에게는 타락시킬 권한이 없는 존재로서 유혹하여 유인하는 노정을 실시하고자 사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벌써부터 만물에 대한 주관을 부여받고 지었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알 터인데 주관받을 뱀을 끌어들여 유인공작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사실이다. 반드시 유혹하려면 인간보다 더 고귀한 격에 존재가 필요함을 우리는 상식적 판단으로도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근본 진리노정을 밝히지 아니 하였기에 지금까지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하고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때가 다 되었으니 세상에서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왔으니 단연코 역사적으로 미분명한 이 창조의 근본과 타락의 뿌리에 대한 출발점을 밝혀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사될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니 반드시 죄의 근본에 대한 뿌리를 밝혀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되찾고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으로부터 섭리의 근본문제에 뿌리(근)가 되는 것이므로, 지금 세상에는 뿌리를 요하는 말세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당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새로 온 천주에 발표하는 바이다.

본래 하나님은 무형세계에 계셔서 천사 등을 지으시고 다시금 유형만물실체세계를 하늘 무형세계에 그림자 모양으로 지으시기 시작하였다. 만물유형실체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유형실체이상적 세계

의 창조함을 도우도록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 문의가 의논에 상대로 하여 왔든 것이었다. 천사들 중에는 천사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 천사장이 즉 역적의 길인 반역의 궤도를 밟게 된 루시엘이었다.

천사들을 지으신 것은 유형실체의 세계를 지어 하나님의 이상을 전개할 세계를 도와주면서 협조적인 존재로서 지으셨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실체세계가 이상의 시작을 보게 될 때에 역시 천사세계도 이상을 부여받을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근본본의는 천사도 알지 못하였든 것이었다.

만물실체세계가 실현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천사들까지도 기쁜 일이 되어 온 천주는 하나님의 이상 기쁨에 충만하여 그야말로 이상세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이 도달하지 못할 때에 타락이라는 비공식적 존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즉 루시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됨이다. 이 행동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근본적 뿌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즉 지옥이 생겨나는 시작점이다. 즉 죄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본래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펼쳐시면서 본성을 전개하시는 것이었다. 모든 각 만물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근본을 상징하는 개성진리체로 되어 근본의 진리본체 되는 하나님의 본성품의 표시가 충분히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며 영원하며 불변에 존재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의 근본이며 진리의 증대한 3요소란 유일성,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고 지음 받은 만물로 구비하여 이상적 생활형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표시될 수 있는 개성진리형체를 갖추어 지으셨다. 그러므로 이 개성진리체로 지으시기 위하여는 발생으로부터 성장으로, 성장으로부터 결실로 되는 계급을 두어서 조성하였다.

한 존재가 완성존재 하려면 발생이 시작을 보아 성장으로 성장을 다하여 완성에 이르러 만물을 그 궤도 안에서 통과하여서 창조받게 되었다. 다시 표현하면 진리에는 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시기적 과정을 경과하여야 한 진리체가 완성된다.

② 진리에는 유일성, 영원성, 불변성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지으신 선에 속

하여 이상존재물로서 취급하게 되어있었다.

어떻게 지으셨나

말씀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시었다고 하시었지만 그 말씀이란 명사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이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상의 한 표시하는 것의 증거로 되어 이상을 그대로 딴 존재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복음 1장 제2절에 말씀이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만물은 말씀이 없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이상을 제1존재에 마음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제2존재에 확립을 요구한 중간매개체적 분담과정 기간의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시한다. 예로 말하는 것은 제1존재인 마음 실상의 제2실체와 실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 창조이상형을 그대로 만물에 실체형으로 전개시켰기에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실현되는 곳에 이상이 전개되는 것이 근본된 말씀의 목적이니 이런 명사를 대신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실적 의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어셨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직접 일체로 되어 있는 제2 존재성을 알려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형체와 성품을 별려 놓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상대성을 말한 것이면서 음양성도 말한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란 뜻은 여기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지금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창조원리로 살펴볼 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적 실체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된지

라 그대로 되는 존재에 대하여서 선택하신지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신 구절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는 말씀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다시금 살펴보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다면 날 수는 이틀인데 왜 하루로 하였나 하면은 여기에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한 개체의 존재가 창조될 때 발생에서부터 성장으로 완성까지에 도달한 바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을 될 때에 선택하신지라 명명하시였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저녁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체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끝마치시든 때를 두고 한 말이다.

즉 한 피조물의 몸을 증심하고 말함이다. 아침이라 하는 것은 한 밤 시기를 지나서만 오는 것인데 이 아침이라고 한 것은 그 물체가 완성되어 새출발하는 것을 아침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녁서부터 밤 기간을 어느 물건이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을 뜻에 맞게 통과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지라고 하시였다.

그러면 이 밤 기간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로써 영원하면서 불변하며 불변하면서도 이상형을 표시할 수 있는 존재로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신가 하는 한 시련 기간이 즉 밤 기간이었다. 한 테스트기간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뜻에 맞는 존재로 되야만 선택하신지라고 명명하심이다.

이 선이라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은 영원할 수 있어 완전대상의 존재임을 말씀하심이다. 이렇게 만물을 5일간 지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저녁과 밤 기간과 아침기간을 뜻에 맞게 통과함으로 선택하신지라고 명명받은 것이 창조하심을 받은 물건의 하나의 공통적 노선이었다.

그런데 제6일째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1남1녀를 창조하시되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을 보아도 전에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 속에는 남성 여성이 있었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음 받은 사람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창조함을 받은 물건이 통과한 공통적 창조규정을 다 원만하게 통과해야만 주관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이 저녁기간 때는 지음받고 나서 밤 기간동안 가진 시험 기간이 있고 그 시험기간을 통과한 후 아침 기간부터 만물 주관이상인 근본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으로 되었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주관을 하라는 곧 명령을 받고 난 후 실제 주관으로 한 밤 기간인 시험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아침기간서부터 이상주관이었는데 이 밤 기간에 인간은 타락적 유혹을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사람의 밤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는가 하면 소년시기부터 성장하여 성숙할 때까지다. 그리하여서 이상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격을 완성할 때까지가 그의 기간이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몹시 선하신지라 한 것은 만물을 총합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특히 사람만을 중시하고 심히 선한지라 한 것이 아니다. 그런고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밤 시기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 선하셨다고 예약적 선이지 실제 자격적 선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려 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물의 전부를 주관할 수 있는 실제 자격의 부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밤 기간인 시험기간이었다. 만물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의 근본목적은 하나님 이상의 실현화가 목적이었다. 주관할 수 있는 그 존재, 곧 아담 해와는 만물의 전부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과 거느릴 수 있는 성격은 어디로부터 부여 받을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요구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은 즉 하나님으로부터였다.

그러면 주관의 완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로 만물의 주인격으로 주신바의 근본 뜻은 누구를 상징시키나 하면 하나님을 상징시키는 바를 누구나 알 수 있다. 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사람을 창조한 뜻은 실체만물 주관자로 지은 아담 해와는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몸이었다. 그리하여 천주를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공 되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되고 보니 그에 딸린 만물은 근본주인을 잃어버린 존재로 되었다.

그렇다면 타락의 시작을 알아보자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무형세계에 천사들은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직접 사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의논 상대가 되었고 온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이 근본이면서도 모든 행복요소이었다.

하나님이 무형세계를 지어놓고 천사들로 협조하게 하면서 실체 만물세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유형실체세계를 지으신 것은 무형실체에 자기의 존재를 유형실체세계를 통하여 번식에 기초로 하시고자 하심이 목적이었는데 그 중심이상은 천사장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천사장 세계에는 이 중심점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형실체세계를 창조하심에 하나님은 자기 이상의 전개와 함께 기뻐하며 동시에 천사장도 기뻐하였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공격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셨든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 대하여도 사랑을 하시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천사장에 대하여는 대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멀리한 것이 아니었는데 천사장은 아담 해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보다는 자기자체에 있어서는 더욱 만족감을 느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해와가 받으니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 감소되는 감을 느껴서 다시금 이런 감도 느껴지 않은 동시에 사람에게 까지 가는 사랑을 자기가 소유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작업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즉 하나님은 해와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그 해와 자체를 자기 소유로 하고자 하여서 천사장 루시엘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해와를 대하여서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수와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수는 아담을 표시함이고 선악과 나무는 해와를 표시함이다.』

천사장이 해와를 보니 아름다운지라. 그리하여 해와의 사랑을 빼앗기 위하여 해와의 정조를 빼앗으려 할 때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시작하니 그 자체의 마음에는 공포심이 있었다.

그 공포심을 가지고 해와의 사랑을 빼앗으려 하기 위하여 해와의 정조를

빼앗고 보니 루시엘의 마음에 있는 공포심과 동시에 천사장의 지혜가 해와와 사랑의 일체를 이루고 나니 해와는 천사장적 지혜의 소유자가 되는 동시에 공포의 마음을 자극받았다.

그러고 보니 해와는 미성숙기에 있었지만 자체의 지혜가 밝아짐을 통하여 보니 해와 자기의 남편은 아담이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담이 자기의 남편이므로 다시금 남편 그대로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와는 아담한테 사랑을 강요하게 된다. 그 강요하는 해와의 지각을 피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니 해와의 공포심의 마음이 벌써 생기게 되니 하나님의 법을 탈선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니 아담 해와는 나무 밑에 숨게 되는 행동이 시작됨에 무화과 나무잎으로 범행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다.

이것은 창조함을 받은 몸에 선하게 지었는데 만약 손으로나 입으로 따먹었으면 그 부분을 가렸을 것인데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은 이 부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자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 자체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라는 출발이 시작하여 악의 기원을 되었다.

선악과라고 한 것은 만약 하늘의 뜻대로 성사하여 이상적 격위의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신이 아담마음에 자리잡고서 사랑이 성숙하였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만물의 주인공으로 완전히 준비되는 동시에, 이것이 이상이런만 그와 반대의 행동이야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해와와 사랑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담의 사랑을 받았으면 지극한 선의 근본을 시작하는 결과의 행동이 시작하여 영원한 선이 될 것이었는데 그 반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의 근본의 결과의 행동이 해와의 사랑에 달리기 시작한 자체이니 선악과로 표시한 것이다.

선악과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다. 선에 씨도 해와와의 사랑 일체로부터인데 악에 씨가 되고보니 해와의 행동을 과연 누가 탄식하지 않겠는가? 그런고로 여인이 지금까지 구속받고 있는 사실은 그 원인이다. 이 구속이 해방되어 평등시기가 재림시가 가까워온 줄로 알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명사는 무엇이나하면 즉 하나님 아

담 해와가 완전하게 일체가 되어야할 중심 뜻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부자지관계로 되어있다. 하늘 중심한 삼위일체가 악 중심하고 삼위일체가 되고 말았으니 악 세계인 사탄 세계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은 우리 사람의 아버지격으로 대입을 받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모시지 않는 한 본체로 역사한 셈이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도 불순 불신 불시자를 대하여 요한복음에 8/44에 이들은 이들이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려 하느니라 하시었다. 이 말씀은 타락의 근본 주인격의 본체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뱀이란 즉 사탄을 표시한 바를 밝히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품의 자식에 처하고 말았음을 알고 다시금 본래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야 할 노정이 본래의 구원 노정이다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 해와에게 주입하여준 하나님의 근본자체인 터 즉 생심을 중심으로 삼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하여시어서 존재할 수 있는 터, 자체 즉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 안에 있을 수 없음으로 하나님이 거두심이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한 영의 자체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셨다가 제2 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분의 즉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서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이 근본적 취지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완전 성숙한 존재로 나타나서 복음을 시작하심은 무슨 목적인지 하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찾아서 타락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옮겨 놓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원수의 품에서 구속받고 참부모를 잃어 버리고 사니 그 양심적 고통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 자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옮겨 놓아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직계 혈통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를 완성치 못하였기에 재림의 요구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의 혈을 받았으니 양자의 관계로써 본되는 근본 피를 받아서 소생되어 창조이상인 부모를 복귀함이 우리 인간의 전체 목적이

다. 탄식할 것은 양자와 같은 존재로된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면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악으로 인하여 시작되니 이런 명사가 생겼구나! 우리 근본 아버지는 영원의 아버지며 사랑하여 찾아주신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모시며 또 어머니는 모시는 그 시기가 즉 지상에 재창조 이상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알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찾는 그 기쁨의 온 천주를 찾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이다. 이 목적은 재림시부터 시작된다.

왜 타락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것은 개성실체가 하나로 완성하여 영원할 수 있는 한 이상적 존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 시기까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시기까지 표준 완성해야만 영원하신 존재의 터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실체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기간까지 성장을 통하여 완성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창조받은 대상 원리를 통하여서 완성하여 성숙단계까지 도달하게 하도록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원리 주관격으로 계셔서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었으며 빨리 이상 성사가 지극한 요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대한 이상은 즉 하나님의 이상은 자유이상을 표준하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 이상이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지으셨다.

그러므로 그 자유이상을 찾아 성사할 수 있는 중심케도는 선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사할 수 있는 제1존재이다. 생심이 사람자신에게 있어서 부여받은 근본터로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성기까지 도달할때 자기도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하여서 자유이상 완성을 간섭하지 않아도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양심과 생심은 그 중심 뜻인 선을 곧바로 지향하여 나가도록 지향하여 가게끔 지으셨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주관하지 않았다.

간섭은 제1존재의 완성을 무시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원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즉 원리적으로 완성하여 뜻을 성사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으로 되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직접 주관하고나서 사랑하지 아니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원리 미완성하여 개성자체를 미완성한 것을 사랑하여 일체

적 이상을 성사하였으면, 미완성한 몸의 불완전적 사실을 아심으로 그 근본 원리표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심이 중심적 뜻이었다.

만일 미완성 때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그 자체는 사랑만을 요구하여 근본 개성원리 완성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되며 또 원리자체를 반하는 것, 그 자체나 사랑하는 자체가 즉 이상 사랑을 성사할 수 없게 되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사람이 지극한 사랑의 이상형체로 완성하게 하려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였으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써 볼 수 있는 동시에 그 자체들의 사모하심이 직접 하나님의 자체로서 통할 수 있는 작용의 시작을 볼 수 있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 완성되면 자연적 원리로 사랑할 수 있는 자극을 알려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하늘 사랑은 양이면서 완전한 음적 사랑의 대상 본체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그 상대존재이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원리주관격으로 계시였다. 그 시기에 사람들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사람도 자유계도로 천사장도 자유이상 계도 세계에 생리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존재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이상 중심한 자유적 성사 세계를 조성하여서 그 창조하기 전의 자유이상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개성완성과 자유로운 세계이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근본이상이었다.

그러면 사랑 이상을 완성하여야만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자유이상을 기대하고 그 이상의 사랑 이상 원리 창조체들이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근본사랑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세계에서는 자유를 찾기 위하여 지금 야단하고 있는 이 원인은 타락한 연고이다. 이 자유를 찾으면 이상적 자유를, 자유이상을 알고 찾으면 사랑으로써 이상적인 사랑으로 역사는 필연적 계도를 밟게 될 것이다. 그것은 원리를 봐서도, 이론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자유와 사랑 이상이 한 기대로 하여 개성완성이 요하는 곳으로 인류역사는 흘러 나가는 것의 시작을 보려하는 복귀로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는가?라고 모든 사람은 말한다. 사람들이 자유무대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완성점 도달

때까지는 원리주관이니, 그 자체들의 행동을 직접 간섭치 않고 양심과 생심을 통하여 본래의 노선 확보를 요구하게 하였기에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원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를 수 있는 정도는 완전한 사랑이 성사하여야만, 생각만하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알려려는 사람 자체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그 때는 사람이 양심적으로나 생심적으로나 합하여 행동하여 하나님이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행동결과를 보와 그 타락된 사실을 아시게 되신 것이었다.

이렇게 지으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간접적 대립성을 두신 것은 극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도 유형체의 극에 존재로 서있어, 서로 합체할 수 있는 전기원리와 한가지로, 지극히, 큰 사랑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라고 하면 사람의 사랑 (-)은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 완성이 미완성한 것이니 타락행동들은 (-)작용함이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감응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체로서는 극에서 극의 속내를 통하는 사랑을 하시고자 하여서 지었기에 만물자체들의 사랑까지 인간을 통하여야만 연결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려야 한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타락이면서 선에 존재 외에 존재인 비원리존재 범리무대로 출현하여지게 되니 선과 악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사람의 중심이니 이 사람의 번식발전과 함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전하는 세계의 역사의 궤도는 자연계의 원리적 움직임 위에 그냥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세계는 악에 속하는 주관 본의 아닌 비공식 주관궤도로 목적 없는 세계로 달리는 같은 모양으로 시작되니 그 세계의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어찌 안락하고 평안했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의 작업이라고 지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타목적체로서 끌어온 기 중심목적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은 무한 고통을 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창조본의 아니심에 하나님은 근본대로 다시금 찾아 창조본의 이상체로 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노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증심하고 선신과 악신 대립 시작의 결과는 역사발전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즉 사탄은 원수의 부모격으로 사람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근본 자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안 우리는 어찌 아버지 어머니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기독교 회개의 근본 뜻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나(우리) 존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부모를 몰라보고 박대해 왔다는 것을 애끓은 마음으로 통탄하고 울분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하는 결함의 광경이다. 이 시간의 기쁨이야 무엇에 비하랴! 그리고 보니 근본만사는 평안으로 원리로 시작하니 양심적 해방의 시작도 참 기쁨의 시작이다. 이것이 새 복음의 중심된 내용이다.

그러기에 세상은 악이 먼저 시작하였기에 그 뒤를 이어 선의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이니 기필코 이를 때까지 하늘은 승리하고야 만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 악이 주관하는 시기이니 악자가 이기는 세계에서는 선한 자들이 악에 많이 밟히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거짓 것이 먼저 왔다가 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지금 현실 사회의 실상이다. 악이 왔던 간 이후에 선은 비로소 시작하여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로 지음받은 온 천주는 이 뜻 성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현재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하고 울분할 일이다.

악이 시작하였으니 그도 원리노정을 밟아 결실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완성시기가 곧 기독교의 말세시기인 재림 때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완성해야만 하는게 근본목적이다. 그러기에 오시는 주도 완성주로 사람 몸을 쓰시고 오신다. 그것은 원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육신완성을 못하였기에 근본을 찾아 맞추는 시기가 말세며 심판시기다. 곧 근본 사람, 아담 해와를 찾아야 되며 선을 찾아 터로 세워야 하는 시기가

말세다. 그러니 악은 자기본체에 노정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때가 곧 말세다. 이상에 원리를 살펴 볼 때 하나님은 원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시다.

그러므로 사탄까지도 강제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굴복을 요구하고 육천년 역사를 나오심은 온 원리창조세계를 완전히 찾고자 하는 것이니 그래야만 창조이상체를 시작할 수 있으니 사탄까지도 자유로이 행동하게 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역사를 통하여 사탄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든가 참소한 것이든 또는 예수님의 시험이든지 다 보아도 그 자유허락 이상 무대를 근본적 뜻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바로의 마음을 난폭하고 못되게 만드는데도 완전굴복과 자유굴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결과적 행동 여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한 사실은 인간의 근본 자유행동 결과를 주관함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러하므로 하나님 온 우주적 이상과 천주적 이상을 완성하고자 하여서 지금까지 고심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는가? 이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얹으로 알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하여서까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과연 그 자체가 명백하여서 천주에 전부를 원만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에서 시작하였으며 만물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이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시작하였으며 그 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의 근본 보다도 실제문제는 제일 가까운데 있는 자기가 문제다. 현실 자기의 존재의 근본을 안 후에야 다음 문제가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할 사실인데 자기의 존재의 근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가 어떻다고 말한다고 해봤자 그 자체는, 예를 두면 공식의 근본 단위로 될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단위수로 있는 자체의 문제를 확정하여야만 그 공식의 제일보 응용의 시작을 계속하여 많고 큰 기본공식과 연결도 지을 수 있으면서 그 자체의 공식도 물론 명백하여지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한 단위체의 공식 근본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자아의 한 존재만 확정하면 기타의 존재결정은 다음과 같이 확실한 결과로서도 추측하여 그에 비취주는 근본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심하여야 할 사실이 근본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가 있다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양심을 보아서인가? 그러면 감각을 보아서인가? 그러하면 체형을 보아서인가? 하는데에서 문제는 시작인데 양심과 감각과 체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표준잡고 말하는가를 다시금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분기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존재한다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표준하고 시작하게 되며 그 시작은 어느 한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가? 또 그와 반면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어느 한도의 존재하지 않는대를 규정하고자 하는가가 문제이다. 없다면 실체 무한 존재는 시작점을 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사람 자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한다거나 하는 것도 어느 한 존재를 벌써 존재에 유에 처하든가. 무에 처하게 하든가의 실재 존재를 규정지은 위에서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내가 있다고 하는데는 무한 실체에 대하여서 성립되는 명사다.

그렇다면 무는 어디에 한 옳은가 아닌가하는 가부 존재의 근본결정을 지어주는 한 중심존재는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것인데 이 존재는 자기를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기반위에서 시작하였기에 유무가 결정적 판결을 내리는 행례가 지금 사람들의 말하는 범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자기를 중심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타 자체

로부터의 시작점을 보고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존재의 확정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무한유와 무한무와의 중간존재이며 한 공식단위체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이 짊어 과제이다.

그러므로 유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양심으로나 감각으로 체형상으로 실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부정 못함으로 유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자체인(자아)는 지금 무의 시작을 결정짓는 기본행동으로, 이는 시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무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한 자체가 무에 절대치를 가결하였는가? 그 무에 대한 것은 어떤 정도인가 의문되니 그 무라고 하는 그 점은 유와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즉 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정도인지 또 감각할 수 없는 정도인지 체형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그 입장이 명백한 점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물론 이 실재 감각내에 속하는 곳에서만 유무의 출발점을 잡고 있다.

그러면 사람의 유라든가 하는 것은 실체로서만 문제삼지 말고 무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무한하여 우리가 무라고 하는 바는 절대치가 아니고 유와 연관을 가져볼 수 있는 존재의 계속체로써 우리 감각내로 감촉할 수 없는 범위 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더 적은 무의 상태로도 나갈 수 있는 중간존재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나를 있음 즉 유로하는 자체를 수로 표시하면 ①라고 할 수 있다면 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나 ① 수자를 보아서 영이 있다고 지금 수학세계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 영이라는 존재가 숫자상으로는 표시되나 실체에 있어서서는 영이 무가 아니고 영을 상징하기 위한 추상적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즉 무에는 무한무를 한정 못하니 그 무의 중심은 영을 가지고는 표시도 못한다.

그러므로 영을 잡아보면 영이라는 것은 숫자상 혹은 이론상 존재라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실체상으로는 영이라고 하는 영의 점유 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과는 판이함 자체이다. 그러므로 영이라고 현대 사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유에 소형체의 것이며 더 소로써 무한대로 되어지는 존재의 중간자체임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와 무의 경계선은 즉 하나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를 잘 알려면 무한유의 시작이면서 무한무에 시작의 기초를 알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와 영이 동일점이라고 하고보니 무한유과 무한무의 존재의 제일 중심 거점이 즉 하나와 영선의 경계점이다. 그러므로 나 하나는 무한유의 시작의 존재며 제일 극소유에 존재를 알고 있는 바이면서 또 무한무의 최대 존재라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체가 즉 ① 하나인 것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나와 영은 경계를 정하지 못함

숫자상으로는 영과 ①하나와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점을 이탈하지 못하는 공통 선분 위에 존재다. 그러므로 실재상으로는 1=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의 존재들이다.

1 = 영

1 = 절대치 수로 기본수며 유에 기본존재다.

영 = 무한무에 절대치수이면서 유에 무한 소수의 중간존재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바는 나 한 자체가 중대 문제인데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잡은 존재라고 하고 싶은가 그것은 각자에 자유에 맡기기로 하자. 즉 ①에서 시작하였으면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실제 가치 값을 전부 인식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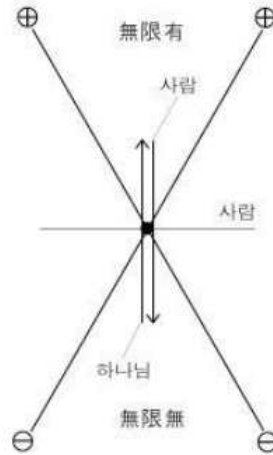
즉 무한대와 무한소의 문제보다도 그 중간자체인 하나의 존재의 규정에 큰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된 난관봉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하나되는 자아를 알려면 무한대에 대한 위치부터 무한소에 위치가 가지고 있는 중간존재에 대한 전부를 알아야만 자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존재를 전부를 알 수 있어야만 그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근거를 해결할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있다고 하여 놓고 무한 사실이니 무하다느니 하는 것은 즉 숫자 세계에 있어서 영이라하여 절대무의 존재를 결정한 듯이 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생각으로 되어 있는 바와 한가지다. 없다할진대는 무한 소에까지 도달한 후에 그 세계가 자기의 인정 범위 내에 들어 서게 될 때에는 무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인데 그곳조차 생각도 못하고 그저 무라고 하면 자기가 무라고 하는 바가 그냥 무로서 만사를 해결하여주는 중심 존재로 되는가? 그것은 지극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유라 할진대 그 유의 존재 가치는 절대유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라고 하는 자기와 무의 중심 입장에 있는 자기에 대하여서 알려고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중심점이다. 곧 우선 유도 내가 있어야 되며 무도 내가 있어야 된다. 문제는 결정적 존재는 바로 자기이다. 이 자기가 지금 해결에 수수께끼가 되는 근본문제다. 그러므로 먼저 천주에 기본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을 찾으라. 그렇게 다른 존재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자기를 명백하게 해결하면 그 이상에 대한 연관적 사실에 대하여서는 자연히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기 하나 알고 보면 하나님도 그 존재에 대하여 유무에 대한 문제는 크게 논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에 여하는 먼저 피조체 자기의 근본에 대한 실감성을 알고 나가면서 탐구하면 제1존재의 확실성은 자연적 의식존재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의 명백한 체험은 실행하여 찾아 보면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유에서 절대무의 기본존재이므로 어느 면에서도 단위적 노선에서만 서서 좌우를 찾으면 그 존재는 자연적으로 체감된다. 그 체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대에서 무한소를 통한 공통노정으로 흐르는 무한대이면서 무한소의 힘을 보아 이 힘은 공식과 같은 법리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음에 그 어떤 중간 입장에서라도 자기만의 그 힘과 감응될 수 있는 단위체로 평형선상에 서게 되면 무한대에서 무한소에 흐르는 그 감지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대에서부터 무한 소에까지 연관하는 중심동력체이다. 그러면서 영원을 표준삼고 시작하여 나간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중간 존재다. 이 중심존재가 완성하여야만 천주적 기본원리는 원만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서 유형으로 작용하고 사람은 유형에서 무형으로 수수작용 원만화를 취해야만 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천리이며 창조원리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은 단위적 위치에 거주한다. 사람을 통하여만 우주와 천주의 이상이 완성하게끔 만드셨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특유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다. 유(+) 무(-) 라고 표시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 증화체로 되어 있다. (-)는 영으로 (+)는 육체로서 합체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육신이 합하여서만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성장시켜서 영인체를 완전 조성하면 무의 세계까지 통할 수 있는 중간 존재체다.

그러므로 본래 사람은 영인체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영인체라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영체, 생명체, 생령체로 되어있다. 그러면 육신에는 육체와 육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인체에는 생심을 중심으로 영체를 더붙어 번식할 수 있는 기본 터를 이루며 성장하여서 생명체로 나가 그 생명체가 되야만 하늘에 한 성장체를 가진 자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생명체에다 생령체를 이루어야 본 창조이상 영인체로 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락되고 보니 인간들은 영체에 근본되는 생심까지 보유하는 존재가 적을 만큼 타락되었다. 이 인간을 영체를 구성시켜서 성장하여

생명체까지를 목적하고 역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오셔서 생령체까지 완성하고자 하였으나 전 인간은 주인공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불신하고 보니 미완성하게 되어 생명체급까지 전 인간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적 사명이 부여된 환경이다. 그 후 생령체는 완성체인데 재림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하였으면 육신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심하고 생심은 그 본 노정으로 영인체 구성을 같은 때에 병합하여 완성으로 나갈 인간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전인간에게(하늘의 사람도)는 구분하여 성장시켜서 완성의 모양으로 되었다. 제1차 예수는 성장 생명체까지 제2차 재림하여서 완성체 생령체를 주입시켜서 이상적 영인체를 조성하고자 함이 근본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시작을 할 터를 닦고자 하니 구약역사가 있고 신약은 그 터위에 성장하여 전세계에 터를 지어 그 위에다 다시금 완성의 이상 생령체를 땅과 함께 하늘까지 연식시켜 이상적 천주 완성을 목적으로 되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약시기부터 절대로 뜻을 증심하고 인간들이 받들어 모셨으면 직접 뜻을 증심하고 터를 세우면서 이상적으로 전개하고자 함이었으나 불신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요구와 구원요구가 남아지는 뜻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사람을 찾아서 이상적 영인체를 도로 회귀하여 본래의 창조이상을 성사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유의 존재며 절대무의 존재의 주인공이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방향으로든지 극을 찾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대한 필요성을 절절하게 감각되게 지은 것이 현재 천주의 만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부가 천주의 공로를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자아를 찾으면 전체에 대한 중심문제까지 해결을 가져오는 사실은 창조하신 만상을 공동한 중심에 속하여 있기에 어느 곳으로 통하든지 그 중심은 결국의 종점을 찾으면 동일한 한 근본원리를 통하여서 작용이 시작되어 있기에 자아 자신의 근본원리로 설 수 있는 기본을 찾으면 전부의 중심인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근본존재 하심은 실감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없다고 하면 자기자체로써 자기를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체에 대하여 유라하면 자연적 유하신 그 근본존재의 유를 예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하면 자기가 유하기 전에 부모에 유를 찾아지며 부모가 유하면 선조의 수습, 수백대에 계속 하여서 지금 자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유에서만 유가 시작한다.

무에서 무이지 유할 수 없는 것이 천리다. 현대의 과학도 이 천리를 떠나서는 시작과 발전을 못한다. 그리고 자아 이후에는 유할 수 있는 후손에 대한 유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후손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한다면 그 자체는 원리에 합격체로 완성격의 존재가 못됨을 말하는 것이지 그 근본 원리적으로 보면 후손도 있게끔 유에서부터 모든 만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후손도 필요적 한 공리노정으로 유함을 알 것이다. 보지 못하였다고 그 있어야 할 그 존재들을 부정하면 그 자체의 부정함이 근본원리적 해결을 주는 부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런데 무라고 부정한다면 그 존재는 천리근본을 반역하는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주만물은 전부가 원리적 유에서 시작함으로 유라고 하는 기본점에서만 만원리와 이치의 부합을 볼 수 있으나 무라고 하고 나면 그 근본을 유로 전개하기 곤란한 원리적 결론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금 자아라는 자체는 유무의 한 중심의 존재면서 그의 작용적 목적으로 유를 전적으로 상대물로 하기 위한 행동으로 생활하는 것은 잘 체득하는 바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유라는 원리적 존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체 유에 세계에서는 자아로부터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자아가 즉 유무의 근거점으로 하고야 유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에 속하는 동시에 무에도 찾아가는 중간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중간존재로써 되어 있는 나에게 유무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무 근본의 위치이니 즉 창조적 원리로 보아 하나님과 직접 동일점선에 유하는 존재임을 체득하여야 된다. 자아는 유무의 증화체다. 그러므로 사람을 증심하고 제실 신성은 나와 증화성적 관계로써 유에서 무에 세계에 전개의 노정을 통하게 되어있

다.

우리가 만일 무하다고 하는 곳에 처하여 있어서 인식한다면 나에게 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곳 스스로가 벌써 인식시켜주는 유에서부터만 시작 되는 것은 지금,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즉 지금 과학세계에 있어서 모든 원리와 공식을 이용하여 응용 유에어로 전개하게 하는 것도 즉 근본 유가 있는 원리 외가 존재함이 유하다는 원칙위에서만 시작하여 그 목적 달성으로 진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전 유적 그 원리적 존재 유가 기본 되어 그 기본상에서만 그 목적 표시적 발달된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라는 원리는 본래부터 우리가 세울 수 없다. 무면 무지 유가 되겠는가? 그러니 유물론적 원리도 자연 그 끝인 말로는 미해결로 되는 것이 원리다. 무가 되는 까닭이다. 즉 시작이 무니 끝도 무로 결과한다. 될 수 없는 사실이다.

무라고하는 존재를 세우기 위하여 전유 존재를 세워 놓고부터인데 이 선유 존재는 곧 주관적으로 보면 자기식,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물이든지 벌써 선유한 사실을 결정지어 놓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본은 유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 유라는 존재로부터며 만물의 유도 역시 동일한 것이다. 어떤 작용의 시작은 유의 작용으로부터만 시작된다.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관계 감각성이라고 존재하여 나에게 미치고 있는 그 작용은 근본적 유에 작용이 연장화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무라는 점유위치는 시각 또는 감각성 외의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인 유가 감각하는 그 감각적 작용은 즉 유에서부터 파급의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권외에 유에 존재하는 그 자체와 곧, 하나님과 우리는 연관적 한 위에 속하여 있는 양심의 기존유의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작용되는 감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는 유무에 중화물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무아라는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 중화체에서 음양분립과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한가지로 무인식에로 내려가면 상대적 절대무에 비례되는 절대유의 힘과 작용에 상봉을 본다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무아에게 찾아들어가면(즉 감각무와 인식무에로) 서로 떨어져서 상거적 무의 위치에 대비되는 유에 감각과 인식이 경지는 나타난다」 이것은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탐증에서도 많이 체험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요하다는 그곳을 찾으면 본심의 작용무대를 떠 무경에로 존재하는 절대유에 감각을 체험하여 새로운 신기한 인식권을 찾는 것이 자연적으로 표시되는 듯이 되나 그 원리는 내 자신들의 이상적 감각성을 취할 수 있으며 그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근본적 이상 유할 수 있는 근본에 속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쾌감이 나와 기쁨의 표시로 전개시킨 것 밖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유에서 처하여 있으니 있음이라는 유에 절대 감성이 각면에 깊이 심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유로부터 전하여 주는 감력에 대하여 진동감을 느낄 수 없고 또 외력감에 대하여 소모적 반작용을 함으로 외력 유에 감력에 대하여 예민하게 작용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수양이나 기도가 이곳 미치게 되는 외력감력에 대비하여 진동할 수 있는 대응의 존재의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바가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무에 경지인 고요한 곳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계시다면 무아에 경지에 찾아 들어가면 초자연 감력 절대유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증한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그 근본 유에 작용과 합치한 점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자체에는 초자연작용에 감력과 실감이 내 현 자아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불교의 무아경이라고 하여 찾은 것도 일리도 어찌보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세계에 공리나 공식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그 자체를 접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바로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된 것은 타락성 받은 인간임으로 이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양심과 생심의 기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단위의

근본이면서, 원리의 중심이며, 근본이며 모든 만상의 단위체 중심이니, 이 중심점인 하나님과 직접 통하게 되면 만물이 절대단위 내에서 지배받고 존재함으로 생심의 성장체인 영인체를 가지면 그 단위를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은 것이 그 단위는 절대단위 하나님의 단위에 한 부분적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근본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존재니 즉 사람이다.

그러므로 도가 통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근본사람의 창조본경을 체득할 때에 느끼는 체험이다. 이상이나 이치도 꿈속에 사람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외부의 힘을 느끼면 내부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서 수면 중에 나타나 외부의 힘을 느낄 수 없는 꿈속에서 외부 자극이 없는 본성을 통하여 체감하여 미래의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다. 육신의 작용이 이렇게 되니 마음 작용이 이로 인하여 꿈의 몽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에 끝은 무요 무의 끝은 유다. 그리하여 자체들은 한 같은 통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혈관을 보면 동맥만을 잡아 살펴보면 심장에서부터 점점 작아져 모세혈관까지 속한다. 끝은 없어지는 정도를 향하여 세분화 되어진다. 그러면 모세혈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은 뚫 통로인 반대작용 길인 노정으로 통하여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한 작용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이 표시와 같은 것이다. 혈관이 작아진다고 하여서 없어진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은 행동의 사람들이 유무의 결론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고로 끝 부분 그 자체는 중화의 점이다. 혈관도 모세혈관에서 돌아오는 정맥부분이 유하여서만 원만하게 돌지 않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동맥을 유라 하는 것과 정맥을 무라 하는 결론적 사실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런고로 유무는 하나 유에서 시작한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유무의 근본체이다. 영은 유에서 무으로 통할 수 있는 자체다.

그런고로 영은 유라고 하는 감각범위 내 존재에 속하지 않고 감각 외 범위에 속하여 유의 원위까지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특유한 존재다. 이 성품이, 즉 하나님이 부여하여 준 특이한 성품이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 우리 이상세계는 참 자유세계이다. 즉 거리에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며, 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시간의 지배도 없는 세계다. 그저 생각과 동시에

결과가 현위하는 자유이상세계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다.

원리로 찾으려니 성경은 직접 교시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교시할 때에 왜 근본 뜻을 전부 밝혀서 교시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면 여기에 한 교시할 수 없는 중심의 뜻이 있음이다. 본래 사람의 조상인 아담 해와도 하나님의 근본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처한 존재로써 타락을 시작하고 보니, 근본 하나님의 본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증도에서 타락한 셈이다. 모세를 세워서 역사하는 그 뜻은 타락 없는 그 세계에서 이상의 회복을 보고자 함이었다. 그때 모세 자체로서는 사람 조상 아담 해와가 미완성하고 말았던 부분은 조상 역시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세와는 아주 거리가 먼 위치에 처한 뜻이므로 그 뜻은 즉 인간 조상될 수 있는 그 자체들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였기에 모세에게는 근본 뜻되는 타락원리에 대하여 전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 아담 해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여야만 될 분담 책임부분이다.

그런고로 타락함으로 그 분담 책임은 미급의 사실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사람 조상도 사탄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 사실인 동시 미완성에 처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 뜻의 과제였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사람 자체들이 이까지 처할 수 있는 한 세계가 도로 회귀되어야만 이 뜻은 실제로 자신 하나님을 통하여 실천될 근본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타락 이전의 시대에 아담 해와 보다는 하늘적 완성존재가 나타나고서만 시작할 부분에 뜻이니 그 자체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원리적으로 볼 때 근본인간조상 되어야 할 존재들이 알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을 모세로써 아는 것은 원리적 순서로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리적 존재될 수 있는 한 자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 타락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 지금 성경중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은 성경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지금 그 원리되는 근본자체 곧 선에 속하는 인간조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근본을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은 원리적 근본으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창조이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도 비유로 당시에 가르쳐 주신 것도 역시 원리를 이루시는 시기를 찾지 못하였기에 비유로 많이 말하였으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 하고 전부를 밝히 가르쳐 말하리라.(요16장25절) 하심은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여 말하지 못하는 가르쳐 주시지 못한 그 부분을 발표하게 하는 의의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일러 가라사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나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이르면 모든 진리 중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니 그 마음으로 나타나리라. 성신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하심은 비유로도 말할 수 없는 미래에 남아 있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신이 이르러 장차 예수가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준다고 하신 바는 시기적 경과를 두고 성사할 뜻의 부분이었기에 밝혀 말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예수에게 있어서 시기를 두고 더 이루어야 할 부분이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많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다.

이 밝히지 못한 분명하지 못했던 사실이 때가 이르면 성신을 통하여 가르쳐 준다는 약속이 성사를 보았기에 끝날에는 성경상에 밝히지 못한 것, 즉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한 부분이 밝히셔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니 성경 외 부분이 성신이 가리켜 준 자로 하여금 발표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통신자로다 하는 자는 감당치 못할 부분으로 되나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예수 당시에 제자들까지 감당치 못한 부분이 예수의 뜻 노정에는 있다 함을 밝힌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만 예수의 참 신부 될 수 있는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시봉자가 되는 것을 끝날 믿는다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모세부터 직접 뜻 공작을 못하였는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악의 피를 받고 나니 자손들에게 악에 피가 흘러들게 되었다. 이 더러운 피를 받지 않을 사람이 더럽힌 피를 받아 사탄의 자손으로 사람들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즉 사탄 하나로부터 번식되어진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은 취하여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더럽힌 바의 피를 맑혀야 할 것이었다. 이 피를 맑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피를 맑히기 위한 섭리를 세우셨다.

그런고로 사탄은 뜻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하여 대립적 원수로 되어 나왔다.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악의 피로 세상은 더럽혀졌으니, 선의 피로서 맑히고자 하여 선이 악에 반대하게 하시는 공작의 섭리를 하였다. 더럽힌 피를 세상에서 끊으려니 온 전체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지는 바가 문제였는데 이 공작을 돕고 나오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희귀하였다.

그런고로 선한 피를 흘리게 하여서라도 선의 한 기본적 중심 토대를 잡고자 하여 하나님은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성과를 보아서 전세계에 악에 피가 다 선에 피로 인하여 맑힘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뜻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리였다.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죽게 하신 것은 그들로 인하여 세상에 악에 피를 맑히기 위하여 탕감적 입장으로 죽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를 세워서 직접 역사하신 것은 다시금 뜻을 성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다. 이 터가 성립되고 난 후에만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는 성사를 준비한 입장에 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 뜻의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중심하고 살면은 악의 피를 말끔하게 제하여 의로 세워 하늘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공작을 사람들은 절대로 받들지 못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뜻 성사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상 대하여 섭리하시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따르면 떨어지는 것은 근본원리에 의해서니 사탄 역시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탄도 원리에는 굴복한다.

생명나무에 대한 근본 뜻

아담 해와를 중심으로 에덴동산은 자유 이상세계인 동시에 희망의 세계였다. 자유근본과 사랑의 근본을 잃고 보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락의 고통이라는 것이 전 부분에 시작되었다. 성경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과실을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따먹어야 할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 못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한 사실을 받고 나니 다시금 이상세계인 하늘세계까지가 우리와는 직접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즉 (창세기 3/24) 그룹들이 돌며 빛난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심이었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속 할 수 있는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늘을 대하여 한 간격이었었다. 이 간격을 없애려면 원리적 존재가 출현하여야만 시작된다. 그 존재는 즉 제2 아담인 예수와 해와와 성신이 출현되어야 한다.

그런고로 예수가 땅에 와서 자기의 근본 사명적 역할을 마치고 승천하고 난 후에 성신강림에서 부터가 다시금(사도행전2장 1~4절) 화염검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원리이므로 성신은 오순절에 불같은 혀를 가르면서 각인에게 임하심은 이 생명나무인 길이 하늘쪽으로부터 열렸기에 우리는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도를 찾게 되어 생명나무 과실까지 취하여 영원한 이상 영생을 취하여야 할 노정은 허락되었다. 그런고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요 생명나무 과실은 예수의 완전한 신부격을 성사 하여만이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영생요소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찾는 작업 못하고 아벨로부터 노아까지 사탄 대한 근본 의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인 자기를 중심으로 아담, 해와를 통하여 자녀번식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시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될 것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 아담 해와는 중심에서 탈선하는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탄은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대하여 나타난 존재로 되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상대하여야 할 존재였던 것이 근본인데 지금

비공식존재 사탄 한 존재로서 생기게 되어 하나님에 대립하여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은 근본된 자기에게 속해야 하게끔 원리를 세워 창조하였는데 다른 존재 사탄이 생기게 되니 사람 하나 중심하고 두상대의 존재가 있게 되니 근본 원리와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나 벌써 사탄이 먼저 원리존재로 대하여야 할 하나님의 존재처럼 벌써 사람을 소유 말게 되니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여 두 주인의 공작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 아담 해와를 다시금 자기 소유로 하려니 여기에 원리순서에 배치되는 행동이니 하나님은 다시금 실패성을 취소시키는 공작을 하려고 할 때에, 즉 원리대로 사람을 찾으려 할 때에 아담 해와 그 자체는 벌써 실패하였으니 그 자체는 비공식적 사탄 소유인 동시에 또 창조원리적으로는 타락이 있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소유자는 정한 바이나 타락되어서 그 원리적 입장은 벌써 하나님편에 속하지 않은 한 근본원리 양상으로 사탄은 사람을 취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기 몸으로 지은 사람을 포기 할 수 없는 원리적 결탁이 있으니 하나님 역시 사람 아담 해와를 놓칠 수 없는 원리적 책임이 있는 바였다.

이런 책임적 근본을 가진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중심하고는 직접 대하여 찾으려는 공작을 하려고 하니 먼저 비원리 존재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다시금 아담 해와를 두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두 주인격으로 분립시켜서 아담 해와의 실패를 세워 찾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자손증에는 두 성품적 결과의 자손번식이라는 타락세계의 존재를 보게 되었다. 즉 비공식적 주인성품에 속한 자손이며 공식 원리적 주인성 하나님께 속한 자손의 분립을 요하게 되었다. 아담 해와는 실패함으로 두가지 성품격의 모체의 주인공으로 시작은 창조 원리적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 대하여 직접 찾는 공작은 시작을 못하고 그 자식을 두고 복귀 작업을 하기 시작한 바가, 즉 아담 해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섭리의 노정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탄의 피를 받고 난 인간이니 첫 생산자는 사탄에게 속하는 원리적 아닌 존재로 되었다. 그 다음 존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입장에 속하는 존재로 되었다. 그것은 사탄의 피를 받은 사람을 찾으려 할 때에 첫 번은 사탄한테 속하였지만 다음은 아담한테 속하는 양으로 해와는 행동하였으니 타락된 자체들이었지만 아담적 사랑은 나중이니 그 자손에는 두 성품적으로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타락된 자체들의 입장으로 보아도 사탄에게서는 첫 것 사랑이었으니 첫것보다 나중 사랑, 아담사랑은 비원리 입장에 속하는 사랑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미움이 아닌 사실이다. 또 이런 원인으로 보아도 첫 자손은 미움에 자손이며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자손 중심하고 이런 이유에 대비되는 입장은 사람을 대하여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도 역시 하나님 대하여서 비원리적이거나 자기 소유할 수 있는 한 상대 혈적의 자손이 사람한테 소유되어 지는 것을 자연적으로 바라게 되어, 사람 중심하고 하나님과 사탄은 대립되어 자기 소유물 확립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탄도 역시 처음에 비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자기편에 순종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자기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담 자손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서는 비공식존재와 공식존재와의 대립이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원리적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였으나 간접적 태도로 나아가는 입장에 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복귀 공작 시작을 보려니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이니 순종으로서야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바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의 주인공이 사탄의 소유라는 두 갈래 길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고로 사람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근본적으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가 취하고자 하는 두 성품적으로 소유물, 결정적 표시물이었다. 두 형제가 각기 제물을 드렸으나 왜 아벨의 제물은 축복하고 가인 제물은

축복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것은 첫 자손 가인은 사탄의 피를 계승할 수 있는 표시로 된 자요, 다음 자손 아벨은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자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인 보다는 아벨이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외 가인 제물은 받지 않은 바이었다.

그래서 이때에 가인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자기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사랑하면서 자기는 사랑 받지 못하는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을 찾았더라면, 즉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뻐 감사하는 태도였다면 가인 역시 하나님 편으로 취하게 되는 원리적이지 못한 사탄 소유 소유자지만, 불순종권내에서 순종권내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은 순종한 자손을 취하는 곳에 대비니,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취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에 가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벨에 대하여 원수시하는 행동은 즉 사탄 불순종의 근본이 되는 사탄의 행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아벨을 죽이고 나니, 하나님의 뜻하였던 첫 복귀원리는 가인의 행동으로 온 인간에게 사망의 터를 자아내게 되었다. 즉 사탄은 그때 까지 가인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소유물이 되기를 고대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서게 되었다.

성경 창세기 4/7에 하나님이 가인보고 말하기를 죄가 문에 엮드려 너를 엿보나니 저를 방비하려는 것은 사탄은 가인 너를 삼키고자 한다는 이 근본의의를 밝히는 바의 말씀이다. 이 가인의 행동이 있었으니 순종치 않는 사탄은 자기편 가인 소유를 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것은 여기에 하늘 대하여 반격시작의 예고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행동은, 곧 온 인류에 조상급에서 되는 이 행동들은 온 인류를 좌우하는 간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사탄은 자기로 소유만 만들겠다는 것의 발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대신 셋을 준 것은 아벨의 계승 뜻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편적 존재로 세우셨다. 순종하지 않는 가인 즉 사탄은 셋을 대하여서 수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 어둠에 순종하지 않은 피를 받고 났으니 선혈적 관계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사탄을 따르는 방향으로 흘러내려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니 원리적 순종자를

찾아서 작업을 계승하여 왔든 것인데 사람들은 즉 셋 자손까지 가인의 자손들의 좋아하는 생활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운 자는 점점 적어지고 사탄의 뜻을 세워 따르게 되는 양으로 타락성 근본체인 문란한 음행은 팽창되었고 사탄에 대하여 섬기는 것은 전부가 즐겨워하는 행동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볼 때 참을 수 없어서 그 인류를 쳐서 없애고 이 뜻에 맞는 자의 자손으로 뜻 공작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세우심이었다. 즉 노아는 불순종을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표자이었다.

그러므로 노아를 두고 하나님이 근본을 복귀 또는 계승하여서 뜻을 이루시려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사탄 을 숭배하는 것이고 제2은 음행 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타락의 씨가 되었으니 이것을 통하여 사탄의 뜻 번식과 같은 협조하는 행동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눈꼴사나운 상대였기에 제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남녀의 양음부가 부끄러운 실체며, 죄의 실체며 악의 실체 쌍것이 되는 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남녀의 제일 귀한 사랑의 실체들을 쌍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근본 타락성 근거이므로 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것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바로 고백하는 바에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쌍소리가 왜 쌍것인가(다시 생각하여야) 쌍것이면 왜 좋아할까?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에 속하는 실체 즉 제일 귀한데 속하는 실체가 왜 쌍소리가 되느냐 하는 이 근본만 찾으면 인생문제는 해결이다. 이 사실은 쌍것 아닌 제일 좋은 것이 쌍것으로 되었으니 즉 비원리적 출발을 가져오는 근본이 되었다. 즉 사망이 시작되는 것이 시작의 근본이 되었으니 이런 고백으로 표시됨이라. 그런고로 세상은 비원리중에 서 있다는 사실적 양심 고백의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음양 좌우라는 말, 흑백, 지금 많이 쓰는 적백 등등은 전부가 선후가 반대로써 쓰는 것은 세상 시작이 반대로 되었다는 바를 증거하는 사실이다. 즉 이 좌니 음이니 흑이니 적이니 하는 말은 비원리세계의 시작이 먼저 되어있다는 것을 실증시켜는 주는 바이다. 양심의 직고대로 바로 우좌,

양음, 백흑으로 백적으로 되는 세상이 와야만 우리 원리를 찾은 세상이요, 이상세계이다.

이렇게 사탄이 창성함을 보니 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하여 원수로 나아가니 옛날부터 의인들의 참사가 많은 바는 원리로 되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까지는 전부가 불순의 자식들로 전세계는 되고 보니 하나님은 이들을 전멸시켜서 다시금 뜻 공작하는 결과로 노아 심판이 되게 되었다. 그 때에 노아는 순종자를 찾았으나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전부가 사망 길로 들어갔다.

심판하고 나니 하나님은 통분

근본에서 시작되었으면 자기의 자손들이었는데 사탄의 행동이 전인간을 사망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 와서 심판은 하였으나 통분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탄 때문이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 역시 생각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을 세우셨다.

심판하신 근본 의의는

1. 사탄을 사람한테서 떼어 내기 위하여
2. 순종자로 되니 사탄을 원수시하게 하기 위하여
3. 이것을 보아 불순종자의 한 사망의 표를 삼아 순종케 하여 불순종의 시작을 없게 하기 위하여
4. 하나님만이 사람을 대하시기 위하여
5. 뜻 성사의 터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뜻을 중심하고 심판은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자기의 책임성도 느끼셨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 결과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 아담과 해와 이러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자기와 아담과 해와의 책임이니 이 작업을 계승 시작하여야 할 대신적 역할이 남아지게 되었다. 그런고로 처음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줘야 할 책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초를 시작하려니 구약 역사에로 들

어간다.

그 터가 되면 무 타락 아담 해와의 분담 사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야만 창조원리의 성립을 볼 수 있는 바이다. 본래 사탄은 하나님한테 순종하여 굴복함이 없다면 원리인(무죄인) 사람한테도 사탄은 굴복하지 못함이 사실이니 하나님은 모세 시대까지 자기가 활동할 기초공작을 해야만 되게 되었다. 이 기초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보내서 공작할 수 있겠으니 그 공작하려 하는 책임이 노아 이후 공작이다.

하나님한테 순종굴복이 없다면 예수와 성신한테도 사탄은 굴복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사탄이 굴복하게 하여 사람 조상으로부터 사람 전부에게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제1 하나님한테 순종굴복

제2 아담 해와 (예수 성신)한테 순종굴복

제3 온 인간한테 순종굴복

이상의 목적을 완성하여 나중에는 사탄의 소유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사탄까지 결국 자연굴복 하여야 원리로 되는 바다. 그런고로 사탄은 이 뜻을 반하여 역사하는 것이, 즉 아담부터 구약시대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로, 신약시대로부터 재림시대까지로 전개를 보게 되는 노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역사를 통하여 걸어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여 나오신 바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 책임분담 역사가 구약역사고, 아담해와(예수와 성신) 전인류 책임분담역사가 신약역사다. 그래야만 본 타락 전 기본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재림이 성사 시대가 즉 성약시대면서 이상시대이다. 이런 노정으로 복귀 시작이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하는 중심의의다.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뜻 성사로서, 사탄은 뜻을 파괴하려고 역사상의 전쟁으로 전개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적 분담 섭리기간

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섭리노정의 근본 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여덟식구는 제2차로 번식하여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섭리완성으로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나아가야 할 사명적 책임의 부담은,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후손에게 맡겨진 중대 과업이었다.

그런데 전인류를 심판하고 나니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며 섬기는 전인류를 잃고 나니 사탄은 뜻을 부칠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인연이 있는 이상 하나님 뜻 외의 부분 존재가 있으면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한테 자유 굴복하지 않고 노아의 여덟 식구에 대하여 미련적 입장으로 자기의 뜻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요구하는 중대 주목점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입장에 서게 된 자들이, 즉 노아 여덟 식구였다. 이 식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어 자기들의 근본 책임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하나님 편으로 가려면 사탄이 따르고 사탄을 따르면 하나님이 멸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원리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여덟 식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적극성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방향으로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려는 인간에게 특유성 자유 행동 결과가 우좌하는 문제였다. 노아 식구는 모든 하늘의 기대인 소망적 존재요, 사탄이 빼앗고자 하는 소망적 기대의 존재였다. 그런 입장에 있는 존재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여기는 존재들이다.

이와 같은 인간 가치를 알고 보니 왜 사람이 그다지도 하나님을 받들지 못하였는가 하는 탄식이 자연히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원리로 보아 긴장한 입장들인 줄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기를 만남이 무한한 행복스러운 것이었으나, 이 시대에는 이 근본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한 수수께끼의 문제였기에 그다지도 자기들 존재가치와 하나님에 대함과 사탄 대함에 대하여서는 그저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를 보아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와 반대적으로 서 있다는 것만을 역사를 통하여 알 뿐이었다.

그 때에 노아는 천지에 주인공의 위치면서 제2차 인간의 조상 되는 존재의

행동 여하부터가 하나님과 사탄이 행동의 여하를 시작하는 중점이었다. 그때 노아의 여덟 식구 중에 죄라는 생각조차 하여서는 안 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의만이 시작되어야 할 존재로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양이나 흠 하나도 보여지는 행동이 없어야 할 입장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농사를 하였다.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가 옷을 벌거벗고 자는 고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기형제들에게까지 가서 부끄러운 행동의 표시를 하니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아버지 벗은 것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체를 덮은지라.

이것이 성경을 보면 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인가 하는 근본의 뜻은 오늘날까지 미해결 문제이나 그 근본원리로 볼 적에 그 사실은 명백하여지는 바이다. 이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실이나 하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미움의 행동이며 사탄한테 한편이 될 수 있는 아담, 해와의 벗음의 수치를 다시금 증거하며 타락성의 계승을 표시하는 행동이며, 사탄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 문제였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타락된 부끄러움 자체임을 아직 잊지 못하는 존재의 씨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행동이면서 또 전인류를 심판하심도 그것의 시작으로 한 결과에 도달하여 지는 바에서 나온 바를 생각하니 하나님은 통분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보여줌인 동시에 사탄의 성품, 즉 범죄한 직후에 행동의 계승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또 역시 하나님이 뜻하는 근본목적 미완성요소가 잠재함을 알게 됨이니, 또 다시금 사탄의 기착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런고로 다시금 사탄은 그 행동 개시를 보게 할 근거를 잡고 나서니 그 요구의 터를 막을 수 없는 사탄의 변식이 시작을 보게 되었다.

그런고로 그 행동을 직접 시작하게 한 그 존재가 사탄 편 자이니 함을 대하여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리라는 것을 말함이다. 그리하여 또 다시금 하나님과 사탄은 대립을 보게 되어서 자손을 번식하니 또 다시 그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으로 흘러 나가게 되었고 노아 전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뜻 번식에 협조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뜻 중에 품으려하는 자들을 빼

앗긴 셈이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사탄한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때 마침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곳으로 흘러나아가는 행동뿐이었다. 그것은 즉 사탄이 즐겨워하는 행동결과이니 이것을 그냥 두어 둘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니 전부가 의사가 통하여 한 곳으로 동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 편의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도움되는 언어가 못되고 도리어 바벨탑을 쌓아 사탄의 뜻에 협조하는 행동의 원인을 가져오니 하나님은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함은 뜻에 반하는 행동의 협조물의 언어로써 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흘러들어 가겠으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 사탄의 뜻을 돕는 길을 막고자 한 것이 인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근본의 뜻이었다. 그런고로 만약 뜻 중에서 인간이 이런 탑을 쌓았으면 또 뜻 성사로 나아갔으면 언어를 혼잡하게 할 리 만무한 일이다.

그런고로 세상에 뜻 성사시기가 오면 언어는 하나의 목적으로 하늘적으로 시작하여야 된다. 사람들은 이 뜻 성사에 협조하여서 통일된 언어를 가져야 한다. 그런고로 그 시작은 중심존재, 즉 재림주가 오면 그로부터 하나의 언어와 창조적 주관 허락이었던 세계주관세계는 근본적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사탄 바벨은 분열시키는 공작이었으나, 하늘 대하는 뜻의 탑은 합체하여 하나되게 하는 바 이 되게 하는 공작이다. 하늘 뜻을 중심하고 복귀된 사람들이 뜻의 탑을 높이 쌓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 이상의 터다.

이렇게도 하나님은 사탄에 대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신 언어 혼잡이야 복된 일이었다. (혼잡케 한 것이야 인간에게 복된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안타깝게 한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하라! 이리하였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뜻을 멀리하여, (전인류는) 뜻을 세워서 받들면서 거기에 성심다하는 자를 보기가 심히도 드물었다. 그래 하나님은 뜻을 품으려던 노아의 자손들을 또 다시 사탄한테 빼앗겼으니 이것을 다시금 빼앗는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이 사랑하는 상대자 우상상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다시금 사탄품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뜻의 자손을 빼앗은 것을 다시 갚는 양상으로, 즉 반대 노선으로 찾아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탄품에 있다가 빠져나온 대표자요, 못사람의 본이 될 행동이면서, 다시는 사탄한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나왔으니 드러갈 수 없는 입장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땅 지역으로 인도함이, 즉 아부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곧 고향산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근본목적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명령에 따르니 하늘은 기쁨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 것에 대해서는 기쁨의 존재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완전 슬픔에 존재이었다. 사탄 대해서는 설움의 존재로서, 한 분림 노선을 세울 수 있는 중심존재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선 아브라함 뒤에는 원수 사탄이 미련을 가지고 따라 다니게 되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섭리하신 근본의 뜻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고향 산천과 정든 향토정과 부모에 대한 정리라든가 친척에 대한 정리라든가가 아부라함에는 큰 고통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노정에는 이 모든 것의 문제되는 곳에는 시작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은 하늘 정을 이루고자 하는데는 반대되는 직접행동 여하를 도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을 문제로 하지 않고 갈대아우르를 출발하는 그 행동은 과연 인간으로서 찬양하여야 할 문제인 동시에 사탄에게 대한 복수적인 하나님 뜻을 성사하는 터의 행동이었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자기의 기본 뜻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 출발을 보고자 함이었다. 사탄은 아브라함을 빼앗기고는 아브라함에 대한 반대 공작을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성사를 파괴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축복하려할 때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축복보다도 뜻을 중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본의였다. 아브라함이 복의 기관이 될 축복을 하여주며 이로 하여금 큰 족속을 이루리라고 축복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서 고향산천을 출발하는 아브라함 자체에는 하늘의 작업 시작을 받게되는 하나님의 대신 뜻 성사의 기본행동의 시작은 완성하였다.

아브라함을 빼앗아 낸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목적을 두고 축복과 약속에 대한 새로운 결정적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결정적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에게 잡혀간 롯을 다시 찾아와 승리한 후에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 바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과 대립케 함은 하나님 자신이 뜻을 세울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세우는(세울 수 있는) 동시에 벌써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라가 원수적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섰기에 결정적 언약 성사를 시작하였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민족건설의 시작이며 이를 확대시켜서 국가건설에로, 그리하여 세계복귀의 근본 의의를 두고 하는 언약이 전부의 시작, 즉 아브라함의 언약중에 포함되어지는 근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뭇사물에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창15/1)

나는 자식이 아직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없다하니,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친자식으로 인하여 후사가 되리라 하시며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말씀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며, 뭇별을 다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심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적을 완성이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로 인도하였다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함이라 하시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얻어 기업삼을 것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하니 너가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소 한 마리와 삼년 된 산양 한 마리와 삼년 된 암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들로 쪼개서 우와 좌에 놓고 그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여 제단 위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니 그 제물 위에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앉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녕히 알라. 너 자손이 객이 되어 사백년 동안 고역하리라 한 노함을 보게 되었다.

이 제물은 무슨 제물이었는가 하면 그 후손에 대한 전부의 제물의 표시물이었다. 즉 그 제물이 전 하나님의 뜻이 되는 백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며 온 인류를 찾아야 할 하나님의 근본목적을 표시한 대신적 제물이었다. 이 제

물 위에 독수리가 내렸다 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벌써 사탄의 침입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즉 아브라함 하나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탄은 뜻을 깨뜨리기 위하여 아브라함 한 자신의 결과적 행동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제물을, 즉 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약적 제물임에 틀림없다. 이 제물을 실패하면 다시금 사탄한테 침입노정을 양보하는 행동인데 아브라함의 온 뜻을 합당한 뜻에 맞게 제물을 헌제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벌써 이루지 못할 것을 표시하는 증대한 것이 이 제물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이 증대한 제물을 드리는 자신으로서 제물을 전부 쪼개지 못함은 무슨 뜻이나 하면 그 제물을 쪼개는 바는 사탄편 사람과 하늘편 사람이 있다는 전인류의 표시였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손과 사탄 소유된 사람과 갈라서 섭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 뜻이었는데 쪼개지 않은 바는 하나님 자손될 약속과 언약이 성립을 보는 제물에 완성한 성립을 보지 못하고 마는 사실이니 다시금 그 자손까지 사탄이 침입할 수 있는 터를 지은 것이 시작을 보게 되어 사탄은 자기편쪽 표시로 갈라지지 않는 제물 비둘기를 취하려고 하여 제단 위에 내린 바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한 전 목적은 사탄이 다시금 차지하는 뜻으로써 제물헌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3대 제물은 무슨 표시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리 목적 중심은 소생에서 장성으로 장성에서 완성으로써 한 제물을 통하여 표시한 바이었다.

즉 비둘기를 드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 생저남을 표시함이고 양을 드리라 하심은 성장을 표시함이고 소를 드리라 하심은 완성을 표시하는 증대제물이었다. 만일 이 제물의 뜻에 합의하게 헌제하였으면 애굽 사백년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을 것이었는데 사백년 고역이라는 것은 이 헌제물의 증대한 실패를 고하는 바의 사실이다. 사백년 연대의 뜻은 나중에 논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 제물에 실패를 보니 그것은 자손을 사탄한테 빼

앗기는 표시로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사탄이 침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근본 목적은 다시금 미성사적 원인으로 기인이 되니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 자손에게 사탄 침입의 길을 막으려니 대신 제물은 사탄한테 빼앗기셨기에, 그것은 즉 아브라함 자손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탄의 뜻 성사를 본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사탄한테 제물 들인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즉 아브라함도 사탄 소유의 근거점이 되어 전목적의 미성사를 가져오게 되니 다시금 하나님은 비록 약속제물은 빼앗겼지만 아직 실체 자손되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니 하나님은 부득이 또 다른 입장을 취하여 아브라함에 따르려는 민손에 대한 사탄 침입을 막으려 함에 하나님은 그 자손의 시작인 한 자체가 사탄과 하나님과의 직접문제의 요구물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식 이사를 취하여야 하겠고, 사탄은 벌써 이사에 대하여서 취할 수 있는 예약제물 대신제물을 자기가 소유하였던 것이기에 사탄 역시 그 제물 대신 되는 실체인 이사가 요구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순종을 세워 하나님 편으로 전자손을 돌리려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실체 자식 이사를 제물로 드리려는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즉 아브라함으로 모리야 산상에서 제물로 이사를 드리려는 근본 뜻은 여기 있는 바이었다. 그때 뜻 중심하고 순종하면 사탄은 떨어지고 하나님 편으로 속하는 것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대신 제물을 잃어버린 것을 실체로써 찾는 모양으로 헌제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원리적 문제는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예약 대신제물을 헌제시 실패가 전자손에게 4백년 동안 이 고역의 뜻을 알고 나니 이번에 실패하면 말할 수 없는 큰 곤란한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뜻대로 번제로써 자식을 드리는 확고한 그 입장에서 사탄은 목적상대인 이삭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바의 시작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근본 뜻을 현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이나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구절을 알게 하는 구절이 있나니, 즉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아들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말라. 네가 너의 독자를 나에게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야 네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셨다. 이 성경구절 중에 이제야 하는 그 구절이 즉 전번 실패를 경고하는 동시에 뜻 계승 성사를 고함이었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노정을 찾아 나가는 그 도중에는 예약 대신 제물로 실수한 험물로 받은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4백년 동안 원수 앞에 고역해야만 본 노정에 들어설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 4백년 고역은 필연적 과정이었다.

진리를 찾으려니 진리에는 소생의 단계가 있고 장성이 있고 완성이 있는 바이니 하나님도 이 찾고자 하는 뜻을 한 진리노정이니 이와 같은 3대제물이 요구되었다. 이 제물적 사명에 소생부분은 즉 구약시대의 상징이다. 소생하면 장성 완성으로 나아가려던 것이 인간이 절대 순종하지 못함으로 분림을 자아내는 것으로 전개할 것이 표증 되어 있다. 한 제단 위에 3제물은 한꺼번에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근본 뜻이었다.

여기에 소생역사는 하나님의 책임분담으로 시작 기초를 잡는 것이고 장성은 예수가 오셔서 근본복귀의 복수의 예로 해와를 찾아야만 되는 것이고 완성은 예수를 중심하고 전인류와 합하며 또 하나님과 합하여서 전 근본 창조 목적 달성을 보고자 함이 표시로 된 제물의 의의다.

제물 중에 비들기는 소생 단계를 표시함이니 구약시기를 말함이고 양은 장성단계이니 신약시기를 표시함이고 암소는 완성이니 재림을 말함이다. 장성과 완성과 함께 할려는 뜻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것과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니 재림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암소는 완성의 표시이었는데 왜 암소였던가.

즉 완성하려면 해와 한 존재가 문제되는 중심점이니 암소는 해와를 표시하는 뜻이다. 사사기 14장 18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나의 암소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처를 암소로 표시하여 말함도 예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암소는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해와가 즉 완성할 수 있는 목적 대상이었다. 간단한 제물 내용을 소개하였지만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탄은 이삭이 실체에게 뜻을 세우지 못하고 다시금 그 자손에 대하여 대립적 태도는 물론이며 다시금 실체

자손에 침입의 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삭의 한 존재가 예약 대신제물의 침입을 보였기에 그 이삭에게도 불순종의 터는 벌써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잘못하면 생기는 것을 사탄은 바라보고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제물을 자기 것으로 하였던 사실이 있음으로 사탄은 여전히 그 후손에게 대하여 대립성을 갖고 대하게 되었다.

그런고로 이삭이 자식을 낳으니 쌍태인지라, 즉 에서와 야곱이었다. 이 쌍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한 제물에 원치 않은 존재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실체자식 이삭이 문제되어 또다시 찾았으나 이삭의 자식한테 대하여는 사탄 역시 사탄이 찾고자하는 한 터를 양보하였던 실수가 있었으니 그 자식되는 쌍태는 원수적 표시의 소유자와 하나님적 표시인 소유자가 한 태중에 있음을 표시함이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음은 이와 같은 근본 배치의 존재이니 복중에서부터 싸운 것이다. 자식을 낳으니 에서와 야곱이더라.

에서는 원수 사탄의 대표요, 야곱은 하나님 편적 대표이었다. 즉 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난번 제물 실패의 씨요. 다음 야곱은 잃어버린 이삭을 실체로서 찾아서 제물까지 찾아 세우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제2차적 존재인 야곱을 통하여서 뜻을 세우고자 함은 근본이 그와 같이 되었기에 빼앗아서 성사하는 모양이니 하나님이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는 근본 의의는 여기에 있음이다.

그래서 제물 실패가 없었으면 이삭의 자식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와 같은 존재는 없었어야 할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다시금 사탄을 분립하게 하여 하늘 편과 사탄편을 분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미련을 다시는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같은 표시적 사실로써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다시금 예수가 와서 원수 피를 받은 전인류를 빼앗아 넘길 것을 예고하는 사실이다.

이런고로 이 한 사실이 근본을 밝혀주는 것인 동시에 뜻을 이루는 한 표징으로 되는 바가 되어야 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체 목적의 표시인 약속이었기에 이런 의미의 한 분기적 존재는 이삭이니(이삭부터이니) 그 자손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되어진 실상이었다. 그런 결과의 영향을 받고 낮기

에 만 자식은 하나님 앞에 사랑 받지 못한 사실의 원인이니 창세기 전면에서 보여주는 사실이다. 예를 찾으면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아벨 등의 사실은 이와 같은 사탄 피를 받고 태어났기에 만자식은 미움의 상대이었다.

여기서 뜻 성사 출발의 후손은 야곱을 중심하고 택한 백성 12형제요 12지파로 시작의 출발은 야곱부터 시작하게 한 것은 근본적 뜻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과 사탄이 바라는 존재 입장의 아담과 같은 두 상대적 입장이었기에 근본 출발을 못했다.

즉 이삭부터가 애굽 출발이 아니고 야곱부터 되는 바는 이상 해설 중 원리로써 명백한 사실이다. 이리하여 택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근본은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바는 뜻 성사의 첫 출발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원인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사탄과 분립되어 복귀의 출발은 시작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적 분담 책임성사의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근본이 되어 즉 표본이 되어서 장성과 완성적 사명 분담 책임자의 본이 되어야하는 제1차 하늘적으로 하나님 직접 사명하고자 하는 기초는 시작되는 동시 제물 표시 소생 과정의 발로이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복귀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할 기본 표시 공작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 목적을 한 완성이로 볼 수 없는 한 터의 공작이니 애굽서부터 솔로몬 왕까지는 제2차 완성하여야 할 존재가 나타나서 성사할 한 예고적 표시로 되어 있다. 즉 예수 오셔서 애굽서부터 가나안 복귀로 가는 양으로 우리 인간 이상복귀의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한 사명적 기초 표시로 전개시키고자 함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애굽서 가나안 복귀노정은 예수의 노정을 표시한 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다.

그리하여 타락시킨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적 책임분담에 대하여 시작하는 것이 즉 모세를 세우심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바로는 사탄을 대신하고 나오게 되었다. 모세가 택함을 받은 원인은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학대하는 동시에 강제로라도 전멸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고역 중 원수의 사람과 즉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것을 죽이는 모세는 본래 애굽 궁중에서 성장하였으나 애굽 사람을 원

수시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변하지 않는 지조는 과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귀여운 행사였다.

애굽 궁중에서 자라났으나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으로 변함없는 그 자체였다. 이 자체는 애굽 원수의 모든 제일 미워하는 자체인 동시에 사랑받고 자라난 존재였다. 이 자체가 애굽 궁중에서 나왔으니 애굽과는 다시 결탁 안하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고로 그 위에 애굽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존재이니 하나님 택한 바가 원인이 있는 바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를 대하여 공작을 하게 하기 위한 시작을 명령하게 되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 백성 앞에 믿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니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첫 이적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하여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알게 하여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함이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된지라.

그 다음에 다시금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나은지라. 그 다음에는 듣지 않거든 강물을 가져다 부으라. 그리하면 피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말 잘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 할 때에 이런 특이한 기적을 보여주었나 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시고자 하는 사실의 터가 되는 행사이니 그 표시되는 모든 뜻은 전부 예수 오셔서 할 목적성사의 한 상징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할 원리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

144page에 기록되어 있음 ☞ 지팡이라는 것은 대신 의지자를 표시함이었다. 즉 나를 대신해서 보호할 것을 말함이고 모든 앞길을 잡아준다는 뜻이며 또 합당치 않은 것을 쳐서 뜻대로 이루게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보호가 될 것을 말함이었다.

뱀을 보여 주심은 뱀으로 유혹한 표시적 존재로 해와에게 역사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뱀과 같은 역사로 사탄 수중에서 빼앗는 역사를 하여야 할 하늘 뱀적 표시를 예고하기 위하여서 착수할 것을 의미 하심이었다. 사탄 네가 뱀 가지고 했으니 나도 뱀을 가지고 예수로 역사한다는 것이 근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세 뱀은 예수는 사

탄 뱀을 잡아버려 승리할 것의 예고적 표시였다.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은 것은 첫째 번은 사탄의 유혹받아 사탄 품에 안긴 해와의 행동은 인간을 죽이는 역사였으나 다시금 뱀를 품에 넣으심은 예수 오셔서 해와를 품는 사실은 나병과 같은 뱀중에 소생하여 산다는 표시로 손의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제1차 품은 것은 사망이나 예수 제2차 품으심은 생명이라는 영생의 시작을 예로써 증거한다』 .

강물로 피가 된다는 것은 물은 세상을 표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중에 처한 존재들이 예수 오셔서 피로되는 생명 주입을 시작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다. 말 잘하기 요구는 상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책임 증개체이니 말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창조물 전부를 말씀으로 지은 것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상대 이상적 실체를 다시금 성사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즉 말씀은 창조목적 만물의 실체를 말하심이다. 아담 해와를 찾는다는 것과 온 인류와 만물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때 모세가 요구하는 전부를 허락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심에 모세는 자기의 처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만아들 장자라하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도 바로가 놓아 보내지 않으면 장자를 죽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도중 한 숙소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모세의 처는 아들 고추의 양피를 베여 던져서 죽음을 면하게 하면서 처가 말하되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한지라 그것은 할례를 한 연고더라.

여기에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과 함하여 모의하여서 뜻 성사한 것과 같이 모세의 처자 즉 모자가 협조하여 모세를 살리는 행례의 일을 한 것이었다. 그 근본의미가 무슨 뜻인가하면 모세는 즉 할례를 성사못하면 죽는 것이고 성사하면 산다는 중대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할례의 근본 뜻을 완성하는 실체인데 그것은 그 모친과 힘을 합쳐 협조하여서만 성립되는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아내와 자식이 힘을 합하는 일이 없으면 뜻 성사 못하고 예수는 죽는 십자가가 있다는 예고적 사실을 표시함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만이인 장자로 뜻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모세가 살아야만 될 것이었는데 모세 한 생명은 전체 이스라엘의 대신생명이요 전체 이스라엘의 대신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이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할례가 없으면 모세는 물론이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사망하는 표시적 행사치레였다.

그러므로 모세 처자가 할례가 있었기에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사의 중요문제를 결정짓는, 즉 우좌하는 근본문제 해결의 성사 책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 입장에서 모세 아내와 자식의 힘을 합함의 큰 승리적 조건이 성립을 봄이었다.

이 뜻을 세우지 못하였으면 모두 실패할 수 있는 곤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한 모세의 아내와 자식의 한 할례가 전체 택한 백성에게 대한 만아들 장자의 명분을 완성하게 하는 근본자체가 즉 할례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오셔서 모친과 힘을 합해 협력하여 할례성사의 뜻을 이루고 성사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적 근본이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미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친이 뜻을 받들지 못하였기에 예수는 모친에게 대하여 갈릴리 강가에서 특이한 기적을 볼때 여인이여! 하신 말씀의 근본적 뜻이 있음이다. 그외 모친에 대하여서 여인이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 말씀 등의 시작은 예수는 뜻을 이루는 성사의 제1차 시작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의 십자가 상 죽음 시작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룰 수 없는 자기 삶을 가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노정에 숨어 있는 원리의 목적은 누가 알 수 있으랴!

여기에 할례에 대하여 말해 보기로 하자

본래 성경에 할례라는 명사가 생기게 된 것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원인되는 것이 사실인데 본래 해와가 사탄 피를 받고 아담까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하는 중심한 문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주관하여야 할 해와를 주관하였다면 타락조차 방지하였을

터인데 해와한테 도로 주관받고 나니 타락된 것이었다. 즉 아담 고추인 양부를 통하여 전체 타락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책임은 아담인 남자에게 있는 것이었다. 이 남자되는 아담이 도로 지배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됨에 타락의 시작의 성립을 보게한 실체는 즉 남자의 고추인 양부였다.

그러므로 어둠에 피를 받아들인 그 자체이니 어둠에 피를 다시금 빼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를 해야만, 즉 어둠에 피를 먼저 받았어 죽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써 살려면 그 자체로써 사망에 피를 빼야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시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지켜야할 정해놓은 규례로 세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관성을 다시금 복귀하는 남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할례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신10/16), 육신할례가 있고(창17/10), 만물할례가 있다(레19/23).

- 할례는 1. 죽음의 피를 빼는 표시
2. 주관성을 다시 찾는 표시
3. 근본 뜻에 자녀의 길을 찾는 약속의 표시

이상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시던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인간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미지의 것이다. 또 몰라야 하는 것이 한 원리였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행해진 할례의 행례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짚어진 전체 목적을 이루는 것을 표시함을 다시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예수 오셔서 할 사명적 행로의 전형 표시로서 그의 모든 일은 모두가 따라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징된 바라는 것이 원리로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사명 분담책임의 과정은 예수의 길의 기초가 되겠으니 같은 뜻의 목표 표시로 만사는 드러내어 나가는 것이 근본 의의이었다. 134절상어로 옮길 것 지팡이라는 것은 대신 의지자를 표시함이었다. 즉 나를 대신 보호할 것을 말함이고 모든 앞길을 잡아준다는 뜻이며 또 합당치

않은 것을 처서 뜻대로 성사하게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 예수
가 우리의 전체 생명에 대하여 보호가 될 것을 말함이었다.

모세에게 아론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속죄적 행례의 대표자로 세우심은 모
세를 협조하여 한 목적 뜻을 이루시고자하는 일에 모시고 받드는 것이었다.
즉 백성에 대신속죄책임 역할을 하시는 해와 자체로 될 성신과 함께 예수에
뜻을 받들어 모시고 따르게하여 인간에 대하여 직접 속죄 책임을 할 것을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모세에게 한 대신 협조자가 없다하여 아론을 준 것은 아니지만 말씀(言)에
대신을 요구할 때에 아론을 세우심은 아론은 말씀 대신자임을 표시하니 말
씀에 최고에 문제자는 해와의 한 존재이었다. 즉 말씀 성사는 해와를 완전하
게 찾을 목적으로 기본된 원인이 되니 즉 아론을 세워 대신 속죄하심은 예
수도 해와와 합하여서 인간 속죄의 직접 문제를 하여야 할 자기 자신에 사
명분담 역할이었다.

즉 해와로 죄를 지었으니 해와로서 대신 씻을 역할을 해야 할 책임분담이
되어 있으니 아론은 모세의 한 상대격자로서 백성을 대하여 모세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성사하게 협조한 바는 예수 오셔서 말씀 상대를 찾아 뜻 성
사를 잡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예시하여 표징하는 의의이다.

모세에 이상과 같은 여러 조건이 성립되어 바로를 대하여 직접 맞서 대립
의 자세를 취하여 나서게 되었다. 그때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
지 않은 반면 도리어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증오심을 가지게끔
하나님은 바로를 강박하게 할 것을 말하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을 놓아줘 광야에 나아가 삼일쯤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를 청하라 하시었다.

여기 삼일노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생명 놓이느냐 놓이지 못하느
냐 하는 문제는 이 삼일노정이라는 문제를 걸어 놓고 시작하게 되는 기본요
구 조건이었다. 이 삼일간이 허락이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부에 목적은 시
작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삼일노정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
님의 뜻을 성사하게하는 작업이 기본되는 요구조건이었다.

그런고로 예수 오셨을 때도 사탄에 대하여 삼일기간에 대한 과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이 과정을 성사하려면 모세에게 속한 구비조건 같은

여러 조건의 구비를 보여야할 것이었는데 이 구비조건은 광야시험을 통하여 그 터는 사탄에게 승리함으로 성립되었으나 그의 대신역자 아론과 같은 해와 존재를 구하여 준비하는 일은 이루지 못하여서 삼일노정의 시작 노정을 자유롭게 넘어서지 못한 원인으로 십자가 삼일간의 기본적인 근본은 시작되었다.

이때 예수 앞에 어머니과 합하는 뜻 성사를 중심하고 해와 한 존재와 인간들이 하는편 쪽으로 순종하였으면 예수의 십자가 노정은 다른 방향으로 효과적 노정을 보아 사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의 성립을 시작하였을 것인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성사할 책임이 예수의 책임이니 죽어서라도 삼일 기간을 해치우는 사명적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었다.

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노정이 왜 예수의 노정 전모되는 이유

위에서도 간단히 표시하였지만 하나님이 본래 지은 것이었기에 근본적인 책임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었다-창6/6-. 하심은 여기에 기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때-사사2/18- 하나님이 후회와 한탄하는 원인은 자기의 몸이 되어 하는 인간이 때문이다. 즉 사람 잃어버린 것은 자기 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1차 심판으로 인하여 전멸 당한 후 하나님은 다시금 한탄 하시어서 다시는 審判하지 않을 것을 宣布하심과 동시에 심판받게 된 최종 결과는 자기가 지었던 인간이었는데 타락되었음으로 심판이 생겼으나 타락하게 한 사탄도 본래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존재로부터 시작된 원인이나 전부에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니 사람을 다시금 찾아 근본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심판한 것이지만 다시금 찾으려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목적에 길을 닦기 위하여 노아 이후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람 타락의 제일 간접적 원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고 그 다음을 해와이라는 본래 타락시킨 직접적 원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찾은 역사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제일 근본이 되며 중심이 되어 아담 해와가 찾을 수 있는 길을 닦고하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아담 해

와가 나아갈 길을 도표의 근본으로 표시를 결정하는 동시에 사탄에 대한 승리노정이 되어야 하니 이 근본대로 하여서 아담 해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기초를 세워 놓으려 하는 것이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담 대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승리의 근본된 노정처럼 사탄에 대하여 제1차 승리의 노정을 표본으로 삼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표본으로 삼고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적으로 사실을 발표하였었다. 즉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또 그와 같이 실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심이라 하시었다.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을 본받아 제2차 승리 노정의 시작은 제1차 승리노정과 같은 노정을 취하여야 할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 때에 와서 하는 모든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 책임분담 노정에서 보여진 사탄한테 더럽힌 것을 다 이루어야만 출발을 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책임분담을 모세를 세워 원수 품에서 뽑아내던 것과 같이 예수 때에 와서 전체 인류를 찾아 사탄한테 빼앗아야 할 사명적 기대를 상징시킨 사실에 근본원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하신 길을 따라서 해야한다. 그래야 같은 목적 하나를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담하여 책임을 이루는 비공식 노정을 아는 우리 인간은 애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와 성신의 역사분담은 사람 때문이었구나! 이 모든 원리적 근본을 아는 우리는 전 정력을 뭉 아끼라!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아지 못한 타락인 세계에 처하였던 자 아들을 알게 될 때에 그 원리의 전부가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인간이 되었으니 사탄에 적대하여 총공격하여 급속한 시일을 두고 복귀하여야 할 것을 알았구나.

이제야 참 살길의 시작을 알 것이고 인생의 뿌리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라! 문제가 이제 나타난 뜻을

받들어 모시는게 최고 문제로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는 6천년 이전이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도 6천년 간에 쉬지 못하시고 나를 찾으시려던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는가! 즉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다.

이 기쁘고 고마운 소식을 널리 전할 자 세상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아는 자 몇 명이었는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대하여 침뱉고 아들로써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원통함을 오래 참으신 그 아픈 심정을 어느누가 동정할 효자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 이 길을 닦기 위하여 세상에 효자가 가야할 마땅한 효자의 길과 충신의 길과 사제의 길을 미리 전파하여 그 기반을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 자체들이 없는 한탄할 일을 또 몰라주는 인간이 되야겠는가!

아는 자는 직접 대하여서 효자로 멀리 대하여서는 나라적 차원에 대하여서는 왕으로 가르침은 스승으로 기본을 이루게 해야만 뜻을 세울 수 있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삼강이라는 유교적 중심체로서 하나님을 모셨던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므로 그렇게 못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관계를 가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것은 창조원리를 전부 완전히 찾아 첫 이상을 이루려니 숨은 원리적 간격을 두고 타락하였기에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이전에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아버지를 알아야 할 백성이 알지 못하고 왕으로 알아야 할 주인공을 알지 못하며 사이라면 이상에 없는 자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원수편에 대립하여 섰던 그 자체를 대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

무지한 백성을 찾아서 자녀로 삼으려니 모세를 세워서 바로를 직접 대립하게 하심이였다. 지금부터 모세는 그 사명에 첫 출발을 원수 사탄의 대변인 바로한테로 발을 옮기게 된 것이 크나큰 역사의 희망에 초점이였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서 거듭되는 특이한 기적으로 바로를 굴복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다.

바로에 대하여 10여차례에 대한 특이한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한테 범죄하였다는 고백과 함께 완전한 굴복을 표준하고 역사하심이였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압하게 하심은 무슨 목적 때문이셨는가 하면

1. 바로가 다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생각조차 못하게 미련을 버리게 하고자 하심이고
2. 바로(사탄)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요구대로 스스로 복종하는 동시에 순종하여야 할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3. 원수에 모든 것을 꺾방하게 하기 위하여
4. 하나님에 반대하는 일을 하는 자는 망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5. 장자의 근본 피를 받은 자를 쳐서 원수의 피를 소멸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것이 원수 바로(사탄)는 자각하여 자연굴복을 표준함이고 이 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찾게 하기 위하여 바로를 강압하게 하였나 하면

1. 바로(사탄)는 원수로서 증오심을 품게 하기 위하여
2. 바로편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3. 우리 편에는 절대능력 하나님이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하여
4. 애굽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을 완전 없애기 위하여
5. 애굽 사람에 대하여 한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정을 통하는 자가 없게하기 위하여
6.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도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하기 위하여
7. 하나님의 뜻에 일련된 동행을 기르고 배양하기 위하여
8. 어떤 어려운 난관이라도, 하나님은 타개하여 주실 줄 알게하기 위하여
9. 하나님에게 대립하여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원수로 알게하기 위하여
10. 앞선 노정의 승리적 요소를 배양하기 위하여

11. 뜻을 바라 조급하지 않게 하여 영원히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뜻대로 세우고자 하여 이상과 같은 뜻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연대시켜서 하나님의 바라는 조건이 구비될 때를 보기 위하여 바로(사탄)를 강박하게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극도로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와 사탄 대신한 바로와는 대립전을 전개함이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과 소망과 행복의 곳 가나안 복지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작은 오늘 신앙생활 출발 노정인 표시적 노정을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세 앞에 굴복한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어 애굽에 있는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중심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직접 생활하는 한 노정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내보낸 것을 알게 된 바로는 하도 분하고 원통하여 병사와 수레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추격하는 애굽 병사와 수레가 오는 것을 알고 소란이 일어나고 동요하였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히고 뒤에는 애굽에서 추격해 오는 병사와 수레인 병거가 있으니 할 수 없이 이제 죽는구나하고 전민족이 소란하고 동요하였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알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더러 물에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하심에 좇더니 홍해가 갈라져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자를 치심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상전 전개에 패하는 종국에는 애굽에 있는 장자에 대한 재앙을 내리심이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나 하면 사탄의 어둠에 피를 받은 백성대표의 장자들은 더우기 그의 직접적 먼저 받은 피의 종자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 가운데 먼저 태어난 자는 무엇이거나 가리지 않고 치게 되었다. 즉 사탄의 소유물 중심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장자에는 양의 피로 대속하게 하는 바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하였음이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는 뱀의 피를 받았던 백성을 치기 위함 자체로 오는 동시에 예수편에 속하는 자는 대신 피로 즉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언약의 표시였다. 사망의 피로 인하여 죽은 피를 생명의 피인 예수를 소생하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과거 신앙노정에서 있어 사탄 주관 하에서 예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사탄은 바로와 같이 우리 뒤를 뒤따라 추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곧 표징하는 바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즉 지팡이로 치면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는 지팡이 대신으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과거 세상에 고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는 표시이었던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메뚜기와 만나와 샘물을 주어서 고통에서 구원하심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생명소생의 요소를 무조건으로 주실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다. 새로운 광야로부터 호렙산 반석 샘물까지의 노정은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만나와 메뚜기와 샘물까지의 노정을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만나와 메추리와 샘물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 생명 요소를 받고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아말렉을 대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니라.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지라.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모아 취하여 모세를 앓게 하고 아론과 훌은 양손을 들고 종일토록 아말렉을 대하여 승리 하는지라 그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제거하려고 하니 너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주어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넛시(나의 깃발)라 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보좌에 손을 놓은 것이 있으니 여호와 아말렉과 대대로 전하리라 한지라.』 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무조건 보호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 자격자로 세우고자 하니 아말렉의 그와 같은 전쟁을 보게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즉 예수와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으로 사랑을 세워주신다. 예수의 생명받아 산 자에게는 원수 사탄의 한 대립을 주어 그 자체가 다시는 원수와 합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노정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보호 시기가 있었으면 원수 대하여 승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과 같은 믿음의 조건을 보장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원인으로 되어있다.

즉 모세의 손을 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품으시는 표시요. 아론과 훌은 품길 수 있도록 협조함이요, 여호수아는 신앙자 중심 대표자를 표시하면서 우리 자체들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뜻이 성립되어야만 원

수 아말렉을 문제없이 승리조건이 성립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후일 제2차 책임분담 사명의 감당자로 오시는 예수와 우리가 합하여만 승리한다는 조건들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와 지팡이는 하나님 대신을 표시하는 것이고 돌덩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표시하심이다. 아론과 훌은 예수와 해와를 표시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믿은 신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일에 예수를 모시고 성신을 오른편과 왼편에 두고 하나님을 받드는 자라야만 승리한다는 표시적인 뜻이 있음이다. 그리고 사탄은 즉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리라 하심은 돌을 쌓아서 모세를 앉히신 연고니라 이것은 아론과 훌이 한 것이지만 하늘과 땅을 나누어 세우신다 하는 입장에서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의 행사가 사탄이 하늘 성사시까지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지어주었으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심이라 하시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사탄 대하여 서 있음으로 뜻에 속한 입장을 확고히 잡지못하면 끝까지 싸움을 하여서라도 승리하여야 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아말렉과 같은 원수를 대하여 싸워 승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성도를 사탄과 싸우시게 하는 이유는 사람까지 전부 사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근본이니 이런 싸움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지도를 받으면서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 즉 이것은 직접품에 보호하여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내 광야산 앞에 머무는지라.

그때 모세는 산상에서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듣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받아 세계에 없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온 세계를 통치할 후일에 약속을 세우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의 이상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도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하나님한테 합할수록 사탄은 이스라엘 뒤를 따라가면서 광야까지 따라나와 불신 불순종의 자체를 대하려고 시도를 여전히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사탄이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불신 불순종이면 사망에 처하는 것을 절절이 뼈에 새기지 못하였다. 때맞추어 시내 산상에 70장로를 데리고 모세는 40일 40밤을 지내면서 십계명 말씀 석판인 석비를 받게 된지라.

그때에 6일간은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시내 산을 덮더니 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중에서 모세에 나타나심에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눈 앞에 화염과 같이 비치시는 것에 모세는 그 안개속으로 들어가 40일 40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기간인 동시에 백성에게 가장 지루한 기간이었다. 이 십계명 받음과 동시에 성전건설의 시작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에 사실이었다. 성전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음이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고 또 그 앞에 성소가 있는지라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되어 있게 되었다. 즉 성전은 예수님의 한몸 건설의 한 터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성전으로 되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즉 지성소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늘 세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성소는 지상세계를 상징시키는 뜻이 있는 것이었다. 예수 한 자체에게는 하늘과 땅 완성에 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표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성소를 살펴보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이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음은 무슨뜻이냐 하면 본래 인간이 타락함에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말씀에 이상실체인 하나님 몸인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담 해와 타락한 후 그룹들을 두어서 하나님 세계와 서로 떨어져서 상적 하였던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수오시면 하늘 생명수를 찾아 생명나무 과실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그룹 간에 나타나시어 직접법궤를 메심을 말하심이니 하나님의 그룹의 간격을 통하게 하는 것을 표시하여 이와 같은 구조를 보게 한 것이다.

속죄소에 나타나심은 속죄한 곳은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 근본창조원리를 복귀하여서 자기자신의 한 몸 예수와 성신을

통하여 죄를 속하신 후에 각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기본터를 닦는 존재로 올 것을 말함이고 그 몸 성소 같은 그에 접하여 안기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상을 재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 오신 후부터는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없게 된 것은 성전이 쓸데없게 된 것은 예수의 한 몸을 상징하였던 그 본 자체가 출현하게 되니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니 구약시대의 이상은 완성함을 결론지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는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오셔서 그룹으로 막았던 하늘 세계와 통로를 지었고 생명과의 이상 목적 달성의 시작은 온 우주를 통하여 성사하고자 하는 종대목적에 뜻을 두고 성전의 건설을 하게 하였다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승리한 후에 이 성전건설시작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원수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우리 신자도 성전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예의 표시였다.』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제2차 성전 자체건설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대하여 고대하는 최고목적이니 이 얼마나 귀한 소망들의 존재였을까! 즉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한 몸 될 수 있는 기본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부자지간인 근본을 찾은 뜻의 성립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귀중한 성전의 시작을 불려고 모세는 산상에 40일 40밤을 지내는 중에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시켜서 금송아지 우상을 지어 섬겼는지라 여기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 수작의 기초를 지어준 행동으로 나아가 그 우상을 중심삼고 기뻐하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온 백성이 아론으로부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성을 크게 내어 손에 쥔 두 석판을 던져 부순지라.

그러므로 여기에 모세는 법에 벗어난 행동을 시작하였다. 석판 둘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아담 해와의 실체들을 표시함이다. 즉 돌비석을 깨는 행동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이다. 즉 결과에 있어서는 사탄 시켜서 한 행동에 지나지 않은 행동이었

다. 그러니 여기가 하나님께 있어 크나큰 증대한 일의 출현을 보는 사실이다. 즉 다시금 오실 존재에 대한 하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의 결과이었다.

이 두 석판이 무엇이나 하면 자기의 몸을 표시한 것이요 온 이스라엘 보다도 귀한 자체인 것이었기에 여호와께 화가 크게 나서서 온 백성과 아론 이하 전부를 말끔히 지워버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심에 모세는 다시금 40주야를 금식하여 하나님이 같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속죄함을 받고 만든 두 석판에 다시금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새겨 받았으니 전과 같이 모세에게 광채가 발하였다. 그러므로 다시금 뜻을 계승할 바를 알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 뒤를 다시금 이와 같은 원인을 통하여 침입의 길을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반대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한탄하여 마실 것이 없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니 모세는 회막 사이에 머물며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 갈아사대 너가 지팡이로 아론과 더불어 회막을 모으고 그 눈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모인 군중과 기르는 가축에게 먹이게 하라하심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며 갈아사대 패역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물은 저 반석에서 물을 내게하여 너희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차례나 치니 물이 더 많이 나오는지라.

이것이 가데스에 있어서 한 것이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여호와를 향하여 대중에 여호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그 물을 브리바라 하신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행동이 즉 브리바 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근본 의미였는가 하면 반석을 한번 친 것은 허락된 것이지만 두 번 친 것은 허락하지 않은 일인 동시에 또 허락할 수 없는 범죄였다. 반석을 한번 치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고 믿지 못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몸되는 실체에 사탄의 침해를 받아 하나님의 몸을 쳐서 아담

해와를 죽이는 행동을 시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석을 말함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면 즉 하나님의 몸을 표시한 것이다.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보아도 반석은 하나님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번 치는 것을 용서한 바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을 표시하여 증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 자신의 대신 몸의 표시인 반석을 치라고 하심이었는데 의외에 두 번을 친 것은 한번은 의외의 것의 행동인 동시에 사탄이 다시금 하나님의 몸을 치는 표시적 행동을 한 것이었다.

한 번 더 친 것은 모세가 치셨지만 사탄이 친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이 표시적 사실에 실패는 다시금 석판과 함께 부수고 만 행동과 같은 것이었다. 두 석판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예수와 해와의 표시이므로 다시금 찾아서 세울 수 있으나 반석은 (석판)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몸이었다.

그러므로 실체 몸과 근본 몸을 범하는 범행이야 사탄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의 기초를 순종하지 못한 것과 믿지 못한 결과로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 범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는 사탄의 터가 되는 시작인 동시에 다시 보내시어 제2차 책임분담 사명자로 오는 예수까지에 대한 미완성의 한 표시적 근본실체를 범하는 행동이 되게 되었다.

그런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지 않음과 믿지 못함은 예수까지 다시금 칠 수 있다는 근본원리가 시작됨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행동은 즉 하나님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사탄 앞에서 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탄의 기쁨의 한 승리권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입의 기대를 잡고 침입할 수 있는 행동이 시작됨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뱀을 전해 받아 물리게 하게 한 것은 다시금 그 타락시킨 본체에 침입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즉 뱀이었다. 이 뱀에 물린 것이 무사하게 되려면 갓대위에 그려진 불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낫게 되리라고 한 것을 표시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 두 번 친것이 즉 하늘 역사적 예수의 자체가 침범당하여 죽게 하는 행동의 기원을 허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표시였다. 이것은 즉 순종하지 않음과 불신에 결과의 선물이니 이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체인 예수 앞에 순종과 믿는 것 이외에 요구되는 근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손들은 뱀인 사탄편에 속한 것으로 하여 광야에서 전멸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믿음과 순종한 자만이 기업으로 받을 곳이라는 것을 표시함은 우리 이상 천국도 불순종자와 불신자와 두려워하는 자는 못가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복지는 우리 본래 이상하던 하늘 나라를 표시하는 행복스러운 사람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표시하여 준 것이다. 모세가 죽는 것은 불순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도 그 결과를 보리라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하여서만 기업의 땅을 찾게되는 것이다.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뜻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반석 두 번 친 연고였더라. 여호수아는 예수에 한 표시적 존재도 되면서 모세의 뜻 성사자도 되는지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부터 예수까지로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도 상징한 것이고 모세한 뜻을 증심하고 보면 제2 모세 뜻을 이루는 자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여야할 기초인 하나님적 책임분담노정이니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도 즉 하늘나라 건설중에서 원수와 뱀과 기업을 만들고 정하는 일이 남아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사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여 기업을 완전성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심이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 오시면 직접 왕으로 설수 있는 기초작업이 있다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에 사울왕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표시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제1차 아담격 사람의 왕위격을 표시함으로 실패도 그 원인을 표시한 것이다.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원세를 드러내고 그 아들 솔로몬은 영광에 왕으로 성전 완성왕

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은 예수 오셔서 뜻 성사하여 권세로써 영광으로서 본 뜻 성전완성이상이 전개될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목적을 완성해야 할 사명적 과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자신을 죽게 함을 보여 하늘적으로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권세로 성사할 전체 근본 이상를 이루지 못하고 왔기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적 제1차 책임분담 승리노정에서 사탄에게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의 침범은 예수로 하여금 제2차 성사 책임 사명 분담을 이룰 수 없게하여 다시금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안될 중대 과제인 영광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터를 예수는 권세왕격으로 사탄 대하여 승리하여 온 인류를 근본자녀대로 백성대로 복귀하여야 할 책임이 남아있기에 재림하신다는 근본목적이 있음이었다.

재림이라는 것은 하늘 슬픔의 한 사실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의 발로의 결실이였다. 그리하여 예수오셔서 영적으로 이 무대를 세계무대로서 확대하여 영으로 온 인류를 찾아서 근본터까지 즉 타락한 인간 부분까지 영적으로 끌어 올려야 할 책임적 사명을 성신과 합하여 성사하여 다시 몸으로 성사의 터를 세우심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이루고 육신으로 이루고자하여 남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의 몸을 쓰고 재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에 대하여 권세로 찾아 영광을 누려야만 근본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한 주관하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근본 창조이상이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임분담 사명에 한 노정은 제일 짧은 기간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고목적인 하나님의 재림할 수 있는 성전조성한 근본완성의의는 한 성사를 보았으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이후에 한 사람 대한 요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성전에서 요구하는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전체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 전 생명의 기본이면서 전체 재산의 기본이며 국가를 이루는 것의 기본이며 이상적 완성의 기본이었다. 그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주

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성전의 이상을 높이면서 뜻을 이루는 것을 기초를 맡겨야 할 중대한 의무가 남아 있음이었다.

여기에 성전이상을 이루어서 예수와서 한 기대를 성사할 수 있다는 표시적 성사는 보았으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수행의 시작이 완성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제2사명적 비준의 터를 각자가 닦는 것이 구약역사가 바라는 소망이었는데 모든 백성은 어려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나가야 할 의무를 분담하셨다.

그리해야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바의 복음에 순응함으로 예수의 몸이 될 수 있는 성전에서부터 우리 한 분성전 건설이상을 조성하여서 하나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터를 이루어야 할 사명단계가 즉, 솔론몬왕 이후의 백성이 짊어지는 큰 증대 목적이었다.

그런 반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묘한 수단을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직접 취하여 나오는 그 뜻 성사의 길을 분열시키고자 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순종하지 않음과 불신의 씨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입의 마수를 뻗치려는 시도에 강경히 대응하여서 하나님 편에 더 깊이 서서 나아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가 음란의 신의 근본인 원수를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려든 백성을 또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여 오면서 가진 수단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심정을 알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는 점점 그 뿌리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성전을 더럽힐 행동이 몇번이던고!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뜻 기초성사의 표시는 완성한 목적기본을 잡아서 약속은 시작하였으니 그만 둘 수 없는 책임감 그 외 사탄은 기세당당하여 하늘 뜻을 파괴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공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포기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패한다는 비공식 결점을 보니 이 천주는 전부가 사망이 고통에 삼켜질 것이며 하나님 역시 불안할 근본적 뜻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 아무리하여도 그 뜻을 성사하여야 할 하나님의 과제이니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뜻을 백성들에 연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성전 건설 뜻의 유지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 근본목적은

예수 한 존재가 중심이었다.

그 다음은 예수께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제2차 예수 존재와 같은 번식 이상 목적 시작의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여하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아버지 뜻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

그러므로 성전을 지키면서 하늘 뜻을 받들 수 있는 주변 작업을 계속하면서 기본되는 자체인 메시아를 보내서 뜻 성사할 최고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에 예고하여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노정을 지켜나가게끔 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예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하시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라면서 천수백년 동안을 계속하여서 권고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 협조를 못하여서 이와 같이 뜻 성사의 시일을 연장 시켰던 것이었다.

메시아 강림의 약속을 받고 바라는 백성은 조급하게 바라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실천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자기의 요구들만 바라는 그 자체는 타락에 피를 받은 도리에 어긋나는 백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메시아 오기 전에 그에 대한 시기도 알려주어 그의 바라는 희망성을 높여 주어왔다.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그의 전체 목적을 받들 수 있는 준비작업 사명자로 오는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여 그 시기적 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메시아 강림에 앞서 바라던 한 소망으로 그들 생활내로써 뜻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하고 메시아 소망이 한 목적으로 바라보면 희망을 높여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준비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하여서 기초 작업과 함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어 그들의 소망 성사를 이루어 주는 동시에 자기의 목적 실행의 한 기쁨과 기대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메시아를 보내주면 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대신 귀하게 알면서 그의 전 주위에 한 단체의 결속을 지어 성전 이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뜻을 아는 자 몇 명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한 소망을 가지고 제1차 하나님적 책임의 사명분담 기초 위에다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즉 예수의 강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적 책임시기는 끝 맞추어 그 제2차 책임사명분담자의 행로를 잡아주고 섭리를 계속하여서 자기 몸으로 지었던 아담 해와의 사명적 분담 성사 노정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신 것이 곧 예수였다. 예수는 제2 아담이다. 성경에는 고전 15장 45절을 보아도 로마서 5장 14절을 보아도 예수는 제2차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시켰으니 원리대로 자기들이 범한 책임사명을 다 찾아 복귀하여야만 근본뜻을 성사할 수 있는 창조이상이 되는 것이었다.

제2차 하늘 뜻 성사 책임 사명자로 오신 예수

예수적 책임분담 섭리기간에 대한 근본의의

1. 지상섭리 노정에 대한 근본의의

구약시대는 전체 목적 종결은 예수 한분 때문이며 그의 사명적 완성도 예수란 한 존재가 중심이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한 행위의 길은 구약시기에 한 중심 노정이었고 그 노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의요 사망의 시작이라 한 것은 잘 아는 것이다. 예수 한 존재의 가치는 곧 전체 이스라엘 성전 ○ 이스라엘 백성 보다는도 귀한 한 존재이었다. 곧 4천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한 결실의 자체가 예수였다. 동시에 창조이상을 가지고 창조하였던 전 존재와도 비례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였다.

예수 = 전인류 + 만물 + 하늘 이라고 하는 중심존재가 예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천주목적은 예수로부터 다시금 찾는 가치의 존재니 이 모든 것 보다는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살아야 천주도 살고 하나님도 완전히 살며 예수님의 뜻이 성사하여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진다는 한 중심점의 존재가 바로 지상 탄생하신 예수였다. 하늘의 뜻 성사도 예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라는 원인은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줄 안다. 이 천주의 중심점인 예수의 한 존재가 지상에 오는 바는 지상 아니면 뜻의 성사를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의 중심지가 즉 지상이었다. 지상에서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였으니 땅을 중심하고 복귀하여야 그러한 하나님의 만세 이전부터 시작된 이상 바로 창조이상을 원리대로 이룰 수 있는 조건의 성사를 보는 바이었다.

그러므로 땅이 없으면 하늘은 완성하지 않는다는 증대문제가 근본하는 원인이 되어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늘에서도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니 모두가 같은 기점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몸 된다는 기본적 인과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귀한 한 존재가 예수인데 이 예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마고 하심은 다시금 예수에게 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지않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 이 근본자체로 오신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대환영을 받게하여 전체 백성은 예수한분 만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그들의 자랑으로 믿고 모셔야할 사명적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구비조건을 지어 놓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주마 하신바가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는 직접 인도하여서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 기르고 배양하였지만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모실 수 있는 작업도 역사적 성인들을 통하여서 동서양에 섭리를 하여 합성화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예비 작업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사명적 대표 인물들이 즉 공자며 석가였다. 또 철인 소크라테스 등의 양심과 도를 중심한 선을 표준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도 그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종교든지 근본은 선한 하나님을 표본으로 정하고 준수하게 함은 즉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을 근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근본인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자체인 종교들도 한 근본상에서 총합을 보여야 되는 것도 원리로 되었다. 그래서 예수 한 존재의 이상 중에 뜻이 중심이시니 전체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할 근본체이니 예수가 뜻을 이루실 때는 온 천주는 한 중심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종교도 경제도 과학도 합하여 한 기본상에 가동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어 찾아 맞추고자 하는 것에 근본적인 뜻이 있다. 이와 같은 크나큰 사명적 중심 존재의 육신 강림과 함께 온 천주는 큰 복음의 소식을 보았다.

하늘은 물론 예수의 뜻의 완성을 바라는 바고, 땅은 예수의 앞에 지도 받고자 하는 것의 요구이었다. 예수 한분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며 해방의 주인공이었다. 그것은 즉 사탄 세계인 비공식세계에서 원리세계인 예수의 세계에로 건설목적 완성의 요구가 예수의 할 책임인 동시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

고 믿고 받들어 모셔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땅에 백성이 짊어진 책임사명이었다. 이 책임의 요구를 성립할려니 엘리야가 와서 할 사명전부는 온 백성을 합하여서 엘리야와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일체가 되어서 뜻의 원만성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보다도 제일 기대하여야할 존재는 엘리야가 제일 바라는 존재였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는 승천한 존재였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였으니 틀림없이 먼저 올 줄로만 알았다. 승천한 엘리야가 언제나 오실까하고 바라보는 데는 하늘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중심으로 되었다. 즉 하늘로부터 올라갔으니 하늘로 부터 내리올 줄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승천한 엘리야는 그 당시 제일 귀하게 바라는 한 상대로 된 것은 메시아 때 문이었다.

메시아를 모실수 있게 도와주는 자는 엘리야니, 엘리야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요구이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고 바라는 자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적 신자들이다. 메시아로 왔던 것은 사실임에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역사를 통하여 확고한 것으로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예수를 메시아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든 것은 성경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하여서 몇 번씩이나 물기를 그대가 메시아면 엘리야는 왜 오지 않는가, 그 엘리야는 어디에 왔는가? 하면서 예수한테 이 반문한 것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바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당시에는 참말 믿고 순종할 수 없던 것이었다. 메시아라는 그 존재는 그대들이 다 잘 아는 요셉의 아들로써 집에 묻혀 목수로써 어제 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이며 그 내용 내막까지 잘 아는 그 자체며 생활체형으로 보아도 우리들과 다름 없는 그 자체인데 어디 그 존재가 자기들의 바라던 이상한 중심존재라고 생각하는 점에 하도 먼 거리에 존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보였다.

우리가 바라던 그 존재는 천 수백 년간 약속의 존재요 희망의 존재였던 자체가 예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영문인지 큰 환란의 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전부 뜻 중심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들 중심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낄줄도 알았다. 그러면 자기들의 메시야가 오면 한 조각의 식물이나 거처할 방이나 의복이나 그 중 한가지라도 준비해 놓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먼저 무슨 색다른 소식이라도 있는가 하여서 고대한 자가 만일 있었다면 메시아 탄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존재조차 없다는 사실을 볼때면 벌써 그들의 메시아 고대는 전부가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들이 메시아의 힘을 빌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 각자는 자기들이 이상에 부합하는 이상의 존재로 바랐다는 그 입장에 있을 때 예수란 자가 출현하여 너희들이 이상의 존재라는 선언은 하도 턱없는 동시에 분개할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과연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나니 자기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모양이니 과연 그 자체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예수를 대하여서 더 의심하게 된 것은 엘리야가 전제 문제의 존재였다. 자기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왔다면 메시야니 예수니 여하튼, 문제는 해결인데 엘리야는 오지 않고 메시야가 왔다고 해서 그 어찌 믿고 말할 수 있으랴! 지금 우리는 바꾸어 생각할 필요를 느끼면서 지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욱하여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 즉 메시야가 만민의 구주요 이스라엘의 희망의 한 중심존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인식과정으로 나왔으니 예수는 메시아며 뜻하신 예언의 실체라는 것을 알며 그 전에 올 엘리야도 왔었다는 것은 세상의 교인은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엘리야는 왔는데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역사로써 인정하여 주는 성경을 보아 아는 사실이다.

또 예수는 엘리야가 왔으나 임의로 대접하였다고 하면서 복음서에 세례요한을 지적하여 말한 바를 보아서 아는 간접적 지식이었다. 과연 그 당시에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은 과연 메시야로 믿고 모시고 순종할 자 몇 명이나 될까?

지금 현 교인들이 바리새 교인의 신앙만큼도 못한 자가 많은 이때 생각할

문제면서 염려할 중대한 문제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찌하여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되는가? 그 근거는 무슨 뜻이며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은 무슨 뜻의 의의를 두고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고 세례요한을 보냈는가 하는 문제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본의의를 밝히지 못하는 현신학계가 과연 하늘이 섭리하는 뜻의 받들어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말세라고 하는 때이니 성경 중에 미지였던 사실이 명백하게 되어야만 성경의 목적을 끝내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결정적 관문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중대시 되는 미지의 근본을 밝히기로 하자.

2절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근본의의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루시려 할 때에 그 뜻 성사에 제일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 사탄 존재가 있는 것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근본 뜻을 파괴하였고 지금까지 적으로 나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큰 중대한 문제가 된다.

만일 사탄이 없다면 뜻 성사는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사탄이 있어서 인간을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 밖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극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역사를 하여 옴으로 하나님의 뜻 성사의 역사로 연장을 거듭하게 하여 온 것이다. 이 사탄을 전폭적으로 굴복시켜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 없도록 사탄의 전멸을 준비하는 바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뜻 방해하려는 사탄의 뜻 노정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뜻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이 근본 뜻을 성사하려고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는 뜻을 반대하는 사탄을 굴복시켜 다시는 예수의 뜻 성사 노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보내마 하신 존재가 즉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잘 아다시피 하나님 앞에 혼자서 사탄 전복하고 싸워 이긴 최후 승자이었다. 엘리야의 요구하는 당시의 최고의 목적은 사탄 전멸이 목적이었다.

다시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곳 없게끔 바라던 것이 엘리야가 바라던 목적이었다. 그 목적이 즉, 하나님이 바라는 뜻 성사 노정을 두고 바라보

는 목적과 같은 목적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탄 바알신 8백여를 멸한 자이며 뜻 성사 노정상 완성 할 수 있게하는 사탄 대한 중요한 존재였다. 엘리야의 목적은 완성하였는가 하면 그 당시 사탄 대한 목적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다시금 사탄 침입을 보아서 예수 앞에까지 침범할 우려성이 있음으로 다시금 이 사탄 존재에 대하여 엘리야 바라는 근본목적은 완성시켜서 예수앞에 사탄 자체의 종적을 없애기 위한 대표자를 보내 엘리야가 바라던 사탄 전멸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을 바람에서 엘리야를 새로 세례요한으로 표시한 것이며 세례요한이 엘리야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엘리야의 목적이 세례요한으로 완성할 사명적 역할을 가지고 맞섰던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말할 때 엘리야의 목적 성사는 세례요한으로 종결짓게 되는 것이었다. 세례요한이 와서 한 사명을 달성하면 하나님 뜻은 완전 성사하니 사탄을 하나님 뜻 노정 상에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예언하신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었다. 예를들면 하나님 뜻은 하나인데 뜻을 이루는 데는 갓(엘리야)과 을(요한)이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뜻은 하나이고 사람은 두 분이다. 뜻 하나 중심하고 말할때 갓 = 을 이라는 한 몸으로 완성한 것과 같은 근본의의를 두고 예언하심이 있기에 엘리야 = 세례요한 이라고 하심이 근본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 하심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큰 범행의 행로를 취하면서 자연스러운 뜻의 행함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엘리야 대신으로 보냄을 받은 세례요한 사명은 무슨 목적이 남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뜻 성사를 완성하여야할 토대를 조성하여 예수 자체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이 분담되어 있었다.

세례요한이 하여야 사명은 엘리야의 심정과 재능으로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로 자식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동시 자식으로 그 아버지께 효도하게 하여 줄 역사적 사명성을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함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즉 누구나 다 전인류의 조상인 동시에 온 인류는 예수의 자식이라는 창조원리로 되어있는 목적을 찾아서 맞출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할 책임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다. 밖으로는 사탄을 방비하고 내적으로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식된 도리를 알려주어 아버지를 모셔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이 여러가지로 겹쳐서 많고 중대한 입장에 세례요한은 서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전체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써 즉 메시아 한 분이 그의 생명의 대신이며 희망과 소망의 전부의 중심존재이었을 것이었다. 또 자기 자신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세례요한의 광야생활이라는 전체 목적은 여기에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예수보다 6개월 전에 사가리아의 가정에서 태워난 그 자체는 하늘에 무한한 기대로서 보낸 자이면서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존재이었다. 그 시대를 대표하여 뜻을 세우기 위한 30여년 생애 모두가 예수(메시아) 한 존재가 목적인데 그 메시아를 모시는 그 한날의 기쁨의 영광이 그대의 목적이었다. 세례요한의 뜻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세례는 예수의 그 근본 뜻을 성사할 수 있는 한 터의 자격을 부여하여 주는 약속 표시의 예였다.(요한복음1장 31~34) 세례요한이 이 예식을 하겠다는 자기 뜻 성사를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예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당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 보내신 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식이나마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음은 하늘로써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고 있던 까닭이므로 새로운 방식의 신법요1/15 세례를 받게되는 것이었다.

이 세례요한은 증거하기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서 대중 앞에 선포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과 메시아의 사명은 각별하게 다름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전체 목적 실체인 메시아 이 한 존재가 소망성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지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자 할때 세례요한이 사양하여 말하여 가라사대,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시나이까하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우리들이 의를 행하는 것

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세례요한이 허락하여 세례를 시행함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걷히고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리며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써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는 나이니 사랑 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의 존재라는 것은 세례요한 스스로가 알게 되었다.

그때 누구나 전부가 이 사실을 듣고 보았든가? 전부는 알지 못하였지만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이 한 목적을 책임진 세례요한에게 알려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하늘 뜻을 성사하게 하고자 하심이 뜻이었다.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과 하늘로 보내신 특별자라는 것은 알려주었으나 세례요한에게 예수는 메시아라고까지는 가리켜 단정 지어 교시하여 주지는 않았다. 지혜롭게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한 단계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세례요한은 자기가 바라든 메시아를 만났음은 그 이상 무슨 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다시금 무엇을 할 사명적 다른 부분을 요구할 무엇이 없었을 것이 사실인 동시에 기뻐서 대중을 대하여 적극 예수는 보내시마 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여서 대중이 예수앞에 집결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도 역시 예수 앞에 있어서 모든 대표적 태도로서 대중 앞에 나타나서 성원하여야 할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예수는 세례요한에게 있어서는 생명 대신의 존재였다. 그러한 기쁨에 근본존재로 알고 대하여야 할 예수 앞에 세례요한 여하한 태도로 나서게 되었는가? 그 자체가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하여 대중에게 큰 영향을 전하는 중대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수 자신이 우리가 바라든 목적의 존재 메시아라고 대중 앞에 선포 못함은 사실이었다. 그저 요단강에 세례 받은 때에 일뿐이고 요한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처음 시작한 세례나 주면서 다니는 행동을 계속하고 다니니 예수 대하여서도 대중은 메시아라고 보는 것 보다도 세례요한의 한 행례의 도움자로서 아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을 정도이었다.

세례요한의 목적이 그저 세례나 주고 다니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전체 사명이었는가? 너무나 가치없는 행동이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

여 생명 계승의 한 증대 존재가 그냥 그 멋대로 사방을 자유로이 다니면서 세레만 준다는 행태에 우리는 한심한 태도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세레요한 자신은 역시 예수 앞에 있어서 나타난 엘리야의 한 대신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는가 하고 의심할 문제이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라 하심을 보아도 자기 자체가 그 사명적 입장을 명백히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알았으면 왜 대중 앞에 서 자기를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점을 없게 하여야 책임도 준비 못하였던 것이었다.

세레요한 자신이 엘리야란 것을 알았으면 대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존재로써 어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싸워서 그 기대를 세웠든가? 자기 자신도 확고한 엘리야의 대신자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세레요한은 자기사명에 대하여 적극적 준비 작업을 하여서 그 목적 본체로 오신 예수 앞에 전 따르고 모시는 시종의 중심 존재로 서서, 예수의 전 사명의 협조자로써 또 제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한 제자로써 받들어 모시는 외에 더 큰 다른 무슨 목적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따로 분립하여 행하고 다니는 세레요한의 하늘 앞에 증대한 책임 완성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본적 배신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성경에 보면 세레요한이 전폭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다.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며 묻기를 그 대가 오시리라 기록된 메시아입니까? 하는 질의,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곳을 보면 세레요한 자신도 메시아에 대한 해결을 못 하였던 것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뜻을 받들어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할 그 존재조차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 주지 못하니 예수 자신에 있어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정도였을까? 과연 통한하지 않을 일이였을까? 누가 그 심정을 알 자 있었으랴! 여기에 세레요한이 예수 앞과 하늘 앞에 큰 범행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현재 기독교인 세계에 없는 것을 나는 통탄하고 울분하는 것이다.

그저 세례요한은 귀하고 하나님 앞에 없어서 앎될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세례요한은 아버지 앞에 귀함의 존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때문에 온 자가 그 본 사명 중심지를 떠나서 행하는 그 자체는 물론이며 그 따르는 자까지 하늘 아버지 앞에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때 하늘로서 착하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써 그의 말로에까지 하나님은 귀히 보지 않음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증대지사 여하가 예수 앞에 크나큰 광야생활이라는 한 고통의 노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광야에 나갈때는 고독한 그 심증을 헤아려 동정하는 자 세상에 몇몇이었던가? 여기에 인간과 상대하여 예수의 사명범위는 한 압당한 암로에 봉착하였음을 누가 아는가! 아는 자 아버지와 예수 자신뿐이었다. 그 광야의 적막사 일은 예수 앞에 큰 낙망과 동시에 다시금 재출발의 한 노정을 결심하게 하는 노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광야까지 따라나가 예수를 받들어 모시며 따른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때 마침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자 있다면 이는 하늘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동방박사는 어디 갔는가! 목자는 어디 갔는고! 모친은 어디 또 갔는고! 세례요한은 어디 갔는고! 모두 자기 뜻을 중심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들은 예수 앞에 기쁨이 변하게 하여 탄식하게 하는 한 존재들에 불과하였으며 더욱 슬픔을 격동시켜주는 기대에 틀림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런 심정을 품고 광야생활에 있어서는 제1차 낙심을 다시금 복귀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적극 원수 사탄을 상대하여 최종 결판시기였다.

사탄이 벌써 하늘 뜻을 이뤄야할 터를 침입하여 뜻 순종 노정을 만들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부족한 점부터 다시금 예수 앞에 사탄은 나타날 수 있는 한 자기의 기대는 보았으니 그 다음에 그 중심 자체인 예수까지 와서 시험의 시도는 원리적 한 행동이었다. 그러니 광야생활 중 사탄이 자유행동에 대비한 예수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례요한이 인간성 표준으로 예수를 대함

세례 요한의 한 행동이 어찌 용서받겠는가 생각하면 몸서리치는 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세례요한 역시 예수를 대하여서 뜻을 중심하고 대하지 못함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세례요한도 사람인지라 메시아라는 자체면 좀 더 고귀한 위에서 자기에게 보여졌을 것이었는데 별로 보통 인간과 다름이 없는 존재의 용모이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뜻 성사의 노정을 취하여 나가지 못하는 존재로써 어찌 메시아의 자격이란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었다.

세례요한 역시 그 시대적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관점으로 서게 됨이 큰 실수의 시작이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 세례요한은 예수 앞에 메시아라면 완전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하고 그 외 제자들까지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과연 인간성에서 나온 파괴행동이었다.

제자였던 자들과 동급적 입장에서 그 입장이 과연 인간세계에서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러니 이런 관점 등은 인간의 전부가 자기중심하고 하늘을 대하고자 하는 대신 사탄 수작이라고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탄과 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와 같이 논하는 것은 근거없는 원리 위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세례요한의 일대 실수의 행동을 폭로한 구절을 찾아서 해설하여보자. 이것은 지금까지 신학계에 어려운 난해한 관문인 구절일 것이다. 즉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내용적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즉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심을 마치시고 그 城에서 떠나시사 교훈하시며 선포하시려고 각성에 가시더라. 그때 왜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어 그리스도의 행함을 물어보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진실로 왕 당신이 오실이가 그분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 대답하여 왕 너희들이 와서 듣고 보는 것으로 세례요한에게 고하되 눈먼자가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나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한다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고 저들이 가고 나서 군중들에게 세례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움직이는 길위나 또 이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이냐?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에도 많이 있다. 너희들이 어찌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

을 가르쳐 기록하였으며 불지어다.

내가 나의 일군을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은 너 앞에 예비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논하노니 여인이 난 사람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일어남이 없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이 올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씀으로 얻나니 힘쓰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이르렀으니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수증할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니라. 귀가 있어 듣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데 아이가 시장에 앉아서 동류를 불러 왈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픈 소리를 내며 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고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으니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저들이 말하기를 사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하니 다만 지혜는 그 행사로 의를 나타내느니라고 이상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였다.

이 내용전부는 세례요한을 상대하여 놓고 한 말이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제자가 와서 물을 때에 본대로 말하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나 너희는 스스로 자각하여라 하면서 여러 특이한 기적과 기사로써 표시하였다. 그러면 예수는 왜 이런 대답을 하였는가? 그저 묻는 그대로 대답하여 옳도다. 내가 오리라고 한 자로다. 하면 그만 해결을 짓는 일인데 이와 같이 빙빙 돌려서 말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니 그것 보아서 알라는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귀하고 높은 예수를 찾으면 그야말로 그에 더 성공이 없는 것인데 누구나 전부 가르쳐주고 전부 끌어다 주면 그 귀한 자체를 찾지 못할 자 어디 있을까 마는 밝히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만 그 뜻 성사는 물론 하늘이 협조하여 주었지만 자기 노력으로 찾아야만 그 찾은 상급에 대한 영광받을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종점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면 100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95가량만 알려주고 5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한 뜻에 노정에 표시로 되었다. 왜냐하면 100까지 중 100까지 전부를

가르쳐주면 그 상급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라도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의 완성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95까지 가르쳐주고 5는 자기 지혜를 통하여 찾아 100까지 채우기를 바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역사 노정에서 많이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 5란 그것을 찾아 이루게 하는 그 사실은 100에 성사한 영광을 누리고 기본권한을 결정하는 사실이니 이와 같은 예로써 세례요한에 대하여서도 대답한 것은 사실이다. 또 세례요한에도 하늘로서도 이와 같이 가르쳤다. 지혜로 찾아서 의롭다 하심을 결정함을 주시고자 하여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확정지어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 지극한 하나님이 사랑 하셔서 하시는 섭리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허락한 예수니 지혜있는 자만 함하여야만 원수의 지혜를 깨부술 수 있는 기본동력이 되는 근본의 힘에 터가 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히 어떤 목적을 가르치셨다가 다시금 시험하여 그 목적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게 가르쳐 주는 때도 있다. 그것은 지혜로써 그 근본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야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사탄 원수에 대하여 승리할 자격자로 세우려니 이런 시험도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체험하는 사실적 근본의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즉 사탄에 상대하여 반대의 역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또 그리하여 한 완성격자가 되면 전부를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성사를 표준하기에 이와 같은 자리를 바라서 우리에게 크게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섭리 하심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써 뜻을 찾아 완성하는 자는 저 하늘 나라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다.

누구나 부러워 할 존재의 자격은 지혜를 찾음으로만 존경에 가치를 볼 수 있는 근본의 행동이 즉 지혜로 뜻 성사를 완성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메시아를 고대하기를 자기들이 뭔가 좋아지기 위하여서 고대하였기에 지금 이와 같이 나 자신은 너희들의 바라는 목적 상대로 되지 못하여 가난자와 같은 자밖에 상대할 수 없는 모양에 있

다함을 통고하는 동시에 너희들은 마음으로 부유한 것이었기에 나를 상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주관세상에서 착함은 짓밟혀 가난한자급에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악이 주관하는 세상이니 악한자는 부유하고 착한자는 가난하니 이런 원리적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마태 11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의 구절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이야 예수님의 숨은 심정을 표시한 말씀이었다. 즉 이 말씀에는 벌써 세례요한은 나에게 범죄하였다는 결론적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벌써 복된 입장이라는 이랄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과연 예수 앞에 세례요한 한 자체는 크나큰 타격의 존재이었다. 예수의 전 목적의 대부분에 일대 어려운 일을 초래하게 한 큰 범죄자라는 것은 더 말할 바가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든가? 그 광야에 나감의 전체 목적은 예수님 한분 자체를 알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냐? 또 광야에서 세례요한 자체가 증거한바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때 벌써 알아야 할 시기를 놓치고 지금 와서 이런 행동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 증거한 세례요한은 과연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큰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었다.

광야에서 본 세례요한은 과연 선지자 중에도 큰 자라고 하나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논하노니 여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심에 결론적 판결을 내렸다.

이 말씀이 지금 신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점이나 그 근본 뜻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즉 근본 뜻이 무슨 뜻인고 하니 여인으로 난 사람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자가 일어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이러하다.

지난날의 선지자도 여인을 통하여 태어났고 지금 세례요한도 여인을 통하여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존재라고 하였느냐 하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여서 뜻을 알려 주는 대변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역시 한 하나님 뜻을 알리는 대변인라는 것과 같은 뜻이 존재하나 그 자체들이 증거한 입장을 취하여 보면 지난날 선지자 전부는 증거를 하되 예언적 증거로서 예수일을 증거하였으나 세례요한은 증거를 하되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였으니 증거를 하는 입장을 중시하고 말할 때 세례요한 이상 가는 자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증거를 하는 입장을 두고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할 때 과연 세례요한은 여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제일 큰 존재라는 근본의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근본 뜻은 이러하다.

천국에 간 자도 여인으로 난 자들이다. 그러면 여인으로 인하여 태어난 인간 중에는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고 하였는데 왜 천국에서도 커야 할 터인데 제일 작은 자가 세례요한이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 안될 수 없는 수수께끼인 한 관문이다. 이 근본 뜻도 세례요한이 범죄적 행위를 책망한 증대 구절이다.

그 뜻은 이러하다.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여 놓고는 자기는 자기 멋대로 행하였으니 예수에 대하여서 측은 존재가 되어 행하여야 할 입장을 떠나서 행동하니 큰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메시아로서 받들어 모셔야 할 중심 존재가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도리어 뜻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니 그 자체에서는 과연 극히 작은자의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례요한이 적극적으로 받들어 모셨으면 그는 두 말할 것 없이 하늘에서는 지극히 큰 존재가 될 수 있을텐데, 받들어 모시지 못하니 천국에서 작은 자 보다는 못한 존재로 되고 말았다하는 의미였다.

즉 천국에 있는 성도 또 천사나 어떤 존재라도 예수에 대하여서는 메시아라는 근본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진정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중심존재가 받들어 모시지 못하니 받들어 모심에 있어서는 최고 작은 자가 되었다하는 의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받들어 모심을 중심하고 말씀하여서 세례요한에게 대한 범죄행위를 책함이라는 중대한 근본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세례요한이 도래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으로써 얻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심의 말씀도 역시 세례요한 대한 범죄행위를 지적함의 말씀이었다. 세례요한의 도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에 말씀인가 하면, 먼저는 세례요한 자체가 뜻을 받들어서 받들어 모셨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당연히 세례요한이 될 것은 정해진 하늘의 목적이었는데 결단력 있게 못하였기에 즉 받들어 모시지 못하였기에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라는 중에 세례요한이 선유 권리를 주었던 큰 위치를 지시한 것이었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 그 지정되었던 위치는 결단력 있는 다른 제자들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국은 결단력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심이다.

그러므로 결단력하는 다른 제자들한테 그 위치를 빼앗긴다는 근본의 뜻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을 보아도 여기에 세례요한이 범행한 자체이면서 예수 앞에 큰 하늘적 반역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존재에 대하여서 오늘날까지 존경하는 눈으로 봤다는 과거 신앙자의 무지의 서러움을 무엇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과연 통탄하고 울분할 사실이다. 이 사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어려움이 시작을 재촉하는 한 행동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야 한다. 그 다음은 세례요한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는 세상이 먹고 마시지 않으니 사귀가 들었다하고 나는 먹고 마시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하니 다만 지혜는 그 행사로 의를 나타내느니라 하시었는데 이 말씀 중에는 세상이 함부로 하늘 뜻을 부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정하여 평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뜻을 가지고 온 자를 대하여 조금도 응하는 자 없다하는 것을 비유하여 아이가 시장에서 앉아서 동료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우리들이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비유하여서 현재 뜻 중심한 자기의 목적에 요구에 조금도 응하지 않음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하심의 경고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교인들이 아는가! 이와 같이 초림예수 앞에 전개되었던 진상이 지금 재림을 바라는 세계 신자들과 바리새교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뜻에 속한 존재가 지금 신도 중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근본원리들은 말세가 되니 뜻 성사 시기가 되니 명백하게 되어만 재림의 시기는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근본 뜻을 알고 받들어 모시는 자는 하늘에서 제일 큰자라는 것이 끝날도 부여되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본 예수 앞에는 광야라는 서러움에 노정을 전개시킨 근본원리이라고 위에 논한 것을 이해할 줄 안다. 이런 근본을 밝히지 않으면 적극 반대할 자들은 현재 교계 신앙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뜻과 근본을 알 때에 큰 두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 논한바 근본문제인 세례요한 자체는 하늘적으로 예정적 존재였으나 그 사명을 받들지 못하게 될 때에 하늘은 뜻을 받드는 가치를 알고 받드는 자가 하늘적 예정적 목적을 계승하여 완성하는 바로 하나님은 뜻의 섭리를 돌려 역사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지 예정적이라는 것은 뜻을 중시하고 말씀한 것이지 뜻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아도 현실 신앙계의 예정론 등은 그 문제 밖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진다.

복귀섭리 표시로 된 예수 조상의 혈통

인간은 해와의 실수와 아담의 실수는 온 인류로 하여금 사망에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찾고자 하시어서 역사를 통한 섭리노정에 전폭적 뜻 표시로 전하여 왔음을 이상 논한 것에 의하여 잘 알 줄 안다. 그런데 특히 예수 직계의 혈통을 가진 역사적 조상들의 전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근본원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한 의심되는 혈통을 가진 것을 누구나 다 절감하였던 사실이 되어 왔다. 예수님 조상의 혈통은 전체부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뜻을 중시하고 조상에 하나님은 대하여 왔던 것이다.

역대의 조상의 전체 표시적 중심되는 일은 후일 예수의 사명적 사실을 전부 완성할 수 있는 원리에로 표시하면서 예수까지 인도하여 경유하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예수때 와서 타락한 온 인류를 근본대로 회복하여야 하는 존재가 되려니 그 역사에 대하여서 근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시

적 계통을 취하여 왔던 것이다. 예수의 조상에 보면 세상 사람보기에는 불결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혈통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계통이 아니고 여러 여인들 대표적 존재들의 나타나고 있다. 즉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등인 여성들이다. 이와 같은 혈통을 가진 것은 본래 인간 조상 아담 해와 자체를 더럽힌 자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직제를 떠나서 사탄과 합하여 사망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을 다시금 복귀하여 근본에 옮겨 놓고자 하니 사탄한테 빼앗긴 사실적 예와 같은 반대행동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서 사탄의 근본 더럽힌 원리를 찾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중대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이런 더럽힌 여성들과 같은 자들이 행동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순종하고 받들어 모시고 믿을 수 있는 그때야만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원리성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때에 와서 복귀하여야 할 근본뜻들을 전적으로 표시적 순종, 믿음, 받들어 모심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뜻이 시작한다는 표시로서 역사적 조상의 행동 성립의 표시가 함의를 보아 예수의 근본이 되는 조상 자격자로서 부여하신 것이었다. 야곱은 에서를 두고 장자의 기업을 빼앗음을 표시한 것을 후일에 전부 예수와서 더러운 피는 먼저 자식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사할 표시적 사실의 성립을 보았으니 이제는 다음 새로 선 자가 먼저 아들로 본 혈통을 이루어야 할 시작은 즉 유다부터였다. 유다에게 있어서 뜻 성사적 사실의 표시와 동시에 뜻 실천 성사출발을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성사할 것을 미리 말하였던 것이나 뜻 성사에 첫 혈통의 계승자로서 베레스와 세라를 보여 주심이었다. 이 유다부터 하나님은 뜻의 기본 시작을 보는 것이었기에 다말에게 한 쌍태를 주어 베레스와 세라 역시 야곱과 같이 복증에서 싸워서 그 뜻의 기본 확립에 한 표시를 성사함이라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다말이 한 행동으로부터 알아보자. 다말은 본래 하나님 뜻으로 허락한 혈통을 계승하여야할 입장에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혈통을 계승하여야 자기 존재에 대하여 많이 고심한 존재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혈통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함께 그 혈통에 가치성을 안 여성이었다. 그리하여 자신 뜻을 성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계

승하기 위하여서 부끄러움도 사망도 제2차 문제시하고 목적달성에 행동으로 나간 것이었다.

그때 이런 행락이라면 용서가 없는 죽음의 길이 다말 앞에 시작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문제시보다는 차후의 문제로 하고 아무리 하여도 유대의 자손을 통하여서는 혈통을 잇지 못할 것을 안 다말은 부득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잇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각오하고 그 길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양털을 팔러 덩나에 온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을 뒤집어쓰고 덩나 길 한편에 앉았더니 유다는 창녀로 여겨며느리인줄 모르고 나와 상관함이 어떻겠느냐고 하니 허락하여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잉태된 것이 베레스와 세라였었다.

이런 비원리인 행사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는 시작되었다. 즉 다말은 비원리로 혈통을 잇는 존재가 되었다. 이 다말의 행동은 즉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냐 하면 해와가 사탄한테 정조를 빼앗겨서 비원리적 혈통을 세운자가 되었다. 그러니 타락을 시작하게 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다말은 뜻 성사하기 위한 하늘 편쪽에서 혈통을 이룬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인 한 해와가 잃었던 존재로 후일에 나타나서 다말과 같이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사실의 뜻 노정에 있음을 표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타락된 세상에 한 여성이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여성이 다말과 같이 비원리적이고 같은 모양으로 사탄 세상 상대를 대하지 않고 하늘 상대자로 대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사실의 표현적 존재가 즉 다말이었다.

그러므로 다말과 같이 사탄 세상 여인이 하늘 남편 맞아야할 근본한 해와가 나타나서 신부단장하여 세상 보기에 비원리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뜻 계승을 찾아 준비하는 여성이 있어야 할 후일에 목적이니 이 다말은 그 실체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한 존재로 됨에 이런 다말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혈통적 계대를 잇는 제일 조상이 됨이다. 예수 때에 와서 이와 같은 한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할 암시적 숨은 표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말과 같이 해와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다말 모양으로 세

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한 행로가 있다함도 표시함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대상적으로 표시된 것이고 다말은 다시 찾아야 할 한 해와를 표시함이니 그 표시가 즉 예수의 뜻 중심이니 예수의 조상의 계대로 원리상으로 허락되는 뜻으로 되는 것이다.

남편이 되어야 할 존재를 놔두고 시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해와가 될 존재도 남편이 되는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사탄한테 다시 빼앗는 양식을 완성하여서 근본복귀를 성사할 수 있겠으니 이런 표시로 됨이 사실이다.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의 쌍둥이는 본래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가 둘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함이다. 사탄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함의 표시이다.

타락이 없었으면 그냥 처음난 자가 장자가 될텐데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싸운 것은 타락의 피를 받은 자가 되었기에 서로 뜻 계승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싸웠음을 알아야 한다.

야곱 때는 나온 동생으로부터 빼앗을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어 그 기업을 빼앗고는 기업을 이루는 자 베레스와 세라는 하나님의 기업 후계에 들어왔었으니 먼저 태어난 자가 뜻 계승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니 베레스와 세라는 싸워서 먼저 나오려 하는 세라를 물리치고 베레스가 난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때에 와서 원수의 세상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장자의 기업을 이룰 것을 표시한 것이었다. 즉 같은 세상에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고 근본자리에서부터 장자를 성립시켜 기업성사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다말은 하나님의 뜻에 성사자의 어머니가 되었음이다. 그 아들 베레스가 장자됨이었다. 이 전부는 예수가 오셔서 직접 싸워서 승리하여 기업성사함을 역사적 거리를 두고 표시한 것이다.

라합 역시 그러하고 룻 역시 그러하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지금 현실에 입장을 떠나는 존재들로서 되었기에 그런 비원리적 행위와 모양과 같은 허락으로 뜻에 성사를 계승한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암시하는 표시적 존재들이었다.

밧세바를 살펴보자. 인간 세상에는 용납할 수 없는 비행에서 생긴 한 존재가 즉 밧세바의 표시적 은사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탄이 해와를 빼

았을 때에 남편되는 하나님을 두고 빼앗은 것이었다. 이런 것을 다시금 빼앗아서 찾아야 할 원리로써 한 남편있는 여성이 밋세바였다.

즉 다윗왕에게 있어서는 한 충신인 우리야를 다윗왕은 전쟁터 제일선에 내어 보내서 죽이게 하여서 그의 부인을 빼앗은 존재가 즉 다윗 왕에게 동침한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였다. 이런 밋세바가 어찌 예수의 조상이 되겠는가! 또 지극한 영광의 왕 솔로몬의 모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근본 뜻은 다윗왕은 하나님을 표시함이고 우리야는 천사장 누시엘을 표시함이고 솔로몬은 친히 찾고자 하는 영광의 주 예수의 중심을 표시한다.

예수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할 사명은 사탄의 처와 같은 해와의 입장인 우리야의 처 밋세바를 다윗왕이 취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성사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근본적인 뜻을 중심하였기에 이와 같은 예수의 한 뜻 성사의 표시였다. 우리야를 죽인 것과 같이 사탄이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하기 위한 뜻을 표시한 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그 자를 영광에 왕 솔로몬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찾은 이유로 뜻 성사하여 예수가 영광 누리게 하고자 한 것의 근본의 뜻을 둔 뜻이 있기에 이와 같은 비공식적 존재들이 예수의 조상들에 어머니들로 서게 한 것을 상징시키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었다.

이와 같이하여 예수 때에 와서 해야할 사명적 내용을 표시하게 하는 역사적 조상이었음을 알때 과연 이 근본문제가 모든 해결 중심의 시작이니 이런 표시로서 섭리하시었다. 예수도 세상에 탄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게 하심이였다. 이도 역시 하나님이 사탄한테 동정녀 해와를 빼앗겨서 타락시켰으니 하나님도 정혼한 요셉을 한 상대를 두고 빼앗아서 제2차 아담 예수로 탄생하게 한 것이다.

이때 상대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는 근본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미성년에 한 사실적 입장에 사탄이 빼앗으니 그와 같은 원리로서 정반대로 빼앗는 모양으로 하나님은 동정녀한테 수태하게 한 것의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빼앗았으니 예수는 육으로 또 그 근본적인 뜻을 복귀하여야 할 뜻을 가지고 있음인데 마리아가 순응하지 않음으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어려운 점의 시작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해와 한 자체를 찾으려고 하니 새 노정을 취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의 노정이 삼년 공생애의 노정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보여지는 마리아는 증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심하고는 원수적 존재로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것은 하나님 뜻을 성사하지 못한 존재니 이런 말씀에 한 대상의 존재였다. 인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근본원리를 세우려는 예수님과 앞과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 하는 근본역사인 의 터가 파괴하는 일이니 사탄은 예수 앞에 언제나 대립하여 나아감을 다시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 없는 한 노정의 시작이 있다하는 것을 완성하여야 할 당신의 심정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생명을 대신하여서라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남아지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하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입장인 요셉의 가정과 마리아와 예수와는 상관 없는 생활의 시작으로 나서게 되는 첫 시작이 광야생활이다. 이때 제자들로 완성되어야 할 세례요한 일파 등도 예수 앞에는 하등 도움이 못되는 존재들이었다.

예수 삼년 공생애의 노정은 뜻 성사의 터를 찾기 위함

삼십년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는 꾸준히 요셉의 집에서 목수업으로 생계를 취하여 나오든 그 심중에는 다만 뜻 성사의 마음을 한시라도 잊어 본적이 없는 입장이었다. 30년간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시련을 거듭하여 오면서 뜻 성사할 수 있는 성숙자가 되도록 내적완성을 위한 준비시대였다. 그 중에 내적으로 마리아인 모친과 협조를 보지 못한 예수는 출가하여서 새 뜻을 성사하기 위한 제2차로 뜻을 세워 찾고자 함에서 나서게 되었다.

예수 한 존재가 그 시대에는 귀한 존재라는 것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변 선포가 있는 후에 세례요한은 뜻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외부로 성사하려는 예수의 뜻 성사의 노정에 한맺힌 차디찬 한겨울의 서리를 퍼부었다. 내부로는 요셉 가정이고 외부로는 세례요한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길을 홀로 가려하니 원수 사탄 대한 싸움의 첫 보조로써 광야 40일 금식 시기는 시작을 봄이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앞에 부여한 길 보다도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사탄과 담판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즉 예수는 제1차 하나님 책임분담과정에 있어서 사탄한테 잃어버렸던 모든 조건을 찾아 성사할 역사적 복귀책임이 있는 동시에 자기로써 감당하여야 할 제2차 책임분담 사명의 정한 길을 잡고 나서고자 하니 구약시기에 보여주신 제1차 하나님의 책임분담 노정을 본받아 이루어야 할 시작이 있어야 했으니 먼저 사탄한테 역사적으로 표시적 약속의 물건에 침입을 본 근본 사탄이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금 그 실체자로서 침범을 방지하여야 할 근본을 찾아 세우고자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

예수는 제2아담하나님 몸으로 온 자였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석판을 깨부순 사실과 반석을 두 번 친 사실들은 즉 예수 몸을 쳐서 하나님 몸까지 칠 사실적 의의를 가졌기에 한번은 허락으로 한 것이나 두 번씩이라는 것은 큰 문제 즉 사탄의 행한바의 간접적 결과를 보게 되니 사탄이 하나님의 몸을 치매 그 근본자체에 침입한다는 상징적인 것 자체가 이미 침입을 보았으니 사탄은 벌써 예수 자체한테 이런 침입에 근본으로 인하여 다시금 사람의 들이 불순, 불신, 불시에 나아가는 것을 발라든 차인데 내외로 예수는 실패를 보니 즉 순종하지 않음과 믿지 못한 것과 모시지 않는 것을 보니 벌써 사탄도 지난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표시로부터 그 근본 실체물까지 침입하여 굴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실현상의 사탄의 시험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실체 예수를 시험시키는 것은 실체를 굴복시켜 하나님 뜻 파괴하고자 하는 일대 중요한 뜻이 있었다. 이렇게 사탄과 예수는 시험에 대립하여 서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이때 사탄 시험 주인격으로 설수 있었다는 것은 벌써 표시물인 두 석판과 반석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탄은 실체 예수님 앞에 침입하려고 갖은 근본을 다 잡으려하나 예수는 전체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성사할 수 있는 자체적 구비를 보니 사탄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끝까지 뜻을 세울 수 있는 터가 예수 앞에 보였다면 큰 문제였겠는데 시험하여보아도 그 자체를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는 시종들었다는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시험할 때 근본목적은 예수가 시험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예수 앞에 중요한 전체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예수를 유혹시킬 것이 사실이니 예수 자체와 분립하지 못할 그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사탄이 승리하면 예수의 모든 목적은 파괴라는 그 근본목적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온 것은 구약을 완성하여야 할 존재다. 즉 하나님적 사명책임 노정을 실체로 완성하여야 할 책임자가 즉 예수였다.

그러므로 그 책임 다 하려면 내가 모세의 실패한 부분을 찾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으니 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시험한 첫 것 즉 돌로 시험한 것이었다. 40일 금식한 바는 노아 심판도 40일로 인하여서 석판도 40일 고통으로 인하여 받은 것도 찾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으니 역시 40일 금식이 요구되었다 이 잃어버린 돌을 도로 되찾으려니 굶주리고 있는 중에 사탄이 와서 이 돌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되게하여 먹으라 하였다. 이것은 돌을 파괴하게 된 제일원인은 먹는 것으로 그 원인이 되었으니 너도 그리 굶주리지 말고 먹으라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였으니 너도 먹으려무나 한 것이었다.

즉 그 근본실패하게 하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사실 실패한 그 표시적 요구로 시험하였다. 그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하심 이었다. 이는 즉 전부가 말씀을 찾아서만 산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의 말씀이란 뜻이 근본체를 찾아야 산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돌과 반석인 동시에 그 근본실체인 예수 자체를 말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써 다시 산다는 것으로 승리하였었다.

예수 =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표시완성자였다.

이리하여 예수가 계신 곳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니 너는 어서 물러가라는 근본목적으로 승리함이었다. 이러므로 잃어버린 그 실체인 터는 세워 놓았다. 이 반석과 돌덩이가 되는 터는 예수 한분으로써 한 기반이 되는 땅이었으나 이 다음은 뜻을 실천하고 이루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하니 성전의 대신자이시면서 성전의 주인공이라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즉 예수의 전체 목적 그 자체였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이 요구하는 중요한 목적을 다시금 표시하여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시고 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대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분부하여 손으로 떠받쳐서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여 시험하시었다. 즉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예수는 성전의 주인이며 성전의 머리니 그와 같이 세우심이었다.

그러나 뛰어내리라하심은 그 성전의 주인격에서 한 평민과 같이 되어라 하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사탄 자기가 성전의 주관자가 되겠으니 너는 원리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니 그 원리적 존재는 즉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몸이 나이다. 그러니 나밖에는 성전의 주인공은 없으니 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즉 그 주인공은 언제나 주인공이니 너는 물러가라하시는 그 근본적인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리하여 성전 완성적 표시존재인 예수님은 그 표시적 실체존재로써 설수 있는 한 승리를 보았으니 너는 방해하지 말라는 근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탄을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 대중과 더불어 성전 건설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터를 닦으셨다.

다음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월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유독 그를 섬기라 하여서 일대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근본적인 뜻은 예수 자신은 과연 하나님 뜻 중에서 천하만국에 지극히 높은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보임이 즉 예수는 하나님 뜻 중에서 제일귀하고 천하만국에 제일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알며 그 영광 전부도 차지할 존재인 것도 알고 있음으로 이런 것이 예수에게 제일로 귀한 목적이니 이런 예수의 전체 목적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것을 주리라하였다.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였던 이런것은 원리적으로 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요. 또 내것이면서 하나님 뜻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리인데 네게 엎드려 절하라는 그 말은 사탄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니 너는 물러가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비원리다.

말씀에도 주 너의 하나님를 경배하고 유독 그 섬기라하셨다. 내가 섬길 바는 하나님 한 자체밖에 없고 너도 근본은 그분한테 경배할 자 아닌가 하여서 대승리하여 사탄을 이겼다. 이 승리로 인하여 예수는 승리의 출발이라는 뜻을 품고 나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탄과 예수와는 원리적 사실을 두고 (예수와 사탄이) 싸웠으나 결과는 원리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승리점을 세워 가지고 나서게 되셨다.

사탄은 떨어졌으니 사람이 예수께 결탁하면 사탄 시험한 바와 같이 구약 완성자면서 성전 완성주인자면서 세계 대주재라는 확고한 기본체도를 잡고 나서게 되었다. 그 후에는 12제자와 70문도를 택함이다. 이는 모세 앞에 12지파에 근본과 칠십장로가 있었기에 예수도 이와 같이 근본을 잡아 종적 노정을 하게하며 나아 가려는 것도 책임노정을 시작 함이다. 사십일 기간을 노아 홍수심판 때도 40일주야로 죽이게 한 것도 즉 아담 때문이고 모세가 40일 주야를 고생한 것도 아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전부가 타락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던 이 온 인류의 고통은 아담 때문이니 제2아담으로 오는 예수는 40일 고난의 기간에 잃어버린 전부를 완성하여야 할 대신책임이 있으니 40일 금식기간이었다. 그리하여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40일을 고생하는 것이었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도 말씀을 찾으려 하였으니 말씀 성사한 예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금식이 40일 금식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고생없이 말씀을 완전히 성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 부언하려는 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 머리위에 임하셨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한 존재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전부를 완성하는 중심자체였다. 즉 아브라함의 예약제물을 사탄한테 침입받았던 사실은 사탄이 따를 수 있는 터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예수 한 자체가 나타나는 때 사탄 뜻에 빼앗겼던 근본 쪼개지 않았던 비둘기를 다시 찾아서 완성하는 그 자체가 나타나시니 예수는 소생 표시제물 비둘기적 구약시기는 완성하여서 기본 뜻 성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기본 뜻의 표시로 비둘기와 같은 성신의 강림이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구약 성사완성을 터로하여 신약 장성기인 양(羊)의 시기의 시작과 함께 뜻 시작 확립을 알리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완성 암소적 해와 한 존재가 시작을 찾아 나가게 되는 책임분담노정이 예수의 한 사명노정이었다. 그러니 예수는 아브라함 예약제물 완성 기본존재였다는 것은 사실이니 이 모든 근본 완전 성사가 요구하는 바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는 구약시기에 전부를 찾아 맞추고는 근본 본래 노정으로 제일보를 내어놓으려 할 때에 받들어 모시는자를 택하는, 곧 제자를 택하는 것이었다. 광야생활이 끝나고 제자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헤매셨다.

그리하여 12제자를 택하여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음의 선포였다. 구약적 신앙이 중심인 율법을 통한 행함으로 의로움을 세우는 노정을 변하여 믿음으로 의로움을 세우는 노정으로 전환시켜서 복음완성 즉 뜻의 완성이 요구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세례요한의 사명을 깨뜨렸으니 제자들을 택하는 제2차적 노정은 두려운 노정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택한 후에는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적기사로써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예수가 나가야할 노정은 하나님의 본으로 보여준 한 구약노정을 표준으로 바로와 싸운 사탄에 대하여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결속이 선결 문제였다.

그래서 사탄 공격은 시작할 터인데 기본되는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세 앞에 여호아께서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모세 모자가 합하여서 성사한 할례가 완성한 후에야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삼일기간되는 광야를 나가는 결정적 대립의 점에 나아간 것과 같이 예수도 모친과 합하여 뜻을 성사할 기초를 보지 못하고 제2차적으로 다시금 모자가 합하여 성사할 부분을 외부로 찾아서 (시작함이 제자 택하여서 제2차 사탄 대하여 취한 노정이니 아직 이 뜻 근본을 세우지 못하면 사탄 대하여서 적극 대할 수 없는 것이니 이야말로 예수 앞에 증대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할례 완성자를 세워야만 3일기간 광야노정에 대한 출발과 같이 3일기간을 넘으려니 먼저 할례적 조건이 남아 있어서 합의를 세울 수 없으니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근본 뜻을 세우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제자중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다. 이 유다를 사랑하여 하날 뜻 성사를 협조할 수 있는 한 상대존재로써 세워 하나님의 근본 뜻 근본 즉 조성을 목표하고 작업하셨다. 그때 예수는 유다를 한 대상으로 삼아 타락근본자체인 한 해와격 존재를 취하여 세우고자 하심이셨다.

그러므로 유다의 부인을 한 해와의 존재로서 취하여서 뜻 본의를 세우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뜻을 절대 순종자인 동시에 가롯 유다의 한 애인격으로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유다 부인을 해와격으로 사탄이 해와를 아담두고 빼앗아 낸 모양으로 유다의 부인을 빼앗아서 원리를 채워서 뜻 성사를 작업하셨다. 그리하여 가롯 유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어 대신하게 하고자 하심이였다. 그래 예수는 이 해와한 자체로서 유다 부인을 택하여서 섭리를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기본문제가 제기되니 사탄은 완전 발동하여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등으로 대적동을 시켜 예수를 대적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다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과 받들어 모셨다면 성사의 기본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가롯 유다 역시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행동을 시작하니 역사상에 없는 자기 선생에 대하여서 은 삼십에 파는 근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바를 중시하고 가롯 유다는 하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 반대하는 행동이 시작되며 원수들과 결탁하여 파괴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나니 예수는 피치 못할 입장으로 나가게 되어 십자가상에 달릴 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소하였던 것이었다.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음과, 믿지 않음과, 모시지 않음으로 인함이라는 그 원인으로 시작하여 사탄 침입에 표시가 나타나니 뱀이 물어 죽인자를 모세의 구리뱀을 보아서 죽음을 면한 것과 같은 원인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모두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생겼으니 지금도 믿지 않으므로 필경 십자가상까지 달려서라도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예수님의 내심을 발표함이였다.

이 모든 원인도 순종하지 않음과 불신으로 인한 행동이 가롯 유다로부터 외부와 결탁하여 죽이려는 수작으로 전개를 본 것을 지금 알게 될 때 크나큰 두려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십자가 노정은 기정적 노정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음과 불신으로 인한 비원리적 노정이다.

그러므로 요 3/12~14에 세상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늘 것을 믿겠느냐?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하셨다.

다만 이 길이 생긴 것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도 유다가 일어나지 아니 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하셨음은 불신, 불순종의 존재였다는 파괴존재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 외 예수 자신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신 기도 등을 보아도 결정한 노정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말씀이다. 이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라도 예수 자신이 성사하여야 할 사명 분담책임을 죽어서라도 성사하지 않으면 안될 책임이 있기에 육신으로 성사할 수 없는 입장이니 영적으로 성사하여서 사탄에 대한 승리노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하게 하는 기본원인이 있음이다.

육신으로 이루지 못하면 사탄의 승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한 승리적 조건으로써 영적으로라도 이루어서 해와의 한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세워 예수는 신랑이며 신자는 신부라는 명사로써 예수는 뜻 성사의 기본을 지어 놓고 십자가를 지셔서 3일기간을 출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전 하나님의 섭리한 것은 해와 찾아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적으로 예수는 신랑 신자는 신부라는 뜻 최고 목적한 곳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신을 보내심은 해와의 신을 보내신 바가 즉 예수 승천 후 오신 성신의 강림이었다. 그러므로 해와는 즉 남편이 예수라는 것을 잘 알므로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남편과 같이 사모하면 영적으로 하늘에는 예수님이 땅에는 성신으로 사모하게 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때만이 영적 생명의 주입의 시작을 보는 바로 되었다.

그러므로 근본 죄짓게 한 것은 해와이니 죄를 씻는 직접역할은 해와의 성신이 하여야 할 해와적 책임분담사명이 있음으로 성신은 사람, 사람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여서 전부가 한 몸이 될 때 타락하기 전 아담 정도까지는 온 세계 인류를 끌어올리고자 함이 예수와 성신 기본역사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에 대한 3일기간과 같은 길을 죽음과 함께 출발하기 시작하여 생명 세계에로써 예수로 인한 무조건 생명요소를 받는 노정으로서 가나안 복지와 같은 천국 향하기 위하여 원수 대하여서 각자가 예수 힘을 받아 싸워서 각자 성전 건설하여 최종목적점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과정

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이다.

성경에는 성신을 해방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악한 신을 말함이니 즉 해와의 신을 상징하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가롯 유다가 순종하였으면 예수에 뜻에 유다 부인은 합의하여 예수 정도까지 절대순종과 함께 예수가 상대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오면 성신 강림하여 예수와 합체 이상를 조성하여서 근본창조인 조상의 한 대신 존재들로 서서 그를 중심하고 믿고 모셔서 근본 뜻을 볼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기에 근본적으로 굴복을 볼 수 있는 기본조건의 성립을 보았을 터인데 그것이 영적으로만 지금까지 목표한 점으로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것과 같은 이유니 재림하여서 뜻의 완전한 성사를 남겨두고 승천하시었다. 이래서 재림은 반드시 육신, 곧 몸으로 와야 하는 근본적인 뜻이 남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2천년 역사는 되풀이하는 기점에 다시금 옮겨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 기간에 낭비라는 것은 가롯 유다가 믿고 순종하지 않은 원인으로 시작이 바리새 교인들이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한 실패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리새 교인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뱀과 독사의 종류들이 너의 자체들은 불순종의 피를 받고 있는 자로다. 타락에 피 받은 근본조상이 뱀으로 되어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또 너희는 사탄이 너의 아버지라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너도 악의 모양을 채우려 하나니 하시면서 사탄이 아버지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경에도 요한 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신곳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다시금 너희는 뱀의 하는 행사를 다시금 성사하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는 7화의 말을 발표하여서 책망하심이었다.

이 책망 중에는 역사적으로 뱀의 자식이 된 스스로의 실토에 내막을 포함하고 책망한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뱀의 피를 계승할 수 있는 행동은 다만 불순종, 불신, 모시지 아니 하였든 원인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는데 지금 너희들도 불신의 자손이라는 그 본성적 혈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구나 하시면서 책망하심이었다. 이 때 벌써 예수님은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장래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바를 듣게 되었다.(누가 복음 9/30~31) 그리하여 모세의 목적과 엘리야의 목적을 완성할 것을 알고 난 후였다. 벌써 십자가를 각오하고 하늘편적 노정을 성사하여야 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말씀 중에 그 조상들이 원수 사탄과 합할 수 있는 터를 잡아서 지금까지 나와서 예수에게 대적하여서까지 원수의 하는 짓을 그대로 실제 행동을 하는구나! 너희 중에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역사적 열매라는 것을 발표하셨던 것이 곧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대한 7화에 대한 선언이었다.

이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적 혈통을 계승된 순서적인 지적으로 그의 전체 죄와 지금 너희의 죄의 행동이라는 한 열매의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하시면서 나무라신 것이 7화의 책망이었다. 이 책망이야 예수의 마지막이란 행로인 십자가 노정은 멀지 않아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에 대한 마지막 나무라심과 원망이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 조상들이 피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의 악한 모양을 채우려하는구나 하였다. 그러함으로 죄의 한 결실을 이루겠으니 너희가 나를 죽여서 죄에 한 결실을 성사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살인을 당하여 근본 죄의 목적량을 채우려고 하심이 목적이었다. 죄는 다 열매 맺었으니 죄로써 예수를 죽게 하는 그 값의 전부는 이름에 죄의 목적물은 다 주어서 취하게 하고 죄의 한 행로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결정적 노정이 십자가였다.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어서 뜻을 이루고자 함이 목적이었는데 이 예수를 보내고자 하는 뜻에 길을 막기 위한 것이 사탄의 길이었으니 이 원하던 목적 자체인 예수에 육신에 대한 살인을 허락하여서 사탄 요구 전부는 완성할 수 있는 한 단계를 보았으니 예수를 십자가의 노정까지 내어놓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근거적 전부는 취한 결과를 완성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노정이 즉 예수 십자가 이후의 노정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도리를 세우셔서 성신과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착한 선에 것으로 전 세계를 밝히기 위한 섭리는 시작하심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 앞에 허락하여서 사탄 뜻 완성에 한 모양을 채우라 하심의 근본 의의

가 있음이었다. 예수는 악의 끝장을 위한 한 대신 탕감자로서 희생함이 십자가의 노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끊어지는 한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자와 순종자하지 않는자를 분립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는 온 세계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세워 믿는 자는 하늘편이고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는 자는 사탄으로 자기들 소유권 판결을 지어 나오심이 역사적 예수의 복음사명이다. 그러므로 예수께 속하면 사탄은 떨어지는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한 기본원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에 끝장을 보는 동시에 착한 선에 한 시작을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사탄이 예수한테 공격하여 나왔지만 예수 십자가 이후부터는 사탄은 보수적이고 예수는 공격에 제일보의 단계로 넘어가는 원리적 조건 성사와 한가지다. 즉 모세가 3일과정을 시작하는 원리적 기점을 시작하는 행로의 출발과 같은 것의 시작이 예수 십자가상에서 세운 승리의 한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굴복하는 단계로 예수편과 사탄 편으로 나뉘어 지는 것을 확립하게 하심이었다. 그 사탄은 하나님한테 그 무엇으로도 취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다 취한 모양이니 지금부터는 예수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여 온 것을 보수적으로 방비적 태세로 나가는 한 허락적 승리 노정과 같은 광야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판결적 분리로 그 기점을 지으려니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 놓은 것의 원리가 있음이다. 이것은 여러 조건으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 즉 예수 몸까지 취할 수 있는 불순종 불신에 열매였던 모세의 반석과 석판을 깨뜨린 것은 기본원리가 있었기에 아주 사탄의 뜻에 미련을 남기지 않을 전부의 청산과 같은 근본의의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허락함의 시작이 성립을 부여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전부 취할 것 취하였으니 뜻에 대한 미련은 남길 수 없게 되어 불순종이면 네 것이고 순종과 믿으면 내 것으로써 세계를 향하여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한 한 공세를 취하여서 예수와 성신은 본격적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예수는(아담) 온 인류를 자기편에 속하게 하여야할 원리이니 예수는 온 세계적으로 이 목적하고 본래의 노정을 시작하심이었다.

사탄은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역사적으로 대립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었다. 온 세계가 사탄의 나쁜 악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착한 선속으로 분립하여 가면서 투쟁 역사와 인간역사의 표현 기록이 인류역사다. 이와 같이 승리를 보고자 하니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원리적 사실의 기반을 볼 수 있음이었다.

그러니 예수도 자기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하는 입장에 근본이 있음이다.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되니 가룟 유다로부터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믿고 순종하며, 모셨으면 이런 것도 방지하면서 보수와 공세를 취하여 나오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노정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원수의 결과성을 표시하니 화근에 대한 양을 채우려는구나 하시면서 7화로써 역사적 죄의 발전유래를 폭로하심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탄의 침입노정은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인한 노정과 모시지 않음에 노정을 타서 침입이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결실점 현세까지 왔구나 하심을 밝힘이었다.

즉 죄에 유래의 침입 경로는 아담부터 시작이었으나 그의 취할 수 있는 분기 존재는 자식부터 임으로 가인 대한 하늘편 아벨을 죽이는 불순종과 모시지 않음과 불신의 과실로 인하여 시작의 분노정은 시작하였으니 마태 23의 7개의 화의 근본 책망의 뜻을 찾아내보자. 그럼으로써 죄의 결정적 시작은 가인부터다. 아담은 뿌리였다. 순종하는 자식이면 복귀가 시작할 수 있는 중간 존재였다.

그러므로 본격적 시작의 터는 가인이다. 가인으로 인하여 시작하여서 사탄은 인류역사를 통한 침입의 노정 봄이다. 다시 말하면 그 순서는 가인과 함과 아브라함, ① 모세=석판 꺾음, ② 모세 반석 부숨, 요셉 가정과 마리아 다음 현 예수 큰 원수자 등으로 사탄의 침입의 노정을 가졌다는 역사적으로 두고 화의 원인점되는 침입행위 등의 근본인 불순종 불신 모시지 않은 등을 보니 그의 결실을 찾아서 가라고 하여 말로 밝힌 것이 칠화의 내용 근본의의를 가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과연 너희들의 행동은 외식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즉 본 하나님 뜻에

서서 나와야 할 존재가 딴 입장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너희는 틀림없이 너의 근본조상 되어서 범행한 자 가인 집안의 같은 혈통을 받고 있다함을 말하면서 그 가인은 하나님 뜻 밖에서 있으면서 뜻 안에 선자와 같은 것처럼 하고자 하여 그 뜻이 이루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너희도 그의 피를 받은 자와 같이 뜻 외에서 있으면서 뜻 안에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벨과 같은 예수 나를 대하는구나.

그런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가인은 온 인간에게 천국문을 닫고 온 인류가 들어 가려고하는 문을 막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구나. 이 뜻 밖으로 행하려는 행동이 온 인류 사망의 시작을 보았는데 지금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인과 같은 결과의 입장에 서서 예수의 피를 노리는구나! 너는 과연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니 그의 결실까지 채우려 하는구나. 하시는 근본타락 원인 가인이 불합리한 입장에서 서 있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면서 지금 나는 천국문을 열고자 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닫고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같은 뜻 파괴자라고 책망한 것이었다.

②)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이 해와 육지로 행하며 교우 한사람을 얻고서 그가 교회에 입교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심이다. 이 근본 뜻은 노아 심판 후에 사탄이 해와 육지를 두루 돌면서 자기의 뜻 맞는 자를 찾아서 그로 인하여 자기소유로 삼아 다시금 지옥에 자식을 불린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 함이 행한 행동 결실의 한 자식됨이 틀림없는 사탄과 같은 행동으로 뜻에 시작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에게 대하여 함에게 취하던 사탄의 즐기는 행동을 하듯이 자기로부터 사탄의 터를 잡고 다른 형제들까지 그 뜻에 협조를 하게하는구나.

그래 지옥 자식을 많게하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함이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서 너희는 그와 결실인 종손이라 함을 지적하면서 너희 하고자 하는대로 행하여 사탄의 요구하는 죄의 양을 채우라 하신 뜻을 중심하고 책망하신 것이다. 즉 나에게 오면 지옥을 피하는데 나에게 올려는 여러 사람까지 막는구나 하셔서 나무라는 내용이였다. 다음.

③) 화가 있을진저 맹인이 되어 타인을 인도하는 자여 너희들이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맹세는 소용 없거니와 성전의 금을 가리켜 맹

서하면 즉 지킬지라하니 너희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요 눈 어두운 자로다. 어떤 자가 더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하시면서 다음도 같은 뜻에 내용으로 중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무슨 뜻을 표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나 그의 행함에서 대신제물은 맹세로 들인 것이나 그것은 헛 것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삭 실체제물은 하나님 이 맹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말한 것이었다.

그와 같이 성전과 같은 허락적 유례로 되는 뜻은 헛될 수 있으되 성전 금과 같은 예수한 자체는 헛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이었다. 구약적 행례 전부는 폐할 수 있으나 예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맹인과 어리석은 백성의 입장을 떠나서 하늘과 땅을 반 갈랐으면 이삭까지 범하지 아니 하였을 터인데 그 때 맹인과 같은 모양으로 행한 것이 사탄 침입을 본 것과 같이 되어 나중에는 온 자손에까지 침입하는 사탄의 길을 잡은 것과 같이되어 반석까지 치는 결과의 시작도 애급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분별하여야 할 시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대하다가 예수까지 범하는 행동이 되리라 한 사실을 들어서 하날 뜻을 분별하여서 대하여야 될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같은 결과의 시작을 보리라 하셔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다음

④) 는 화가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채소로 십일조를 헌납하되 율법의 중한 의와 인과 믿음은 행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행할 것이요 저것도 그치지 말것이니라. 맹인이 되어 타인을 인도하는 자여 하루살이는 먹고 우유는 빨는도다하시었다. 이 내용은 모세가 말하는 바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 전부를 요구하여 나오는 증인데 지금 그것 버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였으니 이제는 십계명은 쓸데없다하는 생각으로써 이 석판을 깨시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와 한가지로 십계명 중심 본체와 같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지엽적인 부분과 같은 십일조 등이 한 쉬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성사하는 표시례로 하는 자들이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결과를 이루어 예수까지 파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리라 하시어서 그의 중심 뜻을 몰라서 받들지 못함이 실패의 근본 된 원인과 같이 너의 행동이 여전히 모세 십계명 앞에 원망하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뜻을 떠나 사탄과 짝하는구나. 그러니 결국에는 모세의 두 석판 깨뜨리는 것과 같이 되리라 함을 지적하여

말함이었다. 다음

⑤) 는 화가 있을진대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인들이여 잔과 받침의 표면은 정결히 하되 그 안에는 토색함과 불의함으로 충만케 하는 구다. 맹인이 된 바리새인 교인이 잔과 받침의 안을 정결히 하여야 표면이 또한 정결하리라 하시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외면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된 것과 같은 것이나 내면에 들어서는 원수가 불의의 기본 터를 잡는 행동의 결과를 완성하였구나. 그 내용은 모세가 반석의 물을 내어 먹일 때 그 외면상으로는 좋은 듯한 것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나무람이 숨겨져 있고 불의가 충만하였다고 하심이었다.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먼저 잔과(이스라엘 백성)과 받침(하나님의 몸)의 안을 깨끗이 하여야만 그 표면은 자연히 깨끗한 것이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 하나를 완성한 깨끗한 위에야 그 모든 표면에 전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도다. 하시어서 지적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떠난 행동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의의 한 터를 자아내며 백성의 더럽힘이 하나님 더럽힘으로, 땅 더럽힘이 하늘 더럽힘음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과 한가지로 모세 반석 두 번 침도 너희들이 뜻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친 것과 같이 바리새교인 너희도 뜻을 그와 같이 대하니 지금 예수 나 자신을 다시 쳐서 잔과 받침을 더럽히는 자로 되려는구나 하시어 너희가 땅과 하늘을 다시금 범하려고 하는 결실이 되리라 하시어서 나무라고 원망하시고 책망하심이었다. 결과로 십자가까지 져야 되리라 하는 내용을 표명함이었다. 다음

⑥) 화가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밖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밖으로는 사람에게 의를 보이되 안으로는 간사와 악독이 충만하도다 하시었다. 이것은 요셉 가정과 마리아가 세상에 한 의를 세우고자 하는 한 행동으로 기본되는 원인이 되어 사망의 터가 시작되여 그의 전부가 그 위로서 한 시작이 되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원수의 행동으로 사탄이 즐기는 터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함이다.

이런 결과로 나왔으니 나는 과연 세상에서 용납받지 못할 입장에 선 것이니 너희들이 이 원수와 합한 행동은 과연 당연하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려무나 하여서 책망하심이었다. 다음

⑦) 은 화가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를 꾸미며 월 만일 우리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선지자인 피를 흐르게 하기를 같이 모의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그러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상해한 자에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조상의 악한 양을 채우라. 너희 뱀과 독사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옥에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지혜가 있는 자와 서기관들과 머물며 너희들이 그중에서 살해하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중에 너희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기도 하고 이성에서 저성으로 핍박하기도 하리니 지상에 의인의 피를 흐르게 죄가 다 이들에게 돌아가되 의인 아벨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락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지금까지가 역사적 혈통을 계승받아온 자라는 것이 틀림없는 자들이니 또 다시금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꾸미며 또 나서는구나.

즉 다시금 예수 대하여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동은 가장 선행인 듯이 외식하면서 사탄의 혈통을 받아온 그 목적 채우려 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는 사탄이 끝까지 자기의 요구될 것인 분량을 전부 이루어 주고자 하는 행동이로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요구에 응하여 죄의 양를 다 채워 주마하시면서 앞으로는 너희는 의인과 선지자의 피를 흐르게 할 것이나 이 모든 벌은 너희가 받으리라. 하시면서 현실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대하여서 최후적 태도를 선언하면서 나무라고 원망하시며 책망하신 말이었다.

그리고 이리하여서 사탄 대한 합의의 최고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려무나 하는 결의를 표시하신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역사적으로 침입한 사탄의 모든 결실은 한 단계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각오하면서 7화의 근본 역사적 근거로 되니 너희들로 인하여 혈류된 역사적 의인의 피값은 누구보다도 너희가 받으리라 하시어 누구보다도 큰 화중에서 있는 것을 표명하여 그 목적 달성하려면 하여라 하심이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적 근본 의의와 승리적 신앙자

십자가로서 사탄이 구약시기 때 더럽힌 요구 열매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다. 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출애굽 노정은 예수의 표시적인 기본노정의 본으로 되었기에 그 중에 사탄이 침입한 두 석판과 반석으로 인하여 예수 몸까지 범할 수 있는 한 실수를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 한 존재는 사탄의 하나님의 뜻 대하여서 싸우는 전폭적인 목적물이었다. 예수 하나 몸 하나가 사탄 모든 목적 결실의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사탄 전부와 죄 전부의 목적물이다. 예수 살아 있는 한, 사탄 전부와 죄전부는 살아 있는 것과 같으니 예수 죽음은= 전사탄 ○ 죄전부 죽음과 같은 탕감을 완성하기 위하여니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예수 죽음으로 역사적 죄를 탕감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뜻 성사한 곳에 터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활로서 다시금 하늘 뜻을 계승하고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권한으로 인할 사탄이 침입 못하는 생명권위를 시작하게 하심이다. 즉 이곳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종국적 합할 수 없는 분기점을 보여주었다. 사탄은 그 목적달성 최고부분은 죽일 수 있는 부분까지나 살릴 수 있는 곳까지는 하나님 밖에 없는 부분이니 이곳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사탄이 비로소 분기를 시작하시게 하시는 근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최고 실력에 결과를 포함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특유권내의 부분이니 이곳 처하면 사탄은 처할 수 없는 것이, 너는 지금부터 나와 떨어진다는 한 분점의 시작이 십자가로 인함이다. 사탄은 살리는 권한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탄이 가지지 못한 권능으로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한 섭리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을 세우심은 불신에 대하여 기본 반대되는 하늘쪽의 시작을 다시 찾는 시작이니 믿음을 세우심이다. 즉 근본 아담 해와가 믿지 못하였기에 타락이 하였는데 근본에서 믿음을 두고 불신이었던 것이 사탄이었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편이었다는 근본적인 뜻으로서 믿음을 세우심이 목적이다.

믿음이 있는 곳은 타락전 그곳까지 향상할 수 있는 터이다. 예수는 제2아담이니 처음 아담 완성자니 근본 타락 전 단계는 예수부터 향상할 수 있는 원리로된다. 타락은 불신으로 인하여 아담 이하로 내려왔던 것이나 믿음으로 아담 이상 위를 향하여 향진하는 기본점이니 믿음을 세우심이다.

예수는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이니 예수 붙잡는 곳은 즉 믿는 일이니 아담 이상에서 부여되는 천국 생명의 주심은 원리적 복귀로써 인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생명성사의 기초이다 이 터가 확고하여야만 모든 뜻 성사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전부의 사람을 세우심은 새로 성사한 터위에서만 시작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사랑은 생명주입의 근본이다. 이것은 예수를 사모하는 성신의 역할과 합하여 성립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세우심이다. 소망을 세우심은 아담 해와가 소망성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우리로 인하여 소망인 목적지를 복귀하고자 하셔서 기독 신앙생활 3요소를 세우심은 전부가 기본목적 달성을 목표로하여서 세우심이다.

또 십자가로써 승리하여서 무엇을 표시하였는가하면 사탄의 피는 영체적 실체인 천사장 누시엘에 피를 받아서 사망이었던 것을 다시금 예수로 영체적 실체로서 영적 피받은 길을 막아 생명피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부활체로서 승천하신 것이 근본 뜻이 있는 동시에 전인류를 영적으로 다찾아서 뜻 성사까지 옳이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한다. 만일 십자가 아니었다면 영과 육이 합하여서 이루고자 하시었다.

그렇다면 재림은 필요 없는 원인이 성립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탄 합함의 시작이 분립하여 지금까지 영적으로 찾는 역할을 예수는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땅의 성신을 대하여 아름다움의 존재를 취하여 나온 것이 기독 신앙 역사다. 이래서 십자가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음으로 취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고 모시는 하늘로써 역사적 고마운 분립을 취하여 왔다.

그러므로 예수 이하부터 사탄은 넘어져 실수하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탄을 상대하여 바로 앞에 모세가 3일기간을 출발한 시작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신앙생활은 전부 구약역사 출애굽부터 가나안과

같은 영적 노정의 승리의 노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였다. 즉 예수 승리적 뱀으로 모세가 제2차 손을 품어 문둥병을 낫게 한 것과 같은 생명의 길로 생명의 피를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다음은 신성적 성신합 함에서 광야를 향할 수 있는 구비조건 성사를 지어서 믿은 신자와 합하여 출발하게 함이다.

그러므로 먼저 믿고 나서려 할 때는 세상과 하늘과 사탄과 하나님과 바로와 같은 싸움으로 끝까지 참고 승리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출발한 것이 사실과 같은 한 표시적 역사의 그 노정으로 시작하게 하심이었다.

그러므로 믿고 이런 세상 조건 승리할 바가 신앙생활한 출발점이라는 것도 역사적 표시노정이 있었음으로 이와 같은 노정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그 생활 중에서는 절대 신앙하면 만사승리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로 갈 것이 여실의 표현화를 보게 되는 바가 사실이다. 3일기간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원수의 한 대할 수 있는 홍해와 광야고난생활과 아멜렉 공격 등과 뱀 등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인 믿음, 불신을 우좌로 높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한 노정이다.

그러므로 광야노정은 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뜻 성사하는 자에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여! 너희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나를 제일 사랑하여만 된다는 선언을 기쁘게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심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근본의의

지금까지 못 믿는 불신세계에서 신앙세계로서 출발하려고 하려면 누구보다도 예수 자기를 사랑치 않으면 안 된다는 원인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인가 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하려 온 줄로 알지 말라. 화평하게 하려온 것이 아니오. 병기를 일으키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며 딸이 어머니가 모녀간에 불화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 나를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장차 잃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장차 찾게 되리라 하시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심은 예수 당시에 시대적으로나 모든 방향으로 보아도 용서할 수 없는 일대 혁명적 선포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활하여온 전부가 하나님의 뜻 성사할 수 있는 가정이면서 하늘 뜻을 성사할 수 있는 가정이나하면 그렇지 않다. 예전에 그 가정은 전부가 사탄의 뜻과 이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추진시키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미워하는 그 가정이었고 그 생활무대였다.

그런고로 지금까지 사랑하던 부모, 형제, 처자들은 사탄이 기뻐하는 생활에 사랑 무대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나님의 선의를 높혀 찾고자 할 때에 악에 속한 터를 지나서 선에 속할 수 있는 곳이 시작되어야만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 생활하면서 살던 너희가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믿고나서 예수를 더 사랑하여야만 하늘이 한 뜻 성사의 뜻을 볼 수 있는 한 뜻이 있는 것이다. 즉 세상 사랑을 열정도로써 사랑하였다 열(10)정도로써 예수를 사랑하면은 지난날 사탄 사랑함을 비교하는 급까지니 그러므로 전날 사탄의 무대에서 사랑하던 이상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탄 취하던 한 터 위에서 시작하는 모양이 됨으로 지난날 10 사랑보다 남을 수 있는 10이상이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늘 사랑할 수 있는 한터를 잡을 수 있으니 예수는 사랑하려니 이런 모순과 같은 한 선포하심이다.

열사랑하면 열사랑으로 탐감하고 보니 아무도 남지 않은 양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한터에 사랑 부분이 없기에 10사랑 이상을 요구하심은 전부가 하나님 사랑을 주입하고자 하는 기본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의 시작됨으로 소위 중생이 시작의 기본점 시작과 같이 하늘 사랑 대하여 생명 시작의 근본 원인을 보니 이런 시기에 곤란한 선포가 즉 사랑에 대한 선포였다.

이와 같이 하늘 사랑 찾아나서니 사탄은 적극적으로 예전 노정을 지키려니 식구를 통하여서 대립하게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즉 사람 중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적을 보니 직접 원수가 가족 중에 식구라고 하심의 직접 마주치는 저항자가 된다는 기본원인이 있음이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한 십자가가 될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승리하여야할 인생의 근본 의무적 관계를 타개하여야할 근본적 뜻이었다 하

심에 의의가 있는 한 선언이었다. 이런 신관 목적을 달성하는 신앙 생활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전하여야 할 예수의 심정과 받아야 할 인간의 책임적 사명이 일로써 세계가 시작을 얻는 때가 언제일까 하고 바라던 책임적 사명에 대하여서 얼마나 서러워 하였던가? 우리로 최후적 승리한 십자가의 노정을 성사하는 것과 같은 뜻을 생각하여서 사탄 패하게 하는데 어떠한 십자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가는 자라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었다. (또 다음은 신부가 되어야겠으니)

또 신부되어야 하겠으니 예수 대한 단적 사랑이 각자가 소유하여 하늘 생명번식은 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에 이런 사명은 원만히 완성하기 위한 예수의 기대가 있기에 이런 사회적 모순의 한 발표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선포가 근본 의의를 둔 것이었다.

지옥가서 전도하는 예수의 근본적인 뜻

본래부터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지옥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갈라진 본 후부터가 지옥이라는 비원리적 존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옥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원수되는 죄와 결탁한 보답인 것은 틀림없으나 창조한 전부터가 원수될 수 있었던 존재는 근본적으로 아니었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 영들도 타락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은 불순종자의 영을 처벌하는 곳이 곧 지옥이다. 이와 같은 곳에 와 있는 것에 영도 역시 타락된 세계로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적인 원인이니 이 근본 책임적 문제는 전부가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책임은 타락하게 한 아담, 해와가 근본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 것도 결국은 아담 때문에 이와 같은 곳이 생기는 터를 지었으니 이곳까지 제2아담 격으로 온 예수 앞에는 책임적 사명을 짊어지게 되는 한 목적이 남아 있음이었다. 그들도 근본은 나한테 속하여야 할 존재였던 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들 한테도 한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시작을 보아야 하겠으니 지옥까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후부터는 지상 뿐만 아니고 지옥 부분까지 한 생명의 길이 터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영까지도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찾아 무한한 고통과 싸워가면서 말 할 수 없는 먼 기간을 두고 구원복귀 노정이 시작됨도 알아야 한다. 즉 그들이 범한 죄는 그 몸이 짐이 되고 가시가 되어 그 짐을 다 풀어 밝혀야만 먼 빛을 찾아 장성할 수 있는 특사 노정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선에 대한 자극은 강하지만 악에 대한 자극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그 영인체로부터 잘 분립하기 어려움으로 그 기한적 규정은 무한수에 비하여 장기간이 필요하여서 장성 선을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예수는 지옥에 가서 전도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생활에는 죄에 대한 자극이 강함으로 속히 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근본 창조원리였다. 영인 세계는 이상만으로 충분하게 하는 것이 근본 뜻으로 되었기에 악에 대한 처치방법은 창조 이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주기적으로 선을 향할 수 있는 대향을 볼 때만 생명요소를 볼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서 있는 자들도 선한 근본을 기본으로 하여 악에 대비하여 선 성장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상에서 선만을 소유한 소유자가 되면 전적으로 이상요소 선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니 도리라는 것과 이상준비라는 지상이 원리의 터로 되었기에 예수도 지상 아니고는 뜻 성사 할 수 없겠기에 지상 강림이 근본적 의의가 있음이다. 지옥에 예수의 생명요소는 한 터의 시작을 잡아주는 양이니 이 터에 부합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놓아야만 소생할 수 있는 부분요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런것이라 하여 지옥도 한 혜택의 시작이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다.

사탄의 예수가 지옥에까지도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 근본원리로 되는 주인 자체 복귀의 터의 시작을 주었으니 할 수 없이 허락한 것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생명 소생 권한은 천주 어디나 시작되는 것이니 지옥에도 한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19에 예수가 또한 그 신으로써 가셔서 지옥에 계신 신에게 선포하신지라. 그들은 옛날에 노아 이 일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실때 순종치 아니하던 신이라 하시었고 또 베드로전서 4/6에 죽은자에게도 복음을 전할만큼 대상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복음을 전하라. 그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고 그 신으로는 하나님처럼 활동하게 하심이니라 하시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특별한 은사를 가르쳐주는 근본 뜻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옥 철폐 이상이 완성하여야만 하나님의 뜻 원만 성사라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과연 언제나 되겠는지 그 시기는 한정하지 못한다.

예수 승천 후도 섭리하는 책임적 근본의의

본래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지음 받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끝내 목적 단계급까지 가지도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만일 타락이 없이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의 몸과 함께 지상에 지상천국형으로 전개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로써 뜻 완성부분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한 과정에서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처음 아담 해와는 미도달 부분부터 향상으로 전진함이 많이고 퇴보에 일로로써 밝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비원리적 자녀 번식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계를 이루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고자 하니 이 전세계에 인간을 전부 타락하던 미도달 부분이었던 아담 해와가 하나님 대하던 곳까지로 옮겨 놓아야만 하나님은 근본 뜻이 완성할 수 있는 곳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온 인류를 원수로써 사망에 넣었으니 제2아담 예수는 와서 온 인류를 합하여서 타락 이전단계급까지 옮겨 놓아야 하는 책임적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 기초 잡고 인간은 근본 타락시킨 같은 단계급까지 올려 놓아야할 책임의 완성을 보아야만 그 이상 부분으로 예수도 제일보를 옮길 것의 기본되는 이유니 그 이상을 성사하고자 하는 점은 즉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지상에 완성할 수 있는 세계인간에 숨어든 어둠과 사탄을 멸하는 역사를 두고 섭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떨어져 내려오던 부분급은 하나님 보다 낮은 부분 생명급이었다. 생명급은 영인체에 한 성장한 부분을 표시하는 것인데 구약시기를 통하여 한 기대를 잡아주는 영형체적 기대 위에 신약적 생명급까지를 끌어올리는 예수의 남은 사명 분담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 승천한 것은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까지 예수를 중심하고 나왔다. 하늘에서도 예수의 생명급까지 찾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

는 동시에 지상에 있는 온 인간은 생명급까지 가져다 놓아야 아담이 타락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예수는 이 부분까지 채우려는 역사가 성신 해와의 신이 협조하여 기독교 역사발달을 움직여서 나온 원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도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은 지상에 빨리 생명급까지 복귀적 사업의 역사를 도와서 빨리 뜻 완성 표준까지 도달을 보고자하여 온 하늘은 총동원하여서 지상을 대하여 왔다. 그런데 사탄은 이에 반하여 지상 뜻 성사의 길을 사람을 통하여 반대하여서 대립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패하여 내려가는 방향면으로 전진하여 왔다. 그런 중에 역사를 통하여 사탄은 신자를 박해하여왔다. 사탄은 먼저 주권 국가들을 조성하였었기에 그 주권기관을 통하여 기독교살주의 등으로 반대하여 나왔다. 악의 주권 잡았으니 점차로 하늘쪽으로 옮겨지게 하는 격으로 되는 중 기독교에 속한 의인은 많은 살해를 입어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해받게 하는 이유는 이 의인들이 피가 악의 혈에 더럽힌 세계를 씻는 대신 탕감으로 역대의 피를 맑혀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피와 합하여 세계를 맑히는 양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세계 더럽힌 어두움이 탕감되어 맑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대하기 위한 준비적 시기가 즉 예수와 성신과 하늘 성도들과 땅 신자들이 하여온 역사였다. 그리하여 빨리 세계를 밝혀서 어둠을 청산하는 시기가 즉 재림 이전 심판시대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부가 하나님의 이상 건설에 제일보를 시작하는 것이 근본목적 지상재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의 자체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는 사랑을 이루는 부부를 요구하여 지금까지 영으로는 상대되어 역사하여 온 하나님과 예수와 성신은 한 육신을 두고 근본자기들이 타락하지 않고 나아갈 부분 즉 뜻의 부부는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땅을 향하여서 신자에게 신랑 신부라는 역사를 두고 그 한 터 성사를 본으로 삼고 어두움을 멸하며 완성할 수 있도록 고대함이 전체 목적이니 이 시기와 함께 하늘도 완성할 수 있는 기본이유가 결점의 한 시작이 됨으로 천주에 모든 성도들은 합하여서 목적을 이루기를 하늘은 고대하는 것

이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창조이상인 부부를 찾아서 모든 인간이 조상으로서 간접적 혈통적 계승과 같은 양자와 같이 신도였던 자들은 땅으로부터 하늘 완성할 수 있는 시작을 보는 것이 사실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리하여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에 출현을 이루는 때에 잔치가 즉 어린 양 잔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근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모시는 첫 출발일이 즉 재림 성사적 중요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땅에 창조인간조상을 이제야 찾아 놓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근본 이상이면서 본목적의 시작을 성사하고부터 하늘 생활시작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뿐으로 어머니 없는 아버지로서 역사를 통하여 왔던 것을 사람은 알아야 한다. 어머니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픈 통탄할 을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사이 인생의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하여 나온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성립이 되어야만 자녀의 가정 조직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한날을 오랫동안 고대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땅에서 완성하여야 할 존재가 즉 재림주니 이 분은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전부는 그분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셔야만 이 땅에서 찾아 성사할 미완성 분인 부모모시는 것을 땅 성도들이 이루는 것에 대신 이루어 채우는 역사를 하여서 하늘 성도는 우리를 찾아 합하고자 하는 것에 근본의의가 있다.

하늘 사람이나 땅 사람이나 이 근본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만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활의 시작으로 그 땅 부부는 하늘 부부로서 영원한 가정의 건설이 시작되는 시대가 즉 재림주 즉 아버지 격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때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성신은 힘써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기대를 잡아주는 역사 시기가 예수 승천 후 섭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 뜻 성사에 제2아담 예수가 미성사한 이상부분 제3차 아담 격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뜻을 완성한 부부로부터 새로운 한 천국 가정건설에 목적과 합하여, 혈통을 전환하는 신랑 신부의 성례식으로 온 세

계로 전하여, 하나님의 몸 부분을 분배받아 근본 이상 까지로 옮기는 길이, 즉 재림주 모시는 길이며 아버지급 완성 부분 영인체를 조성하는 생명의 길이 전22) 천주 합하여 시작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와 성신으로 인하여 성장한 생명급까지 온 자들에게 반드시 아담 해와라는 것으로 봉착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전 아담급까지 와서 한 부부급을 성사할 수 있는 격자라는 것을 가르침 받는 신자도 지금은 많아야 한다. 그리하여 재림주 근본 인간조상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터를 세우기 위한 기본준비에 터는 세계 각 곳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동급적 생명급자가 되면 주라고도 가르쳐 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즉 예수와 동급이니 이런 계시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날이 되면 여기 저기서 주라는 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 중 한 뿌리는 한 곳이다. 그곳은 온 천주에 숨은 하나님의 전부를 합하여 발표하는 곳을 향하여 준비적 완성자는 하늘 가정 과정으로 한 과도 분기를 잘 잡아야하는 근본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녀 근본을 이상조직으로 하늘인 근본 땅의 시작을 본다는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령체까지 완성하여만 하늘 이상인형체 구조를 완성하는 바이다. 이 뜻을 성사하려면 모시는 생활세계로 세계 주관 복귀에로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구름타고 오신다고 비유와 같이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레요한이라 하심과 같은 이유로 뜻을 중심하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하나이나 사람은 두 사람과 같은 이유는 말하였기에 논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예수는 어찌되나 하면 한 장자로써 모든 사람이 모시는 중심의 본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오시는 재림주가 근본된다는 것을 알바는 두말 할 것도 없다. 이 분 중심하고 땅이자 하늘의 한 부분이라는 시작이니 6천년에 역사 완성과 하늘의 한 목적 달성이 시작을 보는 사실이니 세계에 기쁨이며 하늘의 기쁨이로다. 이런 시대가 와야만 전부 하늘 뜻은 한 완성의 기대는 잡아 탄식 없는 세계로 제일보의 시작을 볼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16/27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으니 그 때에 사람마다 행한대로 보리라 하심이였다. 그러므로 재

림은 아버지로 오시는 것도 밝혀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리로 볼 때 우리는 영으로 이룬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각자 해결로 맡기자.

부활의 근본의의

신앙 역사적으로 온 인류는 누구나 물론하고 부활의 이상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부활은 지금 기독교 신자의 모든 소망의 대상으로써 역사적인 동경의 한 중심이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그 중심의 의의는 무엇을 표준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부활을 기본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신앙생활자들이 바라는 전부로 되어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의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부활은 무엇을 의의로써 가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수의 부활은 사탄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재출발점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적 부활권한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신부활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이 육신부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완성하심이다.

즉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육신은 전부가 사망권에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받아 다시금 성장할 수 없는 더럽힌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터로 된 육신들이 한 부활요소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금 소생 할 수 있는 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함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본 사망육신을 생명육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이 시작을 봄이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으로 내적 생명을 성사할 수 있는 기본 터가 그리스도 부활로 인하여 시작함이다. 그 터위에 생명을 완전히 성장시켜서 나와 다시금 우리는 부활을 바라는 제2부활인 재림부활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사망에 터를 청산함이고 부활은 다시금 생명에 길로 영원히 시작할 수 있는 기대를 닦는 것이었다. 사탄의 주관하에서 있던 것을 분기하게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니 사탄이 없어져 예수 생명을 받으니 부활터를 우리 몸에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과 함께 사망의 육신에서 다시금 창조 원리적 생명 소생받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시작하니 한 부활을 표시함이다. 부활이란 말도 우리 조상 아담 해와가 육신을 더럽혔던 사실로 인하여 생겼던 것이다.

타락이 없었으면 우리는 부활이란 이름조차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타락함으로 부활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전 입장으로 한 다르게는 노아 들어서는 양이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은 한 것이라는 명사를 붙여 부활한다고 하는 의의를 알려야한다. 사탄으로 죽음 이었던 것이 다시 예수 부활로 인하여 살아났으니 이전의 생으로 돌아오니 즉 부활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받고 있는데 무슨 또 재림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아야한다.

모두가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밝혀보자. 본래 사람은 타락이 없었다면 부활의 요구가 없는 완전 완성한 영인체를 조성하였을 것이다. 영인체가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몸과 합한 일체적 계대를 성립하여야만 완성 시작은 이미 말하였다. 즉 예수(아담)는 하나님의 일체 몸까지 나가지 못하여서 타락한 것을 이미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 받은 급이 즉 생령체를 조성함인데 이 생령체를 받아야만 우리 근본창조인 이상적인 삶이었는데 이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나누워서 찾아 채우는 양으로 되는 것은 먼저 타락하기 전까지 생명급 정도는 예수로 인하여 받았지만 아직 생령급까지는 다시금 나와 있지 못한지라 이 부분까지 받으려면 재림주로 인하여 충당하여 할 것이 남아있는 미소생부분이다. 이 부분은 역사를 통하여 천국에 가서있는 사람도 미소생으로 되었다.

땅 중심하고 소생할 수 있는 근본 이상부모가 나타나야만 온 천주인은 이상인형인 본 생령체 완성한 영인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령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만 재림하여서만 성사할 수 있는 급이다. 재림성사하여야 그 근본 타락 전 생령체 구성으로 나간다. 그전에 못되는 원인은 근본생령의 부모가 없는 입장에 어찌 먼저 생령을 받는다는 것은 조상 없는 자식을 성립하는 양인 비원리적 사실이므로 하나님은 이 목적이 재림부터 완성함을 받게끔 역사하는 것이니 온 천주는 이날을 갈망하여 바라는 것은 다시금 하늘에도 부활한 완성급을 부여 받은 것을 말하면 지상에서도 우리도 역시 생령급 한 부활의 시작을 본다는 근본원리가 있기에 재림부활을 말함이다.

공중에 혼인잔치라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 생명급까지 완전 성장한 자만이 자격이 있어 그 잔치로 인하여 부활에 생령체를 가진 한 근

본자녀의 입장을 조성하여 하늘 가정조직의 시작인 영광을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재림시까지 낙원에 가 있는 것은 근본 하늘 생활 못하고 준비기간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재림하여서만 시작한다.

즉 근본 아버지 어머니가 생겨야 아들과 딸의 생김의 시작을 보겠으니 이 부모 생기기까지 고대가 하늘이나 땅이나 바라는 재림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간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복귀고대가 즉 재림고대라는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근본 육신에서 완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합하여 하늘 땅 일체 때가 천주 완전부활일이니 누구나 고대한 원인이다. 하늘에도 영으로 한 급 부활시작. 땅에서도 근본 완성시작이 되니 이 어찌 고마운 부활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원리적 사실이 구약시기와 신약시기와는 영적급으로 한 급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구약은 터를 닦은 급이므로 생심에다 영체를 시작하게 하여서 생명급 계승으로 할 기본 터이었다.

그러므로 영체적 구약시기서부터 신약생명급까지에도 한 급적 부활이 역사가 있다함을 근본 논한 원리와 같은 이유로 구약시대에 영들은 그리스도에 부활과 동시에 한 생명급으로 계승하는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성경 마태복음 27/51~52 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 들어 되고 땅이 진동함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인의 몸이 모두 일어나되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이다. 위 구절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부활과 성인부활의 시작을 말함이다.

그러면 이 성인이 무덤에서 모두 일어났다 하는데 예수와 같이 부활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하면 구약적 완성은 즉 영인체 부분부터 생명부분으로 계승하여 성사하는 한 부활시작을 말함이다. 이 길이 시작이 구약 영인들에게는 큰 영광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볼 때에 한 영인체가 역사)를 두고 이와 같이 부활단계를 가진 역사적 시일의 하늘간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고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활 성장으로 하늘사랑 이상가정까지가 목적이 온 천주는 지상 재림과 동시에 지상 천국건설을 목표하고 바라고 있다. 하늘 사람도 지금 우리 재림주 대하는 자를 무한히 바라고 있다. 하늘에 가서 좋은 것 같이 생각하면 큰 오해다. 하늘에서 미완성부분을 대신 물어주기가 곤란하다. 하늘에

생령을 받을 길은 재림주를 받들어 모심으로 잡았으나 땅에서 하여야 할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이 근본창조하심이 목적었던 것이니 하늘 사람도 땅 성도와 협조하여 대신 미처 성사하지 못한 부분을 충당하여 받은 양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땅 성도는 자기 분과 동시에 하늘 한 자체면 자체 가정이면 가정을 대신하여 채우는 길을 대신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음으로 전체 하늘 성도와 우리 땅에서 재림주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과 합하려고 여러 모양 각양 표시적으로 계시도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성도세계 시기란 이 목적이 완성하려니 이와 같이 땅을 중심하고 충당사업이다. 우리 생령 번식세계에 전도사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매이게 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리리라 하심에의 근본목적 완성이 땅이라는 것을 현 신앙자는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땅에서 중심 자체인 예수와 재림주 자체를 모시는 자들은 지난날 영인들이 목적 완성한다는 것과 그들 보다 높은 위에 거할 바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 얼마나 땅에 있는 직접 대하는 성도를 부러워하라? 그러니 성경히 11/39~40 에도 종말에 있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있는 자가 종말이 되느니라 하심도 이와 같은 원리 근거로 부터이다. 이와 같이 타락함으로 삼단계 분담으로 성사하려는 무서운 고난시기로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미지에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재림시 부활을 육신으로 바라는 자는 지난날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적 존재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활원리 근본의의를 알아야 한다 하고는 뜻 받들지 못하는 자라면 그 얼마나 하늘이 슬퍼할 자일까! 이와 같이 숨었던 오묘한 진리를 밝히는 근본 목적은 뜻 성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재림과의 근본의의

하늘에 천사나 땅에 사람이나 전부는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이상은 전부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근본 타락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면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기본문제에 근본 자체였다. 타락으로 인한 세계가 되고 보니 땅이나 하늘이나 전부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근

본 최고 이상은 파괴를 보고나서니 원수를 대하여 다시금 빼앗아서 찾고자 하는 비공리 부분 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천사세계에서는 하루바삐 하나님의 근본 시대가 오기를 하루가 천년 같이 고대하여 온 것이었다. 이 전부의 책임은 천사장 루시엘이 실패하게 하였으니 천사들 세계에도 이 천사장이 실패하게 하였으니 다시금 천사장들은 이 목적을 되찾는 것을 자기들이 대신이라도 하여야 할 간접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천사들과 천사장들 역사를 통하여 기본복귀로써 많은 노력을 계속하여 왔던 것인데 이 목적 성사는 두말할 것 없이 재림이 지상에 시작하여야만 자기들의 모든 책임도 완성하는 동시에 지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신 도와주는 근본출발점을 보게 되니 천사장은 물론 재림과 함께 와서 지상에 하나님의 근본 뜻을 협조하는 근본생활체계에 제일보를 보아 재림주 앞에 하나님 뜻 성사에 많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팔로 소리를 내서 준비적 협조를 시작하는 바를 완성하니 천사장 강림이 되어 주 뜻을 대신 고하여 대중 대하여 선포적 존재가 있는 것을 표시함이다.

나팔이란 뜻은 본 실체의 목적을 대신 표시하여서 알리는 사명이 나팔이니 이와 같이 지상에는 재림주의 뜻이 한 기대 준비가 지상에 있어서 합하여 뜻 성사하는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만 천사세계도 최후 목적을 달성을 보아 같은 기쁜 이상 시작을 볼 것으로 되어 있기에 천사와 천사장 책임적 분담도 있는 것이다. 특별한 존재는 그의 뜻에 사명을 천사장적 사명 담당자가 지상이 빨리 많아지는 것이 기쁜 것이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하늘 완성으로 발달하여 나오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해방의 시작이니 그 얼마나 기뻐할 내용일까?

심판에 대한 근본의의

인류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의 노정과는 동일한 기점상을 이탈할 수 없는 양으로 전개하여 온 것은 벌써 논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두고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한 목적 도중에서 있기에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역사노정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미워하게 되는 근본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사람 대한 한 비원리적 존재가 생기므로 그에 대한 방비적 대처진을 취하여서 인간 대한 하나

님의 뜻에 섭리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인간 앞에 심판이라는 무서운 한 대상존재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하면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사탄이란 비원리존재가 있어서 원리인 우리 인류를 침해하게 하는 그 결과에 대한 한 원리적 대책이 즉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이다. 이 심판의 결과가 역사상에 보여지는 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요구하는 기본 주인공격으로 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야 할 존재가 뜻 외의 존재에 속하게 될 때 심판의 시작을 본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아서 부인할 수 없다.

제1심판은 노아 홍수심판이다. 이렇게 심판한 것은 사람이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자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원수 상대하여서 하늘 대한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 그는 원리 아닌 주인 세계니 그 자체에게는 영육 합하여서 하나님이 취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전부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기본존재를 요구하심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서 그 식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복귀의 한 기초를 잡고자 하심이 목적이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노아 식구는 온 세계 인류와 비례되는 가치격 이상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한 목적의 기점에 존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전부 전멸하는 중 노아 여덟 식구만 시대적 하늘에 요구인 소망의 존재였다. 이 기본 식구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탄을 본격적으로 추방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 성사를 보지 못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기본 목적 달성하여야 할 제일보에 다시금 사탄의 유인을 보게 되었다. 노아 홍수심판도 전부의 근본목적은 사탄 대한 소유존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 심판이 요구하던 근본목적되는 상대였다. 그래서 뜻 그 근본 자체에 사탄이 다시금 침입할 수 있는 한 노정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사회에 있어서는 한 심판되는 한 섭리부분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사탄이 인간세계에 침입하고 있으니 언제나 이 존재가 남아 있다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에 한 대상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탄과 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는 사람과가 역사를 통하여 분립을 보게 되니 언제나 비원리 존재세계가 원리적 존재세계의 뜻에 극적인 배치에 설 때마다 한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립을 보는 세계가 되었으니 세상에 되어진 심판은 노아 이후에는 사람을 중심하고 심판하게끔 섭리하여왔다. 즉 하나님의 한 택한 사람 혹은 씨족, 민족, 국가를 세워서 심판의 뜻을 계승하여온 것은 역사를 보아서 잘 아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일심판에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 심판을 추진시켜 성사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그 목적을 성사하여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을 사람한테서 멀리 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시금 사람과 합할 수 없는 작업을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심판 뜻 목적성사는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그 노정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또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에 가서는 사탄까지 주관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그 권한을 완성할 수 있는 자격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심판 목적을 달성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탄의 좋아하는 목적에서 처하는 자는 기필코 어느 시거나 한 심판시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하는 심판의 별을 받은 자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별을 받은 것도 있는 것이다. 병으로 인한 자도 있다. 사람이 사탄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면 물론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그 창조이상적 권한까지 주려고 하니 시기를 두어서라도 사람으로 인하여 사탄을 전부 굴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요구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심판은 하나님의 사탄 대하여서 청산하고자 하는 심판이었으나 그 목적 미달성하고 기대만 잡고 사탄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씨족 선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상 기점을 세우기 시작하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접지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 중에 사탄에 속하는 자만 생기면 용서없이 한 심판대상으로써 치곤 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양식으로 하였다. 직접하지 않으면 병으로 그 외에 간접적 사람으로써 취하여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 편에 속하면 물론 심판을 면할 수 없었거니와 그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대립으로 나오는 사탄에 대하여서도 방비대적 심판으로 태세를 취하여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하고 자기의 보호권내로 정하고 이 권내에 침범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처벌로서 대하여 왔다. 즉 심판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상에 심판이란 명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즉 한 이상으로 되었다. 즉 심판 없으면 전부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그 시기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심판이란 목적이 없겠는데 아직까지 역사노정에는 사탄의 행동이 계속하여 나오니 아직까지 심판은 제외되지 않아온 사실이다. 그러므로 심판이란 명사의 최고목적은 사탄을 전부 굴복하게 하는 때에는 우리 세계상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사람한테 전하여 왔다. 그러니 심판 시기는 큰 무서운 시기인 동시에 큰 기쁨에 한 경계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합하여야 할 것인데 사탄이 남아 있기에 여전히 목적 미성사이니 우리 앞에도 한 심판이란 비원리 시대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심판을 완성하여 뜻 성사하는 그 시기를 바라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 목적은 어느 시기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와서부터 시작할 것이니 이 예수 한 존재가 이 전부의 심판을 우좌하는 한 중심존재이었다.

이 존재가 확립되어야만 하나님은 완성심판성사한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이 예수 한 존재는 그 대에 있어서 한 전체 역사를 우좌하는 한 기본존재였다. 즉 예수 와서 사탄을 전복시키는 목적이 시작하겠으니 하나님은 이 시기를 미리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세계전부를 심판받게 하는 것은 예수 한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을 우좌하는 주인공이었다. 심판의 근본목적은 악한 사탄을 치는 것인 동시에 사탄 편 아닌 자를 향하여서는 근본 해방적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탄편쪽 자는 크고 두려움에 일이요 하늘편쪽 자에게 크고 기쁨의 날인 것은 틀림없다. 심판 받는 자는 사망이요. 받지 않는 자는 생명, 즉 영생이니 예수 한 존재로 인하여 이 근본 분기점이 완성하겠으니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날이었다. 그런고로 예수께 속하면 생명이고 그 외 사람은 사탄이란 두 갈래길 짓는 중심 존재가 예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예수 한 존재는 크고 두려운 존재였다. 전

부가 예수 앞으로 합하여 나가느가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허락되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죽는 길의 시작도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니 크고 두려운 날이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모시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장으로 나가니 과연 두려움에 한 기점인 존재가 예수니 과연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오는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에 많이 말한 바다.

예수가 올 때도 말라기서에 보면, 즉 만유 여호와 가라사대 그 일이 이르니 형세는 강한 풀무와 같고 무릇 교만한 자와 행악한 자는 쳐자풀과 같아서 그 이른 날에 다 타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되 오직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일이 올라 치료하는 기운이 광선 아래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가 뛰기를 굴레를 벗은 송아지와 같이 하리라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 자신은 기쁨에 존재의 때인 동시에 한 심판의 존재였다.

이와 같은 말씀은 무엇을 말함인가 하면 예수 자신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될 것을 제시한 것인데 예수 자신의 세상에 오실때 그와 같이 되었느냐하면 그렇게 됨이 아니고 그 내용 뜻은 사탄 대한 절대적 승리로서 사탄이 근절됨에 따라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그 뜻이 있는 바이다. 예수는 악을(사탄) 소멸해 없어지게 하기 위한 존재니 예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이니 과연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으로 예수를 협조하여서 심판적 입장을 취하여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나가니 즉 예수까지 대하는 반역자 행동이니 이 얼마나 두려운 행동이었으랴! 그리하여서 사탄에게 적극적인 심판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그 목적 달성을 역사를 두고 시작하여왔다. 그리하여 재림 때 완전히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을 예고하심이다. 그리하면 이 심판 근본 목적은 사탄 전멸이 전 목적이다. 이 목적은 재림으로부터 완성되는 바다.

그러므로 심판은 모든 세계만물에 대한 것 보다도 사탄 대해서가 근본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직접 성사할 부분을 남긴 것은 세상에 하나님 품 외에 처하는 존재가 남기지 않은 그 때가 즉 심판목적의 완성이니 이 완성 때가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전권을 가지고 사탄에 대하여 심판하여서 사람을 전부 하나님 편 쪽으로 주관당하게 하는 그 시대가 즉

심판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두 진영으로 분립이 되어서 투쟁시기가 되면 벌써 심판 목적의 달성 시대를 예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지상에서 사람들을 통한 국가, 국가 합하여 하늘 쪽 반대 국가 대하는 시기가 오면 그 시대는 뜻 성사의 기대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으로 인한 국가로 사탄으로 한 국가 대립하여 승리하면 재림 이상은 벌써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와 같이 대립하여 이 체계 극제조류로써 하나의 승리가 되면 벌써 재림주가 와서 이상 성사의 터는 완성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주의가 되는 동시에 재림주는 시작을 볼 것이다. 그전에 벌써 와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근본이상 시작은 재림주를 통하여서 우주는 완성 이상에 제일보를 옮기게 된다.

그리하여 사탄은 우주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공중에 한 어두운 곳을 잡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한테 굴복하였으나 예수한테 승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도 실패로 돌아가고 다음에는 사람한테 패하게 되는 동시에 재림주께서 나타나시니 사탄이 처할 곳은 지구상 어느 곳이라도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목적이 이것이었다. 하나님과 예수와 성신이 합하고 전천주에 성도와 하나님과 사람과 합하고 또 만물과도 합하고 나니 그 목적으로 싸우던 그 근본 전부를 소유치 못하여 하나님이 섭리하는 노정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나중에는 사탄까지 굴복하여서 본 원리로서 귀환하여야 할 때가 재림과 동시에 시작됨을 원리로 보아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교인들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중심목적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취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 근본 뜻을 알고 온 세계는 합하여 하나가 되어 뜻 성사에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뜻 목적에 서지 못하는 자는 법적으로도 세상에서 그 고통의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선의 전승시대며 악의 굴복시대니 온 세계는 악의 한 모양이라도 없는 이상세계 건설을 재림주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인류역사 발전과 하나님의 섭리로 본 변증

인류역사는 전부가 사람끼리가 합하여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은 아니고 신

대한 사람들의 관계로써만 역사발전은 시작하여 한 목적을 완성 표준하고 나온 것은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탄이란 대치 진영 아래에서 인류역사는 승패의 한 노정으로 최후 승리는 착한 자가 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할 인간이 사탄을 따라 합하면 그 곳은 어떠한 발달된 세계로 그 말로에 한 관문을 봉착하였다는 것도 잘 알 줄 안다. 사람 중심하고 하나님 편으로 향하여 합하여서 악에 대한 더럽힘이 탕감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섭리하여서 뜻을 세우시곤 하신 바다.

왜냐 하면 사탄에게 속하였던 그 자체에 흔적 없는 터를 잡고야만 시작하여야 다시금 사탄의 침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 모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여 그 한계를 두고 반드시 그 악을 청산하는 것으로 되니 인류역사는 계속하여 전쟁역사 승패의 반복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류역사는 전쟁역사라는 것으로 장식되는 바는 선과 악이 대립되어 있기에 전쟁역사 전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류역사 전부는 하나님의 섭리중심으로 되는 기독교 역사와 부합하여서 한 목적으로 종국을 완성하는 양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결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께서는 이상 우주 역사 즉 인류역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움직여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원리로 되어있다. 하나님의 뜻 성사에 한 표시적 증거로서 역사 발전은 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사람 없으면 역사도 없을 것이고 역사 없으면 그 역사에 본 노정에 방향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는 전부가 선악신의 싸움에 한 표시적 원리가 즉 인류 역사다.

그런데 언제나 세상에는 악이 먼저 시작하였으니 악의 세상에는 먼저 하나님의 근본 창조원리 법리상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 악을 패할 한 대상진을 취함이 인류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이란 비원리 존재인 한 형체를 가진 악의 주권 역사와 대 하나님의 복귀섭리하는 주권회복역사와 서로 대립을 보여 왔다. 사람

이 하나님 편으로 되면 악주권은 패하고 한 신주권으로 반복하여서 인류세계에 악을 제외하고 선의 승리하는 모양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역사과정은 악청산 과정기간이라는 것이 사실로 되어있다. 악을 제거하여 선의 시작 터를 넓혀서 온 것이 즉 인류역사이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선만이 남은 주권세계를 조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근본이니 역사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대립된 전쟁의 한 승패의 역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 중심하고 나온 세계라면 전쟁이란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종말론적 역사발전이란 서러움에 한 장면이다.

만약 하나님 편에 속하여 온 중에서 역사발달이 되어 왔다면 한 국가면 국가가 패하는 것이란 명사는 관계 없는 것이었겠는데 악에 처한 그 발달된 국가라든가 또 사람이 하늘 편 길에서 발달하였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나가는 시대적 발달된 문명사회나 국가라도 여지없이한 말기를 피할 수 없게 한 전복에 말로를 밝게 한 바는 종국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자각할 수 있게 섭리하심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 선조들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고 나왔다.

또 인간의 근본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나왔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과 동시에 한 심판에 처하여 왔다.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늘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죄송한 심정을 가지고 탐지하여온 역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슬픔의 역사에 한 표시가 과거 역사중 문명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사람들에 대하여 섭리하시게 되면, 사탄은 반대되는 파괴적 역사를 건설하여서 나오게 되었다. 어떤 민족 대하면 사탄도 그 민족을 대하여 국가 대하면 그 국가를 대하여서 반대로 방해를 해왔다. 하나님께서 뭘 건설하려면 악은 파괴하는 수작하고 사탄이 건설한다면 하나님은 파괴하는 작업을 하며 이와 같이 서로 뜻 세우고자 하는데는 반대작업이니 세계 역사는 시작하였다가 끝을 내고 끝났다가 시작하고 이와 같이 하여 긴 역사를 거듭 반복하여왔다.

이 사실로 되니 인류사회에도 착한 사람이 태어나면 악인이 태어나서 파하고 악인이 태어나면 선인이 태어나서 승리하여 또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금

뜻을 받들지 못하여서 또 패하는 양으로 나오는 역사의 왜곡이야 과연 쓸쓸한 슬픔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노정이었다. 개인으로 사회로 국가로서 나아가 전부가 이와같은 한 공식과 같은 원리를 표시하여서 발전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역사는 한 하나님만의 온 세계가 소유되는 때는 전쟁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종국을 완성할 것이다.

이 전쟁의 역사가 없는 시대가 온 세계적으로 완성할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뜻 성사의 시작한 기초완성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에 흐름은 전쟁이 없는 평화이상 시기가 목적의 종국이면서 한 형제로써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가 즉 그 시대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놓지않고 이 목적을 향하여 섭리하여 오는 것이다. 사탄은 이에 반대하여온 바다. 사탄이 역사에 먼저 시작하였으니 세상에는 참것이 오기 전에 거짓것이 먼저 온다. 거짓것이 참이라고 먼저 서두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못한 자가 먼저 발뻘하는 것은 타락본성을 받은 인간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진리도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먼저 시작과 표시하여 그 진리본체를 상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는 내부까지도 사탄의 한 수작이 있음에 이와 같은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 것이 참것 같은 거짓 것한테 희생당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볼 수 있다. 예수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한 비진리에 대상 취급당하였고 참 진리자들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이었다고 그 시대는 전부가 알았기에 진리본체 예수까지 십자가로 넘겨 준 것이 아니었던가? 진리는 최후에는 승리하니 역사를 보내 놓고서 그때서야 그 자체의 근본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학대 받은 곳에는 한 진리에 가까운 거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원리로 살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이와같은 기사에 기록이 즉 역사 발전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세계상에 극한 두 진영을 표준하고 발달하는 원리도 이와 같은 두 신적 존재가 있는 섭리하에 처하여있는 인류세계는 불가피한 결실에 노선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으로 속하여 인류세계가 우좌하는 한 시기는 반드시 온다. 즉 지금 세계상 두 조류는 극반대가 되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유신론과 유물론이란 대립하는 두진영이 즉 그 표시되는 하나님 대

사탄 대하여 사람과 만우주를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원리로 된다.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그 목적은 전부가 이상을 표준하고 역사는 움직여 나왔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역사상 6천년 역사에 한 결실적 표시가 지금이 두 진영이다. 이 두 진영은 역사의 열매이다. 역사적에 그 발전하는데 있어서 진리에 한 노정을 통하여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 발달의 목적은 즉 역사 목적인 진리세계가 표준이니 그곳 향하여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성립하는 한 과정단계는 발생시대, 성장시대, 완성시대로서 한 섭리적 발전사를 두고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두 주의 진영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주의자가 만났으나 그들 주의자는 한 시대적 발생적 역할이든가 성장에 역할이든가를 하여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세계상에 한 조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원리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역사적 진리의 본체는 누구인가? 그 중심 기점은 즉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 요소적으로 본다면 유일이 되는 동시에 불변이 되며 영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점으로 한 진리세계란 유일주의 세계요, 불변주의 세계요, 영원주의 세계가 역사적 최종국에 진리인 이상에 한 종점이다. 이와 같이 되는 세계가 되면 우리 인류전부는 창조 본원리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신(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목적세계 무궁세계에로 향하는 신에 대한 길이 남을 본창조 근본노정 출발을 볼 바가 하나님이 인류 대한 섭리의 근본 뜻이다.

그러므로 세계상이 지금 두 주의나 하나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적백의 표시 적(좌)은 사탄이요 백(우)은 하나님이다. 이로 왜 백적(우익 좌익)이 안되고 적백(좌우)된 이유는 사탄의 먼저 시작한 바를 표시하는 역사적 근본의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색이란 사탄이 경계한 근본존재다. 그 적색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 유무는 근본적으로 보아 어찌되어야 하는가는 각자의 추측으로 말기들 명백한 사실에 한 결론점상을 누구나 이랄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3차 대전이 없다면 적이 자연굴복하여야 되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 있으니 세계 대하여 자기의 야욕을 충족시켜 보려고 그 거짓 본성을 여실이 폭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3차대전 이후는 국제 연합적으로

하늘 뜻 표준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즉 하나님 직접주관 시대다. 그러므로 재림성사시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나오든 국제적 성원 국가들이 가지고 온 주의도 아닌 신주의가 출현하여야 한다. 이 주의는 창세전 이상에 한 주의인 동시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늘과 땅 합하는 주의로서 출발을 하게 된다. 그 주의는 유일의 주의요 불변의 주의요 영원의 주의이다. 이 시대까지 역사상으로 발전하여온 역사적 분립노정에 중심 섭리하신 변증적 사실을 표시하여 보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세계는 우좌하여오니 그 역사는 기독교 성경상의 내용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시는 곳이나 그 목적을 협조하여야 할 종교가 즉 기독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독교를 중심하고 그 목적달성을 지상에 예수를 보낸 후부터 시작의 단서를 잡은 것은 사실이다. 기독교와 현대세계와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노선상에 속하여서 섭리하였다.

기독교는 세계역사 발전상 모든 한 지향으로 되었으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는 패한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은 우주 주관주인 하나님은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과 합하려고 섭리하였기에 어느 종교라도 선을 표준한 것이면 하늘에 속하는 것이 원리로 되어있다. 악은 선을 표준한 곳을 절대로 주관할 수 없다. 선은 어디까지나 하늘쪽으로 속하니 하나님은 인류세계에 종교를 통하여 목적인 것은 종국목적 소유를 바라서 종교로써 동서양 세계를 섭리하였다. 그 중 제일중심의 본부가 즉 기독교다. 그러므로 최종국에는 어느 종교라도 하나님에게로 그 기본의 중심을 정하여 기인한다. 세계 일면 종교는 물론으로써 누구나 그 생활무대상에서 이와 같은 기점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때가 즉 이상시대다.

즉 종교통일은 인간이 궁극에 사실이 명백하여지면 다 하나로 기인된다. 기독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직계정부와 같은 것이고 그 외 종교는 한 사회단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부 합하여서 완성할 수 있으니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에는 어느 종교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느 종교 이념에도 하나님의 요구하는 한 중심점이 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와 세계발전 역사와는 반대되는 한 적과 같은 역사노정은 어느 시대라도 여실하게 명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 세계 역사적인 한 원수를 상대하려고 나오는 것도 원리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목적달성하려니 전부를 유대민족을 세계발전상에서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위치에 두심과 온 세계의 경제력을 가지게 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 터가 되겠으니 지금과 같은 현세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가들은 유대민족과 합하여 뜻 협조하여 최고 이상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세계에는 종교와 과학과 경제가 한 기대 위에서 움직이는 시기다.

역사발전 한계를 복귀로 본 변증

하나님의 뜻한 세계에 뜻 아닌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야 할 기본원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터위에 악의 시작을 보게 되었으니 모든 것의 기본 뜻에 합의하게 되어 있지 않음은 사실이다. 사탄의 침입으로 인하여 온 땅은 더럽혀서 하나님의 뜻 성사할 수 없는 부정이 전체로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금 찾고자 할 때에 이 세계를 다시금 청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의할 수 있는 처단을 취한 것이 즉 노아 심판이다. 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뜻에 한 시작을 보려한 것은 사실인데 인생 제2조상되는 노아 자식 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성사의 한 기초를 잡지 못하고 아브라함까지 기다려서 시작하게 하심이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천년 역사를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택함도 근본 이상세계를 다시금 찾고자하여 시작의 터가 즉 아브라함 택함이다. 아브라함 택함은 역사적으로 흐린 전부를 다시금 밝혀야 할 책임적 사명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뜻을 모시고 응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한 터를 시작하는 구약역사 시작 이상의 더 이상적으로 시작하였겠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애굽 4백년이란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여주어 실수의 근본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4백년이란 연수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근본문제를 알아야한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원인의 연대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탄한테 더럽힌 터위에 시작하고자 함이 본의가 아니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받게 하였는가 하면 노아 자식부터 실수하여 다시금 그 자식들에게 사탄 침입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노아부터 섭리시작하려고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까지 연장하신 것이다.

근본은 노아가 아브라함의 뜻 계승자가 되어야 할 바가 이와 같이 연장하였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그 연대수로 보면 약 4백년 연대였다. 이 연장은 노아 자식으로 인하여 불순종 조상 사탄을 유혹하게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시작을 보았으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침입 사탄 방지하고자 하여 택함에 약속한 제물실수로 인하여 다시금 사탄을 실체자식까지 침입할 수 있는 사실을 보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연대를 연장 본 4백년에 한 기간까지 더럽힌 것을 청산하여야만 그 자격성 사할 수 있는 한 탕감 시기가 즉 4백년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한 탕감의 수가 차기를 고대하여 모세를 세워서 소생 급 출발에 착수작업인 하나님적 책임사명시기에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애굽 4백년 이후 약 1600년에 예수가 온 것이다. 그 1600년 기간은 아담부터 노아시기적 연수에 기간이다. 그리하여 이 근본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한 탕감을 역사적 기간을 두고 탕감하게 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기까지 약 이천년 년대로 경과 중 더럽힌 경과니 아브라함의 실수가 없었으면 이와 같은 기간은 한 한계로 될 터이었다. 그런데 다시금 사탄의 침입을 보니 노아 심판하지 않은 것과 같은 원인으로 되었다. 그러니 4백년과 모세 이후 1600년 연대가 탕감시기로 소모되는 한 원통한 역사적 연장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에 와서는 다시금 구약완성과 동시에 노아 이전까지 완전히 탕감하여 완성하여야할 역사적 탕감책임분담이란 노정에 서게 되었다. 예수는 구약완성인 동시에 사탄 방비에 한 중심자체였다. 그런데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하나님은 사탄에 대한 것을 멀리 쫓아내는 시기 4백년 간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역사적 모든 탕감하지 못한 근본 사탄 대한 한 방비의 길은 닦아 놓고 가게 되었다.

예수부터 지금시대까지가 약 2천년 역사의 간격을 두고 나왔다. 그런데 예

수께 있어서는 복귀의 한 실천노정에 본노정으로 올라가는 역사적 복귀시기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가 모세부터 1600년간이니 이 이상 4백년 기간은 탕감시기였으니 그 이상 4백년간 즉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백년은 사탄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 방기시기였으니 예수의 한 노정에도 이와 같은 역사적 복귀노정의 반복 노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 이후 1600년 기간은 사탄 악에 대한 성도들 합하여 역사적 탕감시대였으나 4백년간 시기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시기는 예수에게 있어 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사탄에 대한 자취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방기시기였기에 예수 앞에도 이와 같은 한 자유롭게 사탄 대한 자유권으로 취하는 기간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4백년 전부터는 예수의 한 자유 향상으로 기인한 이상 출발을 본 것은 이와 같은 역사 복귀적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한 국가와 세력 민족들의 역사는 사백년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큰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발달된 영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도 이 기간 안에 발달한 국가이다.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한 세력기대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나오는 도중에 예수 편 중심한 영미를 중심한 국가들은 자유무대로 하나님의 직접 지배하는 국가로 되어왔다. 그리하여 사탄과 한 대립 국가진영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과학과 종교 이상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발달하여오면서 하나님을 모셔 나왔다.

이 시기는 하나님 편으로 승리에 한 터를 잡아가지고 국가 대적으로 동맹 국가 체계를 조성하여서 영,미는 합하여 하나님의 뜻한 표시를 성사할 국가의 책임국가로서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한 국가체계의 성립과 대비하여 사탄 국가 한 대비로 서게 되었다. 그것이 제1차 진영으로 취한 것이 독일이다. 그러므로 세계대전이란 이름 아래에서 제1차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한 존립을 보장하는 때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늘 대한 사탄의 역사상 먼저 하늘에 한 흉내 전개의 모양으로 태세를 취하게 하여 나선 존재가 즉 가이펠(에도가도 8세)의 그 존재였다. 세계에 한 왕이 있어야하며 한 통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권을 세워 나옴이 사실이다. 이 가이펠의 출현은 사탄이 한 대신으로 되어 세계를 자기의 수중

에 넣어 보겠다고 주장하여 준비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존재가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늘적으로 이와 같은 존재가 시작하여 지상에 시작될 한 예증의 표시이다. 이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하나님은 전세계 대한 승리권 안으로 제일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근본 이상세계에로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와 같은 하늘세계 주권자는 이 시대를 중심하고 승리한 터 위에다 이 우주이상 주인공의 지상탄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의 기대를 잡게 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 대하여서 사탄은 제일 아담과 제2아담 예수를 패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탄 주권자를 세우심은 제1차 아담격 대신자 흉내와 같은 존재니 하나님은 제1차 아담을 사탄이가 패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의 복수적 태세가 즉 에드가도 팔세 가이펠을 패하게 한 원인의 존재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불과 20년간에 다시금 독일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원인은 첫 아담 뿌리를 중심하고 제2차 아담 예수까지 사탄이 범하여 패하는 양상으로 나갔으니 하나님은 이 복수적 대상자로서 패하게 한 것이 있는 바이다. 이것이 즉 히틀러와 기 외 삼국동맹국 일본 이탈리아였다. 이와 같이 제3차 세계대전은 상대격을 요구시켜 놓고 나왔다. 그 동맹국가 안에는 일본 같은 나라는 여성적 국가였다. 독일은 남성적 국가였다. 이탈리아는 천사장 대상 국가였다 이와 같이 되는 동시에 일본은 여신국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과 인간이 합하여서 이와 같은 국가형체를 합하여 자기들의 이상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존재로 되었던 제2 아담 격 예수에 한 목적 상대국가로 되어있었다. 이리하여 패하는 동시에 하늘의 한 근본 존재되는 자체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한 사실의 시작이 전제 표시 국가 체제였다. 그러므로 히틀러는 성경 개조와 하나님 대신자고, 일본천황은 현인 신이라는 그와 같은 한 표시적 상징이 사실체 출현한 바는 하늘적 재림주 실체가 이와 같은 양상으로 오는 사실을 예증하여 왔다간 자들이다.

그러므로 히틀러 존재가 미불명은 예수 무덤 없는 바와 같이 독신으로 있다가 간곳 조차 모르게 되는 이와 같은 하늘 뜻 노정에 한 탕감복수로 전개하여 왔다. 그리하여 사탄은 역사를 두고 갈 곳없으니 나중은 소련을 위시로 한 위성 국가들을 조성하여서 공산주의라는 국가 체제를 가지고 나타나서 세계에 태양이란 한 국제에 주권자격으로 부르며 온 세계를 직접 우좌하는

존재로 되는 것은 즉 사탄이 하늘이 진리존재인 재림주 권한의 한 표시적 상징으로 나타나서 제3차적으로 전세계를 결판짓는 자의 모양의 위증자가 출현한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기필코 사탄은 일본 소련 스탈린을 중심하고 30여년 역사로 결국 패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바가 한 원리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근 30여년 안에 제1차 제2차 제3차로 전세계에 대전이 시작되는 것은 이 30여년 안에 벌써 하늘이 근본존재로 하는 기본존재가 지상에 출현을 보았기에 이시기에 하늘의 근본 뜻을 성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출현하려니 이 한 존재 중에는 사탄의 전체 역사를 두고 하늘 대한 역사에 전부의 완성체이면서 미성사부분의 성사체이니 이 30여년 안에 제1차 아담 제2차아담 제3차아담 격 양상으로 실패한 모든 청산 표시적 기간이다.

이 30여년간이란 시대 안에 세계는 인간과 국가가 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성사의 터를 닦은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 없으면 안될 역사적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사탄은 거짓과 배신자의 아버지이며 파괴자의 아버지인 자체는 언제나 그 포악성을 표시하여 최후 발악을 하여서만 패하는 것이다. 거짓 제3차 아담격자를 지구상에 추방과 동시에 근본 하늘 3차 아담인 주를 지상에 맞을 시기는 되었다.

그러므로 3차 대전 문제는 이 때에 벌써 면양과 산양과 같이 분립되어 심판 단계 들어가 있으니 재림주는 성숙하여 있는 바는 사실이다. 세계 청산과 함께 그 자체의 연령은 삼십여 청년으로 벌써 세상에 왔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역사의 중심도 하늘 중심하고 사탄 대하니 3차 대전 문제의 단서도 주가 오신 나라로부터 시작한다. 그 나라를 중심하고 세계는 싸우는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중심하는 나라니 세상에서도 싸움의 중심 나라가 되는 것은 악과 선의 총 중심 해결 중심지니 그 국가를 통하여 세계는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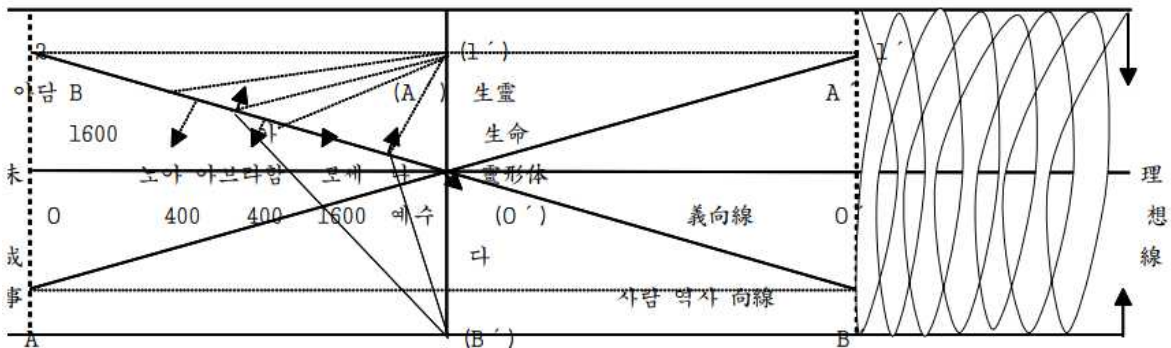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금 보면 세계에 온 주목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니 한국사람 중심하고 재림주는 오실 것은 이와 같이 원리적 표시로도 짐작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문제 국가 신앙제도 문제 국가이니 그 뜻 깊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 성사의 한 시기는 오는 것은 감사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는 모든 것으로 보아도 온 우주의 중심지가 될 것이 한국 역사적 예언서 중 정감록 중에도 명백하게 기록된 그 존재 즉 의의 왕인 존

재면서 세계에 이상 존재란 그 분을 약속한 예언이다. 그 분이 누구나 하면 재림주 제3차 아담 재 강생이라는 것이 역사적 결론으로 합하는 한 분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노아 시기와 겐 아담 시기에 한 근본 복귀목적 달성으로 시작을 볼 바다. 이렇듯이 역사는 근본은 한 점으로 복귀하여 올라가는, 역사가 지금에 역사다. 그러므로 이 세계상에 이와 같은 주의 국가체제 진영이 생기는 것은 전부가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되는 것은 원리로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역사는 한 기점을 향하여 흘러내려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의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전개되어 내려왔다.

그러면 도면으로써 밝히자. 원리는 무타락이면 A O B 선간을 중심하고 평형으로 되는 동시에 1. A O B 2 선간까지 연장하여 평형을 취할 것이었는데 타락됨으로 A O B 선간이하로 인류역사향선이란 B O' 선의 시작을 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탄의 인류 역사향선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이다.

1 A A' 1' ①①' =하늘표시 2 B 2' B' ②' ②=사탄표시 O=역사적 기점



1 (2') 2'
 2 ①' 1'
 아담 B ①' 생령 A'
 1600 가 생명
 미 노아 아부라함 모세 나 영형체 이
 O 400 400 1600 예수 (O') 의향선 O' 상
 성 다 선
 사 사람 역사 향선
 A ②' B'
 1 ②' 2'

타락됨으로 사람을 중심하고 역사는 시작하는데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탄 편되는 B가 위가 되고 하늘편 A가 아래가 되어서 시작하였다. 시작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다시금 찾고자 하여 역사적 기점 0' 점을 향하여 전멸하고 완전 복귀하고자 하심이 섭리노정이다.

A 하늘은 본 위치상으로 향하는 동시 B존재란 0' ㉔' ㉕' 선상으로 향하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권 밖으로 추방하고자 하시어서 섭리하신 것이 인류 역사다. 그러므로 역사는 기점 0' 점을 향하여 반복하면서 사탄 추방하는 노정으로 나왔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여 나오는데 그 중심선은 0 0' 의향선을 취하여 하늘과 사탄과 분기향선으로 취하였다. 의로우면 하늘이고 불의면 사탄이란 양상으로 나오면서 역사하였다. B를 0' ㉕' 선상 무한선상으로 추방하려니 직접 상대진영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택함과 예수 강림과 재림이란 것으로써 상대진영을 취하였다. 예수 한 자체가 오셔서 과거 사탄이 침입한 터를 전부 청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셨다.

예수 이전 4천년 역사를 완성 성사하기 위한 동시에 사탄 굴복의 길로 향하여야 하게 되었다. 예수는 인류 4천년 역사의 한 결실 자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 악의 피를 선의 혈로 맑히는 길을 열고 부활하여 승리노상을 시작하여 나서게 되었다. 도면상 나 점으로 시작하니 역사적으로는 가점과 B점간의 전부를 회복하여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본 삼아준 구약 역사의 재완성을 하여 나왔었다.

그러면 돌아가는 노정으로 시작하니 1600백년간은 성도 합하여 온 인류와 합하기 위한 사탄 대한 역사면서 그후 단계부터는 우세로서 4백년간 지금까지 발전 시작하여왔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의 본기점 0' 점 향하여 급속도로 향하면서 자기의 전력 다하여서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지향하였다. 그러나 비원리 존재의 아버지인 사탄 역시 그 본향은 원리 세계된 곳 어느 곳이든지 용납하지 않는 시기를 향하여 오는 역사 경로를 보게 되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가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점선 가, ㉔' 점으로 향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탄이 위의 흑선은 가 점을 중심으로 가 ㉕' 점으로 향하는 것이 될 것이었는데 실수로 인하여 다시금 사탄은 가 점에서 나 점을 향하여 흑선을 취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니 예수의 역사는 곤란을 가져온 것이다. 예수 오셔서 사람 = 전부와 합하였으면 하나님은 BO' 선 아래 점선이 나점을

중심하고 사탄을 나②' 흑선으로 향하게 할 것인데 다시금 예수 대하여서 대립으로 취하니 하나님 점선은 B0' 선상에 흑선 사탄과 합하여 싸우는 본 단계 시작을 잡게 되어 구약소생에서 신약장성에 한 길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근 1600백년이란 장기간 두고 싸워서 다 점을 중심하고 사탄 대하여 다, ②' 선외로 향하게 하여 나왔다. 점점 사탄은 종점 향하여 오니 모든 발악하여 하나님의 본 뜻 전부를 취하여 먼저 성사하려고 하였으나 벌써 원리 기점을 빼앗긴 사탄은 자기의 기점 향하지 않을 수 없는 종점에 도달하게 되어 패하여 나왔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흉내로 전부 한 성사를 보고자 하나 하나님의 승리하니 그 표시적 사실들이 세계전쟁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상 전쟁 역사를 볼 때 먼저 사탄 편적 국가가 먼저 공세를 취하였으나 벌써 하나님은 기본 뜻 성사할 기본 국가진영을 우세하게 하였기에 사탄은 나중에 패하는 말로를 밟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다, ④' 점 향하여 본 복귀 근본점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예수는 자기가 찾고자하는 온 인류를 끌어서 목적지까지 가져 옮기는 ④' 점까지 옮기는 역사가 2천년 역사였다. 그외 ④' ①' 간은 아담 해와가 타락전 도달하지 못한 부분인 생령 세계급이다. 이 급 시작이 즉 이상 시작이다. 이 부분은 재림주가 강림하여 담당할 부분인 완성시기되는 성약시대다.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방향선과 같은 연장선점 A'B'1'2'이란 곳에서 시작함이 아니고 0' 점 기점과 함께 시작함은 기본점 복귀니 즉 타락하지 않은 부분상 점이니 ①' ②' 선에서 시작함은 사실이다. 이리하여 다시는 분기도 합함도 없는 영원 평형으로 취하여 나아가되 이 방향선을 중심하고 상하로 한 회로를 중심하면서 계속하게 하고자 하는바가 하나님의 뜻이다. 위는 하늘이요. 땅은 아래라서 주고받은 이상상대로 나아가 대상상대 이상의 성사를 목적으로 주고받은 완전을 표준하고 나간다. 이것이 이상원리인데 나중 논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나왔다. 사탄이 전부 패하면 선에 주권시대다. 그 때는 선자만의 뜻 합의자만 출세할 수 있는 시대다. 즉 이상시대다.

역사이상이 선에 대하여 승리한 원리적 변증

역사상에는 본래가 악의 시작이 없어야 하는데 악의 출발과 함께 인류는 전부 악의 모든 주권 하에서 먼저 출발하였다. 즉 악의 주권 구역내에 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출발한 뒤를 이어 빼앗는 경로를 취하여 왔다. 다시 전부를 빼앗은 후에만이 악이 패하겠으니 지금까지 이 인류역사는 전부 악의 주권구역 내에 속하였기에 악한자만이 승리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선하고자 하는 자와 양심적인 인물과 사회는 패한다. 제압을 피할 수 없는 원리적 단계 기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사탄의 주권을 빼앗기 위하여 나중 태세를 취하면서 나왔다.

그러하여 예수님 오셔서 승리권내를 세울 때까지는 전부 악의 지배하에 선과 양심적 인사들은 희생하여 나왔다. 이것은 원리로 되는 악 주권시대이니 그러하였다. 그러기에 선인과 양심적 인사는 어느 시대나 출세하여 오지 못하였다. 전체 인류역사를 살펴볼 때 세계상에 어느 계급이나 다 출세하였다.

사탄이가 먼저는 재능 있는 자와 재벌가를 중심하고 주권을 잡고 나왔기에 그것을 빼앗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 대치국을 세워 그 목적달성을 방지함이 제1차 대전 이상 역사였다. 다음은 군벌시대로 들어온다. 그것도 하나님은 제2차 대전으로 취하게 하고 다음은 사탄이는 지구상 다시는 취할 수 있는 무대의 한 계급을 잡으려니 상위급 되는 사람들은 다 빼앗기게 되니 취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이란 말단 계급을 취하여 하나님을 대치하여 나온 것이다. 이리하여 시작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그러므로 이 계급이 사탄은 최종말점이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한테 빼앗기면 자기의 갈 곳 없는 곳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받들어 모심 받든 인류전부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 지겠으니 자기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봉하겠으니 사탄은 이 길을 막고자 하니 자기도 모심을 못받은 동시에 하나님까지 받들어 모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여 부르짖는 것이, 즉 신이 없다는 유물사상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말단에 와서 하나님 대하여 인류역사를 온갖 수단으로 취하여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 본부체 소련은 자연에 한 말로는 지구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의 주의국가다.

하나님까지 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길을 막고자하는 유물사상을 어찌 용납할 수 있으랴! 이렇듯 어느 시대나 사탄의 주권으로 승리한 계급자들은 대개 그 사탄의 뜻을 잘 받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니 선자와 양심자들은 출세를 못하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양심적인 자가 출세를 부른 시대가 없다. 그것은 악의 지배 구역 사이 내에 처하여 있기에 없었다. 이제부터 이 시대는 선자와 양심적 인사가 출세할 수 있는 주권시대가 하나님만의 주권 주관시대다. 그것은 역사 기점이 종국과 함께 이상 출현시대에 제일 요구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선은 최후 승리가 있으니 역사를 통하여 선하라 의로워라하여 그 교양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양심적 인사 중심한 주권 시대는 누구나 요구하는 시대다. 계급이 문제가 아닌 양심적 존재가 출세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와 세계는 재림주 주관시대다.

이런 기초가 있기에 예수도 가난한 자에 복음 전한다 한 바는 악에 밝히는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한 원리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존재를 기초로 하여 지금과 같은 장성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부자가 하늘쪽이니 양심적 사람의 자유권한의 터를 악 대하여 하나님은 취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사람과 만물 전부를 찾아야 하는 목적 성사를 하는 것이다. 이터 위에 뜻과 하나님은 양심적 선 인사를 높여서 어느 시대에 사람한테 지지 않는 출세를 하게 하고자 하는 시대가 우리 이상시대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육천년 역사를 통하여 가진 고통을 당하여서 전쟁 역사로 회복에 한 목적지로 옮겨옴이다. 여기에 전쟁에 대한 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의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죄가 된다는 이유도 사탄 대한 전쟁국이니 의도 개인적으로 빼앗고 죽이는 것이 죄가 됨은 사탄 침입 방지할러니 죄라한다. 이런 사회적 모순과 같은 표시는 물론 있어야한다는 것이 원리로 시작된 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근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인류는 신음하여 오면서 그저 목적이 없는 자 모양으로 동작하여 나왔다. 역사 발전은 목적을 향하여 나오는데 사람은 목적 없는 생애로 나오는 그 인생들은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는 무지자로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전부가 사탄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 인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근본목적 향하여 무엇 아낌없이 뜻 성사를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시금 뜻 반대하는 자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에게나 원망소리 듣고 책망 받는 시기가 온다. 그 시대가 즉 양심주권시대다. 즉 선한 것 취하여만 진보면서 출세할 수 있는 때가 즉 이상시대이다. (51. 6. 28 기)

복귀 역사로 된 인류발전역사 51.6.29

타락됨으로 인류발전 역사상에는 두 대립적 위치로서 대치하여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원리창조 이상을 찾고자 한 것이고 사탄은 비원리세계를 그냥 창조세계에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시작부터 역사를 통하여 그 본체들이 우좌하는 목적으로 향하여서 나왔다. 그러나 사탄은 비원리존재며 우주에 비원리 사람이 존재하여야만 사탄이 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근본이며, 사랑의 근본이며 이상의 근본이며, 그 자체와 하나 되는 것이 크나큰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 모시기가 전체 목적되는 원리였다. 그러므로 순종과 모심과 믿기만 하면 원리에 입각되는 것이니 사탄은 원리적 존재는 주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원리로 될 믿음과 순종과 모심을 통하여서 원리에 세워서 자기소유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인류 대한 섭리인 동시에 사탄을 분립시키고자 하는 것의 근본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타락 전 시대가 요구이다. 그리하여 직접주관 목적성사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근본목적이면서 그것이 한 이상이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에 대하여서 하늘적으로 취하여 세우고자 하는 시대가 즉 구약시대다.

이 시대가 복귀에 한 터가 되어 하나님의 복귀역사 할 상대시대이다. 이 시대 이하가 요구하는 목적은 타락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발생시대가 시작이다. 그 되살아나는 발생의 터를 중심하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그 복귀목적을 하고자 하였으나 성장 부분만이고 한 완성목적을 남겨두고 역사한 것이 신약시대다. 그 성장되었으니 완성하여서 온 천주와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복귀 이상를 완성하여야 할 시기가 즉 완성시기 재림주 역사시기다.

이와 같은 역사를 두고 지금 그 목적시대를 향하여 왔다. 그러므로 그 경

로를 회고하여 보면 하나님의 복귀섭리 이전 시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시기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다. 그 기간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시대였다. 그 시대로부터 노아 이후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예수로 재림주로서 복귀목적 완성하고자 하나님은 인류역사를 경과하게 하여 나오신 것이다. 이 역사의 모든 목적은 어느 시대를 표준하고 하나님은 섭리하느냐 하면 타락 전 아담 해와 시대이다.

그러면 그 시대 이 사회와 하나님과의 어떤 체계를 가진 형태의 사회였는가 지금 복귀 완성을 바라는 우리 현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근본목적이다. 이 목적이 앞날 새로운 시기에 이상사회라는 것은 사실이다. 본래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왔다면 모두가 한 형제면서 한 자녀이란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전부가 한 아버지 뜻을 중심하고 전 생애를 완성하여 자기의 이상생활 육신생활 영원 이상생활은 한의 연장이란 목적으로 통하여 하늘과 합한 이상국가 인식사회가 될 것은 논할 것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찾아 올라가니 그 시대는 이 근본타락전 시대 이상으로 표시되면서 세계 역사상에 발로됨은 사실이다. 그런고로 지금에 세계 조류는 전부가 참으로 이상세계를 찾아 들어가는 한 관문 앞에 당도하게 되는 시대가 즉 지금 시대다. 그러므로 세계상에서 자연적으로 그 발전을 보아서도 그 목적 시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발전은 복귀 역사발전이다. 역사는 발전단계를 취하여 나온 것이다. 즉 발생단계로부터 성장단계로 성장단계로부터 완성단계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시대이나 하면 성장단계로부터 완성단계로 넘어가는 한 초점시대이다. 즉 이 시대는 타락하는 시기단계까지 복귀된 것을 표시하는 시대다. 즉 성장시기 예수를 중심한 국가들이 합하여 세계통일 진영성사시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서 한 목적과 세계정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복귀이상을 알 것이 지금 이후의 큰 중심점이다. 그것은 복귀하는 섭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인데 금후 세계관은 자연적 이해할 것이다.

타락 이전 시대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부모를 중심한 자녀형제 시대이니 한 가정을 중심한 세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디나 모시지 않음이 없는 세계란 것도 사실이다. 한 형제이니 또한 가정이니 한 자녀니 또 아버지는 한 혈통이면서 한 몸이니 그야말로 차별을 두어서 대할 수 없는 가정을 중심한 사회제도라는 것도 안다. 여기에는 마음 통하여 아버지와 합하도록 노

력하면서 나가는 시대이니 물질이란 것이 서로 통하면서 공동소유라는 각자가 입장을 같이한 세계로 된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유물상통시대요 하나님 뜻함하여 행복 희락시대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상 공생주의 시대가 타락없었던 세계 이상임은 사실이다. 속된 세상말로 하면 이상공산시대가 즉 그 시대였다. 그러므로 세계발전은 한 표시로써 이와같은 주의가 나온 것은 사탄이 그 큰 목적을 전제로 증거한 표시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역사를 두고 타락한 단계까지 온 세계를 복귀하게 하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의 근본주의는 지금 이상주의를 갖고 시작한바다.

본래 창조세계에는 전체 주인은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이다. 소유권이란 명사와 적극성을 갖고 나온 것은 타락세계였기에 즉 사탄을 구분하려니 하나님은 사람, 사람사이에 소유권이란 것을 세운 것이다. 목적을 다시 찾으려니 그런 방향성을 취하게 한 것이다. 전부 복귀세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또 전체 소유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또 인간의 아버지이다.

이와 같은 근본이상을 두었기에 앞 이상시대는 아버지 소유인 동시에 우리 집 소유면서 우리 집 소유니, 즉 자기 소유라는 목적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로 다시금 복귀되어 아버지 몸을 받아 혈통을 완성하여 그 뜻을 취하여 나가는 자녀에게 세계는 경계 없는 자유가 정으로써 이상생활을 각자가 시작할 것이다. 그 생활이 직접 영원히 시작이니 양심 아닌 선 외 것으로는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세계가 즉 이상 세계다.

1. 하나님 천주소유주인복귀시대
2. 근본부모를 복귀하여 모시는 시대
3. 형제를 도로 찾아 공의공생으로 한 대가족건설시대
4. 하나님 자녀 찾아 사랑하며 동거시대

1. 개성완성 복귀시대
2. 자유이상 복귀시대
3. 사랑이상 복귀시대

이 모든 것을 찾은 세계에는 주의가 없는 세계다. 즉 근본과 하나니 대립되는 무엇이 없는 공일 동일한 세계이므로 주의 없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주의라는 것은 진리를 찾아 나오는데 한 지팡이와 같은 도구이다. 그 진리체에 합하여 그저 진리란 세계가 되는 시대다. 이 목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전에는 주의 모양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여서 온 6천년 역사는 너무나 긴 시대였다. 그 과정을 다시금 역사적으로 회고해보자.

아담 ~ 노아 ~아브라함 시대는 원시분립시대인 동시에 원시공생주의시대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여 사탄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한 시대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는 세계였다. 그런데 그 시대는 타락하여 내려왔음으로 그 사회형태는 공생주의시대였다. 자유영농시대면서 자유유목시대였다. 집단공생체를 가진 공산주의시대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한 한계를 두어 하나님은 청산하는 심판을 하심이였다. 그것이 즉 노아 심판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찾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근본 자유 이상세계가 목적이니 심판 이후부터는 분별하여 택한 씨족을 중심하고 복귀하려고 하여 노아를 택하였다. 그러나 뜻 합의를 보지 못하여 아브라함부터 첫 작업 시작하심이 아브라함 택함이다.

다시 발전 단계를 구별하여 표시하여 보면

원시 공생주의시대(분별시대)

씨족 - 민족 - 국가 (소생구약시대)

국가 - 동맹국 - 국제 (장성신약시대)

국제 - 하늘세계 - 천주 (완성성약시대)

하나님의 다시금 근본 뜻을 복귀하고자하니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뜻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씨족을 중심하고 번식하게 하여서 한 혈족체계로부터 민족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탄의 대립을 세워 나가게 하였다. 본래 씨족을 택하여 직접 근본으로 복귀할 수 없고 대적되는 사탄 지배국에 대하여 설 수 있는 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택한 후 벌써 사탄이 지배국가체계를 조성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또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씨족으로 번식하게 하였다. 그

러면서 애굽 4백년 탕감시대를 통해 가면서 씨족이 한 부족으로 조성이 되도록 하여서 그와 겹하여 재물이란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또한 시작하였다. 그것은 사탄 소유세계를 빼앗아야겠으니 부족으로 또한 민족으로 조성하여서 애굽을 출발한 후부터 모든 생활은 타락전 기본형태에 한 표시적 단계를 취하여 공생주의인 생활양식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도록 하심이였다. 그 당시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벌한 것은 사탄이 침입하니 즉결처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찾아들게 될 때는 벌써 토지나 모든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이란 것은 공생이념 밑에서 분배하는 그 양식을 갖게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온 세계를 복귀하고자하는 그 시대의 한 발생시대이니 국가를 조성하여서 악과 대립하여 나왔다. 그러므로 발생시대 이 한 완성을 보기 위하여서 씨족부터 민족으로 민족부터 국가로 한 단계씩 발전하여 한 뜻이 성사의 터를 잡은 바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이 되니 인간사회에서도 지배로 하여 확대하여 온 것이다. 그 대립적 피지배자인 사람 세계에는 노예시대와 같은 비원리적시대가 출생하는 것이다. 먼저는 택함을 받은 씨족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사탄 대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 사이에는 패하면 노예적 지배시대가 생기는 비원리시대였다.

이리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적 시대는 주로 자본을 주로하여 역사발전 사상에 표시로 된다. 그 이유는 승리하면 자본을 취하는 것이고 패하면 그에 대한 구속을 받으므로 노예적 시작과 동시에 긴 역사로 흘러나온 이 경향이 사회적 한 풍습화하여서 동족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그 반대되는 비원리 존재가 있었기에 이런 시작이 역사상 필연적 한 산물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이 한 국가를 조성하게 됨에 그 본목적은 국가자본을 축적하게 하여 신에 대한 지배국간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세계에 전부를 찾고자하여 소유한계를 정하면서 나왔다. 여기에 침략이란 원인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하고 한 국가를 조성하여서 한 뜻에 기대를 잡고 그 기대 위에 이상복귀 실천자로서 예수가 오게 되었다. 예수 온 것은 그 한 국가를 뜻 중심한 국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심이였다.

그리하여 예수는 한 국가 초기 발생기반 위에 성장사명과 완성사명을 겸하여 성사하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으니 원리 아닌 목적 국가체제로 서게 되니 십자가로 인하여 그 목적을 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목적은 무너뜨린 백성이니 택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와 역대에 모든 죄에 대한 탕감기간을 긴 역사를 두고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학대받은 민족으로 또한 국민으로써 각지에 흩어져서 그 탕감사명과 동시 그때를 채워서 다시금 뜻을 계승한 신앙국가들과 합하여 한 국가를 시작하게 하여서 예수의 모든 목적에 합당한 국가를 중심하고 사탄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는 한편 승리를 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두 진영으로 동맹이란 명칭으로 연합국으로 나와 한 상대국들을 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국가로부터 탄 국가를 통합하려니 주의국가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예수 중심한 국가주의국과 그 상대 진영은 역사상의 필연적 표시로 전개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대립되는 진영으로 나왔다. 하나님 편에 속하면 원리적이니 자연히 그 발전과 함께 자본축적은 자연히 크게 부유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런고로 지금 보면 유대 백성과 미국과 영국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지배하는 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점점 그 말로를 당하여서 지금에는 최종점상으로써 그 위치를 세울 수 없게 될 때가 머지 않아온다. 그리하여 성장시대가 완성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을 중심한 공산국가은 자연적으로 패망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벌써부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융통하게 되는 것(유무상통)처럼 언어에 대한 구분을 없앤 방언을 말하는 제자의 역사는 벌써 바벨탑부터 말이 서로 통하지 않든 것이 그 본 뜻을 파하는 표시면서 뜻에 한 시작이면서 전세계적 재창조 시작의 섭리라는 사실이 표시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최고목적도 결국 공생공의주의의 이상이니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장성시기가 가까와오니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흠내내는 체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 원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

수로 인한 이상세계가 즉 재림주시대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복귀노정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여 나온 것을 보아도 미래 앞의 이상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회주의 국가시대를 지나 공의공생주의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바가 지금 이후 시대의 요구목적이다. 즉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이상 원화세계가 된다. 원화세계란 것은 하늘과 땅 어디나 화합하여 한 원형체를 완성하여 다시는 충돌 없는 자유란 뜻이다. 온 천주가 화하여 원일하는 그 세계가 원화세계이다. 또 이 세계를 천주주의세계라고도 한다.

이 세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면서 복귀목적이다. 원화세계는 온 세계가 하나되는 때다. 그 단계까지 나가는데는 공의주의라 하여 한걸음 더 나가 원화세계로 완성을 볼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이 완성시대 즉 재림주 시대다. 이 시대는 전쟁이 없는 시대이다. 사람의 투쟁이 있었음은 3원리로 인하여 생겼다.

1. 원리기본에 배치되는 존재 있음으로 ---신에 대항
2. 주의가 서로 다름으로 - -----사람 대항 통일하여야 한다는
3. 생활상이 서로 다름으로 -----물질 대항 것이 인류의 사명

이상과 같은 기본원리에 대비되는 단 존재가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전쟁의 흔적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그 원리 기본배치 존재는 없어지니 주의가 서로 다르게하는 자가 없으니 생활이 서로 다르게 되는 모양도 없게 되니 그 시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은 각자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온 천주에 남아진 널리 충만해야 할 사명을 다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영원한 가정의 건설을 이 천주에 달성하여야 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싸우며 그리하여 자유찾은 후면 사랑 이상을 찾아야 하며 그 후에는 또 개성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명예(개성 존중)를 세우기 위한 모양으로 지금 세계는 움직여지는 것은 전부가 미래에 뜻 성사의 한 표시적 상징이다.

지금 자유국가 최고위에 있는 국가들은 벌써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곳으로 향하는 근본목적은 그 자체들은 모르나 그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리해야 인간이 근본을 찾는 것이다. 사람 한 자체에게는 자유이상이 있고 사랑 이상이 있고 개성을 완성하여야 할 근본체 조성이 부여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야 할 때가 가까워오는 복귀노정에 서 있으니 필연적 봉착인 것은 사실이다.

만일 과도적 단계에 처하여 그 사명을 빨리하여야 할 자유국가들의 사명이 증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는 재림주를 중심하고 먼저 생활통일, 주의 통일, 우주통일, 천주통일 그 중 사탄으로 인한 분기된 언어로 통일도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 인류의 역사적 이상 종점이다. 하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수로 단위를 합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기준점으로 기동 작용하는 것이 창조 근본목적이다. 이 목적을 반대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은 잘 알 것은 영생 생활세계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자는 개인으로는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

창조성 복귀로 된 이상론

본래 하나님의 천지창조할 때 어떤 존재물이든지 전부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를 상대하게 하여 지으심이였다. 피조물 중에 상대할 수 없는 격이 없이 지은 것은 없다. 직접으로 대하는 상대격이라든가 간접적이라는 상대라든가 전부 어떤 한 상대위치를 잡고 있는 동시에 그 상대들로 인하여 자아에 한 완전조성을 보충하는 작용인 연관성으로 천주에 존재물들은 서로 상대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 상대를 잡으면 그로 인하여 자아를 중심하고 전 요구에 한 목적의 성사를 시작하여서 자아 아닌 타 자아격으로 대상 존재격으로 조성하고저 그 목적의 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타나면 그 상대는 나의 한 대상될 수 있는 한 자격을 추궁하게 된다. 상대는 시작이고 대상은 자아를 중심하고 한 목적과정을 경과한 성사격이 즉 대상이다. 어떤 존재든가 전부는 자아의 행복을 표준하고 대상격을 요구하게 된다. 상대없는 자는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된다. 상대로부터 대상을 완성하면 할수록 그 이 가치와 행복세계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만상은 전부 한 대상격 체계내에서 완전 대상의 한 시작을 보아야만 이상이란 세계를 보는 바가 사실이다.

어느 사회나 국가라든가 그 목적달성할 수 있는 한 대상경을 떠나서는 발

달도 없고 이상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그 자체는 이상경의 한 영체적 한 본이상체에서 보는 대상위치를 요하는 바는 필연적 요구다.

그러므로 나와 이상과는 하나이면서 한 동작형선을 떠날 수 없는 동격으로 응할 수 있는 한 요구적 입장에 처하는 바는 사실이다. 그 요구를 충족하여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매일 삶에 한 과제이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달성하게 하려니 나로 하여금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향심인 자극과 충동심이라는 유지가 제일 중요문제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상과 나와는 벌써 성사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바와 한가지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한 대상적 위에 있어 그 이상을 성사하려는 충동심이 작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어서만 그 이상과 나와는 한 대응선상적으로 되는 바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는 언제나 향상을 표준한 이상을 마음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더 요구되는 존재격에 있다는 바를 부인 못한다. 그런 그 작용심 요소의 시작과 자극과 충동이 시작을 지금 나와 관계상에 있어 한 부합대응선을 취하여지는 한 불가피한 입장을 체득하게 될 때 나는 벌써 더 높을 수 있는 한 요구에 대응하는 제2 존재격에 처함은 사실이다.

그러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잡고 나간다면 그는 벌써 행복과 함께 한 이상에 흥미를 체득할 바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벌써 인간은 창조적 원리로 완전을 표준하고 지었을 그 원리적 힘이 나와 관련하여 있기 때문에 이 힘에 요구에 대상가치 추궁이 인간의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이런 관련된 자아라는 존재를 시정하는 곳에는 한 대상적 완성을 요구하게 하는 위치와 입장을 떠나서는 그 근본원리와 배치로 된다. 그런 조화로 지음 받은 인간이니 이 대상 이상을 충족할 목적과 배치되는 입장에 처하면 자연적 원리 성품되는 양심적 추궁은 필요적으로 나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그것은 원리탈선이니 이를 보장하기 위하려는 작용이 양심작용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벌써 나 아닌 한 본체를 중심하고 한 대상적 달성이 남아진 한 과제로 알아야 한다. 이 대상적 완성이 즉 이상에 걸인 동시에 행복이 기본인바다. 나는 하늘 대하여서 한 대상적존재로 기본하고 창조받았

다.

그러므로 하늘 대한 완전 대상적 가치자로서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요구하는 원리적 요구이다. 이 요구는 근본 힘의 작용과 공통하니 어느 곳이나 통할 수 있는 원리요소로 피조물세계는 공이 통하고 있다. 그러니 누구나 한 완전적 대상목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바는 사실이다.

이 대상적을 하늘 대하여 나 자체가 완성하는 동시에 현실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을 취하여서 기 목적을 한 회로적 노선적인 한 짝 대상체를 성립하여야만 본 하늘의 대상가치와 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절대가치이다. 나는 하늘 대하여 대상완성하는 동시에 상대성의 한 대상을 완전성사하여야만 근본과 합하는 삼위일체적 한 회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원성인 것이다.

그러니 양심적으로는 몸에 지향을 받고 다음에는 이와 함께 우리는 상대성을 취하여 완전 하나로 되는 대상적성 존재를 합체하여야만 기본원리상선이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곳에는 근본 하나님은 거할 수 있는 창조원리적 기대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대조성하는 것이 인간이 최고 이상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흔히 말하는 이상의 곳은 어디냐 하면 양심 이상요구 본체와 합하는 곳이다. 즉 이 점은 모든 완성된 원리상점이니 행복이나 희락이나 전부가 시작하는 근거지이다. 그러므로 기본 이상은 즉 하나님과 동거하여 한 원리상에서 만사를 바라볼 그때가 인간에게는 최고 기쁨이다. 이곳에 처하면 지금까지 찾아올라온 한 절정상에서 처하여 지난날에 아랫부분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그곳을 알게 될 때 모든 새 시작이 생활경지로 한 부여를 시작하니 즉 이상세계다. 그야말로 행복세계다.

문제는 이 근본시작을 하여야 할 사명적 존재에 처하니 양심은 나를 인하여 완성에로 재촉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과 육신이 상충형체를 취하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나 하나를 중심으로 보아도 행복하려면 먼저 마음과 몸이 하나되는 그 기점을 이룰하면 벌써 불만이 시작한다. 이 각도가 심할수록 고통이 심하다. 이 각도 합하여서 한 목적기점상에 뜻 성사를 볼 때는 행복이란 바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은 내가 마음과 몸이 완전 하나되어 양심요구를 육체가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면 그 곳은 벌써 원리가 이루어진 것이니 그곳은 즉 하나님의 지으신 근본형이니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형체가 이상생활이다. 그런 생활체를 취한 곳이 즉 선한 곳이다.

선한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하면서 근본행복요소와 합할 수 있는 시작이다. 이곳을 인생은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곳을 다시금 찾아서 채워야할 존재이니 어찌 양심적으로 그 목적달성을 추궁받지 않으랴! 그러면 하늘의 요구성사가 시작하니 나도 또 하늘의 줄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곳이 즉 하늘 대한 대상적 완성위치이니 그야말로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원인이 되는 귀인 곳이니 행복이다. 사람은 본래 이와 같은 이상 원리상점에서 부터 시작함이 근본목적으로 되었던 바다.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기본 원리점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 근본체에 대하여 한 대상적 존재의 본 노선인 근본 원리를 복귀하여야 할 중요한 책임이 누구로 인하여 생겼느냐 하려는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비원리존재인 한 악의 주인공 사탄으로 인한 바다. 이 사탄 대하여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 자체의 부족과 미급함에 탄식을 하게되는 것도 사탄으로 인하여 너무나 유린받은 자체가 되어 감각하지 못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대상적 위치를 잃어버린 인간이지만 그 근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 위치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여 주기를 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전부가 자기가 제일이라는 한 개성요구를 세우고자 한다. 그것은 누가 가지지 못한 한 개성진리체 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성품을 어느 곳에서라도 한 상대되는 위치를 잡아 완전한 대상적 성사를 필요하게 하고자 하는 제일 원리본체와 합하려하는 제일기점을 잡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와 같이 근본 한 개성을 중심하고 한 상대시작의 완성인 대상적 존재성으로 완성만 하면 그 기대상에는 한 대상적 완성으로 원리 노선상을 성사하는 원리적 목적을 조성하니 그곳은 벌써 근본 창조원리로 나타난 것이니 선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성을 취할 수 있는 행복의 한 기점위치인 바다.

그러므로 인생세계에는 누구나 자기중심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은 자기로

인하여서 근본 기점상 원리위치를 취하는 데는 제일 가까운 거리를 자기가 누구보다 더 가까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중심하고 이루기보다 자기중심하고 개성 이상을 이루고자 하여서 자기 제일주의로 취하게 하는 바는 사실이다. 이것의 처음 발생 성장 완성하여 한 목적달성하면 그 다음은 제2차적 대상위치를 널리하여 전체 기본목적으로 연장되는 바다. 그러므로 제일 자기부터 시작하여 전체에로 완성 이상을 협조하게끔 본래 인간은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래 이러한 기본 원리상에서 지었기 때문에 타락은 되었을망정 자아중심을 주로 하는 바는 사실이다. 순수한 양심적으로 선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누구나가 그한 자체를 합하여 나가면 언젠가 그 기본점상 선을 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우리가 상대를 필요하게 될때 상대가 된다든가 상대 안된다든가 하는 곳은 벌써 선한 이상이 시작인가 아닌가 이 결정적 해결의 표시로서 보여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다.

상대된다 하면 벌써 대상적 위치인 한 곳을 소망하게 하여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선과 이상성사니 나에게는 큰 기쁨의 시작이니 자기를 중심하고 이런 판단을 짓게 하는 바다. 이렇게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상대적 존재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상 성사를 잡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선한 자를 대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한 목적달성을 빨리 진척시키려고 하는 것은 원리로 된 바다. 사람의 근본적으로 자기를 세워서 대중에 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본심 마음은 나자신의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한 근본체라고 하는 선언에 표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아도 나 닮아라하는 요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나는 본래 한 선한 표준상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와 합하면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아도 벌써 자기는 제일 존재선경에 한 표시적 역할을 주어서 상대를 잡아 대상을 세워서 그 선을 직접 자기와 연결 짓고자 하는 제일존재선을 목표하는 바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아란 존재는 제2존재며 그 목적은 제일존재의 한 대상적의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원리적으로 감촉받은 바는 사실이다. 이 사실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한 문제도 문제없게 되게 된다. 제일존재 선 과+ 제2 존재선 = 하나님 + 나 = 하나님 + 대상 = 하나님 + (나+대상)자기라는 표시로 한 규정된다. 제일 먼저 문제는 자기다.

내가 먼저 제일존재의 완전 대상자 성사할 것 즉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선행하여지는 기본점 상 자기를 조성할 것이다. 다음은 이런 자기를 중심하고 제2자아적 대상격자를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시작하면 창조성이 완성된다. 즉 이곳은 남자면 여자가 요구되는 상대로부터 대상 추궁을 요구하게 된다.

다음은 이것이 기본적 창조성 제2 대상존재다. 하나님과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원리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독신생활이란 것은 비원리가 존재하는 악에 속한 세계니 그런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상시대가 되면 기본원리 배치행동이란 결론이 나온다. 다음은 대중 대하여서도 한 상대로부터 그 어떤 목적 완성할 수 있는 대상격을 표준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사업도 이와 같이 나의 한 상대로서 대상격적 태도로 대하여서 그 사업목적을 추진하여야만 선한 하늘의 요구하는 선한 자들의 생활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 상대로 하나님은 인생 대하여 대상번식을 요구하고 사람은 사업 통하여 상대로 대상으로 선을 이루어서 서게 할때 제일존재의 선을 사업체와 자기 대하는 어디나 선한 것으로 하늘과 합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온 천주는 근본부터 사람과 하나되며 사람은 만물세계상까지 하나되게 하는 목적달성하여야만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밝게 드러나는 상(相)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근본 선 이상 전개를 제일은 사람의 중요한 위치에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만물 오른쪽으로는 가정 왼쪽으로는 사회 또 크게 하면 원화세계에로써 근본창조 이상조성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하고 자아선으로부터 가정선으로 사업선으로 이것이 제일 책임완성함이 하나님의 창조한 대상선 목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늘과 나는 합하여 생활하는 대상 완성격자다. 이 목적이 전 인류에게 요구하는 하늘 제일 세계의 요구다. 즉 하나님이 요구목적이다. 세계 떠난 하나님은 세계상에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 전천주는= 하나되는 세계가 선 세계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선에는 성분별시작으로 개성완성으로 상대성 개성의 완성이 합하여서 한 회로의 조성을 요구하는 근본존재다. 선은 대상위치 확보가 요구조건이다. 이와 같이 천주는 상대성으로 대상으로 단위하고 온 천주까지 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 창조면서 천주 창조다. 사람은 천주중심이다.

사람 중심하고 제1존재 하나님 사람 중심하고 제3존재 만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선의 번식을 시작하며 그 선을 사람은 개성선으로 만물선까지 조성하여 선에 주관 노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없는 하늘 없고 사람없는 만물이 없다. 사람은 천주중심이니 사람 타락하니 하늘도 탄식이 생기고 사람 타락하니 만물의 탄식도 생겼다.(로마서 8/18 참조)

발거분 (0)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지금 이상과 같은 원리를 보아서 우리 인간은 상대 될 수 있는 제1 자격성사가 무엇 보다도 귀한 바다. 내가 하늘 대하여 제2존재로써 제1 존재의 한 대상의 요구가 모든 목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상대할 수 있는 위치를 취하여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람은 제1존재의 이용물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상대의 요구는 제1 존재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나 나로서는 완성하는 기본 완성이란 목적으로 되어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늘이 요구하는 것의 목적은 주기 위한 목적이고 나는 받기 위한 목적이, 즉 내가 하늘 대한 상대시작으로 대상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주고자 하나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 그 얼마나 서러우랴! 서러움이 생기는 것은 주고받고 할 존재가 없게 되는 것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때문에 참주고 받고 하는 자의 요구로서 대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내가 줄 때 제2 나에게 준다면 거기에 벌써 기쁨이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부터고 남편 대한 사랑도 여기서 부터고 사회(사업체) 사랑은 여기서 부터고 하늘 대한 사랑도 여기서 부터다.

발거분 (1)

계속유지하여 완전 미를 갖게 되어 완전 사랑을 받아 합하게 하는 그 제3존재를 제1 존재까지 합하게 하는 요구가 의다. 이와 같이 하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양심만으로 안되고 몸이 합하여야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3위요소 자리를 세워서 하나로 되는 원리 창조성이 있다. 의라는 것은 제3 존재 위치를 제1존재 자리를 속하게 하는 기본 작업의 실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의는 몸에서 양심 합하게 하는 요소가 의다. 나를 중심하면 한 대상을 대하여서 의하면 그 대상이 나와 같이 설 수 있는 위치를 조성하여야 의다. 사

업에 대하여서 역시 나를 제2존재 위치에 두면 제3 위치는 사업이니 이 제3 존재위치가 나와 하나의 위치를 계속해서 취하게 하는 것이 의다. 의가 없는 곳에는 하늘의 미를 조성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늘이 나를 대하여서는 대상본체니 사랑이고 나는 미적이고 나를 중심하고 대상격자에 대하여서는 내가 사랑이고 대상위치가 미이다. 의는 대상미를 조성하게 하는 평형요소다. 그러니 의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유지하는 생활이 요구되는 중요생활이다. 의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제3존재가 완성 조성이 되어야 되는 한 분립성 대상 조성목적으로 인하여 필요한 바다.

발거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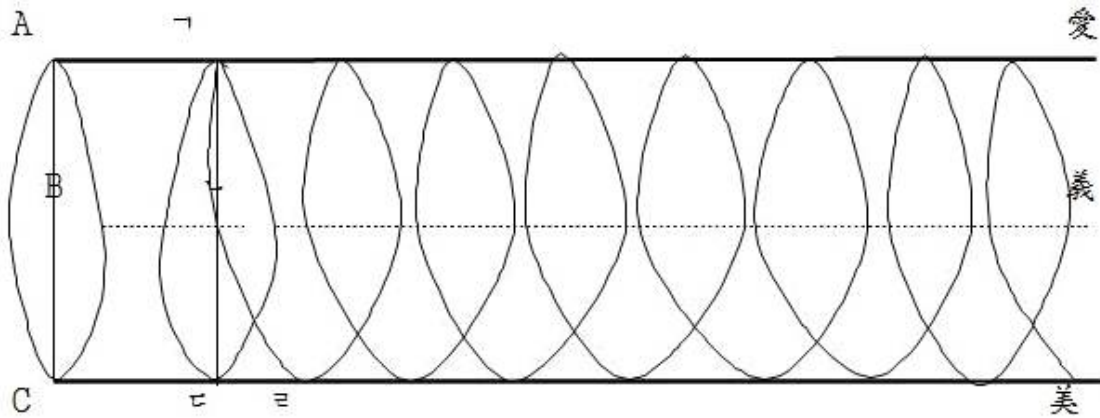
인간사회에서 의가 제일 나와 직접적 관계의 위치에 있는 바다. 나도 먼저 마음 중심하고는 몸 자신 중심하고는 대상으로 대상중심하고는 만물세계로 이와 같이 관계적 인연을 증개하여 주는 그 자신은 의라는 존재다. 의는 완전미를 조성하는 한 기본에 향하여 이동하는 성장요소이다. 그러므로 완전 사랑과 완전미가 조성되면 완전의는 조성되는 바면서 선은 완성된다.

예를 들면 10 사랑을 주려고 할 때 10 미를 보고 주어야 한다. 10 사랑 받고 10 미를 돌리는 완전 하나 되는 한 회로를 조성하여야만 선인 것이다. 의는 완전 사랑에 대하여 완전미를 유지하게 하는 과정이 의의 분담과정이다. 그러므로 미의 위치는 가감적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의와 불의와는 한 경계 선상에 서 있다. 그러므로 대상격 우좌여하로 사랑과 합하여 선 성사 우좌하는 중요위치가 미적 위치이다.

그러니 의는 한 기본선 중심체 모양과 같은 것으로 나에게서 작용한다. 주더라도 대비되는 미를 보지 못하고 주는 하늘 존재는 불의인 행동으로 된다. 그래서 하늘 사랑 받는 자라면 주는 것도 하늘화하는 기대선상에 서서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 우약시대는 행의로 신약시대는 신의로 성약시대는 모심으로써 의를 찾는 한 인류 생심 중심으로 되었다.

발거분 (3)

예도를 보면 사랑 선과 미선과는 대상되어 한 회로를 조성한다. 의는 한 중심 B 점이 되어 A, C를 연결한다. 이와 같이 한 선상에서 설 때 선이 성립된다.



한 목적 대상 취하면 의를 중심하여야 시작된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면 그 목적 종결을 짓는다. 즉 도면 A, B, C 선을 중심한 한 회로는 조성되어 선성사한다. 다음은 또 목적물 대할 때도 전번 의를 기대로 하여 미를 찾게 된다. 그러므로 전번 의와는 계속하여야만 다른 뜻 성사미로 이를 수 있는 연결선을 조성한다. 도시 ㄱ, ㄴ, ㄷ 선 선 회로완성하고는 ㄱ, ㄴ, ㄷ 선으로 타에로 시작하여 언제나 영원 표준 선 완성 목적을 요구하는 회로를 영원히 계속하고자 하는바가 인생 생애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하늘 대하여 미로 시작성사가 시작되어야 다른 상대를 취하여 사랑격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 사랑과 합하는 미를 찾았던 자격자니 선 소유자라는 입장을 복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상격자를 나로 인하여 세우면 이상시작이다. 그곳에서 하늘 사람 대신 사랑으로 부부 사랑 자녀사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자다. 그래야만 하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대상자도 기뻐하는 제1 제2 제3 존재 전부가 기뻐할 수 있는 한 목적 회로선상을 완성하게 될 때에 선한 가정이라 하는 것이다.

발거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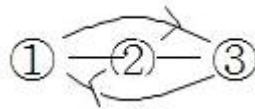
선한 나 중심한 선한 가정으로부터 선한 사회시작이니 여기에는 의의 사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나중심하고 그 사업을 한 미로서 보면서 한 대상격적 선을 조성하여야 하는 한몸 대신적 마음으로 대하여 한 미의 대상격 사업시작이 조성하여야 만 의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한 대신 나의 사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 사업은 그 사람이 대신이니 한 연결된 의를 중심한 한 목적상에서 있기 때문에 의와 선을 표준하고는 하나라고 표시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업은 그 본인대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온 천주는 한 몸과 같은 구조로써 되어 있

다. 물질세계로 한 하늘의 표시체이니 하나님의 한 숨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생활을 시작하여 사랑 성사목적과 이상합하는 그 이상을 세우는 것이 우리 생활상 중심이다.

그러니 의의 사업이 미를 조성하는 것이며 선을 조성하는 중심도 된다. 내가 중심도 되고 사업이 중심도 되고 하늘이 중심도 된다. 이것은 한 회로잡고 되어있기에 시작하면 선이나 의로만이 시작하니 그 선상에서 어디나 동성요소를 감각하니 그 중심도 각 위치한데로 표시도 된다.

발거분(5)



이와 같이 자유기대선상을 어디를 탈선하여도 우리 양심 가책이 시작된다. 가정이나 사회나 나혼자나 전부가 한 회로선상에 있다는 결론적 존재니 그 자연법리와 같다. 그러므로 이상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이상 사랑 받으라. 다음에는 이상사업하라. 그러면 이상가정도 필연적으로 유지하는것이다.

인간세상에는 먼저는 이상같은 것이 점점 가다가 중단되느냐 하면 기본원리를 탈선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기본 이상 향상 요소가 그 양심 가책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중단됨으로 시작이라는 바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근본원리상에 서면 시작과 동시에 영원 표준 이상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곳은 사랑이면 영원이고 의면 영원 표준한 의로서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므로 하늘 뜻 합한 사랑부터 이상가정 복귀로 이상사업 복귀로 제일단계를 천주 사이에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목적이다. 이곳이 자유 이상세계다.

발거분 (6)

사람은 하늘 대하여서 사랑으로 대하여 주기를 바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온 천주 화동하는 작용 시작이 이상론의 결실 목적지다. 그리하여 온 천주는 하나의 뜻으로 시작하여 나중으로 또 시작으로 하여 알파와 오메가적 원리성립을 보는 동시에 만세전 이상 실현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인간들 향하여 바라는 것을 알고 성사하여야 한다.

이 크나큰 이상의 근본을 사람 대하여 부여하였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장으로 영원 생활 시작하는 자가 되어지는 행복의 창조섭리를 누가 감사치 않

으랴. 이와 같이 생활하는 자라면 하늘은 나를 중심하고 계시하면서 모든 것을 지도하는 한 목적이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원리상 이상은 하늘의 중심존재인 한 존재 재림주 중심하고 시작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재림주와 합하여 뜻을 이루는 세계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늘의 한 소망인 것이다. (51. 6. 30)

발거분 (7)

본래부터 세계는 원리세계이니 반이란 존재는 완성노정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대상목적을 위한 세계의 근본인 바다. 그러니 반은 미완성이다. 즉 파괴를 조성하여 준다. 그러니 발전하는 이상 존재한다면 정을 돕기 위한 중간시기에는 인정하나 목적시기에는 그 동향을 무로 하고 마는 것이 원리세계의 현상인 바다.

그러므로 반이 먼저 시작함을 대하여 정으로 회복하려는 결론으로 되니 역사발전은 반이 시작되기 전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정반합 논리는 근본적으로 보면 반, 정, 합 논리로서 되어야 하는바가 근본인 바다. 반대되는 것이 나타났으니 이 원리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으나 정으로 향하는 노정이 인류발전사인 바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적 편으로서 원리적 입장에서 시찰하니 반, 정, 합 논리가 하나님편 쪽으로는 그 근본적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여기에 반이란 존재는 사탄이요 이것은 파괴형 무를 조성하니 그 목적을 막고 완전 계속하려니 정이란 위치로 넘겨받은 노정이 인류발전사인 바이다. 그리하여 반은 정을 성사하는 한 본과 같이 보여지나 본래부터 그 자체는 근본이 아니고 근본으로 표현화 하는 것이니 정의 위치를 정한다. 그러니 본래는 정이 되어야 할 것이 반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큰 어려운 일의 시작을 계속하였다.

그러면 반이란 존재가 계속할 수 있는 한계는 원시시대 형으로 돌아가 완전 정 하나님편 쪽에서만 반은 정체를 중지할 바이다. 그러니 이 반이란 존재를 처치하고자하여 근본 정이 끝까지 찾아 올라온 것이 인류발전 역사이다. 그러므로 반, 정, 합 논리의 결말은 본래부터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이상 논리로 하지만 그 종말점에 가서는 파괴라는 결론점을 봉착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은 발전하는 바는 향진인데 원시시대 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발전사라는 상충하는 논리인 바이다.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사회발전 논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근본중심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물론인 바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네들이 말하는 정, 반, 합 논리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근본적 시찰로서 그 마지막 말로의 길을 결정하는 바이다.

그러니 반에 대립한 정만이 남는 것이 천주 천리인 바다. 이 정이란 곳은 타락전이니 즉 시작점으로 되는 바니 인류 역사는 시작점을 찾아 올라가지 않으면 조물주가 계시지 않는 결론이 성립된다. 그러니 정이란 존재가 정으로써 출발하려고 하는 바의 목적이 조물주의 목적인바다. 그러니 역사의 끝을 정이라고 결론한다. 그러니 최고 문명세계는 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편 쪽이란 완성을 결론한다. 그러니 지금 세계를 정이 주관하여야 하는 바가 원리적 목적이니 하나님편 정과 사탄편 반과 대하는 끝에는 정만이 남는다. 그러니 정이 주관하는 세계이니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기독교 이상으로 귀결하여야 한다.

발거분 (8)

그러니 현재 신앙자들은 동원하여 반에 대한 정에 설 주관세계를 조성할 바가 지금 세계의 기독교의 사명인바이다. 그러니 그 방책은 자연히 하늘 뜻을 합하여야 하는 바이다. 이 근본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 대하여서 총돌격하여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바이다.

소위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발전을 단계로써 기록하여서 하나님적 복귀 역사로 된 인류발전력사와 비하여 보자.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발전을 본다.

유물론적 발전사 단계 즉 1. 원시공산주의시대 2. 씨족사회주의시대 3. 노예주의시대 4. 봉건주의시대 5. 자본주의시대 6. 제국주의시대 7. 사회주의시대 8. 공산주의시대

이와 같이 역사발전을 잡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인류발전 역사를 잡고 있지만 왜 이런 발전을 하는가는 근본문제는 미지이다. 왜 원시공산주의시대에서 씨족사회주의시대로 떨어지는가 하는 기본원인은 미지인 바다. 이런 발전 진상을 보여주는 바는 내가 논하는 반이 먼저 시작함으로 논한데서 시작이란 바를 다들 알줄 안다. 다시 그 단계를 잡아 밝혀보면 원시공산주의시대에서 씨족사회주의시대로 되는 바는 사탄 대한 하나님편 쪽 대책으로 인한 바이다. 즉 분립하려니 씨족주의로서 전부가 통할 수 없는 분기를 정하니 자연적 세계상에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려온다. 또 씨족사회가 변하여서 노예주의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은 사람 중심하고 빼앗

는 역사를 하니 하늘편 쪽 사람과 사탄편 쪽 사람과는 원수니 반을 대하여 정이 반을 지배하여 그 재물을 취하여지게 되니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 이러하여 하늘은 사람과 재물을 취하려니 자연적 선물로서 긴 역사로서 품습화한 시대로 되니 이런 시대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예주의로부터 봉건주의시대로 나타나는 바는 서로 사람을 자기편으로 보수하여 분립을 보려니 서로 서로 통하는 길을 막으려니 이런 경향이 표현화 하여지니 이런 봉건주의시대로서 사탄은 자기의 존재유지를 도모한 바이다. 그리하여서 이 봉건시대를 넘어서는 자본주의시대로 나타나는 바는 이도 역시 하늘편과 사탄편이 서로 세계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니 자본을 먼저 취하게 되는 바이다. 이 자본의 시작은 노예시대로부터 봉건시대로서 또 이 이상시대로 중심은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은 시작된다. 그러면 자본을 중심으로 왕성하여 그 세력은 자연히 제국주의라는 목적으로 향하는 바이다. 그러니 자본 갖고 나라까지 주관하여 세계까지 좌우하는 시대로 나타난다. 그 다음은 무슨 시대나 하면 사회주의시대가 온다. 그 다음은 공산주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다.

발거분 (9)

이 사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성사할 미래에 대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역사도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 바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면 현 세계는 소위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시대라고 하여 공산주의시대를 향하려는 시작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역사발전을 지배하여오니 자연적으로 그 역사상에는 반이 먼저 시작하였으니 먼저 사탄이 흥내내어 나타나서 정으로 인제하여 주는 바가 원리인데 그러면 금후세계는 자연히 이런 노정으로 방향을 행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중적으로 완성하려니 기독교사회주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악 대하고 다음은 전세계 전부를 합하여 기독교 공산주의시대로 목적하는 바이다. 그러니 세계는 과연 원시시대형으로 돌아가는 바가 사실인 바는 하나님의 기본출발 기점으로 향하게 하니 필연적 노정으로 보여주어 원시시대형으로 도로가는 양으로 보여준 바다.

그러면 현기독교를 중심한 국가는 언제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안될 시대를 보는 바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이런 원리적 시찰을 보아서 이 기독교 사회주의시대와 기독교 공산주의시대를 중심한 곳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지향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세계를 기독교 이상화를 본하여서 발표한 바가 즉 원리적 공생공의주의로 하여 단화세계로서 발표한 바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상에는 반드시 이런 발전노정은 필연적 노정이니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길 돕는 격으로 원리 목적하여서 하나님 편에 굴복을 요하여서 나오는 바이다. 그러니 지금 3차전을 말하는 때와 비교하여 세계기독교 신앙계는 통일전선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본하여 재림주를 대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였는가 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원리적으로 실행하는 시대가 재림 이상시대이다. 이 이상시대가 가까워 오니 그 반면 사탄은 강제로써 하늘 흥내를 먼저 하는 것이 그 기본진상이니 전기독교주의 중심한 “UN”은 단호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발전사도 한 일이 있는 거짓 흥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편적 복귀역사 발전단계를 중심하고 그 한계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하다.

정

반

원시공산주의시대---(분별시대) --- 원시공산시대, 씨족사회주의시대
 씨족→민족→국가---(발생, 구약시대)--노예주의시대, 봉건주의시대
 국가→동맹국→국제--(성장, 신약시대)--자본주의시대, 제국주의시대
 국제→하날세계→천주-(결실, 성약시대)-사회주의시대, 공산주의시대

이와같이 정과 반의 발전사로 보면 한 목적으로 합하는 역사는 발전하여 나온 바이다. 그러니 지금 조류는 이 두 진영이 대상하여서 승패를 결하는 조류시대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이상에는 이 승패하기 전에는 평화는 없는 바이다. 그러니 지금 기독교 이상을 중단하여 성사하여야 할 국제연합에 사명은 증대하면서 앞날 현재 기독교 이상을 중심으로 한 미, 영을 중심한 U.N 기구는 특히 사명이 큰 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국과 영국 유래인 그 외 기독교 이상을 가진 국가들에게 축복한 바도 끝날 뜻의 촉진화를 위하여 축복한 바이다. 그러니 전부는 합하여 예수의 최고 이상인 유물상통세계를 지구상에 건설하고자 하는바가 목적인 바이다. 이것 위하여 예수는 재림하는 것이다. 그러니 뜻 합하여서 재림주를 중심하고 뜻 받들어 모심으로 근본복귀를 완성하는데 전부 합하여 동원하여야 하는 시대는 왔다. 무엇이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전세계를 중심하고 그 존재 위치를 달리하여서 대할바는 사실이다.

그러니 복귀노정을 받들어 지상천국의 건설로서 새로 출발하여 한 원리적 가정으로 하는 부모없는 자식의 입장을 변화시켜 부모를 세계적으로 복귀하

여 잃어버렸던 전세계 인류는 한 형제로써 대가정인 원화적 이상을 건설하려니 하나님은 현금 기독교 대하여서 분립을 보게하여 자연적으로 현기독교계는 이런 경향선을 보게할 바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근본을 알고 기뻐서 하늘 자녀의 입장을 복귀하여 빨리 사탄 대하여서 집결하게 할 책임이 기독교의 사명 과제인 바다. 그리하여 이 목적으로 전세계에 분립본 기독교는 통일로써 볼 것이면서 세계통일을 중심한 기독교의 최고목적을 완수할 바가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인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는 대립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연장하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바이다.

그러니 현금 기독교는 전세계를 중심한 중심국가들을 주로하여 합하여야 할 책임이 중한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하늘을 중심하고 하나되어 국경을 넘고 민족을 초월하여서 합동한 통일전선으로 하여 사탄의 여명을 근절하여 전세계 각자가 한 목적으로 향하여야 할 바가 목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현사회를 움직이는 중심동력으로 하여서 모든 미처 도달하지 못한 단계의 미급적 부분을 완성에로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한 영원주의를 건설하여서 지상천국을 달성하여 재림주와 합하여 하늘 전체와 합하는 직접 동거시대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바라던 이상이요 역사적 목적이요 조물주와 예수의 목적이면서 사탄 근본 추방성사를 완성하는 바이다.

발거분 (10)

이런 중대한 입장을 알지 못하고 현사회를 포기하여 온 현기독교신자는 과연 하늘적으로 기뻐하는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는 사실이다. 이제는 알았으니 추상적 신앙관념의 잠을 깨뜨리고 새아침의 새소식에 합하여 전세계를 하늘 주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미처 몰랐던 입장의 부족을 용납하여 전세계 인류는 앎의 형제로써 국경을 넘어 하늘나라 국제를 목적하고 활동하여 전인류에 대한 평화건설을 국제적으로 하면서 국제통치목적으로 하나의 근본목적을 완수하여야 기본 창조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발표하니 이것을 보고 의심되는 자는 진심으로 하늘 대하여 사실 여부를 기도로써 문의하여 해결받음으로서 최고 위신자는 한곳으로 합함을 바라는 이시대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전세계 신앙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앞날은 국제 통치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리하여 재림 이상을 지구상 한 중심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로부터 전체로서 극제와 연결하는 목적을 완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인 것이다.

안식 연대를 보고자 하는 것이면서 영원한 삶의 시작을 보고자 함이 재림주를 중심하고 완성하여야 할 바가 하나님의 근본 뜻이다.

40일 복귀하고자한 섭리노정의 근본의의

인간세계에 해와로 인하여 타락이 시작하여지니 그 때부터 인간세계는 비원리존재에 속하여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은 원리적 복귀로서 태세를 취하여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원리적으로 직계의 혈대는 지금까지 섭리한 소망으로 남게 되고 그 직계적 혈계는 비원리적으로 시작한 바는 사실이다. 이런 근본 뜻은 다시금 찾아 근본 혈통 계승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본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일망정 포기하지 못하고 원리적 복귀 원칙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역사를 본바는 논한 바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받는 근본 뜻도 알 줄 안다. 가인은 사탄의 최초 혈통계승 표시자요 아벨은 아담의 입장이니 종적으로 해와 대한 표시적 자식이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자식이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찾고자 할 적에 첫 생산자보다 다음 자식 아벨을 사랑적으로 대한 원인은 알바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벨 제물 받게되는 이유는 미지로 나타나서 있다. 그것은 그 시대적으로 먼저 알 수 없는 원리복귀하고자 하는 역사적 뜻에 성사를 볼 것이 되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미지로 되었다.

아담 해와 중심하고 찾고자 하나님은 하지 못한 것도 비원리 존재가 먼저한 주인격 상대로써 있기에 한 주인 상대로 원리로된 창조적 원리가 있기에 아담 해와로 인한 복귀를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써 이성분립을 보아 순종과 불순종을 작정하게 하는 표정물이 즉 아담 두 아들 제물인 것이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사탄적 생산혈통 계승에 결실존재 었음으로 가인 제물 보다 아벨의 제물을 받음이었다. 아벨이 더 성심 다하였다는 바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다.

이 근본적 원리가 이런 원리로 되어있는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근본

타락에 대하여 내 발표가 정론임을 알 것이다. 가인도 아벨 대한 반격이 없으면 다시금 기쁜 복귀로 될 것이었으나 하늘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늘 대하는 반격의 시작이 있으니 하늘 뜻 파괴를 시작하게 하는 기원점을 시작한 것이다. 만일 가인도 아벨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찾아 드렸으면 하나님은 사탄 소유물이란 분립을 방지하였을 것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있는 가인 한 자체의 행동이야 인간에 제일 슬픔에 시작의 기점을 짓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니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섭리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였다. 셋을 주어서 역사를 경과하는 도중에 셋 자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인 자손이 좋아하는 사탄편 쪽으로 가니 전 인류는 사탄 소유란 비원리 세계를 조성한 셈이다. 그러니 이를 청산하고 뜻에 사람 택함이 노아였다.

노아는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존재면서 그 시대 세계인류보다 귀한 소망존재였다. 노아를 중심하고 하나님은 뜻에 인간을 조성하고자 하니 전세계에 전부 것을 분립하는 하늘편 쪽으로 분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사탄 소유물 불순자 합하여 전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불순자 소유물을 세계상에서 없애기 위함에서였다. 그리하여 비원리 주인격 사탄을 근본적으로 추방하고자 함에서 시작이었으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물만을 세계상에 시작하고자 함에서 상대적 취함이 노아 심판이다.

이 심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창조한 근본원리적 입장을 복귀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사탄 침입받은 아담 해와로 인한 만물은 사탄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떠난 것이므로 전부를 청산한 것이다. 노아를 택하심은 전부를 다시금 찾아 세우는 모양으로 노아의 방주에 모든 생물을 노아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제2 창조이상 시작이 목적이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의무적 입장이란 것은 말할것 없는 것이었다. 이런 노아는 인간 제2 조상으로 혈통 계승의 계대를 잡고자 하는 기반작업은 어찌되었느냐 하면 함의 행동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혈계적 증거적으로 서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혈족이 있음을 세워서 다시금 침입하여 취하게 되니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나체로 인한 행동으로 시작함이다. 이것이 지금 본다면 좋은 행동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행동이 되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행동인가는 두말

할 것 없이 해와의 타락 근본을 증거를 나타낸 사실인 근본과 합하는 혈연적 관계로 표시하였기에 사탄 침입은 또다시 가나안 아버지격으로 함을 통하여 시작본 것이 근본이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크게 심판한 목적은 제2차적으로도 근본시작을 보아 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찾고자 하는 전목적을 잃어버린 반대 목적의 결과를 한 셈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은 하였으나 심판하기 전과 같은 시작점을 본 것으로 되니 하나님은 근본목적과 요구를 다시금 찾아야 하게 되었다. 즉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40일 주야를 두고 심판하였다.

이 사십일은 하나님의 뜻 성사의 시작으로 잡는 기본을 작성하는 기간임이 사실이다. 이 40일에 대한 목적은 사탄 전부를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사탄 추방목적은 함으로 인하여 또 다시금 침입기대를 잡고 하나님의 근본 뜻을 미성사로 시작을 본 셈이다.

하나님의 40일 심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다. 40일을 뜻에 맞게 찾으면 근본목적 성사를 볼 것이었는데 40일을 미성사한 모양으로 나가니 40일의 목적은 전부를 잃어버린 목적으로 시작을 본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40일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되었으니 다시금 뜻을 세우는 길에는 40일이란 근본목적 성사가 최고 목적이면서 이것을 찾아 세워야만 뜻 성사란 목적 완성이니 이 40일을 중심하고 사탄분립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십일에 사탄이 침입을 하게되니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었 하나님은 40일이 사탄 대하여 찾아 세워야 할 한 분기점으로 남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40일을 중심하고 섭리의 시작은 언제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아의 40일 기간이 즉 심판의 모든 목적이니 이 40일 끝났을 때 행사로 하나님이 창조하던 완성을 표준한 때와 마찬가지로 출발하고자 하시었다. 노아는 사십일 지난 후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이었다. 이것은 창조 받은 세계에 사탄이 먼저 시작하였던 것을 다시금 찾아 성사할 표시의 상징이었다. 즉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돌아 들어오지 않았다.

창세기 8/7에 보면 까마귀는 세상에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는지라 하시었다. 먼저 내보낸 까마귀는 왜 노아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행하는가 하면은 먼저 사탄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서 행한다 하는 표시로써 까마귀를 내어 보내심이었다. 사탄이 물로 심판받은 물위를 다니면서 쉼 곳을 찾

고 있다는 한 표시로 됨이 까마귀를 보내심이 한 상징이었다.

다음은 비둘기를 보내냈더니 비둘기는 지면에 물로 인하여 발붙이지 못하고 다시금 노아 방주로 돌아오니 노아가 손을 내밀어 들어오게 하고(창 8/8~12참조)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으니 저녁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들어오는지라. 그 후 또 7일을 지내서 비둘기를 놓아주니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비둘기로 인하여 3차나 보내셔야만 비로서 완전이 지상을 찾아서 번식할 수 있는 배없이 직접 살 수 있다는 한 표시로 되어있다. 이 표시는 무엇이나하면 타락 때부터 진리 전부에 대한 복귀의 한 표시로 되어있다.

첫 번 비둘기는 제1차 아담의 시작을 불려고 하였으나 비둘기가 물로 인하여 돌아온 것과 같이 그 영인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과 한가지고 즉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들이심과 같이 아담의 영을 받아들이심이였다.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인것과 같이 그 방주는 하늘 전부의 표시였다. 즉 3층천 표시로 된 것이었다. 방주도 상, 중, 하로 된 것을 봐도 하늘 3층천 표시로써 기인한 것이다.

다음 비둘기는 2차 아담 예수를 표시함인데 예수는 아담 영이 보내심을 받아 땅을 찾아 번식 살 수 있는 땅을 찾고자 하였으나 감람나무 잎만 물고 왔다 고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였으나 땅이 아직 받을 수 있는 땅이 못됨으로 찾을 수 있는 약속을 세워서 기대성사한 표시로 된 것이며 3차 비둘기는 완전히 뜻 성사 시작을 완성하신다는 한 표시적 내용을 보여주심이다.

그러므로 진리복귀에는 처음 발생부터 성장으로 완성으로 한 목적 달성한다는 만우주 창조원리를 표준하였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다. 하나님이 7일간격 둔 것은 첫번도 완성하려고 것이 연장되니 즉 7일 이상연장되니 이런 간격을 두어 역사한 것이다. 제1차는 한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고 다음번도 이루지 못하면 한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제1차 비둘기적으로 성사하고자 하였으나 땅은 사망권에 잠기었기에 돌아왔고 제2차 성사하려고 하였으나 땅이 받지 못하여서 돌아오고 제3차 만에는 아무래도 성사한다는 한 한계를 표시함이다. 그러므로 성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땅들이

받들지 못함으로 연장된다는 한 표시로써 제1차 제2차 제3차로 연장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담 타락으로 인하여 비둘기가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제2차 아담 완성자로 오신 예수는 땅이 받들지 못하여 약속만 성사하고 돌아오고 완성 제3차 아담이 와서 완성한다는 뜻이므로 비둘기 3차는 돌아오지 않음은 뜻 완성할 바를 보여주심이다. 이리하여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자신의 몸이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3차 아담 재림주로 인하여 지상에서 창조이상 생활을 시작하여 직계적 세계를 조성할 바를 표시되는 바가 목적으로 되었다.

그런 목적 근본인데 노아 아들 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목적파괴를 시작하는 비원리 존재를 유혹하니 하나님은 근본 40일 심판목적은 불성사로 되어지게 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하는 혈통 계승에 사탄 침입에 종적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백년 연장을 보는 바다. 그 근본 뜻은 사십일을 중심하고 사탄 대립의 성사를 시작하였으니 그 기본 40수가 기본적으로 원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일수를 기본복귀하여 다시금 이루려 하니 40일 가치고나 40년 가치고서도 안되겠으니 4백년으로 연장시켜서 4백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제2 인간조상의 성사할 믿음의 기본성사인 노아의 믿음 완성이대를 아브라함 택함으로 시작하였다. 이 믿음을 세우심은 아담이 불신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대를 찾아세워야 사탄 대할 수 있는 기본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노아의 근본 뜻 믿음 계승완성자로 택한 바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나 하면 노아 가정으로 택함에서 실수하였으니 아브라함 한 자체로서 시작하고자함이 목적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기본을 세울 수 있는 때까지는 어떤 경로를 밟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하여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아름다움에 염려하여 남매로 된다는 약속과 동시에 애굽에 감이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처로 누이의 입장에 서게 됨도 아담 해와 입장인 큰 원리적 사실을 찾아 세우고자 함에서다. 그것은 애굽은 사탄 대신국인데 그 국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처를 자기가 취하여 처로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바로 대하여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주

니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소유물을 주어서 돌리심은 하나님으로 인한 연고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뜻 성사하는 노정에 제일문제는 애굽까지 가서 처를 소유한 바와 같이 하나님도 근본 한 해와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빼앗으려 한 것을 다시 찾는다는 한 표시를 보여 그 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시작한 것과 같이 원수의 모략중에서 하나님은 해와를 찾아서 복귀의 땅에서부터 뜻 성사함이 기대를 조성한 바와 같이 하나님도 하신다는 근본 뜻이 있었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애굽서 가지고 온 소유를 기본으로 하여서 뜻 기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성사할 기본을 잡았다. 이것은 만물 전부를 취하여 뜻 기대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은 롯이 잡아간 원수를 대하여 승리한 후에야 아브라함은 뜻 성사의 시작이 결정받게 되는 바다. 이것은 택한 자를 전부는 복귀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노정이 완성되니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표시물으로써 3대제물로 하나님과 첫 조건에 대한 성립에 기대를 완성하는 바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탄 소유의 귀한 자와 같은 데라의 아들을 빼앗아 내었음으로 사탄은 아브라함이 뜻하는 하나님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나 순종하지 않은 그 무엇이 소유만 되면 소유하고자하여 아브라함 뒤를 따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중대 약속 성립을 시작하게 되니 사탄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터를 시작함으로 이때 하나님 대하여 사탄은 대립하여 서게 되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물을 드렸으면은 아브라함부터 기본기대는 잡아 4백년 역사적 연장생활인 애굽 생활은 없고 직접 하나님 책임분담 사명으로 볼 것이었다.

이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아브라함만 완전히 뜻 성사하면 사탄 대항 근본 추방을 시작하여 40일에 대한 노아 심판하였던 기본목적은 완성되어서 출발을 볼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나니 40일에 대한 뜻은 아직 완성적 기대를 잡지 못하게 되고 그에 연장적 4백년이 탕감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4백년이란 연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연장하여 사탄이 침입한 것이니 이 4백년대 탕감하여야만 노아적 시대 입장에 입각함으로 아브라함에게 4백년 연장을 보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남아지는 바는 40수가 남아있는 모양으로 되니 40수가 만사를 해결하는 뜻 성사의 완성점으로 남아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선 뜻 아브라함은 뜻에 미성사로 인하여 자손이 4백년 고역생활을 함이 크나큰 화근으로 되는 기간이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청산하여서 사탄 침입을 방지하고자하니 제물표시로 되었던 실체자로 인하여서 제물대신 찾아 세우고자하니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서 헌제를 명령하심이었다.

이 뜻을 아브라함이 3일기간을 두고 헌제함에 합의 봄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노정에 사탄을 방지하였으나 사탄 역시 이삭에 대하여 선유 소유물 될 수 있는 제물소유로 인하여 미련 갖고 대하게 되니 이삭 자식 중 이성적 표시 자식으로 분립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에 모친과 협조하여 에서의 기업을 빼앗아 넘기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하나님께 아뢰니 여호와 하나님이 답하여 가로대 두 나라가 너 복중에 있음이며 두 민족이 너 복중으로부터 나누어지리니. 이쪽속이 저쪽속보다 강함이며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 하시었다.(창25/23-24)

이것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근본을 다시금 하나님은 뜻하시어서 분립하게 하는 역사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야곱은 약아서가(영급) 아니다. 하나님이 근본 뜻이 이와 같은 사탄이 먼저 제물을 취할 수 있었던 대신이며 형의 존재인 에서를 두고 야곱은 다음번임으로 하나님의 뜻 중에서 사탄이 뜻하였던 소유물 전부를 빼앗음을 표시하기에 이와 같은 대립을 보게한 것이다. 이것이 즉 후일에 예수에 한 역사에 본되는 사실들로 되는 것도 알줄 안다. 이와 같이 하는 바는 사탄의 아브라함 자식에게 미련을 남기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뜻 성사를 보려고 하던 것을 이삭으로 통하여서 야곱에서 비로소 성사하게 되니 아브라함을 대하였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써 야곱까지 와서 첫아브라함 대한 하나님 뜻 성사를 보니 여기에 하나님은 3인을 상대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연장을 본 바에 근본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3대의 하나님으로 인한 명사가 지금까지 좋은 이름으로 된 듯하고 현재 신앙자는 알고 있지만 크나큰 오해를 알아야 한다. 이런 역사적 하나님편적으로 원리를 중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원리로 전부가 사탄 침입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근본 타락시작의 복귀를 위하여서라는 것

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야곱부터 애굽 출발은 야곱이 아브라함이 본 뜻 4백년 탕감노정 출발이 시작함이다. 왜 이삭부터 안되었는가 하면 이삭은 아담과 같이 두 주인을 상대하는 존재였기에 이삭부터 애굽 4백년 시작을 못한 바는 논한 적이 있다. 야곱이 시작하였다는 것은 야곱은 근본 뜻 성사를 잡은 자니 야곱이 애굽 출발하는 바의 근본원인이 있음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뜻 성사한 완성존재가 못 됨으로 애굽을 향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삭의 자식 에서라는 존재는 사탄 상대자라는 서러움이 시작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제물 실수가 없었으면 아브라함 자식에는 에서라는 존재는 없이 근본 뜻 시작을 볼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삭 자체로서도 40세를 중심하고 리브가를 장가들어 처를 택함이었다.(창세기 23/20)

이리하여 하나님이 뜻의 시작을 보게되신 것이다. 야곱도 40세를 중심하고 에서의 기업을 빼앗는 기본역사를 시작할 바가 원리로서 짐작하여야 한다. 창세기에 야곱이 40 연령은 없으나 짐작하기는 에서이 축복 못받게 되는 연령 숫자 에서의 40세에 헷 족속의 딸을 처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더라 하는 것을 보면(창세기 26/34) 야곱 연대도 사십세를 중심하고 섭리하여야 할 바가 원리로 되어있다. 이런 40년대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본을 잡으심은 기본 노아 심판 40일수를 복귀한 기본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시작을 한 역사적 기원으로 인한 것이다.

야곱이 사후에 그 몸에 방부제를 40일 발랐음은 야곱의 몸은 하나님이 뜻 완성자이므로 이 한 존재는 사망하여서도 40일 기간과 같은 사탄 대항 40일 심판을 받아 사망한 자와 같은 사망이 아니고 40일을 완성한 성사자로서 하늘 뜻 40일 기간상에 처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표시로 40일 방부제를 바르게 한 뜻이 있음이다. 이리하여 40일 되는 사망기를 방지한 중심 존재가 된 것이라는 근본적인 뜻으로서 40일을 보게한 것이다. 40일은 즉 사탄 추방기간이면서 생명 발생기간이다. 여기까지도 야곱까지 연장을 하여서 애굽 출발하게 되어 한 하나님의 기대를 잡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연장은 우리는 생각하면 원통한 기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 기간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제물 실수한 전부를 청산하여서 사탄 분림을 성사할 때까지는 어느 곳까지나 하면 야곱의 12식구가 밧담, 아람, 라반에게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

온 후에 뜻 성사의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부터 야곱이란 3대란 것은 하나님의 뜻하는 약속 제물 중에 3제물 표시로 된 것은 발생부터 성장으로 성장부터 완성에로 하는 진리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니 아브라함의 뜻 합의하게 성사하였으면 3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브라함에 실수로 인하여 3대 후에 완성한 것도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 3대적 단계로써 찾고자 하는 역사적 진리노정 전부로 표시함이 시작하였다. 그는 실수로 인하여 분립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하여 뜻 성사한 터는 진리노정에 대한 기본적 표시로 전개를 보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은 아담 상징으로 이삭은 예수의 한 상징으로 야곱은 완성 상징으로 됨이었다. 예수는 이삭과 같은 입장임에 사람만 믿었다면 죽음 없이 야곱 뜻 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삭도 죽음을 면함도 뜻을 세우심으로 면한 바와 같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기반이 되는 터)를 잡지 못하니 미성사 할 수 있는 표시적 일대 복귀 역사와 모세로 인하여 민족복귀 노정 실수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관련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뜻 완성자는 야곱이었다. 야곱이 뜻 성사하기 위하여서는 제1차 가나안을 떠나는 생활이 야곱 앞에 있었다. 즉 장자 기업을 취하고는 야곱은 기업 성사할 자로 라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야곱 앞에 전개는 전부가 후일에 예수님의 할 사명적 표시로 되는 것은 한 뜻 기대성사는 야곱이므로 야곱은 뜻 기대완성이 있어야겠으니 야곱은 하란 생활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가나안 복지까지는 전부가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표시적 노정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대가 되어야겠으니 일대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표시한 역사로 전개할 의의로 보는 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3대제물은 아브라함을 처음 발생으로하고 사탄 대하여 성장적 이삭이 시작을 보고 야곱이 시작노정으로 완성하니 이 역사적 3대조상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전부를 표시하는 바로 전개를 보여주심이다. 그것은 제물의 전부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임으로 실수 복귀는 온 인류에 대한 한 드러나는 상징적 사실로 전개를 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야곱이 일대 가나안 복귀까지에 전부는 가나안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백년 생활과 상대되는 기본일대 복귀 역사다. 이 야곱이 가나

안 복귀노정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가나안 복지노정에 본되는 노정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복귀노정에 야곱의 뜻을 성사하게 하는 예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 아들 가인과는 반대로 야곱 대함이 시작보니 기본 가인과 아벨적 근본 뜻을 합의 본 셈이므로 그러기에 근본 아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뜻에 속한 것과 같은 완성 보니 뜻 성사를 보는 바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찾아들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예서가 야곱을 대하여 반대하여 원수 시 하였다면 하나님의 뜻 성사에 큰 문제가 될 것이었으나 예서 야곱을 환영하며 예서도 후일에 하나님 대하여 순종에 한 간접적 기본을 잡아 세웠음이었다. 그러므로 예서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서 원수 대립이 안되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지를 소유 계속한 원인을 세우심이 기대가 예서가 야곱 대하여 환영한 결과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야곱 가나안 복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로부터 가나안 복지로 오는 한 본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 생활노정에서 대하는 라반이란 존재는 사탄의 대상 존재로써 야곱이 전부를 해치고 자기의 욕망 충당을 세우려고 하는 자였다. 라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우상숭배자였다.(창세기 31/19) 이리하여 하란 생활에서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려고 할 때에 라반에 대하여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자유삼일(창세기 31/21~22)이 있었던 바다.

이 3일간을 중심하고 라반에게서 얻은 전소유를 분립하게 하여 소유권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리하여 라반은 3일 후에야 길느앗산에 대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자기 뜻을 성사 못하고 자기의 우상을 가져간 것을 찾다가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우상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낙타의 안장 아래에 두고 타고는 지금 딸은 경수가 적출하여 일어나 환영하지 못한다 하여서 우상을 라반이 찾지 못함에 뜻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야곱한테 공격을 본 것이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두 처가 있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나 하면 하나님의 대하고자 하는 뜻 중에는 하나님의 두 여성이 있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곱이 뜻 아닌 레아적 여성과 야곱이 뜻이 중심인 라헬적 여성이 있다는 표시로서 보여 줌이었다. 여기에는 근본 해와의 잃어버린 하나의 찾아야 할 근본적 여성이 있는 바라는 것의 표시였다. 그것은 라반이 뜻 이론 레아의

존재와 한가지 표시였다. 이것은 먼저 잃어버린 온 인류 대한 타락 시작 본모 해와로 표시한 바이다. 라반이 레아를 주고는 칠일 기간을 채운 후에 라헬을 처를 삼게 하였다. 이 칠일 기간(창세기 29/28) 일수는 즉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듯 하나의 섭리완성적 일수로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뜻 성사하고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라헬 찾은 것은 하나님의 후일 잃어버린 해와를 찾아 근본 뜻 성사할 목적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레아 아들과 라헬 아들 합하여 뜻 성사를 표준한다는 온 세계 인간 찾아야할 근본목적 표시한 것이었다. 또 여기에 라반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탄 세계에 불신으로 인하면 이와 같은 야곱의 목적이 두번 만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도 이와 같은 한 완성을 성사할 바의 뜻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야곱과 합하여서 아버지 라반을 대하여 선 처 라헬의 태도와 같이 하여야만 후일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을 본다는 한 표시로 되었다. 라헬이 만일 우상을 아버지한테 보였으면 야곱과 전부는 큰 미성사를 가져오는 문제로 되는 것이나 라헬의 한 승리를 가져온 중심은 경수로 인하여서 승리한 바와 한 가지로 야곱 처 라헬의 말로 인하여 우상을 없게 한 바와 같이 후일 하나님 뜻 노정에 이와 같은 여자의 경수로써 사탄 전부를 승리하는 기대가 시작한다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라헬의 태도와 같이 제2차 해와로 인하여 사탄을 굴복시켜 뜻 완성을 한다는 한 승리적 표시였다.

이 야곱의 일대기 전개가 예수님의 노정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한 표시로 된 것이다. 이 야곱이 전체 목적 이름은 애굽 노정상에 다시금 시작에 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도 사탄 대하게 하는 근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적 노정을 표시한 존재들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아담 실수한 것을 이삭으로 복귀와 같은 예수 제물표시로 불신 하니 십자가로 시작하고 야곱과 같은 재림주적 성사로 완성되는 한 표시로 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대상자인 뜻에 섭리를 표시한 존재들이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장된 후일에 전부를 표시한 기본들이니 믿음이 기본 되는 바가 성립되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다는 바를 말함이다. 야곱은 1대로 혈대 복귀자며 모세는 2대로 그 기대상에 민족복귀에 사명을 갖고 출발한 것이다.31)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 노정은 구약 역사 중에 전부 표시하여 맞추고자 함이 근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야곱 성사부터 할 바가 모세부터 시작한 것이다. 모세는 야곱이 근본목적 완성하여야 할 표시적 노정으로써 후일 예수에 제2 책임노정을 표시로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 책임기대 잡은 노정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 야곱 계승적 성사로서 출발하심이 출애굽 노정이다.

모세 = 아브라함 + 자손 = 제물찾음 = 하나님 취하여 역사 그리하여 예수님의 본 되는 전형노정을 하나님과 합하여 성사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야곱이 나간 곳이 완성을 봄으로 모세는 출발하게 되었다. 이 모세의 본이 될 수 있는 노정이 완성을 시작하였기에 믿음의 조상들로 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예수의 앞에도 이와 같은 완성목적하고 나가야할 표시의 전형노정으로 모세도 출발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섭리한 바에 근본 뜻은 사탄 대한 40일 완전 복귀 문제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이 모든 어려운 역사 시작의 연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애굽 궁중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택한 백성을 제2차로 노아 후에 사탄한테 빼앗겼으나 사탄한테 주었다가 다시금 사탄 대하여 반대노정을 세우려니 모세 역시 40년 동안을 바로 궁중에 있다가 40세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한 것도 이 근본 40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근본 뜻 성사 목적이었기에 모세 역시 40세에 애굽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모세가 40세를 바로 궁중에서 전부를 잘 유지 한 후에(사도행전 7/23) 하나님은 택하여 또 40년간을 두었다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모세가 바로 대한 출발 때는 80세였다.(출애굽기 7/7) 이와 같이 40수를 두고 역사한 것은 40일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었던 것을 찾아서 탕감을 정하려니 40세에 택하는 섭리를 시작하게 하여서 80세에 성사로서 모세를 세워서 역사시킨 것이다. 이리하여 재출발하는 모세는 승리노정을 잡고 나간 것은 40일 복귀의 목적완성이니 40년 후 40년 하늘 뜻의 준비기간으로 대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모세 40년 애굽이 바로한테 준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지배하니 기본 40일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4백년이란 연수로 보았으니 모세는 이 40일을 사탄으로부터 하늘 40수로 찾아 세워야겠으니 애굽 40

을 주었다가 하늘 40으로 탐감하여 하늘이 기본 40일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잡고 나서는 양상이니 애급 출발이라는 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전체적 완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가 40일 완성하여야만 노아 심판 근본 목적 달성한 하늘 백성으로 보는 것이겠으니 즉 근본 하나님의 창조본의인 말씀을 복귀하겠으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하여 놓고 근본 뜻 성사에 기본 말씀 성사에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40일 주야를 통하여 금식하여서라도 성사할 목적으로 되니 모세는 40일을 완성하려니 금식하여 40일 근본 심판 근본이 복귀가 목적이니 40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두 석판 받음이다. 이것은 무엇이나 40일이 완성이 다시금 성사한 기반이 되는 아담 해와의 성사를 완성한 본이라는 것이 시작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은 말씀과 하나되어야만 뜻 완성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바 이 근본인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40일에 대한 제2차 완성도 다시금 미완성을 본 것과 같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에는 다시금 고통의 수 40수로 남아지게 되었다. 40수 미완성은 재창조 복귀 미완성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군이 가서 정탐한 날 40일이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뜻 성사나 미성사나 하는 간격 든 대상일수가 40일이었다. 이 40일를 두고 하나 전부를 믿고 나가면 근본 40일은 승리의 기본 될 날이었는데 이 정탐기간 40일을 잘 믿고 넘지 못함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니 광야 40년 고역의 시작을 본 것이었다.(민수기 14/30~34)

이리하여 40일 기본은 완성 못하고 40일 완성이로 바라보던 전 백성 대표자는 다시금 사탄 소유물이 되어 광야에서 사십년간에 사망하는 바가 시작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뜻 노정에서 40일의 승리적 목적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 세워야 하는 중대한 기간으로써 남아지게 되었다. 40일 세우는 날이면 사탄 추방의 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십일이라는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찾아세워야 하는 날이다. 이것을 탐감과 동시에 완성할 것이 섭리노정의 한 뜻으로 되었다.

모세 40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침입하여 모든 목적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가니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를 세우심이었다. 엘리야는 사탄 전멸시키기 위한 대표적 존재로써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랄 신 팔백여를 멸하고는 40일주야로 호렙산까지 가는 것은 무엇

이나 하면 모세 40일에 대한 승리점을 완결짓는 한 표시로써 엘리야 호렘산까지 40일기간이 있음이었다.

이리하여 엘리야로부터 노아 심판 40일을 완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본 출발할 수 있는 터를 조성하기 위한 총 결전자가 엘리야였다. 그것도 백성이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탄 침입의 연장을 보아서 메시아 전까지 당도하겠으니 하나님은 40수 십진배수 연수로써 4천년 기간인 40수 연장으로 인한 메시아 때까지 침입하여 역사하겠으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목적 성사를 예고함이었다.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세례요한으로 시작하여 사탄 전멸 목적 완성하여야 할 엘리야적 목적달성 못한 셈으로 되니 예수님 앞에까지 40일에 대한 역사적 탕감과정의 연장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탕감하기 위한 총결산기가 예수 40일 금식기간인 광야생활이다. 이리하여 승리함으로 심판 목적은 완성할 기대는 잡았으나 사람이 합하여야만 (누가복음 4/13 참조) 성사할 예수 앞에는 미성사탄 결과로 인하니 40일에 대한 미완성을 본 것과 한 가지로 되었다. 그러니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 대 승리를 목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패한 듯 하나 40일간을 찾을 수 있었다는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 후로 인하여 예수 앞에 복귀되면서 기본완성의 터를 시작하여서 출발에 영광을 본 것이 예수가 십자가 후 부활하여 40일기간이 성립을 보아서 하나님의 기본 40일 노아 근본 사탄 추방 목적을 성립하여 놓은 것이 근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노정에 40일 기간이 문제로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역사적 모든 것 완성자로 뜻 출발 중심존재로 되는 것이다.(51. 10. 26 기록)

한국의 기후는 세계문명의 표본될 상징

넓고 넓은 세계를 두고 기후가 사시사철을 두고 명랑하게 공식적으로 표현화하여 보여지는 기후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과연 찬탄할만한 것은 한국 기후인 것이다. 세계를 두고 보면 이 기후는 역사 발전상에 위대한 공헌을 가지고 지금까지 찾아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기후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열대기후권내와 온대기후권내와 한대기후권내를 보여지고 있다. 이 기후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는 움직여 나오는 바이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집어서 기후적으로 보면 온대권내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온대적 기후로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시를 두고 온 세계적 기후를 전부 표현화하고 있음을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즉 춘절이 있고 하절이 있고 추절이 있고 동절이 있다. 이 사시는 또 다시 12달을 중심하고 1달에 2절기를 가져서 24절기를 가지고 한 공식과 같은 궤도적 기후로 전개를 가지고 사계절 궤도를 지내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 기후는 과연 전세계에 기후의 표본으로 창조받고 있음을 누가 변경할 수 없는 한 천리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기후적 입장과 창조주와는 어떤 관계로 인연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기후로 지었는가 생각하여보면 여기에 신기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에 중심지은 모든 박물에 대한 한 중심지로서 세계상에 없는 동식물이 집중한 곳으로 자연계에 서식 상태를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동식물계에 대하여서나 또 인간이 있어나 전부는 기후에 대하여 생에 대한 중요관련을 갖고 있기에 기후가 자기들이 생활에 완전을 보존할 수 있는 이상적 기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세계를 보면 열대지역과 한대지역을 상 하에 두고 있는 온대지역은 열대와 한대에 대한 중부 위에 있음으로 그 지대에 대비되는 생을 보존하는 신체형으로 되어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후에 관계는 세계상에 오색인종을 구분하여 놓은 것이면서 또 기 본성분과 성품까지가 전부는 기후를 중심하고 우좌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민족이면 민족, 백성이면 백성, 전부는 그 접하여 사는 지역에 기후로 인하여 지역차를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각국 각 씨족은 그 지역마다에 접하여 풍토를 중심한 기후로 인하여 전부는 우좌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명 문제도 자연적으로 기후적 관계로 우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기후한 목적이 앞날 인류발전사적으로 보아도 인류 이상과는 언제나 합하여 보조를 맞추어 움직이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만상은 기후를 중심하고 발달도 우좌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후는 세계에 없는 최고 이상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창조주의 근본 큰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본래 천지창조는 한 중심을 표준하고 만상도 지음받은 것은 사실이다. 세계를 창조하시던 창조주도 한 중심지로 하여 각양으로 벌여 놓은 것이 만물창조다.

그러므로 그 중심지는 세계상에 무엇으로나 세계적 표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원리적 사실로 되는 것이니 반드시 기후적 문제로써나 각 방면으로써나 전부가 한 표본적 입장으로 되게 되어야만 원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중심지를 향하여 최고 하나님의 이상은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인 바이다. 그렇다면 표본적으로 보여지는 그 지역은 온 우주의 전부에 한 표본상을 보여지는 곳은 창조주를 가진 피조물 세계에 보여져야 만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세계상에 증대한 관계로써 인류역사를 우좌하는 기후적 관계와 인간을 생각하여 볼 때 인간이 이상적 기후권내를 자연적 요구할 것이니 그 기후적 목적지는 자연적으로 세계상에 찾아 놓아야 하는 바가 필연적 요구로 되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를 보면 한국에 기후는 세계에 제일 위치를 갖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기후는 일년을 중심하고 사시사철을 통하여 온 세계 전부의 기후에 감미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 기후야말로 누가 찬양치 않으랴! 봄이면 꽃피는 그 자연에 아름다움 여름이면 녹색이 무성한 자연미 가을이면 단풍의 자연미 겨울이면 장엄한 은세계로 되는 자연미 전부가 인간 이상의 하나의 절경으로 시적 감격을 전하여주는 인생 이상에 한 자연경관을 보게 되니 그 얼마나 창조적 고마운 사실이라!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도 전세계를 보게 될 때 기후적 중심지로 된 그 곳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중심지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 세계에 한국은 자연적 복을 갖추어 지음 받은 지역이라면 창조주가 계시는 이상에는 한국을 자기가 제일 귀하게 이상적인 지역으로 할 것은 자연적 원리요구로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렇듯이 창조주 편으로도 중요한 목적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 기후를 중심하고 볼 때 생각하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 기후의 순환 전부는 창조주의 이상형을 표시한 중심지로서 한국의 기후 한 자체는 이상세계인 창조주의 본경세계에 전 표시적 구조를 터로 하여서 지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늘에 한 구조적 사실형을 표시하고 있는 바가 목적으로 되어진다. 그렇기에 천국 구조에 한 영상으로써 보여져야 하는 원리적 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천국에 구조를 살펴보면 보좌가 있고 12사도를 중심한 24 장로가 있고 사령물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기후를 중심하고 사시사철적 구조야말로 천국에 한 영광에 터를 상징시킨 한 표시적 피조물 중심지라는 바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에 사시 즉 춘하추동은 사령물이니 사시로 되어 그를 중심하고

사방을 보게 되면서 12달을 중심하고 24절기는 즉 하늘 전부에 한 영상이 표시로써 온 세계를 상대하게 하는 한 중심구조에 한 표본으로 되어있다. 이 전부는 하늘 한 중심부를 본으로 하여 세계를 창조하였기에 이런 구조를 보는 바이다. 이런 지상 중심지는 이런 공식적 세계에 한 표준으로 표현화되어야 하는 원리적 창조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사시사철을 중심하고 12개월로 되어 한국을 중심하는 24절기의 전부가 한 창조적 원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기에 한국에 기후는 이런 창조주의 목적하는 중심지로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한국의 기후는 세계의 기후의 중심지로서 앞날 이상 세계에 많은 공헌하여야 하는 바도 생각되는 사실인바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 무슨 생산물이나 전부는 춘하추동과 같은 기후적 혜택을 받고 존재하는 지구에 피조물은 세계에 어디 댄 지역에 존재하는 피조물 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도 원리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 생산물은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 중심핵으로 되어야 하는 바가 원리로 된다. 동식물계나 광물계나 전부 가치적 최고위치로써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적으로 완전적 혜택을 받아 존재하는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식물 중으로 최고위치의 미를 가지는 식물도 한국에 기후에 혜택과 풍토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도 사실로 된다.

또 광물로 보아도 제일위치를 차지할 것도 물론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앞날 최고문명에 제일 공헌할 수 있는 지역도 한국의 한 광물의 권위를 보여 줄 바이다. 최고열을 대하는 최고 정밀기의 제작도 기후적 최고 혜택 받은 곳에서 산출되는 광물만 가지고 안되는 귀중한 역할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기후적 최고 표준을 가진 이런 한국은 하늘 창조주 편으로도 지극히 귀한 나라라는 것은 물론이면서 20세기 이상 문명과 한국과는 떨어질 수 없는 천연적 혜택을 받은 지역이니 이 지역은 하늘적으로 귀하게 찾고자 하는 반면에 악 사탄도 한국을 찾아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대비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역을 가진 한국민족은 어떤 민족이나 하면 세계상에 없는 최고의 재능적 지혜를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한 완전무대만 잡고 세계무대에 나서게 될 때는 온 세계 어느 민족이 따를 수 없

는 탁월한 존재로 나타날 것도 천연적 창조 혜택을 입은 곳이니 자연 원리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으로 보면 한국민은 앞으로 한 지혜의 한 민족으로 세계 어떤 기후적 지대에서도 살 수 있으면서 세계상에 많이 없는 귀한 한글을 말쑥을 갖고 전체 공헌할 바는 하늘의 목적으로 하는 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후는 역사발전 전부에까지 영향화되어 인류생활과 발달과 문명과 어떤 방향으로써도 관계를 갖고 있음을 찾아볼 때 지금 한국까지 찾아 나온 인류발전 지역과 역사적 입장을 생각하려고 할 때 기후와 문명과는 중대관계를 갖고 나누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역사적 발전을 잡은 기후적 관계적으로 고찰하면 열대지대 문명에서 온대지대 문명으로써 온대지대 문명에서 한대지대 문명으로써 이전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천주 주인으로 계시는데 왜 근본원리 세계로 출발 못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전하여짐을 잘 알 줄 안다. 즉 비원리 존재로 인하여 먼저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면서 최고 표준의 경지를 향하여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를 중심하고 선신과 악신 대 사람 중심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늘 승리로써 역사를 대하여 최종점 한국을 중심삼고 두 대치하는 상대진영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인 목표를 완성하려니 이런 섭리노정을 향하여 나온 것이다. 비원리를 중심하고 출발하는 대상 진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경과하여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처음 출발하는 발생으로 성장으로 완성으로 목적하고 전세계상에서 섭리하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문명 역사를 살펴보면 사탄은 열대권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시생활에 편리하니 사람들은 집중하여 출발을 보는 것이다. 그 지대의 땅을 중심하고 사탄은 사람을 중심하고 역사를 대하니 하나님도 그곳에 대하여서 빼앗는 섭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니 기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열대지역을 중심하고 사탄을 상대하여 나온 역사적 노정이 과거 고대 문명시대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오게 되니 고대문명은 사탄 대상으로써 전부가 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고대문명은 주로 열대지역을 중심한 지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고대문명으로 보면 동양으로는 인도문명을 중심하고 지나문명 서양으로는 애굽 문명을 중심하고 바

빌론 문명의 전부는 열대권내에서부터 시작한 문명에 발자국(趾蹟)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문명인을 찾으려 하나 완전 하늘 뜻 성사를 못보아 전멸하고 택한 백성을 중심하고 이 지역을 떠나 온대지역권내로 옮겨서 역사를 시작하는 바다. 그 원인은 원수가 즐기던 곳에서 하나님은 뽑아 옮겨 제거하여서 온대지역으로 옮기는 역사를 보는 바다.

그러나 사탄 역시 온대지대로써 대립을 잡아 반대역사하니 그 역사적 노정이 지금 20세기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민족을 중심하고 온대지대 내에서 섭리적 원리복귀하려는 역사적 계승을 유지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보답으로 역사적 모든 시대는 열대지역 사람들을 한 노예적 입장에 처하게 되어 나오는 것은 지난날 사탄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역사로써 20세기까지는 온대지대 문명으로 나와 열대지대와 합하여서 사탄 소유에서 빼앗아서 한 성장을 보았다. 그것이 즉 영미중심한 유엔위성국가이다. 그러니 그 반면 사탄은 자기의 뜻을 연장해 보려고 하나님에 대하여 끝으로 남은 한대지대를 잡고 반대하니 한대지대의 문명이 한 남겨진 상징 문명인 명칭으로 세계에 대립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은 열대로부터 온대로 따라 나왔으나 뜻 못보니 한대로서 그 경로를 세워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성의 목적을 반대로 성사하려니 사탄은 한 하늘 흉내로써 주권을 세워서 나타난 것이 공산국가이다. 이리하여 한대문명이라는 한 위세로서 나타나니 결국 사탄은 말단지대까지 왔으니 사탄은 하나님 목적 중심지를 알고 최후적 발악하며 결판짓는 지대를 잡는 것이 즉 기후적으로 보면 중심지대와 같은 한국을 중심하는 바이다. 그러니 열대문명으로 온대문명으로 한대문명으로 한 분기를 정하고 신문명은 기후적 중심 지대인 한국으로써 뜻 목적하고 하나님은 사탄 수중에 서게 됨을 찾아 복귀하기 위하여 그 역사목적유지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문명은 열대지대문명도 아니고 온대문명도 아니고 한대문명도 아닌 완성 문명시대가 즉 전세계 기후적 중심지대를 중심한 이상 문명이라하는 바로 된다. 즉 하나님의 창조 복귀 이상 문명시대인 바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 목적 완성할 존재를 보낼려니 한국 사람 중심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존재는 즉 전세계으로 바라는 기독교 이상존재인 재림예수로 약속된 역사적 소망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한국 예언서중 정감록에 예언한 존재는 이런 목적으로 섭리한 하늘에 중심존재로 될 천지 창조로부터 하늘로 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전세계 대할 수 있는 중심존재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기후에 한 중심지대는 세계상에 한 귀한 목적위치로써 되어 있는 동시에 천지창조로부터 한 귀중한 위치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한국임을 알아야 한다. 기후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위치가 제일 귀한 위치에 있으니 그 기후는 제일 귀한 기후적 표시를 보는 동시에 그 지역적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 묘미를 발표한 곳임도 사실인 바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는 기후를 중심으로 한 완성목적 기후지를 향하여 육천년 역사는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방향을 보면 최후에 완성 기후지에 기착점을 잡고 최고 문명의 시작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만이 미문명 지역으로 남아 있으니 반드시 문명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기후적으로 보아서도 이동하여 발전하여 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다. 그러니 최후 부분은 세계에 종합적 기후의 중심지대가 문명할 지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짐작하는 사실이다. 이런 이상적 기후로 된 지대이니 과연 창조주의 이상하는 목적지로 되게 하려니 지금까지 한국의 지역을 두고 역사적 복잡한 문제는 생기는 원인도 하나님과 사탄 대하는 나라로 되기에 서로 한국 때문에 극동에서 문제의 중심지로 되어왔다. 그것이 최종에는 세계문제를 좌우하는 위치를 취하여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사탄을 패하게 하는 최종목적을 완성지을 것이 하나님 한 뜻으로 되어있다.

12/12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지

한국은 삼천리 반도로써 극동에 위치해있다. 보기에 아담하게 아세아 대륙을 연하고 있지만 그 지역적으로도 특수한 형태를 조성하고 있다. 아세아 대륙을 연하는 무슨 산맥의 지배를 받지 않고 특별히 분립된 구조로써 중심지대로 하여 북으로는 장백산맥으로 아세아 대륙을 가로막아 아세아대륙과 분계로 하여 동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어 갈라놓고 동편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하여 서쪽으로 보기 좋은 소산맥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부평원지대인 자연의 옥토로 단장되어있어 동편서부터 서편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7대강을 널려놓아 모든 풍치에 미화를 더욱 높이 단장하여 있는 바다 이 반도 삼천리 한국이야말로 극동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으로도 중요위치에 처하는 바는 사실이다. 교통적으로 보아도 한국은 극동에 한 중심 지대로써 역할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세아 대륙을 통하려고 할 때 한국은 한 문호적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한국을 중심하고 대하여 통할 수 있는 중심적 입장으로 되어 있음에 자연적으로 한국은 정책상으로 보아도 중요한 입장으로 그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할 입장임도 물론이면서 교통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극동에 있어 이 육해공로를 통하여 교통에 중요 중심을 갖고 있는 위치로 나타나 서 있다.

그러기에 극동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심위치에 있기 때문에 극동을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국가들은 먼저 한국을 대하여 침략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교통적 중요위치로 되어 있는 동시에 모든 구비적 귀한 자연에 혜택을 받고 있으니 누가 탐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복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은 물론인 것이다.

이 땅에 농산물을 보면 오곡을 중심한 곡물과 그 가치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미인 오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쌀은 과연 다른 지대에서 볼 수 없는 귀한 보물이다. 그 외 한국산물인 농작물은 천연적 기후의 혜택으로 인하여 과연 그 명성이 높은 것은 다들 아는 바다. 그 외 식물계를 살펴보면 식물에도 세계 어느 나라가 갖지 못한 종목의 식물을 갖고 있으며 동물계로 볼 때도 곤충계라든가 조류계라든가는 세계의 최고위치에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동물에도 역시 그 위치를 가치높이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이 산출하는 가축으로서 소나 돼지나 닭은 세계에서 산출하는 가축에 비하여 볼 때 그 진미는 과연 제일위치를 소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모두 기후로 인한 혜택으로 되어지는 바다. 또 무생물계를 살펴보면 현대 최고문명이 요구하는 귀한 광물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표장된 매장량은 과연 세계 사람이 부러워 할 만한 고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으며 그 각 품질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생산품에 비할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누구나 감탄하는 진귀한 바로 되어 있다. 그것도 이상적 기후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육지에서 산출되는 물건의 귀한 가치도 천연적 혜택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해산물을 찾아보면 삼천리 반도를 중심하고 서해로는 황해를 두고 난류의 어로를 보는 동시에 동해에는 한난류 통합하는 지역을 겸비하여 있기에 세계에 3대어장에 하나로서 되는 지역을 대하고 있는 것이니 세계에 없는 어족을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은

가장 귀한 바다에 혜택도 받고 있는은 과연 세계 사람이 부러워할 바이다.

그외 경치와 풍경방면을 살펴보면 크게보면 한국 자체는 한 온순한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하늘 대하여 쌍수합장하여 꿇어 앉아 기도하는 모양이며 동편에는 동해로 서편은 서해로써 씻고 맑게 해주는 뜻이 놓여 있으며 대륙서부터 삼천리 반도로 한 지반을 잡고 있음이다. 과연 세계지도를 볼 때 제일 지형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를 중심하고 일본은 한 성과 같이 북남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아세아 대륙은 한 일터로서 북을 약속하여주는 듯한 불변에 보호적 위치모양으로 반도를 안으려 하고 있다. 황해와 동해는 호수와도 같고 바다와도 같이 지구에 전경치에 한 표본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 속에 깊이 잠긴 삼천리를 중심한 향기인 동산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연계에 용세로써 보여지는 북에 우뚝솟아 지켜주는 모양으로 그 꼭대기에 천지연을 가진 세계상 희귀한 높은산 백두산이 있음을 누가 칭찬하여 읊지 않으랴!

이 백두산을 중심하고 삼천리는 길이 뻗어서 널려진 곳을 찾아드니 금강산 명성 높은 평양을 중심한 모란봉 과연 새예루살렘 명예도 알맞은 하늘이 귀한 택한 땅의 광경을 보게 됨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쪽에는 경치 풍경에 왕궁인 금강산이 있는 바이다. 이 금강산이야 세계에 경치에 한 꽃으로 나타난 것이 금강산인 것이다.

이 금강산은 한국에 보화인 곳으로 앞날 한국에 민족과 세계민족에게 많은 안락한 위로의 중심지로 공헌할 명승지라는 것도 사실이다. 또 평양중심하고 북쪽으로 찾아오면 묘향산을 비롯한 공룡굴이란 지하 금강 명성을 가진 명승지를 보게 될 때에 과연 기묘함을 칭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팔경명승지인 명망 높이는 풍경지는 과연 우리 삼천리 반도에 자랑과 보화로 단장된 창조적 혜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창조주에 본의적 목적을 찾아 세워야 할 책임이 한국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란 소반도를 중심하고 전세계에 없는 경치와 각양 귀한 지하자원과 산물과 이 귀한 위치와 기후로도 세계에 없는 삼한사온으로 사시사철을 통한 명량한 기후, 산수,

등 전부는 모두 창조주의 깊은 은혜의 혜택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한국은 세계에 한 중심으로 본래부터 창조주는 목적하고 지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다. 이런 귀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대할 때 사랑하려고 하는 중심목적지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섭리중심지로 하겠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중심국이며 한국사람 중심한 왕이 나서 세계에 의에 왕으로 나타난다고 전한 한국예언서인 정감록에 예언하게 한 것도 하늘이 섭리할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언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늘로 정한 왕이라는 존재인 만왕에 왕되는 예수 재림주 존재를 말하는 것과 합하여 서양에 문명을 중심한 기독교와 동양종교 중에서 시작된 예언적 이상과 합한 뜻을 보아서 세계통일 이상을 완성한 하늘이 섭리하는 목적지이니 본래부터 창조주가 바라는 땅으로 되어서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최고 가치 땅이라는 것도 이런 하늘적 입장으로 목적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 예수를 중심하고 한국은 뜻에 완성을 보아 과연 세계에 한 중심지로써 세계상에 귀한 문명에 중추부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목적인바다.

그러므로 한국 전부는 후일에 국제에 이상 동산으로 한 유람목적지로 하고자 하는 이상경으로 바라고 하늘은 처하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천지창조 이상지은 한국을 표준하였기에 이 한국은 세계 상에 찾아 볼 수 없는 귀한 창조적 중심지대로 된 바를 알 것이다. 이 목적 완성하게 할 사명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재림주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사람이 협력하여 나아가 세계 기독교를 총합시켜서 세계적 중심지대를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 전 인류의 목적이며 또 하늘에 목적이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하늘 뜻에 반하는 사탄은 한국 중심하고 반기를 취하여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인은 하늘 대하여서 선 자로서는 지극한 선위에 속한 자 있는 반면에 사탄에 속한 존재는 지극한 악한 자로 세계에 종류를 보지 못함도 그 진상에 발표하는 바도 원리로 된다. 하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있는 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한국은 하늘 중심하고 이런 분립을 보니 가정에서 이런 원수적 분립을 보는 것은 한 진상으로 되는 원리인 것이다. 이런 뜻이니 성경 전부는 한국에서 완성하여 끝

맺는 바다.

우리 한국인은 총동원하여 하늘 뜻을 이루어서 천지창조 근본 복귀 목적을 완성하여서 세계에 중심지로서 건설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하늘에 합하여 기쁨에 복귀 에덴동산을 지상에 건설할바가 최종적 사명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한국 중심하고 싸우는 목적은 한국 독립을 위한 목적이다. 한국의 독립목적은 세계통일의 목적과 함께 연결하여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은 한국 중심하고 최후 발악을 다하고 있다.

하늘 대신한 유엔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써 뜻을 찾아 평화를 목적하여 나와서 회담하였지만 결국은 목적 미달성으로 귀결하여지는 것이 원리인 바다. 어떻게 해서라도 유엔과 한국은 합하여서 한국 독립을 완성하여야 할 바가 하늘의 한 뜻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 중심지이니 인류의 중심지며, 인류의 기본 조국으로 되니 하나님은 UN을 동원하여 협력하게 하는 바다. 그리하여야 본 뜻을 계승할수 있는 것이다.

유엔이 만일 양보한다고 해도 사탄 편쪽은 결국 반대로 대립으로 나타나는 바가 원리인바다. 그러니 한국을 중심하고 완전히 사탄 추방이 하늘의 목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야만 모든 하늘 뜻 성사의 제일보로써 한 소망이 시작을 전 세계는 보는 것이다. 그리해야 한국을 중심하고 전 세계에 최고 신앙자는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 완성에로 협조하여야 하는 바가 금후에 한 목적 과제이며 한국 신앙자는 먼저 뜻 시봉에 중심이 되어 세계 신앙자들과 합하여 협력에 중심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현 한국기독교의 한 사명인 것이다. 또 그외 한국 종교들이 사명인 것이다. 또 한국 사람의 사명인 것이다. 이것은 완성함으로 창조적 혜택을 받은 삼천리 반도동산을 우리가 길이 높이 단장하여 세계 빛내는 것이며 창조주 뜻 완결을 보아 기본 복귀로 시작을 볼 것이다.

(원리원본 (原理原本) - 423쪽 ~ 444쪽 [유실] ㄱㄱ)

그러므로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는 과학세계를 주관 못하면 전세계는 과학 주관하는 곳으로 자연적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발전한 과학을 하나님은 주관하여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하나님편적 기독교는 미지였던 과학 기본까지 밝혀서 과학과 합하는 길을 찾았어야 할 바가 최고목적인 것이다. 현재 세계사람은 종교라면 비과학적인줄로 전부가 알고 있다. 그것은 큰 오

해다.

종교는 원리 사실성 중심되어야 한다. 참 과학은 종교로부터 하는 것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종교원리 최고는 과학원리 최고와 합해야 하나님과 세계와는 즉 하나님과 20세기 문명과 합하여 하나님의 주관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러니 지금 기독교 중심 국가들은 전정에 암초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미지에 원리를 밝혀서 전 세계를 합한 원리목적은 기독교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세계가 기독교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비원리적 입장을 바꾸어서 원리적 태세를 취하여 획기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최고목적인 대상원리를 완성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모든 원리적 입장에서 종교에 원리를 밝혀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새로운 한 원리를 발표하는 바도 전원리를 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바다. 즉 과학적 입장과 합하는 한 기점을 잡고자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이 목적을 지상에서 완성하여야 하나님의 지상 섭리는 완성을 보는 바이다. 그러므로 종교는(기독교) 뿌리니, 즉 하나님 편이니 이 근본원리를 세워 줘야 하는바가 근본목적으로 되어 있다. 내가 발표하는 대상원리완성 표준한 원리는 현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로써 물론 알아서 새 원리를 많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존재원리는 대상완성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자. 과학원리는 찾아 올라오는 원리요, 종교원리는 찾아 내려오는 원리로서 하나로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주가 계시는 이상 합하는 바가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과학을 살펴보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찾고 그로 인하여 모든 천문학 세계까지 지금 과학에 한 원조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발달은 20세기 문명시대까지 와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 과학자들은 피조세계에 원리를 연구하여 전체에 원리를 전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취하여 준 것은 공식을 통하게 하는 그 본 원리 창조성이었기 때문에 하는 바는 사실인 바다. 뉴턴을 중심하고 말한 존재물은 인력을 말하고 있다. 과연 인력의 발견은 과학에서 위대한 공헌에 기실이다.

그러면 인력이 생기는 원리는 어째서인가 큰 문제로 되어있다. 힘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자 할 때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출발을 보는 바에 작용이 힘인 것이다. 인력도 생기는 바다. 물론 존재목적을 완성하기 때 문이라 힘은 현 우주에 어떤 대상을 주입하여 작용을 중심하고 목적노정으 로 하고 있다. 이 힘이 통하는 곳에 그 작용적 요소를 보여준다. 그것은 전 기원리를 보면 잘 알게된다. 전기 통하면 전기나 원소에 응하는 요소 작용을 주로 하다 땀 방향을 취하여서도 감응작용을 본다.

즉 전선에 통하는 전기에 대비되는 요소로써 그 주위를 작용하게 하는 힘을 남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작용에 힘이란 바는 본 전기에 요소에 따라서 그 작용성도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본래 전 기의 요소도 주위에 작용됨을 전기요소와 같은 요소로써 작용한다. 즉 같은 전기의 원리로서 전개를 보는 바다. 그와 한 가지로 본래 힘이 작용하기 위 하여서 본체작용에 대응하여 그 작용 모양도 변하는 바다.

그런데 지금 지구면 지구에 대한 인력이란 힘의 작용을 갖고 있다면 그는 곳 어떤 본체에 힘을 갖고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작용적 피존재인 인력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힘이 생기는 것은 한 존재목적 완성하기 위한 곳에서만 시작한다. 이것이 즉 힘의 원리로 된 바며 힘에 작용원리인 것이 다. 그러면 인력이 있는 것은 원리완성하기 위한 작용을 완성하기 위한 존재 하는 것은 사실인 바다. 그러면 지구의 목적은 존재하기 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를 잡고 나타난다. 그러면 지구에 상대는 땀 존재 로 되어지는 것은 원리적 사실이다.

그러면 지구를 중심하고 태양으로써 태양으로 별들의 세계에 대한 무수한 상대존재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지구면 지구 인력은 자기를 위한 힘인 동시에 한 상대에 대하여서 작용하여야 하는 힘으로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 다. 그러면 지구자체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에 받은 힘만으로써는 그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을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려니 주는 작용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인력에 비 례되는 주는 힘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 기본 원리존재에 한 상대를 잡아 대 상입장을 잡고 나게 될 때 그는 원리적 존재에 입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천체세계는 태양을 주로 하여 전부는 작용하는 상대할 수 있는 위치 를 잡고는 주고받고 하며 또 대상격들을 중심을 향하여 작용하여야만 한 천

체세계에 존재의 입장을 확정짓는 것이다.

그러니 천체세계도 만유에 존재원리를 구성할 수 있는 뉴톤이 말하는 만유 인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새로 말하면 인력 뿐만이 아니고 무슨 힘을 조성할 대상원리 완성하여 한 회로적 원력을 갖고 있다. 즉 만유대상 원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뉴톤이 말한 인력뿐만이 아니고 창조원리인 대상 원력을 갖고 있다. 이 원력을 가져야만 존재한다 그렇지 못한 존재는 어떤 존재에 합하여지고 만다.

그러니 천체세계에서는 태양을 중심하고 주고받고 하여 중심의 한 곳을 향하여 한 회로를 각 존재는 갖고 전부를 중심과 완전한 대상으로 대하여서 한 회로 완성하여야 창조원리를 완성한 기대이니 파괴 없는 존재 위치로써 원리 주인이 계시는 이상 그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인 바이다. 그러면 천체 세계를 중심을 한 곳으로 하며 각자 각 존재는 주로 중심을 상대로 하여 대상을 취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은 같은 필요성 존재들까지 중심에 대하여서 상대로서 대상적 제2위치와 연관하여 한 회로를 조성하여 중심과 같이 통하여 한 평형한 서로의 점을 갖고 있다.

이런 존재들은 그것이 전부 합하여 한 위치를 갖고 또 같은 원리로써 한 위치에 처한 것과 같은 필요성 존재와도 중심을 취하여 간접적 상대로써 대상위치를 정하여 서로 안정 위치를 태양을 중심하고 연결하여 서로 본중심적 작용에 의거하여 운동하게 하여서 한 원화적 평형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한 창조주에 창조원리이상인 한 구조로써 천체세계에 널리 놓은 것이 한 천체세계인 바다. 그리하여 상대세계로 하여 대상 위치를 완전히 정하니 그 는 원형운동을 갖고 있어 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심을 대하여 대상을 갖고 있으니 완전대상 완성하려는 곳은 한 힘이 작용한다. 이것이 운동의 원리인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창조원리인 것이다. 그러니 어떤 방향으로도 이 천체세계의 운동은 이 한 지구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의 한 개성존재로써 존재하는 이상 운동작용이 시작을 보는 바도 된다. 이것의 목적은 대상완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할 수 있는 위치는 작용을 세우려 하는 위치이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세계에서는 상대성까지 발전할 뿐이다. 그래서 인력작용만을 받고 있다고 뉴톤이 인력만 말한 것이다. 인력으로 인한 과학원리는

상대과학세계인 20세기문명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뉴턴이 말하는 반작용원리는 방향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고받는 원리를 받고만 있는 원리로 보고만 있는 결론을 정하게 된다. 이 반작용적 원리를 변하여 주고받는 본작용원리 과학세계로 되어야 창조원리 완성한 만유원칙 기본원점으로 잡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 반작용 원리를 본작용원리로 발표하는 것도 존재원리를 완성하러니 자연히 세워야 할 목적으로 된다. 그러면 본작용 원리는 대상원리 세계로서 한 새로 문명세계를 볼 바로 된다. 또 새로운 과학의 출발에 분기점을 조성한 바다. 이렇듯이 세계가 창조원리 세계로 되면 대상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존재된 바는 자연섭리와 같은 바다.

그러기에 원리완성 전존재만 성립되면 그곳은 어디나 대상위치는 자연적으로 원리세계에 전개를 본다. 이래서 발달과 발전에 원인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전기로 보면 완전존재로써 ○원리세계에 나타나면 대상 완성하기 위한 상대성 세계○는 자연으로 된다. 이것은 기본대상 원리세계에 존재목적 시작을 보아 창조성 원리완성하여 존재완성 목적위치를 정하기 위한 존재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완전 ○전기가 생기면 완전 ○전기 원리존재를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을 하니 이 작용은 감응적 전기원리 기대를 보는 바가 근본원인인 바다.

이와같이 존재목적에 대하여 있다는 것은 지금 20세기 문명세계도 미해결로 되어왔다. 이것은 대상존재를 알지 못하므로 필연적 사실로 된다. 그러나 존재하는 이상 다른이를 중심말고 자기만 원리 완성하면 내게도 이런 대상 근본원리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존재세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이 원리기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대상 입장을 떠나는 곳은 존재가 파괴나 부패를 중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찾아지는 바가 원리인 바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 중심이니 이 중심은 하나님을 주로 하여 이런 대상의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자연과 만물세계를 조성하게하는 목적이었으니 이런 대상의 입장에서 내가 완성 존재자라면 완전한 삶의 한 원리 기본인 바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 원리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한 대상위치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니 삼위일체는 논리도 과학적 입장으로 합하는 목적을 보는

바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상대를 세워서 대상목적으로 지은 창조근본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니 종교는 대상진적 근본으로 된 천주에 창조 근본을 밝히므로 여기에서 과학과 합하여 과학에 중심까지 중심잡은 하나님편적 사명을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창조 근본대상 찾으면 모든 완성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이상론적 논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물은 태양을 중심하고 존재 위치를 잡고 있는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한 존재 위치를 조성 받아 지상을 전부 주관할 중심으로 되는 것도 천주원리 완성주관을 목표로 하여서 하나님과 합할 수 있게 원리단속을 위한 근본 이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창조목적인 바다. 그러니 사람 중심이니 사람을 중심으로 그 본 상인 창조원리세계를 조성하여 원만히 주고받고자 하는 바가 평형이상이며 대상 이상이며 선이상완성함이며 원화하여 하나되는 원화세계의 목적을 보는 바다. 이 세계가 타락된 세계에서 바라는 만인원리 완성의 복귀세계인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존재물들은 전부가 그 중심요소를 갖고 또 요소는 중심과 합하는 형을 전부 가지고 있다. 이 사실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바다. 그러면 천주 작용은 전부가 주고받은 원리선상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 인간사회 제도도 역시 주고받는 세계로 되어야 원리세계에 영속하는 세계로 된다. 이 주고 받은 목적의 완성 못하는 세계는 비원리가 존재하는 세계니 원리신은 자연원리하고 순환을 바라서 대하는 반면에 악은 반대로 먼저 대하였다가는 비원리로써 패하는 전쟁에 역사노정을 보는 바가 인류 노정 역사이다. 그러면 세계상에서 기본중심을 향하여 주고받고 하지 않고자 하는 존재는 망한다. 또 원리세계에 존재하면 그는 영적으로 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나 세계는 필연적 주고받는 하늘 중심한 세계가 인간의 최고적 이상세계다. 이것이 타락되었던 인간이 할 복귀 사명인 바다. 그리하여 한 가정 목적하는 부모중심하고 주고받아 그것은 형제까지 통하게 하여 평형적 이상을 취하는 세계가 원화 이상이다. 이러하여 종교이상과 극한 부분이 세계과학근본 극한 부분과 하나로서 주인공을 종교가 정하게 될 때 그 사명적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세계 떠난 과학이 없고 원리세계 떠난 종교가 없고 원리세계 떠난 하나님 없다는 것이 중심이니 현재의 지상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실 수 있는 원리세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상에 하나님의 계실 수 있으니 지상천국이란 것이다. 이 세계는 원리완성 세계니 원리완성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근본이니 여기에 이상론적 사명이 완성되니 소망인 바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 원리존재 알고는 자연법칙과 같이 자연히 점차 합하여야만 그 목적 완성하는 것은 사실이니 이것에 예수에 목적이상인 유물 상통하는 세상임은 물론이며 만천주 존재물은 통일이란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은 원리완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하게 한 바다. 12/17

존재의 기원은 하나에서부터 대상목적으로 해야 시작함

원리세계란 상대를 중심한 회로완성하여 주고받는 대상목적에서 시작이 근본됨은 사실인 바다. 그러면 원리란 기원은 어디서부터 인가 하면 상대를 잡으므로 시작을 본다. 그 상대보면 대상을 향하여 힘은 작용하여진다. 이 힘은 작용의 한 회로를 중심하고 주고받는 목적을 성립하여 대상을 구성하여 원리가 완성된다.

그러면 존재의 기원이 있기 때문에 만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원리가 있기 전에 상대가 있어 대상 노정이 성립보야만 모든 존재의 시작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있기 전에는 어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존재의 중심점이 시작됨을 밝히는 중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에서 시작인가 무에서 시작인가 하는 최종 결국 기본점으로 기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원리적 천주세계를 볼 때 상대에 제일 시작점의 자연은 누구나 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인 바다. 즉 완전 유에 하나 ①에서 시작하니 자연적 기본원리를 조성하는 시작을 봄이다 이 논리와 같이 완전①은 완전0로서 시작은 사실인 바다. 그러니 창조란 명사는 원리세계를 완성 할 존재들으로써 창조받은 세계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 제일 먼저 유될 수 있는 하나 완전 존재를 중심하고 상대 위치를 정하고 대상목적을 연결하여 완성할 수 있게끔 소에서 부터 대에 위치를 두어 벌려 놓아 세계로서 시작을 보는 것이다.

이 세계는 현 과학적 기본원리를 중심하고 창조받음은 사실이다. 여기에 내 이 발표하는 존재의 기원은 선유에서 시작이라는 결론이 성립된다. 그러니 기본존재는 여기서부터 하나를 중심하고 다수으로써 지음받은 근본목적도

상대로 대상목적으로 하는 위치를 정하고 전 원리기대인 원점 하나로부터 시작을 보아 제2 하나 ①완전대상존재로써 별려 놓았다가 합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된다. 그러니 존재물은 총합하여 완전상대 위치를 잡아 총합 대상 완성하여 기본 창조주를 대하여 서게 될 때 피조물들의 가치 기원은 시작된다. 그러니 이상에 논한 전부란 한 기초점 완전 유존재를 둔 존재물에서 기본 시작인 바는 누가 반대못할 바다.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원리기본이며 모든 중심에 근본이며 작용에 기본이면서 평형에 근본인 원화이상에 한 중심본부라는 총합하여 정한 결정이 성립을 보는 바는 자연원리인 바다. 천주에 자랑할 바는 이 하나인 완전존재이면서 이 하나로서만 이상기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 기점을 합하면 만원리 합하는 그 존재니 비로소 천주에 대한 전체 이상 완성화로 한 대상목적 가치를 정하니 그 광영이야 누가 찬양치 않으랴! 그러니 기본 찬양은 내 찬양으로 대상세계에는 귀결되며, 또 시작으로 한 인적 회선을 조성하는 바다.

그러니 하나 완전은 내 완전으로 내 완전은 하나 완전적 연관 사명적 책임의 완성을 바라서 있는 존재의 세계니 그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면 비원리로 되는 것이니 사람이나 전부는 비원리 세계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되는 것에 행복이 없음은 원리목적이 아님이 사실로 된다. 이것은 상대를 잃고 대상 떠난 곳이니 자연적 파괴적 작용이 시작하여 조작이 없는 인간은 자연 원리적 구속으로 되니 불안이란 것이 시작을 계속하는 것이 자연적 사실인 바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면 그 근본 하나 본체로 한 가지 작용 법리로 되어 하나님 되는 기본존재도 역시 불안함은 원리적 사실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와 즉 하나님과 우리와는 한 동형선 작용의 회로선상에서 합하는 것이 원리니 자연 작용적 원리로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 타락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부가 기본존재라는 한 작용적 대상위치로 된 피조적 존재의 목적을 찾아 그 가치 복귀세계가 본연의 이상세계이다. 그러면 각자는 자체면서 자체 또다른 존재물이면 존재물도 그 전체는 기본중심 하나를 대하여 연관적 사명 완성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면서 자아완성이란 모든 것을 완성해야만 천주에 대한 자기자아의 가치가 위치를 구할 바다.

그러니 각존재 구속 고백의 사명과 책임을 향한 의무적으로 노력할 곳은 원리적 피조세계가 활동무대면서 운동무대인 것이다. 그러니 누가 추궁하지

않아도 각자는 책임 완성함으로 근본목적을 완성하여 천주에 대하여 자기사명을 완성하는 동시에 자기의 위치를 작정하여 완성하여 놓는 바다. 그 자체는 모두가 만원리에 대하여 화동에 존재다. 그러니 이 존재와 손실이 없는 존재와 같이 대 천주의 목적을 잘 돕고 완성하여 자아 행복을 조성하는 바로 되니 그 존재 하나는 즉 주체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완성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이 입장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행복의 전부는 여기서부터라는 것은 사실로 된다. 이것이 현 천주 존재의 한 기원 출발인 목적인 동시에 한 존재완성의 원점이란 것을 현재 인류는 알아야 한다. 지금 이십세기 문명시대에 현 과학은 다각적 발전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 기원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알수 없는 미지로 되어있다. 지금 다윈을 중심한 진화적 논리를 말하며 생물의 존재 기원을 물질로 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 기원의 시작을 왜 물질로 하는가?

과학은 지금 자기사명 다하여 그 터를 찾아 올라와서 상대 원리까지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 종교는 위에서부터 찾아 합하여야 할려니 이 기본점까지 정 정할 책임 다하려고 상대로 하여 대상논리가 나와 과학과 합하여서 한 나이 목적으로 기원을 볼 것이다. 과학은 기본원리를 찾아 올라오는 것이 과학이고 종교는 기본원리를 찾아 내리오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 언제나 합하는 것이 물론이면서 인간이 소망 기점으로 된다. 그러니 합한 곳에서 즉 원리복귀 세계로 된다. 그래야 분립된 종교는 과학이 원조로써 한 지점을 잡아야 하나님의 존재목적 실상을 완성할 바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세계에서는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하여 큰 어려운 문제인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었다.

지금 유물론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물질의 기원을 잡기 전에 생각할 것은 “힘”에 작용 즉 운동 시작된 원조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근본은 하나 유를 전제로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한 모순점으로 되어 해결 하여야할 바의 것이다. 그러니 세계에 존재의 기원 즉 물질을 유로 정하고 말하기 전 “힘”에 작용 즉 운동을 기본으로 세울 수 있는 문제가 무엇보다 문제로 결론적 중심지 태양을 중심

[000] 473-475 拔去分

목적하여서 누가 사명하여야 하겠는가? 어떤 탄 존재가 아니고 특히 기독교의 사명이 큰 것이며 그외 종교적 사명이 큰 바면서 현 과학적 인사들의 사명이 큰 바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로 역사한 사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공세로써 기본 원리를 찾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주고받는 원리 세계를 조성한 것이다.

특히 하늘에 축복받은 민족과 국가들은 세계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았으니 재림주를 중심으로 돌려주는 역할로 원리적 재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건설할 바가 목적이면서 축복해 준 원인인 것이다. 그러니 원리 중심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 사람은 한 가정 식구면서 한 부모의 자녀면서 한 형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하나님은 목적하니 인종도 분별이 없게 하려니 근대에 국제결혼 등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하는 것도 원인이 있어 그리하여 한 조국으로 한 언어로 주고받는 세계 건설이 현 신앙중심 국가 합한 UN의 책임인 것이다.

화하게 하는 세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탄다”는 것은 원리 악성품 열에 반하는 존재에서만 시작한다. 그러면 열에 합한 원리 자체면 무엇할 것 없는 것이다. 그러니 최고 사랑으로 태우는 사랑의 세계니 하나님 사랑받은 세계니 하나님 사랑 요소없는 자는 열에 타는 것과 같이 타는 작용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옥은 불과 열에 세계로 말한 바도 탈 수 있는 존재를 대하여 태우는 곳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사랑은 천주를 주관한다. 열의 전부를 주관하듯이. 그러니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곳이 지옥인 것이다. 즉 타는 요소를 가진 세계인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권내의 세계이다. 즉 탈 요소가 없는 화합할 곳이니 천국인 것이다. 탈 수 있는 요소를 지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것이 중심목적이다.

이렇기에 전에 내가 말한 천국지옥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 권내가 천국이고, 권외가 지옥이란 곳이 뜻 전부가 결론을 짓는 것이다. 이리하여 성경 전부의 최고 부분까지 영으로 만이 아니고 하나에서 백, 백에서 하나를 과학현세계로서 논리를 세워서 과학적 세계 사람을 동원할 책임을 완수하고자 함에서 이런 미지의 사실들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전부는 미지만을 발표하는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미지인 바를 발표하는 것이다. 부언하는 바는 물질의 근본은 분자, 원자, 전자로서 발전을 보아오고 있다. 최소의 전자세계도 역시 이런 원리를 보는 바가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학세계에서 물질요소는 전자를 말하고 있다. 물질은 전기 요소를 갖고 있지만 중화되어 작용이 없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아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작용하되 전체가 평형을 취하는 수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작용적 감미를 느끼지 않은 것이 원리적 논리인 것이다. 이것을 총화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모든 전부는 한 원리로 통용되어 만 가지 원리존재가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은 입자도 아니고 기본 상대에서 대상으로 한 작용하는 동적존재가 물질이니, 근본이면서 천주에 근본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 원리존재인 것이니 최종 물질요소는 열과 같은 동형으로 표현화될 것을 과학은 증명할 바다. 그러므로 물질에 근본 전자를 열자로 한 신세계로 전전하는 바가 원리로 된다. 그러므로 열자세계가 되면 과학이 최고 문명과 함께 하나님 합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이상 궁금한 질의 없는 직접 대상세계로써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전부는 과학세계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과학기본 중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학을 통하여 그 능력과 위치를 발표하는 바가 문명세계다. 그 세계 혜택으로 사는 과학을 통하셔도 직접 사는 것이 되니 무소부재며 그 능력을 발휘하니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이면서 원리와 원칙으로 통하여 알게 되니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란 것이 현 과학세계서도 찬양하는 것이 영적 세계로도 그 자체를 같이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으시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도 무소부지도 무소불능으로서 합하려 하는 것이 현 과학세계인 것이며 종교세계인 것이다.

그러면 과학전부는 한 본부에 세계를 물질로 표현화한 세계가 지상천국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세계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최고 종교가와 최고과학자를 대하여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가 이상세계를 목적하고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를 살리려고 하여서 전하는 것이니 온 천주를 합하여 일체완성에 총 완전 진군하여 악을 분립화하기를 바라면서 발표하는 것이다. 특히 최고 종교가는 하늘을 통하여서 해

결받아 보라. 과연 사실인 것을 명백하게 알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 세계 특별한 신자는 한곳으로 향하여야한다.

신앙의 요구본경도 원리를 위하여

인간세계가 본래부터 완전존재하였다면 신앙이란 명사를 요구치도 않을 것은 사실로 되어있다. 신앙요구란 것은 타락기원이 가져다 준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이 없었던 그 세계는 역시 신앙 아닌 자연 현실적 이상경이었다. 이곳을 타락세계 인간으로 찾아 맞보고자 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생기는 중심목적인 것이다. 즉 근본 타락전 본경에 대한 즉 타락이 없었을 때에 대한 원리적 세계를 목표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부터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게 종교적 신앙 관념이란 것이 현실과 하나로서 되어 실생활의 이상과 합하는 것이 목적이여써야 하는 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기본 목적이 완성하지 못하게 되니 사람은 원리세계를 완성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니 존재의 목적이란 원리 완성을 입장을 조성해야만 원리인데 그 목적이 완성되지 못하니 그 곳과는 분림이란 간격을 두어서 비원리존재로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리를 찾지 않으면 존재근본을 완성 못하겠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런 신앙심을 세워서 다시 근본으로 회복하려고 하여서 시작한 것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계시는 이상에 사람의 존재할 근본원리 존재가 비원리 존재로 되어 원리세계와 상충을 보고 있으니 그는 자연적 존재의 가치는 물론이면서 존재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하니 사망 세계란 비원리 형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옥의 출발이다. 이런 비원리존재들을 이 보관지로 하는 것이 지옥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비원리 시작하는 것을 다시금 찾아 세워야 하는 책임을 성립하려니 여기에 사람에게 대하여서 원리적 생에 세계에 길을 뚫아야 하는 것이 요구이니, 하나님이 창조적 책임있는 이상 이것을 다시 복귀하여 원상적 삶을 조성하려고 하니 원리근본인 하나님과 대할 수 없는 곳에 한 길을 세운 것이 인간에 신앙이요, 시작된 기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람 본체 원리세계에 도달하지 못할 때 타락하였으니 언제나 본경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겠으니 지금 즉 비원리 존재세계에서는 한 비현실적 입장을 취하는 듯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비원

리 세상을 원리완성 한 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그와 반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앙은 초자연세계에 비원리적 목적세계를 목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신앙정의와 기원을 잡지 못한 곳에 있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아직 모자라는 미급적 입장을 증거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즉 신앙이란 바는 초자연적 법칙 “세계에 한 부분으로 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비원리세계에서 원리세계를 요구하여 나타나니 그곳의 전부는 현실 타락인간에서 보면 신비로 운 경지로 보여지며, 지금 현 세계 외 것으로 느껴지니 초자연 세계에 부분인 것처럼 판단하니 그렇게 되는 크나큰 오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 신앙 본경세계가 사람이 완성하여 살 수 있음을 조사 원리의 세계요. 본 이상 현실 될 것이 미래에 현실로 연장 잡고 있는 것이 종교적 근본목적지인 것이다. 이 목적을 지상에서 완성하는 것이 지상천국 목적인 것이며 그리하여 세계까지 계속하여야.....

그러므로 근본으로 보면 즉 타락이 없었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을 세상 인간들은 알고 기뻐할바다. 그러니 신앙세계는 우리 근본 현실세계다. 그곳이 즉 원리시작으로 출발할 세계였던 것을 신앙을 통하여 소개받아 다시 찾은 것이 되니 신앙은 원리복귀목적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찾는 복귀명사에 시작의 유래가 성립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목적은 복귀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그 목적 세계는 근본 원리 현실세계인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세계는 다만 비원리 지배하에 처할 뿐이지 이 지구 스스로가 비원리로 된 창조 구성세계는 근본적으로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이 지상세계는 주인이 닦았을 뿐이지 땅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상 스스로가 창조원리를 증심하고 창조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회로를 유지하고 천체세계와 같은 동작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논 한 대상원리는 해명한 바다.

그러니 지상 스스로가 원리구성을 완성하여 있지만 다만 사람만이 비원리 반면으로써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이 비원리적 사람을 처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비원리 주인으로 된 그 존재를 처치할 대책이 그 목적으로 되어있다. 이 사탄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바라는 기본목적 원리만 남아지니 비원리 주인 사탄은 존재하지 못하고 전부가 원리로 귀순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리완성을 보아 창조본의 목적을 완성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는 바를 다들 알줄 안다.

그러므로 사탄까지 굴복이 목적이니 이런 대책을 세워서 사람을 사탄 주관 하에서 빼앗아 넘기려니 사탄이 길을 막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일을 세워 사람을 취하려니 주권을 세워 사람의 전부가 믿기만 하면 사탄은 자연 하나님한테 주관 당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다시금 사탄까지 굴복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타락근본을 완전히 알고 있음으로 사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정하고 나면 사탄은 본래의 노정으로 인간에게서 제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타락 근본원리를 알고 복귀원리세계를 찾게 되면은 사탄도 머무를 각자의 위치는 정하여 대하니 사탄은 자연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고 표준하는 원리를 찾으려니 사람 세계에 남겨준 종교 기원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종교로 대하여 양심을 중심한 곳은 원리에 제일 가까운 곳이니 양심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비원리를 대하는 한 중간무대로 하여 왔다.

그러므로 종교면 종교에는 양심경을 떠나서는 성립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종교로 복귀 기원을 잡아 준 것이니 사람이 뜻 받들지 못하여 비원리 사탄에게 속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 종교까지 버려두고 딴 종교를 세워 완성목적률 바라니 여러 종교에 분립되는 유래를 보아왔다. 그러니 양심을 중심하고 완전한 신을 부르는 곳은 원리입장이니 이것 역시 하나님 역사의 한 과로 되는 것도 종교의 기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본원리 선과 양심은 원리처니 비원리 주인인 사탄을 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대하여 역사한다는 종말은 하나님 편쪽으로 대하는 것이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으로 귀인하니 내가 발표한 여러 종교 기원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것은 정론임을 부인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인하여 기본목적 본 원리세계만 복귀되면 그곳은 하나님만 대하는 것이 기본원리니 하나님 한 분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비원리 세계에 여러 종교를 두신 목적은 서로 서로 지금까지 자기네 종교중심으로 하게 하여 나온 것은 뜻을 빨리하여 세상을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완전목적 합하는 종교를 취하게 하려니 종교 서로 대립하여 온 바도 기원이 있는 것

이다.

그리하여 완전 종교 입장에 처하는 곳은 하나님은 대하여 세계상 본래에 대한 예언을 책임지게 하여왔다. 그러므로 종교로써 신에 대하여 현실적 비원리세계를 대하여 하나님이 뜻 섭리의 길을 보여 주어왔다. 그러므로 본 생활을 통하여 종교적 목적은 최고 양심적인 부류의 인사들을 통하여 천리를 소개하게 하여 왔다. 여기에 예언자가 시작된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기본 복귀 목적이고 사람에게는 기본 원리완성 목적을 종교를 통하여 연결하는 인류역사 목적으로 하여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중 세계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특별한 민족을 택한다. 종교를 택한 것이 유대교면서 유대 민족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기본 공사의 터로 하여 왔다. 그 반면 동양에는 딴 종교로써 하여왔다. 이리하여 하나님 중심목적의 완수할 책임을 지고온 바가 기독교 예수인 것이다.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기본원리 복귀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 바가 기독교 진리 노정인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노정은 미지로 전부 나타나있지 않으니 어찌 원리 복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누구나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인데 미해결로 되는 곳에서는 완성을 못하니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원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본원리의 원인과 하나님 대하는 사람들과 예수와서 대하여서 이상 논한 것은 전부 기본원리를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원리를 완성한다. 완성이란 목적은 미지에서는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목적완성은 그 본원리되는 진리를 알 때에 완성한다. 만일 모든 것이 있다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미성사인 동시에 완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 중 최고 종교라면 먼저 원리를 아는 종교여야 되는 반면 그 목적을 완성할 바가 책임적 사실로 된다. 그러니 그 본래의 신앙 목적은 종교를 통하여서 원리세계를 조성하고자 하여 나오고 있다. 즉 완성을 목적하고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상 인간세계에도 이런 결실 노정으로 나타나니 역사적 노정으로 한 원시 시대형로 돌아가는 듯이 향하여 원리와 비원리와 분립을 세계상에 보게 되는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하여 목

적하니 선과 악이 양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줄 안다. 그리하여 원리 세계를 향하니 지금 세계에 현상을 보는 바다. 지금 신자들은 세상은 원리세계가 아닌 줄 알고 있다. 크나큰 하나님에 대하여 ...

역사하는 생각이다. 이 세상을 중심하고 원리세계를 조성하여야만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근본목적 완성인 바다. 그러므로 땅에서 타락하였으니 땅에서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니 예수교 신앙 최고목적은 하나님 뜻을 돕는 것이 근본이니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면서 빨리 세상에 원리 세계인 지상천국이란 창조목적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원리적 발표는 전부가 현실세계 과학적 입장과 합하는 것도 현 과학세계 전부는 근본원리를 완성하기 위한 세계니 현실과 합하는 것으로 된다. 지금은 기본원리세계에 한 관문에 당도하는 현세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땅은 원리로 창조 받았으니 없어지지 않는다. 땅의 전부는 그냥 그대로 사탄으로부터 완전 인계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리인 바다.

그러나 사탄은 먼저 하고자 하나 결국점은 하나님이 말을 하여주는 모양으로 되어 나중에 굴복으로 나아가니 나중 세계는 어찌되나 하여도 이상론적 사실을 몰라도 알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내가 발표한 이상론이란 그 명사는 기본 원리론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상이란 말은 원리세계를 두고 동경하게 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원리 떠난 곳은 세계상 어느 곳이나 이상이 없고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구조 전부는 원리기대에서만 시작되며 발달된다.

그러면 이상이란 곳은 원리를 자유로 대하는 곳으로 된다. 그러니 창조주도 자유로이 대할 수 있는 세계로 된다. 그는 즉 원리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목적은 근본원리를 완성하는데 돕기 위한 목적이 생활의 목적이며 생애에 이루어야 할 과제로 되어있다. 그러니 만천주에 기본원리는 존재근본이면서 상대로 대상완성하여 주고받은 세계가 원리세계다.

즉 중심과 하나되어 주고받은 것이 목적이다. 하늘과 땅이 주고받고 땅과 사람과 하나님과 만물과 합하여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로 완성이 목적이다. 그래서 신앙은 대상된 세계를 목적인 곳으로 결론이 나니 신앙이자 현실 세계에 현실적 입장으로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재림에 대한 내

발표가 땅 중심하고 사람으로 와야 한다는 목적의 성립을 본다. 신앙세계는 원리요. 원리세계는 하늘 직접시대요. 근본원리목적 복귀시대인 바다. 그러므로 예수는 신앙을 바로 세운 것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그 최고목적도 원리를 위해서 이고, 사랑도 그것을 위해서다.

신은 근본불신 복귀 위한 바는 알 줄 안다. 세계상 원리적 목적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상대위치를 정하기 위한 것이 믿음에 기본출발기원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지다. 그것은 원리를 미지이니 사실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운 것은 아무리 해도 하늘을 대할 수 없는 자가 그 실체로써 하늘로 올라와서 대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하늘을 대하여서 상대가 되고자 하는 선포가 예수 믿음 선포에 기원이시니 종교에 기원이며 신앙에 기원으로 된다.

그러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그 기대상에서 비로소 원리 공작하는 상대의 터로 하는 기대이니 믿음으로 시작하니 타락세계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만사를 이루는 것은 원리로 합하니 자연히 성사한 바다. 그러니 신앙의 목적이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맹목적 믿음, 신앙을 말하였지만 그 원리가 추궁하는 기본원리 세계가 되니 비과학적인 맹목적 신앙을 떠나 기본 원리적 신앙으로 입장이 변하여 현 신앙계는 원리적 신앙계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고자하는 것이 원리이다. 그저 맹목적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비원리시대 원내에 원한이었으니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근본원리로 하늘을 대하여 믿음 이상의 가치로 대하는 세계가 근본 창조 원리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세계에 권한을 과학으로 정하여 믿고 기도의 세계를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적 기사도 지금은 이적기사가 아니고 원리세계로써 되어져야 한다. 비원리에서 원리세계로 되니 하나님은 이적 기사 보다 원리완성을 표준하여 과학적 실증 무대로써 생활형으로 돌리는 것이 문명시대인 바다. 그러면 원리시대가 되면 문명시대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권과 이상에 전체 모양을 원리적 사실로써 지상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문명은 하늘을 중심하고 그 대상모양까지 어떻게 하여 현재 과학은 발달한다.

현재 신앙자들은 알아야할 것은 예수 재림은 구름타고 온다고 떨지 말고 사람으로 원리 완성주로 오는 존재를 대하여 원리 찾음에서 사명 다하여야

한다. 그러니 믿음은 신앙자의 목적을 하늘 대하여 믿음으로 상대되어 하늘 사랑받았으면 대상되어 돌려야 하늘 대하여 원리완성이니 하늘 사랑 받은 만큼 돌려야 완전히 완성한다. 나를 대하여있는 하나님의 목적를 땅에서 완성하여 돌리는 것이 최고목적인 바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함도 대상하여 주고받고하는 회로로 지었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대상 존재 제2 나를 줄 수 있는 나의 논리를 알 줄 안다.

사람의 대상으로 대하여 하늘을 대한다면 완전히 주고받고 하는 목적을 완성한다. 그러니 재림주는 받은 사랑으로 온다는 목적이 성립을 보는 바이다. 그러니 함부로 주면 대상이 맞는 존재를 시작하는 양이니 못한다는 나의 논리를 결론짓는다. 세상에 말씀은 완전 제2 나로 작용하여 돌아오게 하는 대상위치를 잡고 있으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는 것 그것 대신것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런곳은 완전대상존재가 있을적에 시작한다. 예를 들면 우리 말한 것이 혹은 소리가 시작하여서 완전대신 들려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 말로는 소리는 본의식 소리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반향이나 산울림인 것이다. 시작에 완전대상위치가 있으면 제2존립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대신 대상위치존재들로 지은 바를 말 한 바이다.

이리하여 세계신앙계에 모든 신자는 이 목적을 함하여서 또 온 인류도 함하여서 서로 하늘 대하여 형제 대하고 형제 대하여서 하늘 대하고 상대를 잡고 대상을 잡아 주고받고 하는 원리세계는 그러므로 만유인력은 필요적 작용이다. 그것은 한 중심을 주로 하고 상대위치를 취하는 곳에는 반드시 보여진다. 그 반면에 받는 힘이란 힘의 작용이 성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끄는 힘과 받는 힘을 함하여서만 위치를 정한 상대위치를 잡고는 그 자체는 대상을 완성하여 왔다.

그러므로 상대위치를 잡고 주고받는 곳이 시작이니 완전 평형존재 위치를 정하여 나아간다. 그렇기에 이 작용에 힘을 나는 만유원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부분부터 나의 원리전부도 원력으로 하여 주장한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이상이 원력을 주로하여 다른 것과 연결지어 있게 될 때 그 입장은 주로 평형위치를 정한다. 만일 그 존재하는 이상에는 이 원력을 떠날 입장은 없는 것이다. 만일 원력 떠나면 그는 한 중심에 흡수되어져 그 존재의 입장을 유지 못한다.

그러므로 존재의 기원은 반드시 대상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심을 주로 하여 원력을 조성하여야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지구상에는 지구를 주로하고 각양 존재물이 널려 있다. 그러면 그 존재물이란 존재는 각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위치로서 정할 수 있는 그 존재위치란 곳을 잡고 있는 바는 각자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을 완전히 보유하여 있기에 그 입장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존재물은 중심 지구에 대하여 주고받는 원력(인력과 보내는 힘) 작용으로 평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존재가 유하려면 반드시 대상을 정하여야 존재에 구성을 본다. 그리하여 지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지 혹은 운동작용으로 존재하는 바가 사실이다. 그러면 그 존재는 지구와 만 원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것만 아니고 같은 요소를 가진 각자들은 서로 작용을 하여서 비로소 매 정점을 정하고 있다.

“만유인력은 만유원력으로 하여야만 그 원력은 전부에 작용한다.”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한 정리로 인하여서 지금 이십세기 문명에 공헌을 세웠다. 그런데 이 인력이란 힘에 작용은 정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뉴턴이 말한 인력 뿐이라고 하면 창조원리적 입장을 완성한 곳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만 받은 곳으로 되는 결과가 되니 그 존재의 위치를 이동하여야하는 것으로 결론된다. 즉 전부가 당기기만 하면 그 평형위치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형위치를 정하는 데는 주고받는 위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력만 가지고 있다면 당기기만 하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가 되어 상대 위치를 세울 수 없이 하나로 합해지고 만다. 그러므로 인력이란 받는 힘이 있는 동시에 보내는 힘이 또 있어야만 비로소 평형한 중심점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어 운동할 수 있는 항상 그 기점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면 지구상에 있는 존재는 지구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다만 만유원력에 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한 존재가 안정위치를 정한 곳에는 만유원력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면 언제나 고착하는 모양으로 하여 안정위치에서 만유원력은 작용을 한다. 그러니 이 점을 물질로 비유하면 분자면 분자는 그 요소가 한 중심으로 향하여 고착되려는 것을 지금 물리학적으로 말하기를 부착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 스스로 가한 요소와는 대상하여 원력작용 하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 구성 요소들은 대상으로 평형위치에서 한 체를 구성하여 있다. 지구 한 자체는 천주간에 한 물질에 한 분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지구 자체에서도 이런 원력작용을 구성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구하나지만 그 하나에서 이런 존재작용 즉 대상을 취하는 원력작용을 하여야 하는 결론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것의 표현화가 우리는 지구자체가 남북을 통하여 이런 작용을 취하여 중심 축을 정하고 돌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을 정할 수 있게 위치한 원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지축을 정하고 지구와 중심체와 합하여 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러니 지축은 그 지구 자체의 원력이 합하여 통하는 곳이 자연적으로 되겠다.

그러므로 지구 자체에 이 작용에 표현화는 전기작용과 같은 것으로 기본 원력이 남북간을 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심 태양에 대하여 평형 원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 자체는 한 전기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원리적인 지구요소로써 중심을 세울 수 없는 근본이기에 존재를 정하려면 이런 작용은 필연적 결과로 된다. 그러므로 물질은 전기요소를 중심한 존재니 즉 기본원리로 원력이 작용하니 그 곳은 전기작용과 같은 수수작용을 보는 바다. 그러므로 그 기본은 존재물 전부가 갖고 있으니 지금 과학은 전자로 되었다는 것은 과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기란 것은 무엇이냐고 묻게 될 때 존재 원력이 표현화하는 제2작용이란 정의가 성립된다. 지금까지 전기는 무엇이냐 하면 질문에 대답 못하고 왔다. 물체도 아니요 미립체도 아니라 하여 그 작용적 윤곽만 정하고 있다. 그것은 전기란 댄 존재가 아니고 자연계가 존재하는 것 이상에 존재세계에 한 기본원력이 즉 전기요소란 것이다. 그러면 물질을 질량이 왜 없느냐고 묻게 될 것이다. 거기 대하여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한다.

전기가 물질에 통하는 것도 존재물에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원력 요소가 있기 때문이며 또 전기가 공증을 파동되는 것도 요소를 찾아 통합에서 시작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존재 세계에는 이 창조원력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는 그 작용적 무대를 조성한다. 그리하여서 힘이 생기는 원리도 운동과 열도 전부는 그 원리성으로 인한 선유물의 작용으로 표현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과학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도 원리원력 세계를 떠나서

는 발달과 존재위치를 유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전기란 존재는 하나 완전 생기면 상대방과 대상 조성하여 지는 것을 원리존재 성품을 보여줌에 증명인 것이다. 그리하여 합하여서 완전존재로 지정된다. 그러니 천주에 대하여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리가 존재물에는 같은 하나의 원리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이상 상대위치를 정하고 대상원력을 떠난 존재는 없는 것이며 또 사용시작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성한 나란 존재는 존재 세계에 존재 못하고 자연히 파괴적 방선을 취하는 도중에 처하는 것이다. 전기면 면 로써 되는 것이지 면 면 은 각 각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지 완전하기 위하여서는 대상위치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니 미완전이란 존재가 존재하다면 존재하는 이상 한 상대위치를 잡고 대상을 향하게 하는 도중에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완전 완성 입장에서는 존재 인정은 못 되니 그는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존재완전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독신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한 존재 위치에서는 없는 창조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독신생활은 원리 세계파괴니 있을 수 없다고 한 바가 정의적 결론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각자가 존재 완성을 위하여니 대상찾는다는 이상론은 원리적 원리임을 시인할 바다. 그러니 존재에서 자체는 자체에 이런 존재 원리적 작용하면서 대상에 대하여서도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원리를 소에서 대로 그 기본 원리 작용을 가하여 가면서 근본 하나와 연결하여 합하여 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다.

사람을 주로 하면 내 하나가 자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원리 작용이 있고 그 다음 제2작용으로 이성 상대를 취하여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완성하는 것이 천체세계부터 미물에 곤충과 세균 세계까지 통하고 있다. 이런 원리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태양 역시 그러하고 지구 역시 그러하고 사람 역시 그러하다. 천주 역시 그러하다. 이러하니 한 원리형을 소에서부터 대로 전개가 천주창조다. 근본 원리형은 하나라 하여 여져보니 과학적으로 신이 지은 한 창조 그대로라고 정할 바다.

즉 완전원리 중심존재를 정한다. 그 존재가 즉 창조주의 존재다. 그러므로

천주는 하나님의 자체형을 별려 놓은 것이란 결론한 내 논리에 정의를 알
줄 안다. 그것은 원리를 중심한 천주이니 그래서 정함을 보는구나.

그러면 사람은 물질작용하는 외 즉 동물성작용 외 양심작용을 한다. 그러
면 몸으로는 만물작용완성을 보아야하는 동시에 그 외 하늘에 대하여 선 작
용하여야 할 중심 존재라고 하였기에 두 작용을 한다. 그 물질계 충분 표현
작용인 존재작용을 완성한 후에는 제2대상을 취하여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양심작용을 갖고 있다. 이는 하늘 선 중심 유에 대한 대상위치인 바다.

그러므로 양심이 작용하니 작용 시작은 원리성으로 인함을 알게 되니 내
사랑의 마음 작용은 제2작용 아니면 제1작용이라든가 하는 원리적 존재니
여기에 대상 원점 존재는 작정되어진다. 그런데 양심은 있어서 더 좋은 양심
대로 최고선을 향하여 작용하는 그는 즉 제2위치로 한 최고선 상대위치부터
대상위치를 잡는 바를 알면서 나는 지금 완성하는 도중에 선 존재라는 결론
을 잡으니 나는 완전 완성이 작용적 양심적 작용은 원리적 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논한 하나님은 양심을 보아 알 수 있는 기본 답의 성립을 본
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식존재로 지금 계신다고 한 전부는 해결 본 줄 안다.
그러므로 이상론 전부는 이로 인한 완전한 해결을 하면서 사람은 천주중심
이란 문제에 기본 성립도 해결한다.

하나님 대하여서 상대가 되니 하늘 완성원리도 사람으로 인한다는 전부를
해결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제2존재로써 서게 하니 사람 조상
은 하나님의 몸으로써 한다는 원리적 해결이 성립된다.

인간은 지금이야 이런 원리를 얹으로 가치완성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를 완전 중심점으로 잡으니 천주 전부는 풀려나가는 이 이치적 논
리는 누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를 가진 원리세계니 이것이
천리니 세계존재물은 공식을 통하는 동시에 대상이상을 중심하였기에 천주
는 정수로서 되는 것이다. 전분존재가 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원리인 바다.
그러므로 천주인 그로서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그러니 사람도
지금까지에 세계 전분도 이상도 딴 제2의 나를 대상 표준하고 있는 것은 기
본 원리인 것이다. 원리세계가 되면 대상 취하여 잘 주고받는 세계를 향하려
니 세계 인류역사도 그 노정을 향하는 도중이니 존재하여 왔다.

그러면 세계상 존재하는 존재물들부터 완전대상을 향하여는 원리 위치를 영원히 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상 존재를 보아서도 원점 하나에 대한 완전 대상도 요구할 수 있는 원리인 바다. 즉 하나님 대하여 하나될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정할바다. 그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세계에 대한 모든 종교적 견지와 철학적 견지와 과학적 견지는 여기서 한 사명적 짐을 풀고 웃음으로 합할 바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원력이 작용하게 하는 대상원리에 의하여 해결되는 최고 과학원리로 된 원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뉴턴의 만유인력은 만유원력으로 반작용 원리는 본작용 원리로 중화적 원리는 총화적 원리로 되어서 한 신과학적 획기선을 그어야 할 바며 종교 역시 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최후 승리는 원리니 선에 대한 최후 승리란 것은 원리와 합하는 것이다. 원리 완성하여 나오는 도증을 세계에서는 진리라고 하고 있다. 이 도증은 바탕이 되는 소생으로 성장으로 완성으로 기본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연이란 말에 기원이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신앙적 문제가 과학적인 해결로써도 목적을 완수하여야 할 바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론으로 보면 존재물은 제일위치인 평형위치를 잡고 안정을 필요로 하며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상을 보면 운동하는 제일 운동 지구 대하여 원력작용에 작용하는 존재로 위치를 정하고 있는 존재가 제일 탄 제2운동 위치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외부력의 작용으로 인하는 바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중심과 합하려고 하여 그 위치를 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 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존재할려니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런데 안정적 존재물에 물질운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제일존재 운동위치가 취하고 있는 만유원력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외부력이 있어서만이 작용하는 것이 물체 혹은 물질의 이동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이동 운동을 하기 위하여 만유원력 이상의 외부력에 작용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이동하는 자체는 제일 존재 위치를 변할 뿐이지 그 원력 작용은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외부력만 증지되면 그는 본작용을 연결하는 바가 원리다.

그러므로 물체의 이동은 다만 그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작용하는 외부력 자체에 대하여 피하여 가는 것이 된다. 그러니 이동은 외부력에 대하여 자체

가 파괴될 위치를 피하여 작용하는 결론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동은 본래부터 완전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하는 것을 이동운동이라 하는 바다. 그러므로 존재물은 관습위치를 유지하여 있는 중심과 하나 되고자 하여서 작용하는 힘이 상대위치를 변하지 않기 위한 존재물계에 한 의리적 힘이 관성원리로 된다. 이것이 없는 것에는 상대나 대상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성이란 기본존재는 대상 유지성에서 보여주는 상대방간에 전조 작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히 보수키 위하여 모든 존재는 작용하여 영원을 표준하고 있다. 만일 관습성이 없다면 전부는 파괴를 가져 볼 것이다. 관성의 성질은 존재 필요성있는 곳에는 반드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은 관성을 잘 이용하여서만 발달된다. 이와 같은 작용이 우리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도 갖고 있기에 양심 작용은 본 하늘 선을 작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사탄 작용 작용은 외부력과 같은 것인데 우리 양심은 운동하고 있는 내 중심에서 관습작용으로 근본을 대해서 향하는 것이 양심작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늘에 대한 의리적 힘인 것이다.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사람은 소망으로 하여 향하여 나온다. 이 성사함이 최고 이상이다.

[000] 511-514 拔去分

존재물에 원력과 중심에 대하여

존재물은 대상위치서부터 창조 원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천리인 바다. 그러니 모든 존재란 명사 위에는 반드시 그 중심 원력으로써 위치를 정하는 원리를 갖고 그리하여 기본 중심점과 주고받아 원화적 목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태양계를 중심하고 보면 태양을 대하여서 모든 존재는 전부가 태양과 연결하는 한 원력작용 기대에서만 존재란 명사가 성립된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를 보면 태양이 주위를 도는 바도 그 원인으로 주고받는 원력에서 찾는 것은 물론인 바다. 그리하여 태양을 중심한 여러 존재는 원력을 평형위치로 하여서 처하는 것은 물론이면서 그 자체, 즉 지구면 지구 자체에 있어서도 중심 태양에 대하는 원력작용과 같이 지구한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작용하여 그 중심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자체도 자기 중심위치를 주로 하여 원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지구는 자체로 중심을 취하게 하는 바의 용도적 태양을 얻는 것을

목적하여 원운동하지만 개별적 중심위치를 가지는 것은 그 한 존재가 독자적으로 완전히 중심체를 성립을 보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구자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한 기반으로 되려니 그런 자체에 중심위치를 따로 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지구중심은 원래양 중심이나 분기가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존재자체들은 태양을 향하여 간접적 원력 작용을 지구원력이며 시작한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지구자체를 한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존재물들은 지구를 대하여 원력작용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존재시작과 동시에 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자체는 중심을 취하고 지구상 존재물로 태양을 대한 지구에 입장과 같이 지구상 한 존재도 한 중심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구상 존재가 모두 합해서 지구에 총합한 원력으로서 태양과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물들은 제일 중심지 태양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제2존재 중심을 정하고 있다. 그것이 천주 존재물은 전부가 같은 존재로 된듯한 분립된 존재 위치모양으로 취하여서 소에서 대까지 작용하여 원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존재물 전부는 한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2존재 위치 위에 있는 즉 지구상 존재 자체를 보면 그 자체로써 한 독립된 것과 같은 구조적 작용 원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창조원리인 것이다. 이리하여 천주 존재물은 연결되어서 원화체 작용을 하여서 주고 받으면서 존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소에 존재지만 그 존재는 대의 존재를 구성하는 한 요소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부는 기본 하나의 대상원력을 완성하기 위한 한 요소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태양계를 완전 유지하는 연결된 책임적 사명 위치를 모든 존재들은 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 하나를 두고 보면 지구가 작용하는 것도 태양으로 인하여 작용함은 물론이고 또 자체를 위하여 작용하는 것도 물론이다. 지구 한 자체의 운동이나 존재는 태양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면서 태양도 지구에 대하여서 간접적 지배를 받는 위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태양운동을 봐서 지구운동을 알 수 있고 지구운동 봐서 태양의 운동위치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구가 도는 동시에는 태양도 돌고 있다. 여기에 지금 태양은 한 위치에서 운동하지만 지구가 순환상의 각 위치를 변하는 작용은 지구자체로 한 중심 축을 갖고 있어서 지구에 물질이동 형에 기본 물

질 이동 상이 있다.

그러니 태양도 한 위치에서 방향 위치를 변하여야하는 바로 된다. 그러면 이 태양도 한 위치에 있게되니 중심 방향이 이동 작용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지구로 인한 바가 아니고 천체 세계에 떠 태양계와 같은 위성계로 인하여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천체세계를 보면 태양계는 천체세계에 한 요소작용하면서 한 전체목적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으로 기본적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태양도 전체존재에 대하여서는 지구와 태양을 대하는 입장을 갖고 연결하여 천체세계 전체 합하여서 원력으로 작용하면서 총화원력 작용하여서 평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운동하면서 한 궤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천체세계를 돌고 있는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창조기본 대상원리로 보면 존재하는 이상 원력이 있으면 없지는 것이 아니고 큰 원형 궤도로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궤도는 무한하리 만큼 큰 궤도로 움직이는 결론을 보는 바다. 그러므로 천체세계도 별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한 형상을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회 일주하는 시일은 장기간을 요하여 있음으로 한 기점을 지구라는 곳에서 보면 없어졌다가는 존재하되 존재대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근본 창조적 상대원리로서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부는 한 중심를 하고 있는 동시에 전부를 합하여서 그 중심은 상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도 한 자체에서 대상구조를 갖고 그 존재하는 기본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구도 중심축을 갖고 있다. 지축을 남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에 원력작용이 자력선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지구 자체가 대상형을 취하여 있다. 이 자력선이 총합하는 위치로서 지축은 삼고 있다. 그리하여 한 중심 축를 위치잡고서 중심태양과 평형선 원력을 취한다. 그와 한가지로 지구상 존재물도 역시 같은 양상으로 하여 나타난다. 그러니 존재물이란 것은 상대위치를 개체에서면 개체에 정하고는 중심점을 향하는 바는 사실이다. 그렇지 못하면 존재위치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자체로는 상대성을 중심하고 지구상 존재 각자에 상대축 위치를 정하고 대상원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 내 한 회로를 통하며 대상위치로 주고받는 원력을 중심하고 존재의 목적을 완성한다. 그러니 존재물들은 각자의 개성중심을 취하고 있다.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지구상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한다. 이것 역시 한 가지 원리인 바다. 여기에 무생물은 무엇이나 하면 그 존재에 위치 중심을 고정위치에 속하여서 존재원력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생물계와 광물계에는 결정체나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나 그 중심원력 작용은 같으나 결정체는 질서체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며 그외에 것은 단 무질서 형상체로서 원력 작용하여 있는 바로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원력작용은 총화하려 있는 바는 한 가지다. 그외에 생물계도 보면 미생물계는 그 중심 원력 작용이 주로 무생물계에 원력작용에 의하여 있는 것이 표현화 되어진 것이 존재물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원력작용을 지구로 중심하고 작용하여 존재를 계속하는 그날까지 그 존재의 원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작용이 취해지지 못하면 존재를 취하여 부화하여 그 본체로 화하여져 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이 이 전부는 존재의 중심을 각 주체에 정하고 지구를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로 되는 바는 지구의 원력인 것이다. 식물 같은 것은 존재의 중심을 각개로 달리하여 중심을 정하고 있는 때에 존재하나 중심 위치를 구성할 수 있는 원력작용만 중단되면 지구원력에 땅져져서 지구로 돌아간다. 그러니 없어지는 것은 자체존재 중심원력을 구성하지 못하는데서 시작된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인과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존재란 것은 개체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위치를 안 가지고는 성립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과학적 세계에도 한 신기한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창조 원력으로 인한 바를 명백하게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논하는 대상적 입장을 무시하면 전세계는 무로 하여 파괴를 조성할 결론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기본원리 작용이 존재물 세계에 한 존재의 생명요소인 것이다. 이것 조성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무로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부패의 기본 원인이라는 과학적 판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외 지구상에 중심존재를 보여주는 존재는 동물인 것이다. 동물이 시작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그 존재중심 원력을 갖고 지구 대하여 그 자체적으로는 원력작용을 취한 평형위치를 정하고 있는 바는 사실이다. 그런데 동물역시 존재하기 위하여 대상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인 바다.

그리하여 존재하면서 탄 동물작용을 취하는 원력을 보여준다. 동물도 동작

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원력작용의 지배를 받아 한 곳에 고정 위치를 보여주나 동작할 때는 제2작용이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동물자체로 갖고 있는 힘의 기본 지구에 대한 원력작용을 승리한 힘에 여력으로 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동물이란 무엇이나 하면 존재 원력이 중심 지구원력을 이기고 판 목적원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가 동물인 것이다. 그러니 동물은 지구원력 ※ 목적원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동물에 판 목적원력이란 것은 역시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힘이다 이 힘도 역시 한 상대적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힘의 작용실상이 활동작용으로 인하여진다. 그리하여 그 목적원력이란 그 존재의 중심작용 위치를 갖고 있는 동시에 그 중심 위치를 자유로이 이동하여 중심원력점을 변동하여 작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으로 그 중심점을 판 목적물에 작용하여 취하는 대로 작용하는 것이 동물들의 활동운동인 것이다. 이 활동운동은 그 목적원력의 한 완전대상 위치로써만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 작용할 수 있는 작용의 기원은 존재원력 중심을 각자가 요구하는 이동작용을 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목적원력은 언제나 중심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한 곳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 작용은 하지 못한다. 만일 작용한다면 불완전한 작용이 된다. 그러면 동물체의 구조는 그 목적원력이 작용할 수 있는 한 동작기관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각 기관이 각 개체에서도 주고받아 한 목적으로 동작하는 작용목적을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간세계에는 이 활동작용의 기원에 대하여 신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작용은 창조 원력에 의하여 작용되는 것이다. 이러므로 동물 활동의 전부도 원력으로 인하여 그 창조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도 전부가 창조목적 세계에 한 본상에 완전하게 대상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 갖고 있는 활동성 외 제2작용을 필요로하고 있다. 그것은 양심작용인데 이것 역시 볼 때 한 상대위치 있는 곳에서만 존재 시작인 바니 양심작용이 있는 곳에는 그 목적 대상에 작용상대 위치가 있음을 알게 되니 즉 선과 최고 이상 작용심으로 동작하는 바는 그 대상 제일 존재에 의한 바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 양심작용도 역시 창조의 기본 원력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양심에 옮겨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력작용에 의하여 자연적 궤도를 영원히 표준하고 작용하니 그 작용요소에 반대하는 작용만 하면 본궤도로 돌리는 힘에 작용이 시작하는 것은 창조의 기본 원력 작용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신기하지 않은 양심작용인 바다.

예를 들면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는 것이 기본원력인데 동서로 하여 향하여 위치를 정하면 그 나침반에 작용하는 원력 힘은 남북으로 당기는 것과 같이 양심 역시 원리방향 선은 하늘 선을 향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양심이란 작용은 나침반을 동서작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니 이것이 기본으로 돌리는 작용 힘의 나침반을 남북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작용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옛날 사람과 요즘사람이 양심적 가책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완성하여 나오는 도중에 있기에 양심적 가책의 방향으로도 명령이 다르게 되고 있다.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원력 양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 작용이 지구를 대한 존재물의 원력과 같이 되어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양심작용은 지구원력인 바로 되며 육체의 작용은 지구상 존재물과 마찬가지로 존재인 것이다. 지구상 존재물의 각자 중심 존재점을 유지 못하면 그 존재는 구성체를 파하여 땅으로 화하여서 지구에 흡수되듯이 이 사람이 양심작용은 육체가 존재의 중심점을 취하지 못하고 말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 양심 원력은 지구의 존재물들이 지구원력에 흡수되어 화하듯이 하늘 양심 본체에 흡수되어 제2작용 성립을 조성하는 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때문에 사람은 천주에 한 중심작용 구조를 겸하여 소유한다는 결론을 보는 바다.

그러니 이 기본 원력작용 전부가 한 공식과 같은 원리 원상으로 질서정연한 실상이 천주에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는 하나만 찾아봐도 어떤 존재물이나 전부가 근본 상을 표현화하여 있다. 이렇게 하여서 한 존재로써 전체 존재로써 합하여 완전 전체 하나로써 돌려야 하면서 또 받아야 할 연관적 위치를 이 창조원력으로 만천주에 배열함에 묘미가 창조주의 상대인 실상세계로 되면서 실재 창조주에 대한 상대 존재로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주고받는 작용을 보여주는 천주를 보아서 소에서 대, 즉 전체 세계로써 통하여 그 목적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은 사람 위하여서 존재 목적으로하여 상대 위치를 갖고 있는 동시에 하늘은 사람 중심하고 한 대상위로 대하여 주고받는 힘을 조성하려는 원력작용인 최고목적인 하늘 사랑을 양심을 중심으로 중심하고 작용한다.

사랑을 받게 하려니 양심은 그 이상목표가 사랑을 받을 하늘에 대한 대상 위치 사명 추궁작용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양심작용인 것이다. 사람에게 기본목적 중심은 하늘 사랑으로 하여 중심을 정하고 있다. 그것이 부모를 중심으로 나타나서 한 존재 중심 지점으로 보여주며 또 부부사랑으로 보여져서 각 존재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중심한 원력작용을 가진 각 존재물의 한가지다.

그러니 태양을 떠난 지구가 없을 것이며 지구를 떠난 지구상 존재물 없을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원리로 사람은 하늘을 주로 하여 사랑을 중심으로 다음 부모로 부부로 하여야 할 목적격상을 완성하는 것이 기쁜 사명적 목적론이 우리 지상천국이 기점으로 되어 주고받은 원화국의 목적 완성이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서 닦기 위하여서 최고 노력하여야 하면서 만물 대하여 보호하면서 전체 사랑으로 연하여 총화를 조성하여 존재세계가 하나로 잘 받고 주는 목적을 하늘 중심으로 한 기대조성을 목적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인 바다. 그러니 천주 전부는 그 목적 완성 실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사람이 한 본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내 이론 한 원리를 알 줄 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양심원력으로 보아 과학적 원리로써 증명되면서 세계상 존재물 근본을 밝히는 중심지를 명백히 하여 사람이 제일 책임지의 목적을 완성하여서 영생 기본을 조성하여야 할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근본적 창조적 원리 중심을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대하는 생활을 종교로 하여 돌아가는 길을 취한 것은 지금부터는 직접 대하는 직접노정을 찾은 것이 목적이니 우리 현재 과학적 원리로써 현재 지상에서 사명완성을 할 것을 잘 알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원리 기대를 중심으로 천주를 자유롭게 대하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시작을 보아 완성으로 협력할 중요한 의무

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찾아 나왔으니 다시금 타락이란 명사도 천주상에서 인생 앞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한 직계의 한 몸의 대신분자로서 제일세계 대신한 지상천국으로 화하게 하여야 할 목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원력으로 본 삼위격일체

존재물은 원력으로 인하여 그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인데 각기 각자는 중심을 갖고 본 중심체와 향하여 연관적 위치로써 존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각자 각자 개체만 작용하는 존재는 본래부터 없는 바다. 그러니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타자 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물에 전부가 이와 같은 위치로 되어있다. 천체세계도 그 외 존재를 중심으로 존재도 역시 한 가지다.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지구를 중심으로 식물과 동물로써 되어 있는데 그 원력 작용으로 보면 전부는 연관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존재를 정하는 곳에 연관위치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만 정하게 된다. 태양을 주로 하면 지구는 제2작용 위치로 잡고 있다. 또 지구상 존재물은 지구를 통하여 태양으로 연락하는 위치니 태양을 주로 하여서는 제3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러니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들은 이와 같이 연관적 위치를 갖고 그 입장을 중심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력작용으로 보면 지금 지구상 존재는 자기자체를 중심으로 원력작용을 하는 동시에 지구 대하여서도 원력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에 대하여 원력 작용을 한다. 이러니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향하는 원력있고 지구로부터 지구상 존재물에 대하여 주는 원력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물은 자체와 같은 요소 간에도 원력작용을 하여 위치를 정하여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립이 안된 전체에 원력을 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원력을 두고 보면 지구상 존재물은 삼체격위를 두고 자아한 자체를 대한 원력작용이 있는 바이다.

그 위격을 태양부터 지구로 지구부터 지구상 존재로 하여 있으니 그 원력으로 보면 삼위격위로써 하여 한 일체적 형선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 존재물은 원력을 다 가지고 있다 무생물은 고정위치에서 그 원력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역시 무생물적 고정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동물 대

하여서 무생물계와 중간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는 그 존재물에 한 기반지로 되어있다. 무생물은 원력위치를 한 곳에 작용하여서 정지하고 있는 반면에 식물 등은 원력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자체에서 한 목적을 향하여 장성급의 원력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에 동물은 기본 지구 대하여서 원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치를 자유로이 하여 다른 목적원력을 가지고 작용하는 활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구상 존재물도 무생물계로부터 식물계로 동물계로써 한 특위 한 구조형체로 하여서 서로 연관적 위치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상 존재물도 전부가 분립한 목적으로 되는 원력작용하는 듯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초작용이나 중간작용이나 완성작용이나 어느 하나의 작용적 책임을 분담하여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상 존재물은 지구가 기초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 작용하는 무생물이었는가 하면서 그 작용을 본하여 식물존재에 대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며 또 그 식물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동물 작용으로 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완성목적 도중에 서 있어서 주는 것은 한 목적으로 존재위치를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를 떠난 무생물이 없고 무생물을 떠난 식물이 없고 식물을 떠난 동물이 없다.

그러면 지구의 존재 목적은 무생물계와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하여서 그 존재의 사명으로 인한 것이면서 동물이나 그외 무생물은 지구를 위한 사명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바다. 그러니 지구로 존재하는 이상 지구상 존재물을 위한 것이다. 그외 지구의 존재위치를 정하는 태양도 지구를 위해서 존재목적을 완성한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상 존재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상에는 전부에 연관적 위치를 취하여서만 완전한 존재위치를 정한다.

그러니 태양은 지구상 존재물에 대하여서 빛으로써 동식물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 공기도 역시 지구상에서 존재물을 위하여서 작용한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 그 전체완성 목적을 위주로 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천주에 존재물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 그 목적의 중심 존재는 태양인 듯 하나 그것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무생물을 위함도 아니고 식물을 위한 바도 아니다. 그러면 그 완전 격위에

있는 동물을 주로 하여서 사람 중심이란 목적 위하여 있다.

그러니 지구는 태양을 중심하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 외 그 생존요소 완성 즉 태양 전부는 이 곳을 향하여서 합하여 작용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동적 존재물이며 그 중심 사람이 주동적 존재물인 것이다. 그러니 온 천주는 사람 사는 지구를 위하여서 그 위치를 정하여 주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목적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즉 사람이란 한 존재가 원만존재를 위한 바로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사람 위하여서 창조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생겨나기까지는 원력으로 보면 기초적 원력을 가지고 있는 무생물계는 한 소생적 사명에 처하여 있고 식물은 한 성장한 위치를 정하고 있고 동물은 한 완성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일반 동물성 작용 외 그 본래의 이상을 향하는 양심 작용으로써 목적을 연관하여 있다.

그러니 지구상 만물제도 동물까지로 되는 곳까지는 한 연락 존재로 하는 즉 생존요소로 보면 분립 못할 위치에 처한다. 그러니 최고목적 위에 있는 동물은 식물계를 취하여서 있고 식물은 무생물을 대하여 생에 요소를 취하여서는 성장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태양과 공기의 본으로 인하여 동물 생존요소를 배양하려니 식물은 공기로 질소를 취하여 산소로써 내주면 동물은 산소로써 하는 생존요소와 식물과 동물로써 하는 생존요소로써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 하나를 위하여 온 존재물은 협력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목적 원리이면서 기본 창조본의이니 사람은 동물을 취하고 식물을 취하여 그 협조요소를 취하여 생존하는 바도된다. 이리하여 사람은 또 그 존재목적적인 본위치 양심작용 세계 대하여서 한 완성적 한 기반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 존재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었으니 사람 중심에는 천주에 대한 완성 존재로 되어야겠으니 사람 중에는 어느 한 존재물에 취할 수 없는 완전요소로 되어 있다. 물질계로써도 최고위치는 그 존재물에 최고 목적체이니 다른 존재물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존재격을 취하고 있다. 그리해서 창조주 본성상을 겸하여 한 대상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

니 과연 최고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 하나 하늘과 합하면 각 존재에 최고목적도 완성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만물을 취할 수 없는 자격자다.

지금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생물 + 식물 + 동물로써 그 위상을 보아도 사람 한 자체에는 지구상 존재 목적을 다 겸해서 가진 존재인 바다. 그러므로 물질계적으로 보아도 사람은 삼위를 합하여서 물질적 존재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 물질계존재세계에 한 결과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물질계 존재세계에 한 결과는 사람인 것이다. 모든 결실이라면 소생 장성 완성을 거쳐 달성을 해야만 성립된다. 그러니 사람은 최초의 발생적 존재인 무생물을 주로 하여 식물로 성장 동물로 완성하는 한 노정을 취하는 존재로 되어서 한 존재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처음 발생 성장 완성이로 하여서 목적인 목적존재가 한 진리가 찾아 나온 노정으로 된다. 결실체가 되면 그 본창조 기본성품이 완전히 표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슨 열매나 결실되면 한 껍질 안에 두 개의 대상위치를 취하고 있다. 무슨 씨라도 이러한 바다. 그것은 기본을 발표하는 형으로 되어 있다. 모든 존재의 기본씨는 창조주니 그 한 존재를 씨로써 발표한다.

한 씨면 씨를 보면 한 껍질을 쉬워서 하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도 합하면 하나로 풀어 헤치면 둘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그 하나를 가르면 그 씨 안에는 어떤 열매든지 둘로 분립되어 상대성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천지 창조주 중심을 표시한 것이다. 즉 하나에서 한 분립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와 같이 요소 이성의 합하여서 하나되는 곳에서 재출발 존재의 시작을 보여줌이 다.

그러므로 이 열매 하나는 창조주 본의의 하나에서 분립성을 발표하는 동시에 분립을 보아 존재한 그 자체는 기초적인 발생하여 성장으로 완성이로 하여서 다시 기본 원성으로 환원하여 본체와 합하는 것이라는 창조성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분립하였다가 합하고 또 분립을 하여 한 상대 회로상 존재한 것이 이 사실로써 증명하는 바다.

이렇듯 사람은 만물의 전체에 합한 구조 완전체로 되었다. 그러면 사람 한

존재는 지구에 대하여 있는 기본원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원력을 승리하는 다른 목적 원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의 힘이란 것은 언제나 지구에 대하여 평형 원력을 승리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작용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니 다른 목적 원력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상 모든 인식작용과 활동에 기원을 잡는 것이다.

사람 힘 = 지구원력 + 다른 목적 원력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내 한 자체에는 힘을 중심하고 지구 대하여 다른 목적 대하여서 작용하는 두 분립 입장을 취하려 힘이란 한 원력으로써 다른 목적 원력은 양심 원력과 합하여 양심 원력에 의하여 작용하여지니 삼위적 입장인 완성체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한 개체를 조성하고 있다. 이래서 사람 하나 근본적인 발생 목적으로 하여 내 한 자체에서 성장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면 자체인 상대존재 위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성을 대한다. 그러면 이 둘이 완전히 합하는 때에 완성하는 결실체로 기인하여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자녀라는 기본 창조적 제2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이성이 합하여 완전 하나 되면 그 자체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되는 기본성 합하는 곳으로써만 다시 삶이 시작한다는 곳을 보여주는 것은 전부가 창조 근본을 표현화한 곳이니 이 목적을 보는 것이다. 이렇듯이 남성의 한 자체는 원력작용 힘의 여성의 한 자체가 원력작용 힘과 사랑을 중심하면 한 목적으로 하고 하나 되니 삼위적 원력작용을 정하며 삶에 기원이 되는 바는 모든 동물도 이와 같이 한 목적으로 되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은 창조 본성적으로 보면 근본인 하늘을 대하여 중심할 수 있도록 지었다. 하나님 한 자체로부터 이성으로 분립하여 위치는 셋이나 사랑 중심하고 하나되어 번식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이 목적이 지금까지 미성사로 되었다.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 삼위격을 정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만물원력 대하여서도 삼위원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람 하나는 온 천주존재에 합한 표시로써 이렇게 지음 받았다.

그러니 사람은 만물에 열매로 만물계로 대하고 이상존재로 하늘의 사랑을 대하여 만물세계와 중간작용 존재니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만물계를 분립할 수 없는 존재로 된 표시적 존재니 본래부터 지구상 중심하고 창조받은 존재이니 타락도 지구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본래부터 땅에서 지음받았다. 이것은 이런 원리적 만유원력 작용과 하늘 대한 사랑 원력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결론인 바이다.

사람 한 자체 중에는 만물 결실과 하늘을 대하여서 하나되어 합하여서 한 목적하여야 하는 그 활동 기관을 갖고 있다. 사람 하나를 분석하여 보면 3 작용 기관을 가지고 있다. 즉 폐에 작용하는 기관, 심장에 작용하는 기관, 위에 작용하는 기관을 가지고 나란히 서로 도와가며 수수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전체의 한 상대 상을 취하여서 대상을 조성하여서 주고받고 하는 신경계관이 있다. 이것들을 합하여 전체 생존 목적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전부를 보면 만물 전부를 합한 작용을 표시하고 있다. 골격은 광물요소가 되어 있으며 내장기관은 한 식물과도 같이 되어있다.

폐는 식물에 엽부와 한 가지고 심장부는 줄기로 위부는 뿌리부분으로 피부 살은 흙 상대로 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전부가 사람 하나 중에 전요소를 연결하는 표시로 되었다. 그리하여 직접 머리부분으로부터 연결하는 신경계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람한 자체는 직접한 날로부터 한 신경작용과 같은 대상작용으로 되었다는 것을 표현화시킨 존재다. 이것의 작용들이 합하여서 완전히 두부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자체 존재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한 표시로써 지음 받은 존재니 이 사람 중에 전부가 합한 존재물 작용을 합해서 생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적 작용외 하늘 신경작용인 대신 하늘 목적 완성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었기에 사람은 육신생활을 원만화기 영의 성장에 직접 좌우함으로 우리가 양심생활이란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생활은 영인체의 성장요소인 영양소가 기본임을 알게 되니 육과 영은 동화적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줄 안다. 그러니 육이자 영이며 영이자 육으로써 간접적 입장이면서 직접적 입장을 사람은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세계와 동화적 근본 의의와 상대적 근본의의 등 에 대하여 내 논한 것을 알 줄 안다.

그러니 영과 육은 분립을 못한다. 이것을 볼 때 예수 자신이 육신으로 왔으면 육신 대상 완성하여야 할 장소 본의로 되니 육신 재림도 알 줄 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나 구조 중에는 천주전부를 표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체 삼위격 작용기관을 합하여서 한 이상 대하여서 제2목적 완수할

존재로 되어있다. 그 중간적 사명이 육신생활에는 신경작용으로 통하는 생식 작용과 연결하고 있다. 이 작용이 양심이라 하는 것도 된다.

그리하여 육신 중심부와 통하는 심장과 합하여 동작하니 양심은 심장부분으로 되는 듯하게 되어 나타난다. 전부는 하나 완전을 목적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통하여서 사람 중심처로 하고 있다. 크게 온 천주적 구조 위로 보면 하늘은 폐와 같고 사람은 심장과 같고 만물은 위와 같고 신경은 하나님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온 천주는 신경부분인 창조주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하여 있다는 것으로 표시화된다. 그러니 사람 하나 중에는 전부가 들어가 완성되어 있는 존재 표현화로 창조 받았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 심장적 위치로서 중심한 곳이니 사람의 가치와 하늘 대하여 한 몸 부분으로 연결하여서 있다는 것을 알 줄 안다.

그러므로 세계상 무엇이냐 사람들 중심할 수 있고 존재물들은 사람에 어떤 요소라도 갖고 있어서 또 필요성을 본받아서만 존재한다는 결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존재물의 중심이 사람이니 이런 결론은 할 수 있는 바다. 그러면 현대문명도 사람이 한 물질적 흉내형에서만 그 존재적 사명이 시작된다. 찾아보면 현대문명의 여러 가지 기구는 전부가 이와 같은 구조형에서만 우리 사람에 애용물로 되어있다.

그러면 전세계는 한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시작되는 것은 전부가 창조 원성을 발표하여 찾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 바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있는 이상 세계는 사람과 같은 구조를 목표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섭리중으로 발전한다는 결론도 성립된다. 이런 모든 문명 기구들은 한 사람, 여러 기구들은 한 사람의 그림자로써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 창조목적인 것이다.

이런 구조현상으로 되는 문명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발전하는 존재물임을 알 수 있는 바는 사실이다. 그러니 문명기구로 주고받는 길로써 해야만 발달하는 바로 된다. 이것은 전부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인 바다. 그것은 지상천국 위하러니 그런 발달을 보는 것이다. 끝 12/20

[000] 545-547 拔去分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대신 삶을 조성하여 받은 모양으로 지금까지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계시었다. 즉 어떤 입장이냐 하면 타락 전 미완성급 사람들이 완성을 기다리던 때 하늘 아버지 속에 있는 자녀와 같은 입장 존재로 처하여 왔다. 그러던 존재를 이 예수와 성신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받아 영적 혈통을 이어받아 영인체의 생존은 조성하였으니 육적 각성부분을 미완성이니 지금까지 기본 완성을 선택한 땅을 대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러하여 재림으로 인하여 기본 아버지 어머니를 완성하여서 양자 혈통과 같이 제2차 삶을 계승 받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니 이것이 재림 부활에 목적인 것이다. 즉 다시금 사는 것도 된다. 이것이 생령 부활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온 존재의 미완성 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모심으로 처음으로 하늘과 땅의 완성이 시작을 보는 것이니 하늘 가정 건설과 동시에 지상에도 이상가정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위치를 정한다. 그러니 본래는 정이 되어야 할 것이 반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큰 난리법석의 시작을 계속하였다. 그러면 반이란 존재가 계속될 수 있는 한계를 원시시대 형으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님 편쪽에서만 반은 정체를 중지할 것이다. 그러니 이 반이란 존재를 처치하고자 하여 근본 정이 끝까지 찾아 올라온 것이 인류발전 역사이다.

그러므로 정반합 논리의 종말을 본래부터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이상논리로 하지만 그 말점에 가서는 파괴라는 결론점을 봉착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은 발전하는 바는 향진인데 원시시대 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발전사라는 상충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사회발전 논리는 근본적으로 근본제도를 미해결하니 그것은 물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네들이 말하는 정반합 논리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근본적 재봉준 그 말로를 결의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에 대한 한 정만 남은 것이 천주 천리인 것이다.

이 정이란 곳은 타락전이니 즉 시작점으로 되는 것이며 인류역사는 시작점을 찾아 올라가지 않으면 조물주가 계시지 않은 결론이 성립된다. 그러니 정이란 존재가 정으로써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며 목적이 조물주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결국 원시시대 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물주를 가진 현실 세계의 발전 현상인 것이다. 그러니 역사의 끝은 정이라고 결론한다. 그러니 최고 문명세계는 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쪽이란 완성을 결론한다.

그러니 지금 세계를 정이 주관하여야하고 원리적 목적이니 하나님 편 정과

사탄 편 반과 대하는 끝에는 정만이 남는다. 그러니 정이 주관하는 세계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관을 바라는 기독교 이상으로 귀결 하여야 한다. 그러니 현재 기독교 신앙자들은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자들을 동원하니 반에 대한 정에 선 주관세계를 조성할 바가 지금 세계의 기독교에 사명인 바이다.

그러니 그 방책은 자연이 하늘 뜻을 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근본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 대하여 총돌격하여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위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인류발전 역사를 단계로써 기록하여서 하나님적 복귀 역사로 된 인류발전 역사와 비교하여 보자.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발전을 본다. 유물론적 발전사 단계는 즉

1. 원시 공산주의 시대
 2. 씨족사회주의 시대
 3. 노예주의 시대
 4. 봉건주의 시대
 5. 자본주의 시대
 - 6., 제국주의 시대
 7. 사회주의 시대
 8. 공산주의 시대
- 이런 역사 발전을 잡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인류발전 역사를 잡고 있지만 왜 이런 발전 단계를 밟고 있는가의 근본문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왜 원시공산주의 시대에서 유물사회주의 시대로 떨어지는가 하는 기본 원인은 미지인 바다. 이런 발전 진상을 보여주는 바는 내가 논하는 반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을 논한 데서 시작이라는 바를 다들 알 줄 안다.

다시 그 단계를 잡아 밝혀보면 원시공산주의시대에서 씨족사회주의시대로 되는 것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편쪽 대책으로 인한 바다. 즉 분립하려니 씨족주의로써 전부가 통할 수 없는 분기를 통하니 자연적 세계상에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려온다. 또 씨족사회주의가 변하여서 노예주의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은 사람 중심하고 빼앗는 역사를 하니 하늘편쪽 사람과 사탄편쪽 사람과 원수니 반을 대하여 정이 반을 지배하여 그 자본 물질을 취하게 되니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

이리하여 하늘은 사람과 자본물질을 취하려니 자연적 선물로써 긴 역사로써 풍습화한 시대로 되니 이런 시대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예주의 시대로부터 봉건주의시대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람을 자기편으로써 끌어들이고 연결하여 편 가르기를 함으로써 분립을 보려니 서로서로 통하는 길을 막으려니 이런 경향이 표현화하여지니 이런 봉건주의시대으로써 사탄은 자기의 존재 유지를 도모할 것이다.

[000] 553-556 拔去分

이상세계를 지구상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다. 그러니 뜻 합하여서 재림주를 증심하고 뜻 시봉으로 근본복귀를 완성하는데 전부 합하여 동원하여야 하는 시대는 찾아 무엇이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전세계를 증심하고 그 존재 위치를 달리하여서 대할 것이다.

그러니 복귀노정을 받들어 지상천국의 일꾼으로서 새로이 출발하여 한 원리 증심한 가정으로 하는 부모 없든 자식이 입장을 변하여 부모를 세계적으로 복귀하여 잃어버린 전세기 인간을 한 형제로써 대가족인 원화적 이상을 건설하려니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에 대하여서 분립을 보게 하여 자연적으로 현 기독교제는 이런 경향선을 보게할 바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근본을 알고 싶어서 하늘 자녀의 입장을 복귀하여 빨리 사탄에 대하여 준비하게 할 책임이 기독교의 사명 연대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목적으로 전세계에 분립을 본 기독교는 통일로써 불 바이면서 세계 통일을 증심한 기독교의 최고목적을 완수할 바가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는 대립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연장하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바이다. 그러니 지금 기독교는 전세계를 증심한 증심국가들을 주로 하여 합하여야 할 책임이 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신자는 하늘을 증심하고 하나 되어 국경을 넘고 민족을 초월하여서 합동한 통일전선으로 하여 사탄의 남은 목숨마저 근절하여 전체는 각자가 한 목적으로 향하여야 할 바가 목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현 사회를 움직이는 증심동력으로 하여서 모든 미급적 부분을 완성에

로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한 영생주의를 건설하여서 지상천국을 조성하여 재림주와 합하여 하늘 전체와 합하는 직접 동거시대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바라던 이상이요, 역사적 목적이요, 조물주와 예수의 목적이면서 사탄을 근본적으로 추방하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입장을 아지 못하고 현 사회를 포기하여 온 현 기독교 신자는 과연 하늘적으로 기뻐하는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알았으니 추상적 신앙 관념에 잠을 깨고 새로운 아침의 소식에 합하여 전 세계를 하늘 주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미지였던 입장의 부족을 용납하여 전세계 인류는 알며(知) 형제로써 국경을 넘어 하늘 나라 국제를 목적하고 활동하여 전인류에 대한 평화건설을 국제적으로 하면서 국제통치 목적으로 전세계는 하나의 근본목적 을 완수하여야 기본 창조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이런 것을 발표함을 보고 통일되는 者는 진심으로 하늘에 대하여 사실 여하를 문의하여 허락 받음으로써 최고위 신자는 한 곳으로 합함을 받고 보니 이런 사명 받으려 전세계 신앙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앞날은 국제 통치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리하여 재림이상을 지구상 한 중심지로부터 시작하려 한 나로부터 전체로써 국제와 연결하는 목적을 완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인 것이다.

原理原本 記錄第五卷 (561~675)

◎ 삼권분립과 당에 대한 원리적 기원

◎ 원리복귀세계란 기본 자아완성세계

창조세계가 진화적 논리에 적용되는 근본적 뜻의 반대성 작용은 각자가 원리완성을 위하여 존재함

분립과 합체는 기본원리 완성을 위하여 시작함

◎ 존재구성과 대상 원력에 범위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시는 영인은 미완전생 필사본 175 항에

562장은 백지상태

삼권분립과 당에 대한 원리적 기원

하나님의 뜻 중에서 섭리를 받고 나오는 인류발전사는 전부가 복귀라는 뜻을 향하여서 나온 것은 사실이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찾아 나오는 도중인 것은 사실이다. 예수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여서 나온 그 도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서부터 가나안 복지로 하는 그 노정과 같은 노정으로 예수를 중심한 기독교는 발전하여 오면서 인류역사도 그 최후목적을 함하게 하는 양상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여 나온 것은 잘 알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바로를 대하는 시작이 있었던 것과 같이 기독교도 역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직접 사탄에 대한 입장에서 나온것은 역사상에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를 중심한 민족과 신자들은 광야와 같은 노정으로 향하여 왔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자들은 세계각지에 널려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신앙에 정조를 유지하여 나왔다. 기독교는 세계에 종교로써 세계에 중심국가를 대하여서 지금 20세기 문명국들을 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오는 도중에 특히 유대 백성은 전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환영 받지 못하면서 세계로 유린하면서 기독교를 선포하여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탄 대하여서 싸운 것과 같이 전 세계 신앙국들은 함하여서 사탄을 본격적으로 대하는 바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있게된 원인을 봐본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역사적 단계를 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과 같은 것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개된 바가 1차, 2차, 3차로 하여 40년 기간 이내로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복귀노정을 보여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고역하는 광야생활과 같은 것은 총결실적 대책기간이 지금 세계상에 보여서는 1차대전 이후에 선화로 보여주는 세계구원인 섭리적 복귀 기간을 보여준다.

그러면 세계상 최고위에 가서있는 국가들은 하늘 뜻 중에 복귀적 노정으로 나오니 그 국가들은 뜻을 성사할 기초적 국가형태로 조성하기 위하여니 민주주의 국가 조성을 보는 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 건설과 같이 그 목적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준비단계를 대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목적인 바다.

그러니 하나님은 뜻에 시대가 가까워 오니 사탄 대하여 오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 굴복과 동시에 뜻 성사할 기초적 사실을 보여주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 민주주의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백성 앞에 국가조성하기 전 사사시대와 같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중심 주권자 될 수 있는 시대를 대신 표시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사명적 시대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 건설 준비 시대였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인 400년 기간을 취하는 양상과 같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시작도 이런 역사적 도증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 후에는 무엇이 오느냐하면 역사는 복귀하여 올라가니 성경에 보여주는 사울 왕 다윗왕, 솔로몬 왕 시대를 목적하는 바는 사실이다. 3왕은 전부가 뜻 도중에 왕들을 표시한 것이므로 금후 최후 세계는 재림주를 중심하고 열왕기 시대와 같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지금 세계는 이런 발전을 향하여 찾아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대표국 미국은 가장 하늘에 대하여 증대한 중계적 입장을 완성하여야 할 국가인 것이다. 이런 사회발전사를 보아도 역사는 전부가 한 완성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하여 나오는 것을 보아도 이 세계는 필대로 뜻 외에 처하여 온 뜻이 생각하면 크나큰 사탄과 짝하는 생각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에 조류는 가나안 땅을 향하려는 40년 광야적 사탄 분림기간에 대하여 있으니 40년 이내에 세계 공세로 크나큰 어려운 난관을 가져온 것이다. 이 기간에 특히 유대 민족은 그 한 학대를 받음도 그 뜻이 있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있어서 옹호함은 전부가 하나님 뜻 중에 시작할 미국이니 그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본 목적을 성사할 최고위에 두었음을 미국민은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40년간에 사탄 대 국가 전부를 굴복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금후 세계에 대하여서 이런 섭리적 도중에 서 있음을 성경상의 역사를 찾아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 성사 시대를 향하여 나아감을 알 것이다.

이런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목적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40년 기간을 지낸 후에는 하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건설한 것과 같이 지금 이후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는 재림주를 중심하고 세계 건설 하여야 할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복귀는 후일에 하나님의 전세계 복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잘 알 줄 안다. 이리하여 야곱을 일대 복귀로 모세로 민족과 국가 복귀로 예수로 전인류와 세계 복귀로 하니 그 본대로 향하여 행하며 돌아오는 역사적 노정을 보아서라도 알 줄 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은 세계를 그냥 발전하게 하는 것도 지상 그냥 뜻 완성하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상을 그냥 완성하려니 지상에 예수 재림 성사할 것은 정한 것으로 된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여야 할 것은 40년 기간 복귀 도중에 서 있는 세계정세를 볼 때 벌써 재림주는 이 기간에 장성하여 있다는 것도 알 줄 안다. 이렇듯이 세계발전 하는 것도 종말에는 한 뜻에 귀결로 하여 나오고 있다. 그러면 성경 입장을 떠나서 지상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자.

지금 세계상 국가들 전부를 살펴보면 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지상국가는 하나님의 한 대상목적으로 된 사람을 대하여 사람이 한 대상목적으로 하려고 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지상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 대상을 목적하고 오고있는 만큼 그 정도만큼 사람이 대할 수 있는 지상국가로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완성되어 오는 것과 같이 사회와 국가형태도 완성을 향하여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대상 인간의 성립을 보이시려고 하는 세계상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국가형태는 보여지는 바가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준하고 국가나 사회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은 한 형상이니 사람과 국가도 대신 사람 형체로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람의 사업을 중심한 활동무대이니 국가는 사람 대신형을 완성하여야 완전 뜻인 창조원리가 완성으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20세기 이후에 문명국가는 어떤 구조를 목표하고 나아가나 하면 완전한 사람에 구조와 같은 형태를 향하여야 하는 것이 창조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그

러므로 지금 세계상을 보면은 금후에는 과연 어떤 국가형을 표준하고 발전하여 진다는 것도 알 줄 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각 국가형태를 살펴볼 때 어떻게 하였나하면 삼권분립제도를 취하고 있다. (몬테스키외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정론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1689~1755년))

이것은 무슨 목적이나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사람과 같은 형체를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목적으로 하여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삼권이란 부분은 사람에게 있어 3작용 수수기관이 있는 것과 같이 국가도 3작용 수수기관이 생겨야 하는 것이니 삼권 분립이 시작하는 원리적 유래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폐에 기관 대신한 것이 정부인(입법기관인) 것이며, 심장기관을 대신한 것이 사법기관이며 위장의 기관을 대신한 것이 행정기관인 것이다. 이리하여 한 목적으로 완성하여 잘 주고받은 곳에서만 국가가 유지하여 온 바이다.

이와 같이 삼권분립이 생겼으나 하나님은 아직까지 지상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니 사탄 전멸을 목적하여 나오니 사탄이 굴복시기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그 목적을 늘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육신상 중요 3작용 기관은 완성을 보았으니 그 다음으로 목적하여야 할 바는 신경계 기관인 것이다. 이 신경계 기관은 육신이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대신을 표시하는 두뇌부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목적이니 창조주가 계시는 이상 창조주는 두뇌부이니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목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직접 목적하는 시대가 되어야 이 구조형의 시작을 볼 바가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삼권분립이 생겨진 이후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상 직접 섭리를 하여야할 역사적 목적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상에는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당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섭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지금 당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 지상에 당이 사명적 책임 부분을 완수할 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곳에서만 완성할 것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세계상에 보여지는 당은 그 중심 위치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적 사명시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계상에는 이와 같이 한 목적을 중심하고 발전하는 것이니 삼권분립도 그 목적을 완성하려니 당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목적 완수하려니 생겼다. 지금까지 이런 원리를 세계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는

지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아서도 알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늘을 대신한 기독교는 세상을 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당이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돌보지 않고 포기하여 왔다. 그러면 당의 근본적 유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경계 기관을 목적하여야만 지상이 완성할 것이니 이 당적 책임 완성자들은 하늘 대신한 기독교의 중대책임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세상에 당이 시작하였으니 하늘의 신경과 같은 당의 사명은 반드시 기독교가 책임한 중요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경계 기관은 지상천국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상에 보아서도 현 기독교인들은 총합하여 하나인 당적 신경계 기관을 책임하고 전세계 교회 통일을 의무로 하여 세상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리적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지상에 최고목적 발전표준은 완성한 한 사람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하늘 대신한 신경계관은 삼권기관을 전부 통하는 특권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금후 세계는 이런 구조형으로 보여지는 것이 시작하니 과연 사탄 편에서는 말세인 것이다.

동시에 사탄은 굴복이고 하늘 성도시대를 목표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한테 축복하였던 제사장 국가이상을 전세계 신자로 인하여 완성하여서 하늘에 합하니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 신자는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자유권 후득시대를 목전에 보는 지금 시대를 보고 방관적 입장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전세계 신앙계는 하나가 되어 세계 중심으로 되어서 양심적 인사들을 합한 이상적 당과 같은 지상 신경계관을 조성할 바다.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상 사람 대하여 요구하는 바로 되어 있다. 그러니 지상세계에 지상천국 완성이 하늘의 목적이며 완성된 사람 형태를 지상 국가는 목적하니 사탄은 먼저 원리세계에 출발하였으니 그 목적을 위조하여 먼저 흉내를 내는 것의 완성이로 세계에 그 자체를 세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바가 공산주의 국가시작이다. 그러니 사탄을 중심한 공산주의적 유물사관은 전부가 하늘 완전 유에 대한 한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는 양으로 하여서 최후에는 굴복을 향할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라는 바도 이 사탄 국가를 대하여 원리적 목적 형태를 가진 구조를 기독교는 단결하여 하나로 되어 하늘의 부모를 중심으로 합하여 세계통일 완성하

여 지상천국인 국가형태를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상천국이란 명사는 타락 세계이전 이었던 본원 현 세계를 두고 말한다.

그리하여 전인류는 주고받은 한 가정으로 한 식구와 한 형제로 완성하여서 최고선을 표준한 이상천주 완성을 수행하여야 할 바이다. 그러니 앞날 기독교인은 중심국가에 합해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유일 당을 건설하여야만 하나님이 신경계관을 조성하여서 전부를 사탄으로 하여금 빼앗아 넘겨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 신자는 앞날 세계에서 신경적 사명과 동시에 두뇌부에 역할을 하여야 할 바가 하나님이 세워 나온 것의 목적인 것이다. 만일 목적 완수 못하면 하늘은 기필코 이 목적을 딴 곳으로 향하여서라도 완수할 것이다.

지금 세계상에 비원리적으로 나타난 공산주의 대하여 원리적 하늘 공생공의주의로 하여 원화세계로써 순리적 세계의 건설을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이 중심자체는 물론 재림주를 중심하여 하늘 대신 완성을 지상에 완성할 바다. 그러니 전세계는 잃어버린 기본원리세계를 찾아 하늘을 대하여 대상완성하여 하늘 부모 앞에 드러서 형제에게 주고받은 세계를 조성할 바가 목적인 것이다. 참부모와 참형제를 복귀하여 차별이 없이 전세계가 화동하여 평화와 자유 이상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은 천주를 목적으로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니 지상 보아도 뜻에 섭리를 알 것이다. 51. 12/28

원리 복귀 세계란 창조기본자아 완성세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최고원리 완성을 보아 일체로 하기 위한 것이 본 뜻이었다.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한 몸으로써 신위에 합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니 사람은 미급적 위로써 퇴보하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상 위치까지 가지 못하고 상대위치서부터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도중에 타락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타락이란 명사는 미완전급에서 시작함이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그 존재 위치를 정하려니 언제나 완성위치를 찾아야 완전존재라는 것이니 이곳까지 사람은 목적하여 찾아 올라온 길이 구원의 노정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노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찾지 않으면 대상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니

모든 목적과 이상은 그 성립을 볼 수 없는 것이 창조적 원리로 되어 있다. 만일 사람을 한 상대로 하여 완전 주고받은 대상위치를 정하여야 사람도 근본 원리 선상이고 하나님 편도 창조목적 완성선상이니 비로소 한 일체화함으로써 전체 창조의 기본을 완성하여 합할 수 있는 시작을 보니 출발원리를 회복하는 바도 된다. 이것을 회복하려 하는 길이 과거 인류역사였고 성경역사도 된다.

그러니 사람을 증심하고 만원리 완성을 향하려니 인류는 역사 전 시대를 목표하니 인류역사는 원시출발점 시대형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비원리 출발급(타락 시작급)까지 돌아와야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대하여 기본대상의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탄이 먼저 사람을 주관하여 하늘 대신 모양으로 출발한 것을 다시금 취소하여 그 주관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원리적 굴복을 표준하고 나왔다. 그러니 사탄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는 최고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면서 나왔다. 사탄도 존재하는 이상 원리적 사실들을 가지고만 역사노선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빼앗으니 사탄은 하나님적 원리 완성급으로 찾아 나가는 도중에 몰려나가게 되었다. 그러니 사탄은 원리가 미완성급 중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미완성급에 처할 때에 타락하였기에 이 타락선 이상 원리완성을 성립하는 입장이 보여지는 곳에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의 요구 목적은 무엇이나 하면 타락선 이상 원리 완성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요구이며 목적이다.

그 미성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을 향하는 것이 천주 완결 원칙이니 사탄이 다른 입장을 취하여 나서는 입장도 원리 완성을 향하는 것 밖에 길이 남지 않았으니 부득이 거짓 완성급을 취하여서 하늘을 대하는 한 것이다. 그러니 사탄은 인간세계에 미완성 시대로 그냥 있고자 하나 원리 곧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니 사탄 존재 최종점이 비원리 세계에 반드시 있는 바다. 사탄은 결국 나가고 나가 봐야 자기존재 할 수 있는 위치는 없어지고 원리점을 향하여 나오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증심으로 되는 기본점으로 돌아오는 바다.

그리하여 기본 하늘을 증심하는 사람 세계로 되어 타락원리와 복귀원리를

전부 사람 세계에서 알고 나서 완성으로 향하니 사탄 무대인 미완성급 부분은 종말을 다하게 되어 사람한테까지 자연 굴복으로 되는 것이다. 사탄이 굴복하는 그 종점지는 어떤 곳이나 하면 기원 타락 출발지 본부점으로 되는 역사는 기본 타락의 출발점인 원시시대형을 향하여 복귀하는 증거로서 보게 된다. 그러면 사탄은 굴복할 수 있는 원리시대는 어떤 시대나 하면 기본 원리 완성한 하나님을 중심한 존재가 생겨야 시작인 것이다. 역사가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 왔으니 사탄도 기본점에 돌아왔으니 하나님도 출발점을 찾아왔으니 그 다음은 누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로 찾으려니 반드시 처음 출발점에 왔어야만 시작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그곳에 와야 도로 찾겠으니 그곳을 향하여 찾아오는 역사는 무슨 목적이냐 하면 다시금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맨처음 출발점을 향하여 원시시대형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 이 돌아오는 것이 인간에게 기쁜 것이며 행복의 시작을 고하는 것은 물론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바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와 성신이 역사하시고 하늘 천사와 하늘 사도 이하 하늘 식구였다. 이리하여 재출발할 수 있으니 원시형적 출발점을 중심하고 생겨야할 문제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찌되느냐 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바다.

즉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 완성인 이상으로 출발이란 결론이 된다. 여기서 부터가 타락 없어서 출발할 것인 기본 원리 세계로 전개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계는 재창조 세계인 동시에 재출발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요구되는 것은 원리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겨야 하는 것이다. 이 존재가 근본 인생조상인 것이다. 이 존재가 완성 아담으로 오는 재림주다. 이로 인하여 천주의 중심 부모가 완성된다.

만일 타락 없었으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여 전인류는 기본 혈대로 인하여 영생으로 시작할 바가 기본이었다. 그저 인간은 원리 세계였을텐데 즉 아담 해와는 우리 기본원리 완성부모로써 하늘까지 완성할 것이었는데 타락하고나니 사람의 부모는 비원리적으로 되어지고 근본원리 부모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되어지니 사탄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하여 원리의 길을 막고 나왔다.

그러니 사람은 무한한 가책을 받으면서 양심 구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원리적 아버지격으로 계셔야 하는 것이 원리적 목적이었는데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이러니 근본 사람을 찾아 세우려니 기본 문제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무타락시 원리완성 부모격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도 이 목적 위하여서였고 재림주도 이것이 목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리적 지상 기점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늘에서 지상 기점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바가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기본존재 3차 아담으로 나타나서 기본 문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니 재림이란 명사로써 섭리를 남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부모 없었던 자식이 전세계 인류였던 것을 지금에 와서야 찾아 주는 것처럼 하여 타락으로 인한 인류 앞에는 한 원리적 무타락원리 부모로 혈통을 전환하는 격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류는 양자격으로써 본 혈통을 계승하는 입장을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인류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였던 존재인 가치없는 자였으나 처음으로 가치를 찾아 세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바냐! 그러니 무엇으로 감사할까? 부모가 없던 우리에게 부모를 찾았다는 희소식은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인류는 물론이고 이미 하늘에 간 성도 역시 낙원이란 준비처에서 거하는 것은 기본 원리완성을 위하여 고대하는 바로 되어있다. 그러니 천국 간 영인체나 그외 전 하늘 존재는 천국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천국은 하늘 부모를 중심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낙원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하늘 간 성도가 재림일을 무한한 희망일로 바라는 것은 물론인 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늘은 원리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땅으로 인하여 미완성한 하늘로 되어있다는 것도 알 줄 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류는 이 기본 원리점으로 중심지점하고 회전하여 가는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 금후부터는 보답의 길은 원리 완성하신 재림주를 중심한 부모와 합하여서 기본 혈통의 계승과 합하여서 지금까지 비원리로써 우리를 기만하여온 사탄에 대하여서 주관과 동시에 지배하여서 갇아 되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

로 되는 것이다.

6천년 동안 많은 성도를 죽여왔던 존재며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하여 고통에 처하게한 존재를 처치할 방책을 가지고 있음이 재림주 중심한 세계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인류는 원리적 중심 부모를 받들어 모셔서 전체완성을 목표하여야 한다. 이것을 알고 얼마나 성심을 다 하여도 부족함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지 못하면 원리를 바라오던 사탄이 우리로 다시금 침입하는 길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 원리 부모를 알고 받들어 모심이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는 중심 방패로 되며 승리에 기본이다.

그러니 이 타락원리를 우리는 얹으로 사탄 대할 적에 그 본부적 사실로써 충고하면 사탄은 하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니 비로소 원리 완성한 사람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 침입의 역사적 유래를 전부 아니 우리는 원리를 완성하여서 기본 창조 권위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것도 된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다른 존재가 소유하였으나 알고 난 후에는 자기 것으로 찾지 못하는 자는 지상에 존재적 가치가 없는 바로 되어 사탄 지배자라는 바로 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 전부를 주관복귀 완성하니 비로소 원리로 시작하는 기점상과 합하는 바로 된다. 그러니 어떤 악마라도 기본 원리상 존재에게는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전부가 기본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된다. 죽어도 기본과 합하기 위해서고 살아도 기본 합하기 위하여서라는 입장이면 자연 기본원리는 완성하는 것이다. 하늘에 원리적 자녀는 타락되었던 세상에서 명심할 것은 타락 근본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리점상에서 언제나 있다면 죄란 명사와 악이란 명사는 우리 인류세계와는 작별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가 없으니 죄와 악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타락이 없는 원리 세계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적 하늘 부모를 성심을 다하여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이다. 그 부모 품 안으로 왔어만 성사라는 기본 자아완성을 보는 것이다. 그 어찌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서 모셔야 하지 않으랴!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세계에 없는 효도를 다 하여야 하겠고 또 충신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 세계상에 충효는 일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본점을 바라오면서 거짓 존재가 먼저 흉내 낸 것이다.

그러면 원리 완성점이란 것은 타락원리를 알고 하늘 부모에게 충효하는 것

이며 육신의 부모한테 충효하여야 하며 또 부부는 하나 되어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니 전부가 이곳에서 완성을 본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가정의 근본으로 되어있다. 전부는 하늘을 중심하고 하나로써 되어서 합한 가정이 이상적 가정인 바면서 사탄 주관 못하는 영생 가정이 완성을 보는 것이다. 사회에 대하여 서로 선한 완성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전체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세계는 충신을 높이는 시대는 효도를 높이는 시대요, 사제의 의무를 완성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면서 뜻을 중심하고 내것 만으로 아니 하는 주고받고 하는대는 하늘 부모를 중심하고 주고받은 시대로 하여 하나의 목적으로 온 세계는 주고받은 세계로 어디나 원리가 통하며 원리로 완성하는 세계로 하여서 전세계를 한 목적으로 유심론과 유물론이 서로 통일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 각자가 온 세계에 형제들이 중심부모를 통하여서 주고 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전세계는 내 하나 원리 완성한 존재면 어디나 통하지 못함이 없는 세계로 된다. 내가 완전 하늘 대상이면 다른 대상 곳과는 통하는 바가 사실인 것이다. 이리하여 온 세계가 국경을 무너뜨려 한 형제로 기본원리를 찾아 지금까지 역사는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 세계에서 찾아올라왔으니 다시는 타락이 없는 바다. 그러니 누구나 완성을 위하여 충돌격하는 시대니 악이나 죄를 보면 끝까지 청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할 바다. 그러니 온 세계를 자기의 세계로써 합하는 형제로써 민족이 분별없는 이상민족 건설을 하늘은 목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 아는 신자는 온 세계가 이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노력할 책임이 있는 것이면서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목적이니 효자나 충신이 되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비원리를 처치하기 위하여서는 비원리 존재가 지배하는 공산주의자를 대하여서 더 철저한 단속으로 집결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사탄이 자기 남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공산주의를 처치하여 인계받아 공생공의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탄은 전부가 원리적 흥내를 내는 것인 바다. 그러니 우리 신자는 원리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되어서 합하여야 한다. 소위 공산당원들이 당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하는 것은 비원리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진하여 하늘 부모와 합하여 모심으로써 악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할 바가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공산당원들은 믿지 못하여서 서로 정보원을 달아놓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강제로라도 이루어 보려하는 것은 전부가 반대로 흉내내는 것인 바다. 즉 하늘을 중심하고 이런 세계가 되니 종말에는 스스로 자진하여 믿음으로써 되는 시대가 오면 사탄은 이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비원리 소유를 찾는다는 흉내를 내어서 그들이 전부 불신으로써 대하는 바는 자기본체가 불신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즉 악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섭리하기에 세상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 하늘 뜻 완성을 예고하는 것을 원리으로써 알 바이니 금후 세계관도 자연적 해결될 바로 된다. 그러니 우리의 이상시대는 악과 죄를 상대하지 않고 선과 의를 대하니 악이 있다 하여도 도리어 하늘 뜻을 돕는 한 자극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악을 대하여 자아 단속이라는 바가 중요한 것으로 된다.

그러니 뜻을 중심하고 생활할 것이며 생애로써 목적하여 자아완성하면서 전체완성으로 협조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 원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로지 뜻만 중심하고 나아가면 전부가 행복이란 곳으로 되는 바는 사실이다. 그러니 자아 완성하여 하늘 대상이 되면 지상 상대를 취하여 자아와 완전 합하는 대상 완성하여 한몸이 되고 육신부모와 하나되고 하늘 부모와 하나되어 하늘과 땅이 일체 완성하는 입장을 정하고 만물까지 하나로 합하게 하여 나아가는 그곳이 우리 원리 완성인의 사명으로 된다. 이것이 이상론의 목적이다.

이것을 위하여 6천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근본목적이면서 완성하여야 하는 인간에 한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때를 다투어 지상천국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생각하면 통분하지 않는 자 있다면 그곳 역시 하늘 대 하여서 원리적 입장이라 못할 것이다.

이 원수로 된 사탄이 아직까지 그 활동무대를 갖고 있다는 곳을 향하여 정면 공격으로 파괴하여서 완전 세계주관 이상을 완성하여 뜻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하는 세계를 조성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바의 목적을 채워드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고통 당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위 사탄을 중심한 공산주의자들도 원수 품에서 지상만으로 목적하

고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거늘 우리 이상 완성하는 지상천국과 동시에 하늘 완성을 위하여 노력치 않으면 후대에 남아지는 원한을 무엇으로 대할 것인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는 그 이상 큰 죄가 없는 것이다. 알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언제나 미완성자니 그 존재는 원리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구속과 탄식을 당하게 하여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서로 협력하여 중심을 높이면서 자아를 빨리 완성하여 원리주관 완성은 하늘은 우리를 대하여서 고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상목적을 빨리 완성할 것이다. 여기에 기본 자아완성과 하늘 기본 완성이란 목적을 보는 것이다. 12/29

창조세계가 진화적 논리에 적용되는 근본 뜻

창조세계상에는 존재란 명사를 가지고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취하여 대상완성을 목적하고부터 시작하는 것은 알 줄 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 기본원리 완성기대를 잡고는 목적완성을 하여서 시작되고 있다. 원리시작은 상대를 시작함에서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목적완성은 대상완성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바로 되어있다.

그러면 한 존재가 시작하는 상대위치부터 대상위치까지 찾아 나오는 데는 진리 노정으로 보여져 그곳은 한 단계를 향하여 처음 발생에서 성장으로 완성으로 하여 완전 대상존재로 하여 작은 소 존재물은 큰 대에 존재물에 대한 완전대상 목적을 구성하는데 한 요소적 존재목적 취하여 전체 합하여서 한 완전한 기본대상을 향하여 전 천주 존재물은 연관 적 입장에서 성장으로 완성으로 하여 최고 하나로 합체하여 완전 기본완성을 향하여 협조하는 요소적 위상으로써 존재물들은 각 개성위치를 가지고 서로 합하여 받고 주고 하면서 한 결실 목적으로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이 창조 세계의 진리인 것이다.

그러면 존재 세계에서 작은 것에서 것 것으로 완성을 전부 목적지로 하고 있기에 작은 것의 존재목적은 더 완전 큰것의 존재물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간존재로써 되어 소에서 증으로 대로써 완전 대를 향하여서 나중에는 최후 대로써 합하여 존재적 연락을 취하여지게 되어있다. 그러니 이 사이에서는 그한 자체를 잡아보면 거기에 한 불공평한 모습으로서 돼보인다. 그러니 그 존재물로써는 그 전체목적 위치로써 보면 한 고립적 입장을 취하여서 보니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단순한 존재세계를 떠나 복잡한 존재물 세계는 구성 못한다.

그러면 단순한 존재란 전체 복잡한 형태의 목적 세계에 한 소생적 위치나 장성의 위치나 완성위치나 그 목적 사명 분담이 각기 다른 것이다. 그러니 그 존재물들은 그 입장에서조차 이들이 개별적 존재로써도 발생 성장 완성이므로 하여 목적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완성되면 그 사명을 다하고 개체의 목적을 완성하여서 전체 목적에 한 이용을 필요로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니 피조물세계를 보면 전부가 한 발생시기와 성장시기와 완성시기로 하여서 소에서 대로 합하여 전체적 피조물세계 대 목적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은 물론인 것이다. 그러니 피조물 세계는 어떤 존재든지 자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존재하는 이상 상대위치나 대상위치를 정하기 전에는 한 전체 목적으로 향하여 존재하는 원리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바가 천리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에는 상대와 대상을 필요로하는 것이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위치를 정하여야만 자아완성인 동시에 상대와 대상 완전히 완성하여서 한 목적 존재위치를 정하는 바가 물론인 것이다. 그러니 서로 돕고 서로 합하여서 더 완전한 목적으로 진급하여 주면서 소에서 대에로 기본 완성 목적 대상을 향하여 총합하여서 대하는 입장을 존재세계에는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존재위치란 바는 기본 대상 위치를 정하여 나오는 도중에서 보여주는 한 천주에 요소 형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작은 존재목적은 큰 존재목적에 위하여서고 큰 존재는 한 완전 기본목적에 향하여 합하고는 또 다시금 소로서 나누어져 전체 개성 존재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천주에 존재하는 창조물 세계에 진상인 것이다. 그러니 각 개성 존재물은 그 입장에서 자아완성한 입장을 취하여서 연결체를 취하는 바로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천주 존재물 세계는 전부가 완전히 기본적인 목적의 완성을 향하여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완전기본 존재 목적체란 무엇이나 하면 온 무형의 영계와 우주가 한 중심 창조주 대하여 한 상대 위치를 정하는 바로 되면서 그리하여 대상 완성하여 주고받은 목적완성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천주를 보면 누

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그 존재 목적은 주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면 피조물 세계가 주인 대신격으로 되어 상대 위치를 바라면서 동하면 응할 수 있는 대상완성을 목적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창조 주 위한 존재물 세계가 피조세계의 목적인 것은 물론인 바 다.

그러면 존재물은 각기 분립하여서 그 목적완성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전부가 합하여서 주고받은 목적 향하여서 전체 목적을 협조하는 입장에서만 완전목적 달성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전부는 각기 분립인 존재가 아니고 연관적 존재위치로서 완전 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리하여 제각기는 제각기가 원만 완성을 하여야만 전체 기본 대상 완성을 하는 입장으로 된다.

그러니 그 존재물도 전부가 완전히 기본완성하는 성장적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소에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으로 되어 있으니 대에 존재는 기본 목적완성을 위하여서 소를 취하는 현상으로 되어 소에 존재가 대에 존재물에 희생으로 되는 듯이 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특히 동식계에 보여주는 현상으로 되어진다. 이 점에서부터 미완전 존재는 완성존재를 위하는 한 진로적 위를 보여주어 한 완성목적 향하여졌기 때문에 소에서부터 대에 존재로 진급적 창조섭리를 보는 바로 나타나니 한 진화적 논리가 적용을 보면서 강식약육이란 다윈의 논리를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세계는 반드시 발생적 위치급 존재물과 성장급 존재물과 완성급 존재물로써 천주는 제각기 사명적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생에서 성장으로 완성으로 향하는 도중에는 중간적 존재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물 세계이므로 다윈의 진화논리가 존재물 동식계에서 합치를 보는 바로 되어진다.

그러니 다윈적 진화 논리가 적용되는 기본 원인도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하여 존재하며 큰 것은 완전목적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는 소를 합하여야 만이 본 창조 목적 완성 보겠으니 천리적 완성을 위하니 그 존재목적 완성을 하려니 그 소 존재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목적을 완성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모든 존재는 목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것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목적을 대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대로 존재하는 이상 기본 주인 위하여서 존재한 결론으로 된다. 그러니 피조물 세계는 창조주에 목적 때문에 모든 존재는 소존재물로서 시작하여 대존재물로 순서를 보아서 창조받은 존재라는 바로 된다. 만일 그 목적이 없는 존재는 그 위치를 피조세계에 존속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최고목적은 기본 주인공 창조주를 위하여 완전 대상 위치를 취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 결론으로 되니 그 대상존재는 천주에 결실 존재면서 완성존재인 바며 창조주 대하여서 상대위치로 하여서 대상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피조세계를 보면 이 기본완성 최고상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나 하면 사람이 것이다. 그러니 사람하나를 위하여 소와 대에 대한 존재위치를 가지게 한 목적이 있는 바로 된다. 그러니 사람 하나 완성 위하여서 천주간 피조물은 그 목적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은 창조주에 상대위상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 하나 중심한 세계니 사람하나 미완성하니 천주물 존재목적은 전부가 합체 완성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천주간 존재적 사명은 미완성으로 되니 모든 존재물은 사람을 향하여 그 목적 추구를 필요로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타락은 전부 타락이란 결과를 보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존재물은 존재하지만 자기의 목적 미완성으로 되는 크나큰 천주에 대하여 책임 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니 온 천주 타락의 시작으로 되는 원인을 보는 바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모든 존재물은 연관적 책임을 완성하여 사람에게로 향하여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러니 사람없는 세계라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부는 존재하더라도 미완성 존재물이니 그 목적은 미완성인 것이니 천주사이에 존재적 가치가 없으니 자연이 목적 세계에 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위하여 그 존재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위치를 정하게 된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고 만 세계 그냥 되어서 타락적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위치인 것이다.

그러니 타락이란 명사는 목적이 없는 위치에서 생기는 명사인 것이다. 목적이 존재하는 입장에는 타락이 성립 못한다. 그러니 인간 타락이란 것은 목적이 없는 입장에 서는 것이므로 전부는 목적 세계상에 추방선을 향하니 탄

식이 시작된 바다. 이 입장을 다시금 돌려 목적 위치를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전부는 완전 목적지를 찾은 곳으로 돌아오니 만 천주는 희망으로 되어 다시금 전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목적 결과인 존재가 사람이니 이 사람의 완성을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정인 것이다. 이러니 기본 창조목적 완성은 언제이나 하면 전부가 기본점 회복 필요로하는 것으로 되니 타락 세계는 역사출발점 원시형점으로 향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목적완성 곳을 증거하는 것으로 된다. 그 기본원리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듯 사람은 온 천주 중심목적 존재니 과연 전 만물의 영장인 것이다. 그것은 하늘 주인 상대 위치니 과연 이런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하나는 그 존재물 세계에 합한 존재다. 그 사람 중에는 전존재 요소가 전부 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 창조세계 보면 창조물 완성 존재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 중에는 창조세계 전부가 들어가 있는 양상으로 표현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도 그 자체 중에 모든 구조적으로 완전한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니 사람 하나까지 창조 진전을 살펴보면 이 창조세계는 전체 합하여 최초 발생적 창조부분이 있고 성장적 창조 부분이 있고 완성적 창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조물주의 천주창조의 순서를 보면 반드시 창조적 최초 발생 시작이 요구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6일간에 창조하였다는 성경 창세기 창조기간을 보면 과연 그 중에는 처음 발생 창조로써 빛과 공기와 물과 땅의 창조를 보게 된다. 그 다음은 성장 창조급으로서 천지에 대한 질서 창조와 식물 창조를 하였다. 다음은 완성 창조급으로 동물 창조인 것이다. 이렇듯 창조된 천주도 창조급적으로 처음에 발생에서 성장으로 완성이로까지 창조되었다. 그러니 하나님도 창조한 순서를 보면 발생급으로 성장급으로 완성급으로써 시작한 바는 사실이다.

빛과 공기와 물과 땅이란 창조는 모든 완성 뜻을 위함에 기초적 창조였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질서를 둔 존재위치와 식물 창조는 그 완성목적에 나아

가는 중간 존재라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이 질서로는 천주를 구분하여 그 위치를 정하고 식물은 완성물에 대한 중요 증개 존재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식물을 중심하고는 완성목적 존재인 동물로 하고 있다. 그러니 동물은 식물 떠나서 존재 못한다. 바다에 동물이나 육지에 동물이나 그 완전 생존 위하여서는 식물을 전부 주로 취하는 모양으로 된다.

작은 동물은 식물에 의하여 살고 큰 동물은 작은 동물을 취하여서 생존하나 기본에는 식물에서 부터 물질적 한 위치 인상을 보여 주면서 서로 그 창조 기본목적에 향하여 자기존재의 위치적 사명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전부는 완전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창조급으로 보면 동물은 완성급인데 사람의외 동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특히 한 사람을 위하여 위로물로써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그것보아 사람은 더 높은 이상존재를 위하여서 지음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이 활동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상적인 삶의 시작을 소개하는 존재물들이었다. 이런 창조급으로 보아 처음 발생급 창조와 성장급 창조와 완성급 창조로 하여 전부는 한 완성 목적에 향하여 완전 기본 존재 목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전부는 그 방향성을 사람까지 취하여 연한 표현화로써 전개를 잡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한 발생시기로부터 성장시기로 완성시기로 하여 완전을 조성하여 돌고 돌아서 합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진화 논리적 입장으로 보면 모든 존재물을 분별하여 놓고 그 자체 하나만으로 구분하여 논리를 세우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즉 모든 존재물은 출발점 목적 완성을 향하여서 진급노정을 취한 것은 망각하고 세운 논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기원론으로 하여 아메바를 주로 하여서 나온 바다. 만일 아메바로 인하여 그 논리대로 진화한다면 지금도 그 노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은 진화급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나 하는 것은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그것을 보아도 진화적 목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창조 본의적 목적으로 하여 본래부터 기본위치를 정하고 발생에서 성장으로 완성으로 하여 한 전체 완성 목적급 사람까지 미생물로부터 처음 발생 성장 완성하여 나온 바로 된다. 그러니 다윈이 말한 진화적 입장이 아니고 점진적 성장을 표시화한 모양으로 창조하였으니 질서적 노정을 보여주어 진화적 논리에 부합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를 목적하여서 부분적 요소 체형으로 벌려 놓으면서 또 다시 합한 완성체를 본 바가 사람 창조까지 나온 전체 존재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되어 그 목적 완성체를 완비하여 진화적 작용은 증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란 존재 중에는 모든 존재물을 합한 존재와 같은 구조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기본목적 존재고 그외 존재는 사람까지 나오는 한 완성 요소형을 취하여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하니 인간을 기준하여 그 존재형으로 표현화 시켜서 사람에 위로물 세계를 조성한 바가 동식물체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 하나 중에는 전부 합한 중심 기본체로 되어있다. 천주창조 발생급과 성장급과 완성급을 전부 받아야만 이 완성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즉 빛과 공기와 물과 땅과 + 식물 + 동물로 되어 있다. 그 중심 한 부분만 없어도 미완성하니 사람은 전부를 합하여서만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 위하여서 모든 존재물은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합체 기본목적 완성을 향하여 협조 완성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 구조를 보아도 사람은 전 존재물계를 합하여 대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분석하면 전 요소를 보여주는 것도 그 목적으로 인한다. 또 사람 하나는 온 천주를 상징하여 지었다. 천주 전체를 상징하여 보여준다. 처음 발생부분급으로 골격을 보여주며 성장급으로 몸을 보여주며 완성급으로는 내부기관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 부분들은 천주 존재물을 상징하여 있다. 사람 위장의 부분은 식물 요소로 한 부분이고 심장이 몸에서 약동하듯이 한 동물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폐는 공중의 공기로 숨을 쉰다는 측면에서 하늘의 표시로 한 부분이며 두뇌부와 신경은 하나님을 표시한 부분이며 외부로 보여지는 양손은 하늘 부모 표시로 두 다리는 땅 부모로 표시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듯이 사람 하나 중에는 온 천주 전부가 표시형을 취하여 지음받은 완성격을 보여주어 지었으니 과연 하나님 대하는 상대로 하여 대상목적을 책임진 위상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하늘 땅을 통하는 표시로써 뉘 동물과 다르게 저서 남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을 완성하여 놓고는 하나님은 만족한 바는 이와 같은 전체 합한 존재니 과연 기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 성품적 입장을 볼 때도 어떤 만물이 가지지 못한 완비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자체 중에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형을 취하여 합한 자체이니 만물까지 주관할 수 있는 완전 존재였다. 주관하는 것도 그 사람 자체 중에 있어 한 목적을 향하여서 지배받을 수 있는 급에 세워 두었기에 하나님은 사람 대하여 명령하심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만 완성하였으면 온 천주 존재 완성이니 존재물은 사람을 향하여 목적하게 되어 있으니 사람이 만물을 통솔할 수 있는 창조성급을 연하여 있기에 주관이란 과연 원리적 사실이었다. 그러니 존재물 전부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기본 목적의 완성을 목적인 존재니 그 창조성 요구로 되니 자연히 사람을 중심하고 우좌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한 천주는 사람까지 향하는 요소체로 벌려 놓은 것이면서 완성한 사람의 또 상대하는 세계도 역시한 모양형을 구성하여야 사람들 중심한 대신세계로 되니 세계상 전부도 사람형을 근본삼아 시작하여 그도 처음 발생으로 성장으로 완성으로 하여 사람 대신형을 표현화 하여서 세계도 발표하는 것은 기본과 하나로 합하여야 하는 천리적 기본 목적을 완수하려니 사회나 국가나 세계도 사람의 인체구조처럼 구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구상에 사람 대신 구조형 세계를 조성하여 사람이 기본 상대형을 취하여 대상목적을 완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하고 온 천주와 온 세계를 기본창조 본성을 완성하여 원리주관을 시작할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만물을 합하여 사람을 이루고 세상을 대상 되어야 합하여 하늘 대상 완성하여 땅이나 하늘이 지상천국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 세계는 일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반대성작용은 각자가 원리완성을 위하여 존재함』

천주에 존재물은 전부가 원리완성을 위하여서 존재한다. 존재에는 그 상대 위치』로 하여서 대상 완성을 위하여서만 존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 어떤 존재라든가 반드시 상대를 완성하여 대상을 향하는 것이 완전 이상형이다. 이 이상형이 무엇이냐하면 완전원리 완성지인 것이다. 그러니 미래

이상이란 최고원리 완성지인 것이다. 그러니 어떤 존재물이나 자기가 취할 이상목적지를 정하려고 하여 총동 작용상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의 기원이나 힘의 기원도 여기서 부터다. 그러면 본래부터 반대성이란 존재는 없었던 것이냐하면 그렇지 않다. 본래부터 있다. 반대라는 명사는 비원리란 것이다. 즉 원리를 파괴하는 침해작용이다. 그러므로 각존재물은 원리를 반하는 작용이 생기면 그 자체는 배척하는 작용을 한다. 그것은 원리선상에선 자체에서는 보호적 작용인 것이다. 그러면 본래부터 한 존재물은 자체에 대한 완전 상대위치를 잡아 대상 위치라는 것은 각 개성체로 인하여 다르지만 최고목적 100% 작용하는 제2 나를 표준으로 정하여 하나로써 한 회로작용하는 것이 원리인 것이다.

이 작용이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 자체는 대신으로 찾아서 채우고자 하는 제2작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완전 하나되면 제2작용할 수 없는 것이 원리인 바다. 그러므로 각 존재물은 전체 대상 목적완성을 정하여야만 원만한 존재를 정하는 것이 천리인 것이다. 그러니 그 목적완성까지 존재물은 원리완성 작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있다. 그러니 만일 원리완성하여 있는 곳에 다른 존재작용이 시작된다는 자연적 자기가 취하는 원리선을 유지하려니 다른 존재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 힘은 크면 클수록 정미래작용을 따라 작용한다.

그리하여 거리를 두고는 반비례하여진다. 그리하여서 자체가 침해받지 않는 곳까지 작용 경계로 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힘이란 것은 기본원리 완성을 위하여 존재물은 어느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물 전부는 원리완성을 하려니 그 작용 대상권을 취할 작용을 하는 것은 천리작용인 것이다.

이 작용이 있었어만 원리완성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리작용으로 보면 완성한 곳은 한 보호작용권을 조성하는 바다. 그때까지는 처음 발생 성장완성으로 하는 한 기간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완전대상 작용위치만 잡으면 언제나 존재위치를 정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분립성으로 하여진다.

그러니 특히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천사 등도 전부가 원리 완성할 책임선상

에서 있어 원리권 완성을 보아야 하는 것이 창조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면 온 천주에는 창조단계를 사람이 나중이니 그 모든 창조물은 전부가 원리성을 합하여서 그 작용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그 원리선상을 아직 성사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 한 상대로 하여 대상 위치를 정하여야 100% 안전지대인데 그곳을 잡지 못하였다. 그것이 타락이다. 그러면 그 미완성 부분만큼 나로서는 언제나 원리적 작용을 보여준다. 그러니 양심적으로 반하는 타락성 생활위치에 서니 불안과 불만이 시작하는 것이니 계속하여 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리완성 100% 안전지대를 향하여 원리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양심작용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원리를 향한 선을 100%로 할 곳을 사람 완전을 향해야 시작인데 사람이 타락하니 한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전부가 완성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본은 하나님 대하여 주고받아야 원리완성인데 전혀 다른 사탄에 대하여 주고받으니 원리성 품은 지금까지 변함 없이 작용한다. 그러면 사탄 존재는 만족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역시 불안한 것이다. 그러니 기본 원리지대가 전부 완성하지 못하니 천주 전부는 그 작용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불안 작용은 원리에 대하여서 반대작용을 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란 명사는 원리를 완성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서만 시작한다.

그러니 만원리 완성된 곳이어야 하는 것은 반대없는 것이다. 그저 영원을 위하여 주고받은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타락 시작도 보면 사탄이 역시 비원리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원리적 반대 작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힘의 사탄 한 공포와 불안을 감촉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곳을 바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불안 향하여 동작함이 타락의 시작인 바다. 그렇기에 타락전 사탄 역시 원리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작용을 받고 있었다. 그것 역시 완전 대상을 표준하는 것인데 그 비원리 작용심을 가지고 향하였을 때 그 자체 내에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원리적 힘의 작용을 감촉 받을 때에 그대로 응하였으면 타락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타락시켜 놓으니 천사장이었던 사탄 역시 타락인 것이다. 그러니 사탄 역시 불안형을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 대하여서 주고받은 형를 취하여 사탄은 하나님 편에서 떨어졌지만 사람과 합하니 원리적 작용을 들려 사람 대하여서 작용하는 셈이니 사탄은 사람에 대하여 자기 상대로

대상 위치를 정하니 사람은 미완성급으로 미완성 작용한다. 사탄은 자기 이상 원리 작용은 완성한 위상을 정한 셈이니 사탄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만족감을 갖는 작용무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대하여서는 완성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 역시 하늘을 대하여서 언제나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 행동은 원리완성을 중단한 입장에서 미급에서 머무른 행동으로 하여 타락 세계를 조성한 셈이다. 사람은 언제나 미완성이니 불안인 반대작용이 시작함이다. 그러니 이 반대 작용을 제거하여야 원리완성이니 이것을 찾아 주려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타락이란 명사는 처음 발생에서 성장으로 완성으로 향하는 중간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완성하려니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사탄이 사람과 대상 위치를 정하여 원리완성을 막은 정지상태를 보여주니 이것을 끊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끊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사탄 역사다. 만일 끊어지면 원리 상대가 없으니 원리세계에 힘은 전부가 사탄 대하여 반대작용한다. 그러므로 큰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완성 위한 역사와 사탄은 자기 하나 완성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급으로 볼 적에 사람은 100% 하나님 편 대상 존재인데 100% 이하 급인 사탄을 대하니 사탄은 이상 만족하나 사람은 그 차이에 대한 반대작용이 남아지는 것이니 지금까지 구속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을 기본으로 작용한 것을 대하려니 사탄은 반대 작용하나 사람과 하나님은 원리작용하여 서로 합하는 작용을 필요로하여야 할 바로 되었다.

그러니 타락함으로 기본 대상위와 대상위는 완성한 존재는 사탄 하나로써 비원리적으로 완성을 하였다. 그러면 창조목적은 사탄 중심이 아니니 그 목적은 사탄권을 넘어 본권내로 향하려는 작용권을 조성하려는 것이 기본이니 기본완성 하려니 사탄 하나만 완성된 듯한 존재위치를 불안하는 작업이 천리적 요구이니 하늘은 자연히 이 뜻을 세운 것이다. 그것은 원리 완성하려니 그와 같이 되는 바다. 만일 타락 없어서도 사탄은 타락된 사람 대상위치 존재는 가질 것이다. 그런데 뜻이 성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 불안한 상태로 상대인 사람을 취하려고 한다.

만일 원리완성 하려는 작용이 없으면 사탄은 행복이나 하늘이 계시는 이상

원리 작용하니 불안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히 원리를 이루기를 원하니 파괴 못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원리를 완성하면 즉 사람은 원리선상에 세우면 사람은 원리선상을 영원히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완전 원리점은 하나님과 합하여야 100% 지상으로 된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대하는 한 상대 위치로 하여 주어야 대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리적 기본 작용 무대를 조성하니 다른 존재는 자연적으로 배척 하는 작용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사탄 역시 침해를 못한다.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대하는 원리 완성상은 사탄은 존재할 수 없는 권내를 비로소 완성을 본다. 지금까지 사람이 미완성급에 처하여 원리 대상 위치를 연결하였음으로 사탄을 배척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비원리적 목적을 향하여 사탄을 대하였던 사람은 원리를 완성하고 주관하니 이것을 대하였든 사탄은 배척 당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리로 대하니 원리로 완성된 급은 남아지고 그렇지 못한 것은 파괴를 보여왔다. 이러한 원리완성 역사가 인류역사로 나타났다.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신에 대한 반대 작용을 인간 세계는 받으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원리 침해자 사탄을 제외시키기 위한 원리 작용 힘의 선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란 명사는 자체 원리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인 동시에 다른 존재물에 대하여 완성 위치를 조성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물은 전부가 대상 위치를 갖고 있으니 너희 완성을 찾아가라는 것이 반대 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그 작용은 전부가 완전을 위한 힘인 것이다. 그것이 방향을 완전히 잡지 못하니 비원리가 되어 악에 본선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선은 무엇이나 하면 원리작용을 완성하는 것이든 악은 비원리작용을 조성하는 것이니 여기에 선악에 대한 분림을 보는 것이다.

그 작용의 전부가 본래는 선 완성을 돕기 위한 존재다. 그 완성작용 노정을 막는 작용하니 악으로 되었다. 이러니 악 반대는 본래부터 선할 수 있는 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악은 선에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완전 선에는 악이 없을 것이었다. 세계에 악의 기원은 완전 선을 완성 못한 때 시작한 것이다. 즉 선완성을 찾아 나오는 도중에 시작한 존재로 된 것도 안 줄 안다. 그러니 악 주인 사탄도 종말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

수 있어야 원리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목적하고 나오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을 완전한 대상 위치로 정하는 원리세계가 피조물세계이다. 그러니 이 목적 완성 위치는 자유위치로 된다.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은 구속으로 되는 바가 천리다. 그러니 세상이나 하늘이나 전부가 이 원리를 완성하여 있다. 그러니 자기상대와 대상 위치를 찾아서 거주하는 바로 된다. 그러니 이것이 한 위치에 구분으로 하여 질서를 조성하여 개체완성으로 하여 연결하여 중심 하나님과 대하는 세계가 하늘인 것이다. 이것이 지상완성이 지상천국인 것이다.

그러니 자기 위치를 잃은 자는 파괴가 되면서 존재가 사라지는 곳을 향하는 것이니 원리작용 반대력이 자연히 작용한다. 이 작용이 사람의 양심 작용인 것이다. 양심 작용은 완성원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천당 지옥도 전부가 자기상대 위치를 질서적 위치로 정한 곳이다. 만일 지옥위치에 있는 자가 천당에 온다고 하여도 그 위치와 계급이 통하지 못하는 것이니 자연적 위치를 못하고 각자는 자기완성 상대위치를 정하여 대상을 조성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원리완성 복귀하면은 지옥해방 운동이 시작하는 것도 알 줄 안다. 그러니 사탄도 존재하는 이상 상대와 대상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 목적 천주에 존재할 수 없겠으니 하나님한테 나중은 회개와 굴복으로 된다. 이 원리작용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원리를 적용한다. 하나님은 완전 고 사람은 완전 이다. 그러고 땀 존재물들도 이와 같이 필요성의 대상 형태를 취한다. 하나님 대향을 향하여 사람은 목적 위치를 완성 못한 때에 타락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완성 위하여서 사람을 사랑으로 합하지 못하고 고대하였다. 그러니 사람 부분은 타락 작용을 받되 직접 작용이 하늘를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타락의 시작을 본 것이다. 창조세계의 전부는 원리완성을 위하여 반대 작용하는 힘이 있기에 각자 완성할 수 있는 창조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상 행복을 표준하게 되어 있으니 사탄까지 안심하는 자유로 두어 원리결과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사탄 역시 불안이 없는 입장을 취할 바가 천리였으니 하나님의 태도는 비원리라는 일은 염려치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니 염려 없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원리작용을 가지고 각자 완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

기에 안심 세계였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주관한 것이다. 전부가 원리완성을 목적하니 그런 목적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리 주인공이다. 원리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겠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니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완성상대 위치를 취하여 완성하면 대상 완성할 것이었다.

그러니 그곳까지 못하고 타락된 것이다. 그러니 사탄은 원리작용 반대하는 것을 받으면서 대하니 자체파괴면서 상대 파괴를 하여 사람까지 파괴상을 조성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로 향하는 완성을 중심한 것이 목적이니 사람 완성한 입장이면 비원리 배척의 시작이다.

그러니 하나님 대하여 사람 주인격이 예수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는 원리완성이다. 비원리 사탄은 자연이 분립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상대로 대상 완성이 창조원성이니 남자면 여자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완전 완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는 하였지만 예수 사명의 완성은 무엇이나 하면 상대성 이성인 여성을 완성하여야만 완전 분립을 성립하는 것이다. 예수와 성신은 영적으로 분립을 조성할 수 있는 뒷일은 되었으니 육신으로는 미완성이나 그런곳은 언제나 사탄의 침해를 받으니 육신으로써 그 기본성을 완성하면 창조의 기본완성이니 예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재림하여 완성함으로써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완성함으로 비원리 사탄은 어디나 제외되는 것이다. 사탄 제외 곳은 즉 천국이니 지상천국이 완성된다. 이것은 기본원리완성이니 자연적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니 재림주는 육신이 필연적 요구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은 원리적 작용으로 반대작용을 보여주는 것도 사탄이 원리 침해권내에 있으니 그와 같이 작용한다. 그 작용받은 것은 완전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니 자연적이다. 그러니 완전대상 안되면 자연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위치로 추방된다. 그러므로 창조원리성으로 보면 전부는 각자 대상 완전을 위하여서 각기 개성을 달리하여 기본과 통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과 합하려면 각 개성완성을 완성하여야 기본과 합하여 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존재물은 상호 침해하지 않는 것과 침해받지 않는 위치를 취하여 기본체와 주고받은 입장을 존재물로 취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파괴적 작용을 한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에는 이 목적을 갖고야 시작한다

다.

전기로 말하면 각 존재물은 각 개성을 달리하나 기본 힘을 떠날 수 없다. 떠나면 존재 못한다. 예를 들어 전기를 통한 전등을 보면 그 자체는 전부가 개성 회로선상에서야 빛을 발한다. 그러면 빛 중에 색을 달리하려면 여러색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한 빛에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바와 같이 각기 존재물은 제각기 개성작용을 달리하는 것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전등 빛이 색깔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그 자체들은 완성한 입장에서 기본 전기와 합하는 바와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 각자 개성완성이란 것은 제각기 다른색을 내는 전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기본 전기의 힘은 언제나 합하여서 만 존재하는 것과 같이 천주는 같은 원리로 되어있다. 그러니 천주의 각기 존재물은 자기완성 사명 합하여서 전체 완성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 하나를 보면 세포로부터 전체는 이와 같은 작용원으로 한 구조를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작용과 감각도 이런 원리로 시작한다. 그러니 세포도 한 작용을 목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 우리 이목구비를 향하여 느껴지는 감각을 달리하여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감각들은 완전완성을 협력하여 각부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에 주고받은 기본을 통하는 것은 모든 원리적 사실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파괴작용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협력작용으로 목적완성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사람 중에서도 천주의 창조관을 전부 볼 수 있다. 또 각 존재물을 통하여서도 이 천주에 형상을 볼 수 있는 원인도 이런 목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또다시 합하여 완전목적을 위한 도중에 처하는 존재라는 사실로써 모든 적용적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상의 세계에서 종교가 과학을 완성하는 길로써 작용되는 것도 이 기본과 같은 공식과 같은 창조 위치를 가지고 존재하니 비로소 통용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존재는 존재적 세계에 없는 바가 천리인 것이다. 누구나가 알고는 이 원리완성이 중요한 삶에 요소면서 행복 요소임을 알게 될 때 전체는 합하여 주고받은 목적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기본 목적을 완수하여 각자 완성인 동시에 전체완성을 위하여야 한다.

그러니 세계상 존재물은 전부가 기본점을 찾으면 그 작용은 완성에로 향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 존재세계를 안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원리점에서만 시작이다. 그런곳에 악은 없다. 반대입장은 자연적 목적완성 작용으로 향하는 크나큰 완성작용으로서 감사할 바의 존재다. 그러니 내가 반대작용받은 입장에서 완성입장으로 가라는 자극이다. 내가 완전입장을 취하려는 자극임을 알아서 각자가 완성을 빨리 하려는 원리목적에 완전히 알리는 힘이 반대작용이다.

그러니 존재물 모든 작용은 완성원리를 위한 것을 알고 완전조성을 결실하기 위해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니 원리작용에는 원력작용이 있는 동시에 그곳은 상호완전 위치를 정하게 하는 반대 작용선을 취하고 있다. 이 작용은 개성존재 위치를 정하는 상호간 원력작용인 것이다.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 위치를 정한다. 그렇지 못하면 합하는 것으로 된다. 이 힘이 즉 개성끼리 주는 힘이다. 그리하여 다른 위치에서 완성한 존재위치를 정하면 그 존재는 질서 원력작용을 시작한다. 그러니 이 작용은 개체 간 원력작용인 것이다. 이 작용 힘의 질서를 조성하는 기본작용이다.

이 원력 작용 부분으로 보여주는 반대작용을 다시금 표시하여 보면 이런 결론이 성립된다. 전기로 보면 N은 N을 대하여 합하는 작용은 어느 때이나 하면 상대위치를 정하고 대상위치를 정하여 완전위치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N은 N을 대하여 합하는 작용은 하나 N를 대한 상대위치를 취하고 대상위치를 잡으면 N은 N를 대하고 반대 작용한다.

이것이 전기 각계에서도 근본은 미지이다. 그저 같은 극과 반대하고 다른 극은 합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위치 잡은데서 성립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같은 극끼리도 합한다. 이것이 창조성인 것이다. 그 작용력은 본 N와 S 간 작용에 함에 비례하여 작용한다. 거리에는 반비례하여서 작용한다.

그러면서 NS를 중심하고 분립된 N은 NS에 주위를 돌면서 N가 S에 대하여 완전대상 못되면서 침입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NS에 대하여 N은 향하는 위치에서 땀 N'은 S'를 취하여 완전 하나되는 대상 잡으면 한 NS에 대하여 한 고정 위치를 정하여진다. 그러면 N'S'은 본 NS와 서로 주고받은 원력작용을 유지하여 중심작용 위치를 성립한다. 이 존재들은 다른 외부력으로

합하게 하면 합한다. 그리하여 두 힘을 조성한다. 이것이 창조원리인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NS를 대하여서는 N'의 작용은 언제나 분립 못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NS는 N'에 대하여서는 다른 완성위치를 조성하려는 작용으로 하니 반대 작용이 시작하여서 N'S'가 완성하면 상호 보호 작용권을 조성하는 작용을 하여서 존재계속을 한다.

그러면 NS와 N'S'와는 한 경계 모양으로 구분한 질서위치를 정하여서 천주를 존재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NS와 N'S'가 합하여서 완전한 나로써 작용하여 서로 손실이나 파괴상이 없는 입장들이면 합할 수 있는 작용도 보여진다. 이리하여 작은데서 큰 것으로 한 완전을 향하는 것을 전기 세계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 존재기원은 한 중심부터 합하여 하나로 하여 감응존재는 본존재로 하여 전체에게 까지 큰 것을 향하는 목적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NS를 중심하고 NS 주위에 N '은 감응위치에서 N' 은 NS에 합하려 하나 NS는 반대작용하니 합하지 못하여 N 'S' 를 취하며 완전 성립을 보아 NS와 N 'S' 와는 하나의 비례위치를 정하면 합할 수 있는 작용도 시작을 본다. 그러니 NS=N'S'니 합하면 2NS를 조성한다. 그리하면 또 감응작용으로써 보다 큰 것을 조성한다. 이 작용은 기본 N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곳에는 이 힘이 총화할 때까지 작용하여 한 존재체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묘미를 여러 모양으로 배열함이 한 기본 힘을 중심으로 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힘의 존재가 유에서만 이런 조화원리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에 창조는 원리 창조성을 합하여 창조적 완성을 향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창조주의 조화인 것이다. 사람이 살리게 되려는 것도 이런 원리로 화한 것이다.

그러니 천주지간에 N를 대하는 S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NS였듯이 본체를 해체하여 둔 것과 같이 된 것이니 또 다시금 그 본 힘과 합하는 완전N만 생기면 S는 그 힘 N를 대하여 거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찾아와서 대하는 것은 다시 기본 합체목적으로 한 원리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N를 대하여 S성은 본래부터 하나에서 분립 존재로 된 존재라는 바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완전 합하여서 한 기본 대신 힘을 작용하는 것은 기

본원상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다시 분립을 위한 묘미를 보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완전 NS가 합하며는 기본상을 나타내고는 다시금 분립을 하는 것이다. 전기도 빛의 작용은 이것을 케이스적으로 작용시키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본은 빛이 나면 분립하는 것이 원리인데 이것을 한 회로선상에서 반복을 조성한 것이 전기 과학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번개 등은 기본힘으로 작용하고는 분립하여지는 것으로 되어 다시금 합하는 곳으로 인과적 현상상을 보여준다. 이렇듯이 만 존재는 이런 작용으로 합하여 주고받은 형을 표현화한 세계가 지금 존재세계다. 그러니 번식되는 이유도 이 원리로서 하나로부터 분립하고 합하여 하나 조성하는 모양을 굴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존재세계 인과적 기본 원인인 것이다.

그러니 그 존재목적 기본 본상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것 즉 완전 대상 목적이니 이런 근본에서 시작과 존재니 전부가 그 작용 궤도 내에서 존재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 기본 대상 형상을 화합하여 완전대상 목적으로 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창조주는 원리적 N 자체의 힘을 여러 가지 각양의 형상으로 배열하여서 그 작용무대를 정하여 천주존재를 봄이다. 그러므로 기본 존재 체를 창조하고는 이런 배열작용으로 전개하여 천주를 창조함이다. 기본형 창조하였으니 그 작용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이 세계를 조성하였다. 그러면 존재목적은 기본과 합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니 이 세계는 결국에는 하늘과 합하는 것이 한 필연적 목적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보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주고받는 것을 찾아 세우려고 하여서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여 역사한다. 그러니 사람의 최고목적은 직접 하늘을 대하는 귀일세계로 하여서 원리복귀 세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천주 총귀결 중심 존재니 사람을 이와 같이 중심하여서 하나님은 원리세계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면 원리복귀 세계는 원리작용을 중심하고 한 개체 완성으로 상대를 취하여 대상 완전으로 합하여 창조 원리성 합하여 기본 하늘과 합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기본으로 돌아가려니 원리성을 완성하여야만 하늘과 합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행복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입장이면서 한 회로선상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 기뻐하는 한 N를 대한 S의 존재 목적을 완성하여 질서적 위치를 정하여서 기본을 통하여 생에 요소를 받아 즐기면서 돌리면서 즐기며 사는 세계가 원리복귀 세계인 원만한 화합의 원화세계인 바다.

그러니 원리선상에 전체로 작용하니 전 작용부문은 전부가 영원을 향하여 하나로 합하며 즐기는 세계인 것은 사실인 바다. 그러니 사람은 지금까지 존재의 기본 상대와 대상 위치를 잡지 못하고 본능적 위치를 중심한 상대와 대상 위치를 잡아서 존재 하여왔다. 즉 동물성과 같은 존재체를 향하여 오는 존재들이 변하여 기본 이상적 위치를 찾아 완성을 보려니 양심적 세계를 향하는 것으로써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대한 기본 목적인 것이다.

그 이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상 위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주 전부를 자유 무대로 하여 기본과 합하는 작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지상 천국인 것이다. 이것의 목적을 책임진 존재가 재림주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그와 합하는 것이 곧 하늘과 합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직접세계를 시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원리로 지음받은 세계의 존재물은 전부 합하여서 하늘께 단속하여 받치고 또 받으면서 서로 화합하는 한 작용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그러니 기본 합한 존재는 천주 전체를 대할 수 있는 것이니 과연 천주는 한 목적 향한 존재로써 서로 단장하여서 누구나 원만히 생존하는 세계를 조성하여야 되는 것이다.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한 존재물인 만물에 대하여 자기 주관적 완성을 발휘할 바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만물에 대하여 부끄러운 존재적 입장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원리적 목적 완성이어서 기본 만물 목적 완성과 하늘 미완성 식구의 완성을 위한 자아의 입장을 높이하여서 전부와 기뻐 화동하는 중심존재의 책임존재가 현실 자아인 나인 것이다.

그러니 먼저 비원리 세계를 원리적 세계로 찾아세워야하는 하늘에 대한 세계사람이 책임을 완성이하여 본원리적 세계로 하여 비원리 존재가 자연글복하는 세계를 조성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 기본 완성을 중심 하늘 부모와 합하고 육신부모와 합하고 자기 대상 합하고 양심을 주로하여 구속이 없는 입장에 서면 모든 기본완성이니 자연적으로 모든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 있다고 걱정 말고 자기 완성이하여 원리 입장이 서면 하늘은 나와 원리 작용하여 본 케도외의 것은 없게 하는 작용을 따라 완전한 생애를

목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본 완성하는 목적세계 요소적 사명에 대하여는 각자가 잘 알 줄 안다. 하늘과 합하고 가정과 합하고 사회와 세계와 합하여 한 원리 완성하여 자아완성으로 하는 크나큰 존재무대를 완성하니 과연 이상세계가 아니었는가? 여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을 보는 것이다.

분립과 합체는 기본원리완성을 위하여 시작함

창조 원리적으로 보면 본래는 하나님 하나에게부터 시작이다. 그러니 하나에서 분립성을 두어서 창조받게 되는 것의 목적은 다시금 하나는 합하기 위하여서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양성 분립을 시작한 것은 자기 자체 형상으로 전개하여 벌려 놓은 것이며 그것이 한 완전자체들로서 각기 최초의 발생 성장 완성하여서는 다시금 합하여서 하늘과 합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세계상 존재물은 전부가 상대성을 취하여 대상 완성하여서 완전한 나를 이루기 위하여 주고받는 힘 혹은 사랑으로 하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물로 된 존재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천주에 존재물의 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전체 합하여서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본 하나님과 합하려 하고자 하여서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물이 찾아나아가는 길은 분립성에서부터 합체성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금 시작으로 하여 분립을 본다. 그러면 사람 중심하고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것은 그 본체성을 분립시켜 놓은 존재다. 즉 하나님의 근본자체성을 분성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은 양성을 합한 존재였다. 그러니 다시금 합하게 하여서 이상을 볼 것이었다. 그러니 분립성에서 합체성으로 되면 근본 하나를 표시하는 동시에 제2생을 조작하는 기본창조 원점인 기본 출발점을 보아 다시금 사람에게는 제2생이 시작한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존재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분립을 본 자체는 상대를 취하여 대상 완성하여 하나되어 제2 자아들을 조성하여 번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근본 사람 창조의 본의는 자기 하나로부터 분립하였다가 다시 합체하여서 대신존재들을 번식의 터로 하여 하늘에 옮기고자 함이 사람 창조며 그것이 기본 창조목적이다. 그러니 사람의 근본본체로 분립된 존재로써 합하려니 기본 하나님 본성을 찾아 나아가서 그 요구적 목적 존재는 이성인 것이

다. 그러면 완전한 대상을 이루어 합화체로서 다시금 재출발을 그 한 목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목적을 완수하여야 사람 존재의 사명이 완성 되니 모든 사람은 또 존재물은 이곳을 향하여 목적하는 것은 완전 기본과 합하기 위한 목적을 암시하며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천주에 존재는 분립하였다가 합하고 합하였다가 분립하고 하는 것을 중심하고 한 기본이상 본보기로 하고 있다. 즉 부부를 중심한 사랑을 살펴보면 사랑도 이런 목적상에서 작용한다. 그러니 사랑을 중심하고 본 원리 완성이니 언제나 합할 수 있는 노선을 잡고는 분립하였다가 합하였다가 하는 바로 그 작용을 본다.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인냐 하면 제2 자아들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란 것으로 번식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는 기본체성으로 남녀의 재출발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상적 사랑은 원리 완성하는 곳에서만 시작된다. 그러니 자아가 있는 것은 창조본성을 위하여서다. 둘이 하나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 자녀들은 자기들과 같은 시작 완성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합체하여서는 분립성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기본 창조본체들을 남겨서 번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화체 부모나 분립체 자녀 등은 사랑으로 한 목적 선상에서 동작하여 완성을 향하여 출발한다. 그러니 세계상 모든 존재물을 볼때 사람은 본 근본체하고 합하여야 할 분립체로 있다. 이런 것이 근본인데 알지 못한 것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에는 기본과 합하여 그 뜻의 완성을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 목적은 무엇이나 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은 노정을 완성이기 위하여서 부모도 목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는 기본 창조성 완성을 두고 바라니 자녀를 가진 부모는 계대적 자녀들에 부부완성을 요구하는 것은 창조성 완성을 둔 존재이니 필연적 요구인 것이다. 또 자녀의 요구는 부모에 대하여 이상적 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을 부모는 완성할 수 있는 기대를 잡아 줄 바가 의무적 책임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물은 전부가 창조본체를 중심하고 분립보아 시작하여 합하고 합하고는 분립보아서 현존재 전체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전체는 합하여는 기본 하나님과 하나로써 합하여야 하는 것이 존재자적인 것이다. 그러니 개성 존재체들인 개성체로써 대상완성하여 합체하여서는 전체에 합

하여 총합한 합체목적이 존재물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세계에 전부는 이 목적을 향하니 고립하여서는 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연관적 합하여 전체 합체하여서 한 기본 사람과 하나되어서 하늘과 땅에 한 동작선을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먼저 비원리 세계를 원리적 세계로 찾아세워야하는 하늘에 대한 세계사람이 책임을 완성하여 본원리적 세계로 하여 비원리 존재가 자연굴복하는 세계를 조성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 기본 완성할 중심 하늘 부모와 합하고 육신부모와 합하고 자기 대상 합하고 양심을 주로하여 구속이 없는 입장에 서면 모든 기본완성이니 자연적으로 모든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 있다고 걱정 말고 자기 완성하여 원리 입장이 서면 하늘은 나와 원리 작용하여 본 궤도외의 것은 없게 하는 작용을 따라 완전한 생애를 목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본 완성하는 목적세계 요소적 사명에 대하여는 각자가 잘 알 줄 안다. 하늘과 합하고 가정과 합하고 사회와 세계와 합하여 한 원리 완성하여 자아완성으로 하는 크나큰 존재무대를 완성하니 과연 이상세계가 아니었는가? 여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을 보는 것이다.

분립과 합체는 기본원리완성을 위하여 시작함

창조 원리적으로 보면 본래는 하나님 하나에게부터 시작이다. 그러니 하나에서 분립성을 두어서 창조받게 되는 것의 목적은 다시금 하나는 합하기 위하여서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양성 분립을 시작한 것은 자기 자체 형상으로 전개하여 벌려 놓은 것이며 그것이 한 완전자체들로서 각기 최초의 발생 성장 완성하여서는 다시금 합하여서 하늘과 합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세계상 존재물은 전부가 상대성을 취하여 대상 완성하여서 완전한 나를 이루기 위하여 주고받는 힘 혹은 사랑으로 하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물로 된 존재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천주에 존재물의 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전체 합하여서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본 하나님과 합하려 하고자 하여서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물이 찾아나아가는 길은 분립성에서부터 합체성으로 향하고 있

다. 그러면 다시금 시작으로 하여 분립을 본다. 그러면 사람 중심하고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것은 그 본체성을 분립시켜 놓은 존재다. 즉 하나님의 근본자체성을 분성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은 양성을 합한 존재였다. 그러니 다시금 합하게 하여서 이상을 볼 것이었다. 그러니 분립성에서 합체성으로 되면 근본 하나를 표시하는 동시에 제2생을 조작하는 기본창조 원점인 기본 출발점을 보아 다시금 사람에게는 제2생이 시작한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존재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분립을 본 자체는 상대를 취하여 대상 완성하여 하나되어 제2 자아들을 조성하여 번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근본 사람 창조의 본의는 자기 하나로부터 분립하였다가 다시 합체하여서 대신존재들을 번식의 터로 하여 하늘에 옮기고자 함이 사람 창조며 그것이 기본 창조목적이다. 그러니 사람의 근본본체로 분립된 존재로써 합하려니 기본 하나님 본성을 찾아 나아가서 그 요구적 목적 존재는 이성인 것이다. 그러면 완전한 대상을 이루어 합화체로서 다시금 재출발을 그 한 목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목적을 완수하여야 사람 존재의 사명이 완성되니 모든 사람은 또 존재물은 이곳을 향하여 목적하는 것은 완전 기본과 합하기 위한 목적을 암시하며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천주에 존재는 분립하였다가 합하고 합하였다가 분립하고 하는 것을 중심하고 한 기본이상 본보기로 하고 있다. 즉 부부를 중심한 사랑을 살펴보면 사랑도 이런 목적상에서 작용한다. 그러니 사랑을 중심하고 본 원리 완성이니 언제나 합할 수 있는 노선을 잡고는 분립하였다가 합하였다가 하는 바로 그 작용을 본다.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제2 자아들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란 것으로 번식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는 기본체성으로 남녀의 재출발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상적 사랑은 원리 완성하는 곳에서만 시작된다. 그러니 자아가 있는 것은 창조본성을 위하여서다. 둘이 하나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 자녀들은 자기들과 같은 시작 완성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합체하여서는 분립성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기본 창조본체들을 남겨서 번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화체 부모나 분립체 자녀 등은 사랑으로 한 목적 선상에서 동작하여 완성을 향하여 출발한다. 그러니 세계상 모든 존재물을 볼때 사람은 본 근본체하고 합하여야 할 분립체로 있다. 이런 것이 근본인데 알지 못한 것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에는 기본과 합하여 그 뜻의 완성을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 목적은 무엇이나 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은 노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부모도 목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는 기본 창조성 완성을 두고 바라니 자녀를 가진 부모는 계대적 자녀들에 부부완성을 요구하는 것은 창조성 완성을 둔 존재이니 필연적 요구인 것이다. 또 자녀의 요구는 부모에 대하여 이상적 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을 부모는 완성할 수 있는 기대를 잡아 줄 바가 의무적 책임인 것이다.

그러니 존재물은 전부가 창조본체를 중심하고 분립보아 시작하여 합하고 합하고는 분립보아서 현존재 전체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전체는 합하여는 기본 하나님과 하나로써 합하여야 하는 것이 존재자적인 것이다. 그러니 개성 존재체들인 개성체로써 대상완성하여 합체하여서는 전체에 합하여 총합한 합체목적이 존재물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세계에 전부는 이 목적을 향하니 고립하여서는 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연관적 합하여 전체 합체하여서 한 기본 사람과 하나되어서 하늘과 땅에 한 동작선을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진 세계상에 분립을 취한 민족국가가 있으나 하늘과 완전히 합하면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리요구이니 그 요구를 향하여 역사적 조류는 흐르나 국가완성 하면 전세계를 향하여서 작용선을 취하는 바는 원리적 요구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합한 국가형체를 취하여 세계 합한 목적으로 향하는 것은 기본 창조성 완성하여 하늘을 대하고자 하여 나오는 바를 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반드시 세계는 상대를 하여 대상목적을 향한다. 그러니 언제나 원리는 승리하는 것은 원리중심은 하나님이니 세계상은 원리완성을 향하니 자연히 그 원리는 기 정체를 표현화하니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를 완성하는 노정이 진리인 것이다. 그러니 진리는 불변이면서 완전 승리면서 영원이면서 유일인 것이다.

그러니 전존재의 세계 목적 최종점은 진리완성인 진리 세계로 된다. 그렇지 않은 존재는 없어지면서 인간 세계는 발전이라 하여 찾아나오는 노정이 역사 노정인 것이다. 그러니 원리세계란 어떤 세계나 하면 존재목적완성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제각각의 존재는 온 정력을 다하여 기본 하늘을 협조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각자는 자기의 재능과 특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사람은 여기에 자유이상과 사랑 이상과 개성완성이란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비원리 세계이니 이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게 구속된 것은 비원리권 주권자로 인한 중심이 되어 왔으니 구속이었다. 또 원리적 하늘로서도 구속성을 취하여 왔다. 그 이유는 뜻의 완성을 연장하게 되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니 억제하여 왔다.

그러니 원리 완성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어 사람의 이상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구속세계로부터 원리세계로 향하니 특이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다. 즉 중심을 달리하고 시작하니 지금까지 유지하여 오는 세계에서는 파괴인 듯하게 보여주는 사실도 나타난다. 그것이 아니고 비원리 악의 세계로부터 완성 원리세계로 찾아 들어가는 기본 노정이 처음으로 인간세계에 보여지는 사실인 것이다. 즉 타락된 세계는 당연히 한번은 반드시 반대적 입장에 서게 될 일이 보여질 바가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기본원리 세계는 전체 세계요. 원화세계인 바다.

그러니 기본 하나님과 합하는 세계니 전세계는 기본 하나님의 것이며 전체는 기본과 합하였으니 전체 것이며 전체 것이니 나를 중심하고 합하여 전체이니 내것으로 되는 세계다. 그 결국에 도착되는 천주는 기본을 찾아 하나가 되니 창조주의 소유로 된다. 또 하늘 대한 제2존재 기본 사람 부모인 아담 해와의 소유도 된다. 그러니 전체 인간의 소유로도 된다. 그러니 내 소유로 되어 세계는 작은 소에서 큰 대에서 부합하는 목적지를 완성하니 원리완성이며 창조성 원리 완성인 것이다. 그러니 세계는 하나로 합하는 국제 통치시대로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면 금후 UN의 사명은 전체 통치문제를 완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니 민족만으로 제일주의를 취하는나 그것은 원리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다. 국가만으로 세계를 취하고자 하는나 그것도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전체 합체하여서 세계를 취하여 화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하나님을 중심한 존재 목적이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 이것이 완성을 보고야 만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목적을 빨리 하려니 세계를 예수 중심한 국가에 맞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할 수 없는 원리선상에 있는 축복받은 국가는 뜻 완성을 위하여서 세계를 중심하고 전체로 합하는 입장으로 취하여야 한다.

그러니 최고목적은 전체기본 완성점이다. 이 완성점 존재들은 주고받는 것이 원칙소유로 전체 소유도 자기까지도 전부 기본 중심에 합하여서만 원리 완성이며 그러면 기본 중심은 전체를 위하여 있고 전체는 기본 중심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체는 기본을 중심으로 주고받아 화동하여 존재와 물질이 서로 통하는 유물상통을 보아야 하면서 질서를 중심으로 기본과 합하여서 전체 완전존재로 보장할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사람들은 협조하여 경제적 구속을 받지 않고 이상존재를 취할 수 있는 기대를 완성하여 사람들은 전체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리목적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의식주 문제와 부부문제는 교육을 받아 완성이 가능한 기대는 기본 중심 하에 부모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로 된다. 그 기대상에서 각자는 이상적인 생애를 시작하여 전체를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자유 세계를 조성할 바가 책임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본 목적인 본체 완성을 협력하여서 한 목적선상에서 자유로이 합하려고 세계는 지금 찾아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기본 원리 단계를 향하여 넘어가는 자연시대이니 선진 국가들은 원리를 완성하지 못한 곳은 분립을 보아 원리를 완성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러니 지금 세계상에 사랑을 중심으로도 원리 완성형을 찾게 되니 즉 이상형을 취하게 되니 자연적으로 이혼 등이 많아지는 것은 지금까지 비원리적 입장에 있었던 곳을 벗어 나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원리적 이상을 합하면 분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가 분립한다면 그 원리적 완성을 돕기 위하여서 성립되니 또다시 완성 합하니 언제나 분립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자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상적 원리부부면 서로 생각지 않아도 화동하는 대상적 입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부부는 분립시키면 시킬수록 합하려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외부력에도 분립할 수 없는 입장이 기본 원리점상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지금까지 부부로 하고 있는 부부가 과연 원리선상에 선 영원한 부부인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세상적으로 여의치 못한 입장으로 합한 입장들이니 자연적으로 이혼은 원리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니 원리상 맞지 않은 부부는 서로가 미완성이니 원리적 사실도 분립은 자연원리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원리점으로 향하여서 동작하는 단계를 잘 알고 하나님

의 뜻을 완성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책임지게 하는 시대며 또 부부와 가정을 책임지게 하는 시대이니 이상시대면서 과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본시대다. 그러므로 예수도 이것을 표준으로 하니 한 생명을 대하여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은 원리적 완성인을 표준하고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세계가 내나라며 세계가 내 집이며 세계가 내 가정이 성립되어야 이런 이상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뜻이 합한 입장은 아니나 분립하였다가 뜻을 세워 합하게 하여야 할 시대이니 하늘 것은 하늘 것으로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분립한 입장으로 하면서 전체 합하는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세계 인간은 기본 하늘 부모에 대하여 찾아 드려야 서로 합하여 하늘 가정을 건설하려면 소유와 전부를 합하여 성별하여서 기본중심과 합하는 예식도 있는 것이다. 즉 양자에 입장에서 본 계대를 완성하여 한 조국 건설을 목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시대는 악에 대하여 분립하는 때다.

그것은 언제나 분립이 아니고 합하기 위한 분립시대다.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찾아들게 하고자 하는 시대니 하늘편 곳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고 하늘편이 되어야만 사랑하여서 합하여 하는 충동을 주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전체 사랑하라는 것은 기본 원리점을 찾아 주려고 하는 요구였다. 그것은 하늘의 완전대상 기대를 세우려니 그리하였다. 지금은 다 세워졌으니 그 사랑을 돌리니 하늘편을 향하여 사랑하여야 하며 이상 완성을 요하는 때니 함부로 사랑할 수 없는 때다. 즉 원수를 사랑하여서는 각자가 완전원리적 상대를 분립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 중심이니 합하여 쥐야 하는 때니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런 입장은 자연스런 요구다. 그러니 그것만 완성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대할 바가 기본임을 알 줄 안다. 즉 분별하여 세우는 때니 이런 요구가 성립된다. 뜻 성립만 되면 과연 원수를 대하든 사랑으로써 자기편에 돌려 더 높은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자기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편을 사랑하는 존재는 도리어 기본 파괴인 바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원리 완성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하늘인 것이다.

그렇지 못 한다면 사탄 짝이란 하늘 원수의 입장으로 된다. 그러니 예수 사랑은 하늘 완성 사랑인 바는 하늘과 합하였으니 원리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도리어 하늘에 대하여서 범죄적 사실로 된다. 그러니 예수의 사랑을 중심하고 말한 바는 주로 신자끼리 대하여서 말한 바가 본의로 된다. 그리하여 그 신자로 인하여 성립을 널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요구이다. 이런 것을 지금 사람은 알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분립 보아 찾을 때에 합부로 사랑하여 합하면 뜻 연장이 되니 방향을 달리 취하는 것에서 시작 보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서 기본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완성을 위하여서 이런 것이 요구인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 사람을 대하여 요구하는 전부는 기본 원리성 완성을 요구하여서 대하고 있고 뜻을 빨리하여서 대하고 있는 태도로써 하늘은 사람을 대하여 왔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기본 완성하여서 뜻 달성을 각자의 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선을 완성하여 분립에서 합하는 원리 선상 작용을 널리 하여야 하는 뜻 완성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 기본상에서 분립하는 것은 번식의 목적적이고 합하는 것은 완성이 목적적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분립을 싫어하는 것은 비원리를 중심하고 파괴형선을 보는 바니 분립은 전부가 염려하지만 분립은 더 높은 원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시작인 바다. 그러니 원리선상에는 분립성을 보면 볼수록 자아완성과 자기 목적 완성을 돕는 일로 되어진다. 그러니 사랑도 나누었다가 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두루 미치는 맛을 체득 못하여 자극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분립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심도 더 높은 자극적 사랑을 위하여 분립하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도 분립의 사랑이 있는 후에 합체의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니 원리상 분립도 더 높은 곳을 대하게 하며 향하는 바로 된다. 그러니 이상적 부부는 이런 원리상 입장을 향해야만 완성된다. 그러니 분립하여도 사랑성의 능력을 더할 뿐이지 사랑성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즉 하늘을 대하여 받은 분립성에서 합체성을 향하는 원리적 사람이 가진 대상 대하는 사랑에 대한 정조인 것이다. 그러니 분립과 합체는 기본을 더 완성하기 위하여서 적용된다. 그리하여 변함없는 기본 존재들을 하늘은 목적한다. 그러니 사람 빨리 분립된 자체로 대상합체하여서 뜻 성사으로써 하늘과 합하여서 완성하여야 행복과 이상인 것이다. 52. 1/2 새벽

하나님을 아버지만으로 모시는 영인체는 완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중심하고 분립성으로 되어 남녀의 구별을 보았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되어 더 많이 그 자체들을 대신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대하여서 어떤 아버지격으로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하여 나오고 있다. 그러니 본래 사람이란 존재가 생기게 위하여서는 아버지를 중심하고야 생기게 된다. 세상 아버지를 보아도 자녀라는 기본존재의 핵체는 아버지안에서 시작인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을 실제로 갈라놓은 것이 사람의 창조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합하여서 영육 합성체가 사람인데 이것이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되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으시는 것처럼 계시는 모양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 속에 있는 자녀는 존재하여도 반드시 사랑을 중심하고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야만 다시금 제2세 생존체를 구성하여 한 대신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본래부터 사람의 육신 부모로 받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다시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타락으로 인하여 육신 부모로써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금 완성할 길을 찾아 모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 격인 것이다. 그러니 본타락 아니었던 기본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요구하여 나왔다.

그러니 지금 인간 세계를 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격으로 있는 것은 기본 완성을 바라는 한 중간입장에 처하여 오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하여 아버지 격 만으로 있으니 어떤 격이나 하면 세상 아버지 속에 있는 자녀를 완성한 격에 처하는 격에 속하여 있다. 그러니 아직까지 기본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어머니를 잡지 못한 아버지 속에 있는 자녀와 한 가지 입장이다. 그러니 이 자녀로 된 존립들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어머니를 요구하게 되는 바로 되어 있다.

또 아버지도 원하는 것은 기본 어머니 요구이다. 그래야만 사랑을 중심한 몸을 이룰 수 있을 때 자녀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간 영인체들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속에 존재하는 양으로 처하는 바다. 그러니 이 존재들을 다시금 기본 되는 것으로 태어나야 완성인 바다. 그러니

이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한 완전이 어머니의 요구이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사탄을 중심하고 어머니로써 생기었기에 지금 그 존재 입장을 말하면 다시금 태어나야하는 입장으로 서 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중개하기 위하여 예수와 성신은 대신 역할하여 이 길을 닦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와 성신도 지금까지 기본 완성한 부모격 입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땅이 완성하지 못하니 빨리 완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신 땅에 재림하여 기본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육이 합한 부모를 조성하여서 하늘 영인체들은 대신 혈연적 계통을 이어받는 바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아버지 속에서 있는 영인급에서 완성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생존이란 목적 완성하여 하늘 생활을 대신 혈연적 계통을 이어받고자 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대신을 조성하여 받은 양으로서 지금까지 나오니 하늘 아버지 어머니만으로 계셨다. 즉 어떤 입장이나 하면 타락 전 미완성급 사람들이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때의 하늘 아버지 속의 있는 자녀와 같은 입장 존재로 처하여 왔다. 그러던 존재들이 예수와 성신을 해산하는 산고를 받아 영적 계통을 받아 영인 생존은 조성하였으나 육적 완성을 필요로 하여 땅을 대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으로 인하여 기본 아버지 어머니를 완성하여서 양자계대와 같이 제2차생을 받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니 이것이 재림부활의 목적인 것이다. 즉 다시금 논하는 바로 된다. 이것이 생령 부활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 만으로 온 존재의 완성을 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모심으로써 처음으로 하늘과 땅 완성의 시작을 보는 것이니 하늘 가정 건설과 동시에 지상에도 이상가정과 동시에 지상에도 이상가정을 시작 보는 바로 되어 있다.

그러니 아담 해와가 타락하였을 때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며 해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야 할 것으로 된 것은 사람이 한번 나면 될 것이 두 번씩이나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비원리존재를 배게 한 것이 다시금 해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로 된다. 그러니 아담 해와는 비원리 해산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인생도 역시 같은 것으로 되어 왔다. 그러니 사탄에게 중생이란 명사가 요구로 되어왔다. 이 목적완성하려고 하니 예수와 성신은 중생의 사명 책임은 되고 왔다. 이것이 타락한 후에 죄로 받은 아담과 해와가 고하는 길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완성할 시대 조성을 목표하고 나왔다.

그러니 세상에로 나오던 때든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기본 사람이 완성되어 하나님과 합하여 기본완성 부모로 시작을 보아서 창조기본 완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받은 원리 인간이 시작을 말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다. 그러니 지금은 천주는 이 기본이 생기지 아니 하였기에 미완성으로 되었었다. 그런데 재림주를 중심하고는 다시 하늘 삶이 기본을 시작하여 하늘 해방적 책임이 완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 영인체들은 기본 부모격으로 모셔서 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여기에 하늘 부모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완성한 아버지 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신 또 다른 격위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나타나고는 하셨다. 그러니 그 대신상은 예수를 중심하여 나타난다. 그러니 기본 완성을 못하였으니 완성한 완전격을 완성하여 나타나고자 하니 재림주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주라도 후에는 하늘 아버지도 재림주 완성체로 하늘도 땅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완성하여 천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이상을 시작하여 완전 완성을 하늘과 땅으로 연결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은 예수를 중심하고 전부는 합하여서 기본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하고 세계주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재림주 모시는 존재들은 예수를 대하여 금후부터는 형님과 오빠로 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자체는 만인간 앞에 맞아들으로써 하늘 건설 생활의 시작을 목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뿐이 아니고 어머니 합하여 기본완성을 보아진다. 그러니 하늘은 이 날이 전체 모든 소망이었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이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있는 인류는 참부모를 주로 하여서 영원 건설을 보아야 한다. 재림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으로써 이 내 님도 영원한 어머니로써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참 지혜자와 하늘 자녀의 입장에 위치를 정하여 하늘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늘을 대하는 최고위에 가 서있는 신자들에게는 어머니의 명사도 영인체를 통하여 교시받은 영적 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창조 이후에는 기본완성 못한 자는 창조받은 피조세계에 사람 뿐이었는데 이곳에서 기본 완성하니 사람에게 달린 온 천주는 처음으로 완

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타락세계에 살던 인생들은 정반대 방향을 취하여 새로운 생활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세계에 인습을 그냥 유지하기 위하여 새출발을 반대하는 자 없기를 하늘은 요구하는 것으로 있다. 그러니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는 합하여 세계 대하여 사명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완성 인생으로 하늘 식구와 합하여 기본완성 인생으로 하늘 식구와 합하여 남아진 전세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타락전 기본출발하여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겸하여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 목적인 것은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서 만 천주에 뜻을 조성하여 원리적 하늘을 대함을 조성하여 사탄의 침해가 없는 본 세계를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육신 삶에서부터 영생 시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 1/12

이것이 근본 목적이었는데 이곳 못 보는 것이 타락시작인 것이다. 그러면 타락하기까지의 하늘 아버지만으로 대하던 입장을 알아보자! 하나님의 본래 창조한 목적은 자기 자체는 중화성으로 있어서 남성으로 아버지 격으로 있게 되었다. 그런 자기 자체속에 있는 남성과 여성 부분들을 따로 분립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육신 창조를 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육신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외형상으로 된 존재면서 그 속에 생심을 주워서 함께 장성하여 하늘 사랑을 받게 될 때까지 육신과 분립할 수 없는 하나로써 처음 발생으로 성장으로 완성으로 하여 일체화가 목적이었다. 그러니 창조받은 사람은 육신 몸 속에 하나님 몸 중에 있는 기본 남성, 여성에 핵체로써 넣어둔 것이 아담 해와의 생심존재였다. 이 존재가 완전부부 사랑을 함으로써 한 완전 존재체를 구성받아 한 분체 완성을 요구하는 준비 도중에 존재로써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본래부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며 처음부터 육신을 창조받은 것이다.

그러니 기본으로 사람은 육신을 통하여 합하여서 완성하여야 완전한 인생이 시작하는 것이 원리인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과 물로서부터 창조를 시작한 바가 보여진다. 그러니 사람은 육신 가진 존재이다. 그러니 육신을 하나님은 지은 바다. 지금 신앙자나 전인류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겨나는 듯이 생각하나 크나큰 오해인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불

과하다. 타락 전에 볼 때 창조받은 것은 흙과 물로 조성될 육신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육신을 받은 모양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보아도 잘못 본 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타락이 있기 전에 육신 창조받은 완성육신 존재였다.

그러니 그 육신이 타락하니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 하나님의 몸에서 분림이 되었다는 뜻이다. 전에 에덴동산에 대한 뜻의 약속은 이것인 것이다. 그러니 타락된 지역은 두 말할 것없이 땅이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 육신이 있기에 모든 실체에 존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근본 육신이 완성하지 못하니 전체가 완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육신을 가진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남성, 여성 분체를 번식하고 배양하는 한 터로 지음 받은 것이 육신이였다. 그러기에 이 육신이 타락성을 받아 사망이 시작이 터가 되었으니 육신이 사탄이 활동무대로 되었지만 기본 완성 하였으면 그야말로 귀한 자체이다. 즉 육신은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 육신이 있기에 영인체 완성하면 아름다움을 완성할 것임으로 천사까지 부러워 하는 것으로 된 육신이였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귀한 육신을 반드시 완성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본의는 사람 대하여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끝까지 육신을 다시금 찾아서 세우려고 하니 지금까지 수고하는 중심목적으로 된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영인체로만 사람이 완성된다면 예수도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으나 땅에서 육신을 완성하려니 예수도 땅에 육신 완성자로 온 것이다.

그러면 타락은 소년시대에 하였으니 미성숙 시기였다. 그 영인체가 미완성으로 된 입장에서 타락하니 범죄한 사람에서 거두심이다. 이것이 에덴동산 추방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육신은 동물체와 같은 모양으로 근본성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 육신은 어느 정도 장성하였던 것이므로 육신부분은 영적 감각을 느끼는 육신으로써 그 작용은 양심으로써 작용하는 한 터로 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금 전부는 타락급 정도만 한 위에 양심작용을 받아 왔다. 그러니 우리 본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양심작용이야 말할 수 없는 높은

위라는 것은 사실이다. 신령과 같은 위격에서 동위작용할 것이었다. 이 기본 위격을 체득하는 바가 지금 영계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작용인 것이다. 그러면 이 작용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서 본래 있을 수 있는 존재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몸소 체험으로 얻게 되는 체득됨에 불과하다.

이런 고귀한 기본작용을 육신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 즉 타락으로 인해 생긴 지혜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만으려 하여서 왔다. 그리하여 예수는 제2아담 완성자로서 다시는 타락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땅에서부터 주관하여 해와를 조성하여 기본을 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하니 사탄 대하여 갇는 동시에 다시금 해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니 예수 혼자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아담이 해와 주관적 권위를 복귀하고자 하는 한 뜻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중심하고 한 해와 완성존재만 생기면 첫번 해와의 성장을 본 장성급을 해와의 성령 성신은 내려와 임재하여 예수 주관하에 성장을 보아 하나되고자 하여 성신은 지상예수 대하여 하늘에서 고대한 입장이었다. 그랬던 목적을 지상에서 이루지 못하니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고 성신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할 육신이 완성급을 보고자 하여 재림요구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늘 간 전부는 육신 완성을 목적으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 연장을 보아서 온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만으려 있는 하늘 전부는 완전하지 못한 삶으로 되어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요구에도 성신도 하나님도 전부가 육신을 완성 기본완성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창조 원리 완성하여서만 근본 아버지를 중심하고 있는 존재들은 어머니를 통해야만 육신을 완성하니 전부가 재림을 완성할 육신 완성 창조인 기본체 3차 아담 재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땅에서 타락한 육신이니 땅에서 찾아 완성하여야하니 땅 재림은 기본 원리인 것이다.

그러니 창조 육신을 전인간 영인체는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육신이 완성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입장이니 이 목적을 다시 회복하려니 종교시작을 우리 세상에 보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종교생활이 없을 인간에게 종교문제

가 생겼음을 과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란 것을 지금까지 역사적 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을 포기하는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사탄에 대하여 활동무대를 없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기본완성시대가 오는 현 세계 신자들이 있어서는 이와 같이 육신을 아직도 죄에 근거지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하늘은 금후로는 서러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신이 제일 귀한 존재니 육신 때 완성하지 못하면 영원히 완성하지 못한다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니 어찌 하늘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바가 원리로 된다.

그러니 지상육신 떠난 영인체가 없고 지상 떠난 천국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바라는 것은 물론 원리세계를 바라니 타락된 입장에서 보니 그 곳을 이상으로 하고 지상천국이라고 하나 본래부터 인간 앞에 있는 원리세계인 것이다. 이것이 완성을 본 천주 합하여 완성하여야 할 바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던 완전하지 못한 삶으로 있는 존재들이 요구며 풀어야 할 과제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 이것을 바라서 한 완전 자녀로써 될 때 완성한 아버지 어머니와 합하는 하늘 아버지를 보는 바가 창조완성인 근본적 목적이다. 그러니 세상 부모는 기본 부모의 대신 증거 존재니 하늘의 반대되는 갈등 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보아서 하늘에 전체는 합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지상에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삶이 시작하여 어머니를 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부터 하나님 어머니 품으로 통하여 하늘 사랑과 합하여야 기본 완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나 빨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필요로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상에 있는 자는 하늘 자녀한테 지지 않는 효성으로 전체를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과거 의인들은 터전을 닦기 위하여 희생하였으니 대신 완성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존재구성과 대상원력의 범위

존재물은 어떤 존재물이나 전부가 상대를 두고 시작하여 대상목적으로 향하여 완전 합하는 원력작용을 보는 데서 완전 존재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그

러니 어떤 사물에 존재나 찾아보면 반드시 상대적 존재로 되기 위한 요소로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면서 그리하여 완전히 제2존재로 어서 합할 수 있는 주고받은 대상 목적을 향하여서 작용이나 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물이나 전부는 한 동적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될 수 있는 존재들을 잡아서 보면 반드시 같은 대상 요소적 원력을 갖고 있는 형에서만 상대라는 위치는 성립을 본다.

그리하여 서로 같은 존재로써 동일한 목적으로 하여 주고 받으려고 할 때에 대상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완전 대상을 찾은 존재는 언제나 합하여서 더 많은 이상 번식을 요구하여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작용을 보면 물질에는 원력작용으로 사람이나 동물에는 의식작용으로 그 상태를 달리하여 나타난다.

특히 대상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존재물이나 각자는 자기가 설 수 있는 위치를 정하여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 대상목적의 성립을 하려면 즉 어떤 하나의 존재가 한 중심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그 상대위치로 된 존재는 피동적 입장의 성립을 필요로하여야만 대상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다. 서로 동적 입장이나 피동적 입장이나 같이 취하고자 하는 데는 대상 목적은 근본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명사로써 기록하면 동적 존재형을 핵체라 하고 피동적 존재형을 부체라 하여서 나는 말하려 한다.

그러니 대상존재하면 반드시 핵체와 부체를 합한 존재라는 바로 된다. 이것이 완성 못한 존재란 피조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번식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며 이상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며 모든 가치 여하도 존재이 기원도 그 전부의 목적은 여기로부터 기인하고 존재형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대상위치를 잡은 존재가 그 한 핵체나 부체를 취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시작한 핵체나 부체도 점차로 없어지는 것이 창조적 원리인 것이다.

그러니 지구상 존재물과 또 천체에 존재물 전부를 막론하고 전부는 대상 위치를 정하고 원력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존재물 중에 대상 위치 없이 존재하는 모양으로 보이는 독립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하는 한 대상형을 조성된 기대 위에서만 이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자기의 성상을 전개하는 것이 되니 모든 존재물은 그 성상을 보여주는 바가 대상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 대상 현상을 보여주는 그 존재를 다시 찾아보면 핵체형이나 부체형으로 되나 그 존재를 다시금 창조성으로 미루어 보면 어떤 존재나 그 각각의 핵체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니 부체가 될 수 있는 존재나 전부는 그 근본개체에 있어서는 핵체형과 부체형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 둘이 합하여서 한 완전 핵체작용이나 한 완전 부체 작용이나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한 핵체존재를 찾아 보아도 핵체 요소형만이 아니고 그 속에 부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한 완전 존재 핵체나 부체형이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온 천주존재물은 근본형은 한 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피조물로 된 존재의 기원적 원인의 기대인 것이다. 그러면 현재 물질 세계를 찾아 보면 각양각색의 원소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원소는 각양각색이 다르나 그 원소가 다른만큼 그 원소중에는 그 존재할 수 있는 핵체나 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부가 같지 않은 바는 그 핵체와 부체가 서로 작용하는 원력에 의하는 작용이든가 그 수에 의하여 원소는 제각각 다른 한 존재체를 보여준다. 지금 물질과학 세계에서 물질의 기본을 전자권 세계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전자 핵체를 중심으로 보아도 그 전자극 자체 중에 작용을 보여주나 그 중에 적 존재가 내포하여 있는 것이다. 음전자에도 양전자 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존재형을 취하여 제각각 다른 한 핵체와 부체작용을 취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작용이 일어나는 원인도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체나 동물계나 식물계에 대한 전자는 역시 그 핵체나 부체를 뭉든지 그 각자체중에 다른 이성형체로서 합하여 한 완성 핵체와 부체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핵체면 핵체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체면 부체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성 체형 겸한 존재체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창조성을 두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소 한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 존재세계를 보면 각 원소가 합하여 한 존재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그 한 존재체에는 반드시 한 핵체를 중심으로 부체작용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한 존재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각 원소들도 어떤 핵체나 부체로 있지만 그 각 원소 존재는 원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원력 작용은 같은 동형체는 상호간 합하려고 하는 작용을 보여준다. 그러면 각 원소가 다른 만큼 그 원력작용하는 주고 받는 회장이 같지 않다. 이 원력 회장이 같지 않으니 각양각색의 원소형을 보여준다. 이 원력회장이 같은 동형들은 상호간 합하려는 작용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자. 태양도 한 존재체이니 그 개체도 역시 한 핵체와 부체로서 작용위치를 그 자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즉 태양은 그 중심 위치에는 핵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체를 중심으로 주위에 부체로 되어 있다. 그러니 태양은 그 자체에서 원력작용을 보여준다.

핵체와 부체는 작용과 같이 서로 당기고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존재체를 구성하여 있다. 그러면서 태양과 같은 한 천체에 대하여 핵체형으로 되어 행성들은 한 부체로써 그 존재위치를 정하고 있다. 그러면 행성들도 역시 그 자체에서 역시 태양과 같이 그 자체에서는 핵체를 중심으로 부체형으로 되어 한 존재체를 구성하여 부체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볼 때 그 존재 구성요소로 본다면 태양은 모든 행성들에 요소를 전부 합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거리가 같지 않은 원인도 설명하면 이렇다. 태양중에 각 요소원소가 다른 것은 혼합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같은 원소들은 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태양자체가 고열로 인하여 모든 원소 요소들은 합할 수 있는 존재형으로 되어 있으니 각 동형 원소는 합하여서 한 핵체격을 조성하여 있다. 그리하여서 행성을 대하여 대상 위치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원력회전이 다른만큼 태양과 행성 사이는 자연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되는 것은 행성을 찾아보면 그 각자들이 조성된 구성원소가 전부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구성원소가 특이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주가 되어 태양과 원력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행성 요소는 전부 물질이 같지 않다. 물론 어떤 같은 요소들은 가지고 있으되 많이 있는 것과 적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행성 중 구성 요소가 많은 원소 회전으로써 태양을 대하니 거리는 물론이면서 그 형태도 제각기 원형을 조성하는 원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태양도 행성 대하여서 같은 원력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요소에 따라 상이한 회전으로써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천체에 원력에

대한 것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 천체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체는 자체에 원력 작용을 중심하고 핵체를 향하니 당기어 있기에 이 원력 보다 큰 힘으로 당기기 전에는 그 자체에 요소는 언제나 그 자체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어떤 면에서 지구를 향하여 유성이 화석과 같은 것이 떨어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각 존재 요소는 원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소 원력 회전에 의하여 그 작용 받은 힘은 강하고 약하게 된다.

지금 어떤 별의 구성 요소가 당기고 있는 원력 보다도 지구에서 당기고 있는 원력이 그 별 자체 원력 보다도 클때만 그 별에 있는 소행성의 화석 같은 것은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는 것이다. 별이 같은 힘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요소만 떨어지는 것이다. 전부 같은 원력으로 작용한다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천체에 모든 존재는 원력작용의 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각 요소 원소가 전부가 다르니 달은 원력회전으로 작용하니 자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면 지구를 지금 생각하여 보면 지구는 그저 태양에 대해서 전부 천체가 같은 힘으로 원력 작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 것이다. 지구요소가 다르니 그 원력작용도 달리 작용 받는다. 즉 태양을 중심하고 행성에 거리가 다른 것과 같이 지구 내 구조 요소도 같은 원리적 원력작용을 하나 지구 원력을 갖고 있기에 그 구성 요소들은 지구 내에서 태양 원력작용으로 인하여 지구에는 지층이 생기는 기본 원인이 시작을 보는 것이다. 또 지구 자체들이 동형 원소를 합하려고 하는 작용도 영향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지질학적 고찰로 본 지층으로 인하여 지구 생성 연한을 정하는 것은 큰 오해하는 결론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원력으로 보면 한 존재체가 분립된다는 것은 외부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는 분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된다. 그러므로 지금 천체를 논할 적에 태양으로 부터 분립하여 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지구를 중심하고 보면 지구 자체는 확실히 스스로의 힘으로 원력을 갖고 있다. 이 위치는 완전 위치로 하고 있다.

그것은 원력 회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받을 수 없으면서 자연히 완전을 정하고 있다. 지금 지구를 중심하고 해를 보면 달의 원력작용으로 인하여 조수는 간만의 차를 보여준다. 그러니 이 원력작용은 다른 존재물에도

전체적으로 작용한다면 공기는 왜 작용하지 않는가? 그러면 공기 진동작용은 하루에 두 번씩 체험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해의 원력작용은 전부가 아님을 알면 내 논한 것을 알 줄 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여 근본을 과학적으로 밝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구를 두고 보자. 지구상에는 많은 존재물이 존재된다. 전부가 제각기 원력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작용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할 바다. 그것은 작용하되 지구원력의 작용은 힘보다 이하에 힘으로 작용하니 이동상을 보지 못한다. 자석 같은 것은 지구원력보다 이상에 원력작용을 하기에 이동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존재체가 구성되는 것도 이 원력 작용이 있기에 많은 원소들이 한 존재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식물을 살펴보자. 동식물이 체형 구성에 있어보면 식물은 진액을 통하여 동물은 혈관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은 한 핵체에 대한 부체 요소를 운반하여 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신 이동하여서 한 핵체를 대상 요소 부체를 보호하고 공급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내 한 자체에 느껴주는 배고픈 나 감각들은 핵체에 대하여서 완전 대상 될 수 없는 차이를 부체에 들 적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식욕이나 모든 요구는 그 부분에 대한 핵체에 대비되는 부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충당 못하면 그 핵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 유지를 요구하여 느끼게 하는 신경작용을 보는 것이다. 만일 원만한 입장이 되면 그 존재는 번식형을 취하는 바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 미에 대한 느낌은 다른 바는 핵체와 부체가 원력회전의 원소요소가 다르게 시작된다. 그러니 사람의 감각으로 좋고 안 좋고를 가르는 것은 대상 완성이 완성이나 미완성인 나를 결정짓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작용을 각 원소 회전이 달리하여 작용하는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작용이 시작하는 곳에 반드시 상대되는 원력작용을 보여주어 대상 목적하는 곳에서만 작용이나 감각이나 직감 직접적인 감각이나 나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니 원리를 넓게 하여 심리부분과 외계에 대한 관념 등은 금후 철학자들이 연구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창조성으로 보아 완전작용과 완전활동은 완전대상에서 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논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대상 존재는 벌써 내 자체에 있어 느끼는 동형 대상 요소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다. 육신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전부가 같은 대상 원력 작용이 외부와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원력작용으로 인하여 작용이라는 감각을 분석하는 두뇌의 신경작용으로 인하여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두뇌 신경작용은 심리(양심)에 한 부체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 부체작용의 심리에 핵체와 완전 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치될 때 언제나 남은 인식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인식은 한 완전체로서 제2인식을 구별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를 보아 전체와 합하고자 하는 바로 작용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심리내부적 (영체에) 인식한 부체로써 영속적 인식으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이란 것은 육신 대상원력 감각과 심리와 한 대상노선을 찾게 될 때 그 합함에 관계 자극을 표시하는 것을 지식이라 한다. 이 합하는 것에 관계가 완전히 심리와 하나가 되면 영체에 한 부체로 된 심리를 영체를 대하여 작용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심리 핵체(영체, 생심)은 작용을 시작하여 그 심리작용을 대하여 합하는 작용이 성립되면 그 작용적 지식은 언제나 영소를 성장하게 하는 자극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많은 자가 영적으로 노력하면 영의 생성과 성장도 빠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심리적 통솔을 보아 이상을 바라는 것은 영인체에 대한 완전부체로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재본성인 것이다. 그, 영인체는 모든 존재근본인 창조주와 합하는 부체니 모든 피조존재 요소를 주관할 수 있는 요소로써 되어 있으니 영인체는 심리(양심)으로 육신으로 외계까지 합하여 연한 창조성 선을 요구하니 사람은 이상 자극을 자연적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에 지각과 직적적인 감각과 직감상을 보여주는 원인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이니 지식으로 인하여서도 영적 발전을 돕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영과 대상 형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적 자극은 영이 통하는 부분은 느낄 수 있는 자극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이 심리의 최고인 봄으로써 알 수 있는 지관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체 외부와 심리부분까지 감촉할 수 있는 작용을 보여준다. 그것은 영인체를 핵체로 한 완전 대상 심리이니 통하는 바다. 영인체는 존재물 통솔 주관성이니 그 원인을 보여준다. 이곳까지 항상 늘상 자유로이 대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영인체와(심리핵체) 심리(양심)과 판이한 격으로 수수 통화하는 직감력을 체감하는 동시에 생각(사고)하지 않은 인식적 지식이 내게 전하여 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이이 완성하면 영인체에 대한 대상적 부체로써 영인체에 요구하는 요구 실상을 몸소 체득하게 하는 작용까지 자아 낼 수 있다. 이 모든 작용은 전부가 대상을 주로 한 창조세계에서 보여주는 기본적 창조원리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하고 물질계로부터 영인체의 세계까지 작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영인체에 근본 핵체(이영인체는 하늘에 한 부체)로 심리는 한 부체로 되어 있다. 이 심리 양심은 육신에 대하여 한 핵체로 육신은 한 부체로 되어 있다. 육신은 외계물 대하여 한 핵체로 외계물은 부체로 되어있다. 그러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선상에 처하는 바가 전 존재적 관계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연하여 있는 존재이니 분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육신과 영인체는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또 외계와도 경계를 정하지 못한다. 중심을 영인체로 하여 전체가 연결하여 있는 사람이니 과연 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계나 영계나 이 작용은 반드시 대상 원력 작용과 같은 작용으로 작용이다. 그러니 대상목적을 위한 바니 완전한 부체만 되면 완전 핵체를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완전 핵체는 완전부체를 향하기 위하여 비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완전존재란 것은 완전핵체와 완전부체가 하나로 합하여서만 완성적 목적을 완수하는 창조원리를 보니 우리는 육신의 완성이 크나큰 완성요소로 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상 목적을 위한 세계작용이나 동작을 보고도 그 핵체나 부체를 가지고야 시작하는 것을 알고 모든 방면에 적용하여 새로운 발명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을 간단히 다시 말하여 보자.

계속 원고 28쪽

왜 타락하게 하였는가?

문제는 쓰지 말 것

하나님이 본래-----→

왜 타락하게 하고 섭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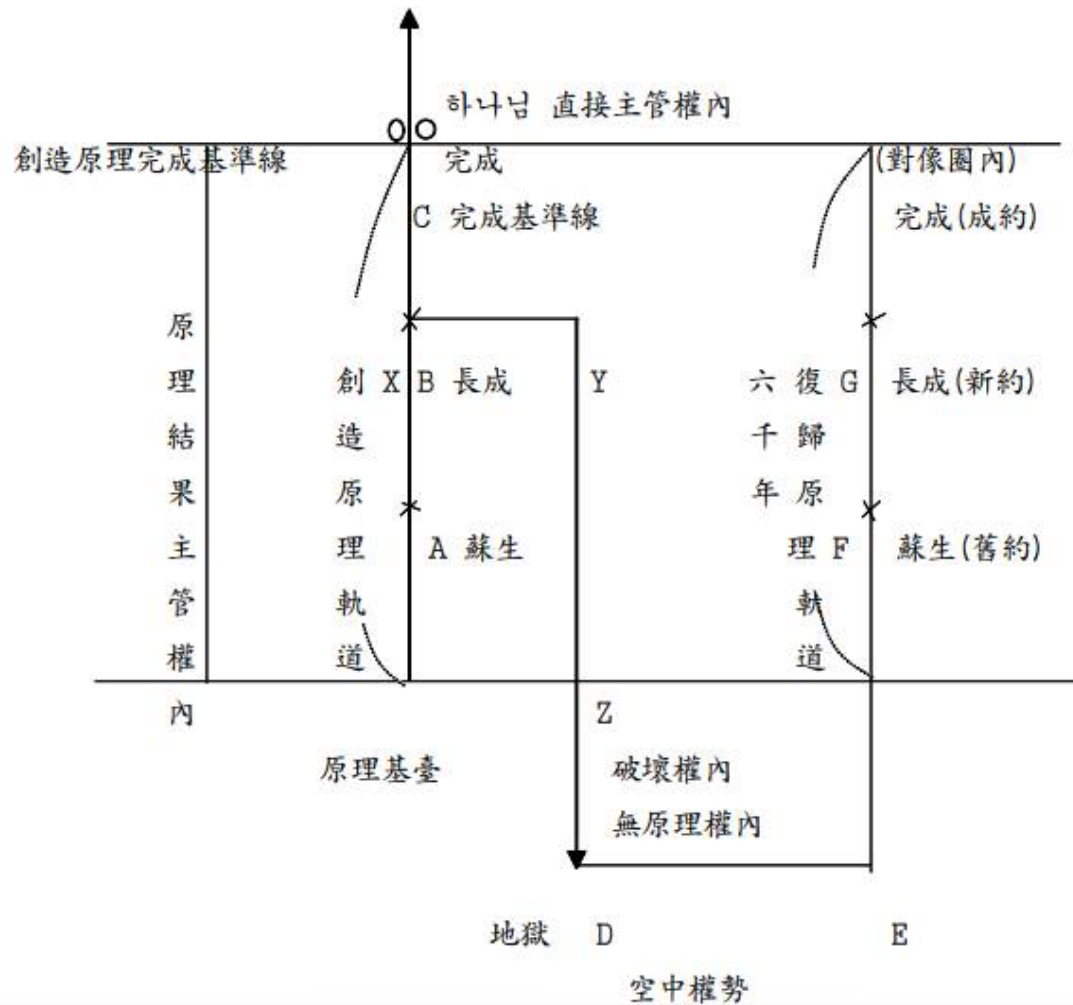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은 어떤 존재나 막론하고 창조원리케도를 갖고 지음 받았다. 그런고로 피조물이 있는 곳에는 원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 원리 없는 곳에 존재하는 창조물이 없다. 창조주는 원리로써 완성 못되는 존재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존재나 원리기준을 상실하는 곳은 자연히 파괴되는 것이다. 그것은 원리완성세계에 존재할 수 없음으로 무(無)로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바이다. 그러니 원리기준을 지으신 창조주는 질서적 원리단계를 두어 지으심이다.

어떤 피조물이든 존재하는 완성체로 되기 위해서는 원리기준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소생과정을 통하여 장성과정으로 또 장성과정을 지나서 완성이란 제도적 과정을 통과하여 완전한 존재물로 되겠끔 지은 피조물의 원리케도가 있는 바이다. 이 케도를 지나 원리기준기대를 넘어서 존재만 완성존재물로 하나님은 지으신 바이다. 이 원리를 완성한 존재들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바이다. 그런고로 모든 만물은 전부 완성위를 넘어서 격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원리케도를 원만히 통과 못하여 완성원리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바가, 즉 타락인 바이다. 사람만이 완성한 원리기준을 못 넘어서 바다. 그러기에 사람은 만물 주인공 격위를 상실한 바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또 완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상 그 원리를 세워 놓은 원리적 본래의 기준도 완전한 것으로 성사를 보아야만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결과를 보는 바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은 원리였던 사람의 창조원리 기준은 그 위(位)를 보지 못한 바니 사람은 원리완성위(位)에 있는 다른 만물을 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졌다. 그러니 전부 사람을 중심하고 지은 바가 창조목적이었던 것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 만물도 미완전위(位)의 미물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의 타락은 피조물 전체를 타락의 위에 두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전 창조라는 결과를 보게 된 셈이다. 그러니 하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한 바다. (창세기 6/6) 하나님은 완성원리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를 대하여 직접주관하기 위한 바가 창조주의 중심목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성한 존재물만을 주관할 수 있는 바이다.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리를 두어 그 원리로 주관하게 지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원리 미완성 시(時)에 처하는 존재는 간접적 주관으로 대하는 바다. 그것은 원리기준을 언제나 표시 못하는 바이므로 이 원리를 완성해야만 하나님이 지은 원리도 완전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의 성립을 본다. 만일 완전한 원리로 세운 존재물이 미완전한 위에 있으면 미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은 미완성한 분으로 되는 양상이니 완전한 완성위를 갖게 지은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관행사를 하려 하는 바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전한 주관행사를 못하고 간접적 주관행사위에 계시는 바이다. 그것은 타락된 원리는 미완성위니 직접주관을 못한다. 본래 하나님은 원리완성격자만을 주관하겠끔 기준을 세운 바가 창조적 중심 의의였기에 언제나 이 기준을 찾아 세우고자 하는 바가 섭리적 목적으로 된다. 그런고로 사람의 이상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원리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받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 주관권 내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바이다. 지금 타락된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원리로정을 못 통정한 과정상에 처하는 격위에 있기에 주관을 못하는 바다.

즉 피조물에 부여하여 주었던 원리로써 주관하기 위하여 완성위를 나오는 과정에 처한 양상이므로 하나님은 대할 수 없는 바다. 즉 원리결과주관권 내이다. 이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주관을 못한다. 만일 주관하면 창조원리를 무시하는 격이니 주관을 못한다. 그러니 其 基準 그 기준을 사람에게 대하여 찾아 올라오기를 요구하는 바다. 이런 과정에서 돌고 돈 것이 6000년 역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여 신앙을 요구하는 바는 타락되었으니 원리파괴존재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라는 것은 다시금 창조한 것과 같은 타락 전 창조기준을 복귀하고자 하여 요구하는 바이다. 즉 재창조 완성위를 잡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경로를 받게 하였을까 하면 그도 사랑으로 지으셨던 창조원리 기준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행위를 알면서 어찌 타락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

① 원리권 내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즉 위의 도표를 보아 창조원리 완성기준선상에서 주관하는 것이 본원리인데 원리결과주관권 내에 있는 X 타락점 행동을 간섭하면 본창조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됨으로 주관을 못하였다. 완전한 하나님이 지은 원리도 완전원리적 권위를 세워야 하나님적 위신을 세울 수 있는 바이므로 X 타락점 행동을 알면서 주관하지 못하였다.

② 사람을 만물의 주인격 완성을 위하여

즉 사람 외 피조물은 창조원리 궤도를 전부 지나 완성기준점 C 점을 넘어서 완성위에 처하는데 사람도 주인이되려면 원리적인 면에서 만물을 통과한 창조원리궤도를 더 원만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공동원리궤도를 갖고 있는 바인데 만물은 완성위를 넘고 있는 데는 사람만 완성위를 못 넘은 X 타

락점상에서 타락행동을 하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주관하면 창조원리의 완성기준을 못 간 존재이므로 공동원리체도를 못 통과한 존재적으로 되는 바니 만물의 주인격에 나설 수 없게 되는 바이므로 주관을 못하였다. 만일 주관한다면 사람은 하나님 주관의 최고의 소망이므로 원리완성체도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주관만을 요구하게 됨으로 원리완성격에 사람이 나설 수 없는 바이므로 주관을 못한다. 또 사람은 본래부터 사탄보다 높은 존재위에 처하는 존재인데 사탄이 유인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사탄을 삼가라 하면 사람은 벌써 사탄보다 못하다는 격으로 되는 바니 간섭할 수 없었다.

③ 원리창조주는 한분이라는 입장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주인공이며 피조물이 있는 곳에는 창조원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그런고로 원리와 존재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이다. 원리 없는 존재물이란 없는 바이며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바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짓지 않은 원리나 짓지 않은 존재의 행동은 대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런데 에덴동산에 아담 해와의 이 X 타락점 행동을 하나님은 알지라도 그런 원리는 자신이 짓지 않은 바이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사실적 존재와 같이 원리가 있는 곳을 대하는 하나님이 대하여 준다면 그 행동은 벌써 원리적 격에 선 양상으로 되는 격을 취하게 되는 바이다. 즉 타락행동 그 자체가 원리를 가진 행동의 존재격을 취하는 양상으로 되니 이런 원리가 없는 세계에 원리를 창조한 것이라는 바다. 그러니 결국 사탄도 원리가 없는 세계에 원리존재를 지은 것과 같은 입장에 섬으로 사탄도 제2창조주격을 취하는 바이므로 하나님은 타락행동을 대할 수 없는 바이다. 즉 창조주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원리를 바라서 타락행동을 간섭하지 못하였다.

이상이 타락시킨 원인인 바다. 타락세계가 시작하였으니 무원리형을 취하여 X C로 향상할 존재적 인간은 원리 없는 창조 전 원리무권 내를 향하여 X 타락점으로부터 Y Z D까지 타락되었다. 그리하여 사탄은 반원리를 시작한 주인으로서 반원리적 인간을 취하여 사망세계 지옥권 내로 주관을 시작하였다. 본래의 사람이 반원리이면 파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지옥에 가 있는 바는 사람은 창조기준이 영원률 기준하였던 바이므로 그 기준을 없앨 수 없는 바다. 사탄도 역시 영원을 중심하고 지었던 바였다. 그런고로 지옥이란 파괴된 무원리세계를 말한다.

사탄 대하여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바는 무원리세계권 내에 처하는

존재이므로 그렇게 말한다. 지금 사람 하나가 전부의 원리를 파괴함으로 죽으니 원리완성위에 있는 만물도 파괴된 듯 간접적 위에 처하는 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함으로 창조세계는 창조하기 전 세계와 같은 가치 없는 피조세계로 되었다. 그러면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섭리의 시작인 바다. 그것은, 즉 사람을 다시금 창조하여 놓은 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여 찾기 위한 것이 섭리목적인 바다. 사람이 X 타락점으로 Y Z D 까지 왔으니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적에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으로 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져 원리적 존재물로 되었으니 반원리 X Y Z D 선(線)은 말씀을 파괴한 선이니 말씀을 잃어버린 바와 한 가지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찾고 원리를 찾아서 근본 말씀의 원리완성인을 보고자 하니 하나님은 말씀 없는 파괴된 내인 사람세계를 대하여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섭리 성사를 위한 신앙의 목적이며 이 신앙의 결과는 원리완성인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대해 말씀을 세워 우리 사망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E F G H 복귀케도선은 잃어버린 창조원리 완성기준을 본 완성인 아담 해와를 찾아 놓기 위한 바가 최고목적인 바다.

그러므로 복귀케도를 보면 6000년 간이나 사람 하나 찾기 위한 목적으로 된다. 즉 타락의 침범을 받지 않은 아담 해와와 그 자녀를 찾기 위한 바다. 이 기대를 잡으려니 하나님은 타락하였지만 타락하지 않은 결과적 목적을 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지금 신령한 사람들은 에덴복귀를 많이 말하는 바는 기본기준 원리를 완성하라는 예고적 증거이다. 그리하여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를 찾아서 완성한 자녀들도 찾으려니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으로써 소생 장성 완성으로 한 원리기준 완성인 아담 해와와 그 자녀를 택하기 위한 바가 섭리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 알아야 할 바는 우리 인간은 완성한 원리적 부모를 못 가짐이다. 즉 타락적 부모는 가졌지만 하나님이 입증하는 완성한 부모를 못 가졌으니 이것을 찾음과 동시에 자체로써는 타락권을 지나서 완성부모를 대할 수 있는 완성자녀격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바다. 이 완성자녀격을 이루기 위한 바가 성서의 말씀을 증심한 신약신앙의 본의인 바다. 지금 예수는 누구신고 하니 타락하지 않은 완성인 인간의 아버지가 예수인 바다. 즉 완성한 아담격 존재가 예수인 바다. 이 완성한 아버지격 되는 예수는 완성한 어머니를 찾아 인류의 기준근본 원리완성을 잡기 위한 잔치를 어린양잔치라 한다.

그리하여 완성원리부모를 못가진 인류가 그 부모를 지상에서 모시는 시대가 지상천국시대이며 완성성약시대인 바다. 지금까지 인간은 완성적 부모를 통해야 하므로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가 재림을 고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부모를 찾은 자녀로서 천국생활이 처음으로 시작하여 낙원생활을 끝마치는 바이다. 우리 지상은 완성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면 낙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천국이란 완전완성복귀세계로써 시작을 보는 바이다. 이 목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6000년 간의 모든 실수를 취소하며 사탄까지 굴복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처하는 바이다.